

경주지부 13기 2차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일시 : 2025년 03월 10일(월) 13시
- 장소 : 경주지부 대강당 (1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자료집 순서

회의 순서	5
상징 마크	6
선 언	7
강 령	8
금속노동조합 평등수칙	9
금속노조가	10
대 회 사	11
경주지부 표창 명단	13
경주지부 13기 2년차 대의원 명단	14
보고 1. 금속노조 13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5년 투쟁방침	23
안건 1. 13기 1년차 결산 감사보고 승인 건	65
안건 2. 13기 1년차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승인 건	67
안건 3. 13기 2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 승인 건	201
안건 4. 13기 1년차 경정예산 및 13기 2년차 가예산 승인 건	227
안건 5. 13기 2년차 예산(일반.특별회계) 승인 건	237
안건 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249
안건 7. 경주지부 2025년 교섭위원 확정 건	253
안건 8.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257
안건 9.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및 파견 중앙위원 선출 건	261
안건 10. 경주지부 운영 규정 개정 건	267
안건 11. 결의문 채택 건	271
안건 12. 기타 건	275

참고 자료

금속노조 회의규정	277
경주지부 운영 규정	287
2024년 금속산별협약	305
경주지부 2024년 집단협약	329
경주지부 2024년 집단교섭 임금인상 합의서	357
경주지부 13기 2년차 소식지 및 교섭속보 모음	360

회의 순서

1부 개회식

- 대회선언 사회자
- 깃발입장 사회자
- 민중의례 사회자
- 내·외빈 소개 및 지부임원, 지회장 소개 사회자
- 대회사 지부장
- 격려사 민주노총경북본부장, 조합임원
- 표창 사회자
- 구호제창 전 체

2부 성평등 교육

3부 본회의

-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 서기 · 감표위원 지명
- 회순 통과
- 안건 토론
- 폐회 선언
- 결의문 낭독
- 파업가 제창

상징 마크



-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 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 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측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평등수칙

2022년 8월 9일, 21차 중앙집행위원회 채택

2023년 10월 10일, 60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전문]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다. 동지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차별과 소외 없는 노동해방 세상을 우리 안에서 실천하기 위한 성찰이다.

평등수칙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모든 동지들에게 안전한 활동공간이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동지들 사이의 관계]

1. 우리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각자 다른 주체임을 인정하고 존재 자체를 존중한다. 또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조합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조합원 간의 호칭은 '동지'라 하고, 상호간 존댓말을 사용한다. 조합원 간 소통을 위해 서로가 편안한 소통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분업]

1. 우리는 주체의식을 갖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체다. 동지들과 협력을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
1.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업무분담을 하지 않는다.

[다름에 대한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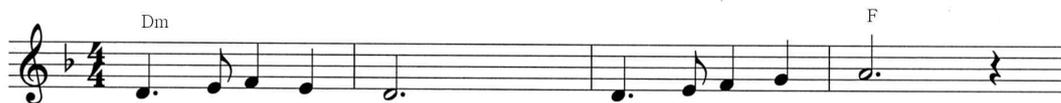
1. 장애, 이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금속노조에도 성소수자 조합원이 있다. 다양한 성적지향을 존중한다.
1. 동지의 외모는 개성으로 인정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외모에 대한 칭찬도 듣는 이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한다.
1. 음주를 강요하지 않으며, 뒷정리는 함께 한다.

[문제제기를 대하는 태도]

1. 누군가의 불편함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1. 문제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한다.

금속노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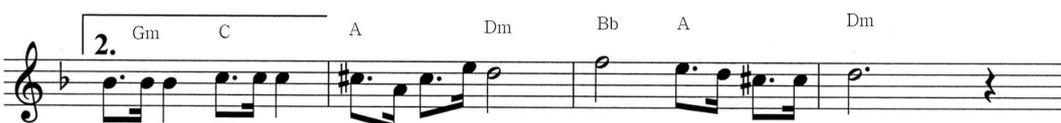
김호철 글,곡



노 동 자 의 길 해 방 의 길 에
 짓 누 를 수 록 더 욱 강 하 게



당 당한 역 사의 함 성이 되어 우 리 는 간 다



피 로써 뭉 쳐진 강 철의 대오 아 금 속 노 조 여



나 가 자 성 벽을 깨고 죽 음의 사 선을 넘 어
 말 하 라 외 처 불 러라 민 중의 선 봉에 서 서



노 동 자 없 이 해 방의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너 나 없 이 평 등한 나라 기 필 코 쟁 취하 리 라

대 회 사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13기 2년 차 현장의 중심으로 대의원의 역할을 맡은 동지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일 2025년, 투쟁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노동조합과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폭력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파탄 날 지경의 망국적 국가 위기 사태를 우리는 목도 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내란세력 일당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려했던 음모가 헌법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지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구속 투쟁에 선봉에 서서 길을 열었고 이에 대해 민주 시민들은 지지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노동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연대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내란동조세력들과 극우세력들의 폭력적 저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세력이 완전히 청산되는 마지막 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금속노조가 투쟁을 주저한다면 민주노조의 앞날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랑찬 대의원 동지여러분!!

자랑스런 경주지부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쉽고 가볍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매 시기 현장조합원들과 간부동지들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 기풍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지들의 책무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냉철한 정세인식과 실천투쟁으로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부여잡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의원 동지들의 토론과 결의로 사업이 결정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이 결의될 것입니다.

13기 1년 차의 실천 과정을 다시 확인하고 냉철한 평가한 뒤 2년 차 사업계획이 확정되길 바랍니다.

조직의 성장만큼 우리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논의도 오늘 이뤄질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충분한 토의를 통해 조직력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허한 선언적 말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혼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실천합니다.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 초심으로 2025년에도 살아 움직이는 현장을 만들어냅시다.

1년이 지난 뒤 더 성숙하고 성장한 경주지부의 자랑찬 조직이 되도록 함께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2025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경주시부 표창 명단

표창명	명단
조직강화상	• 코리아에프티 지회
단결투쟁상	• 에코플라스틱 지회 • 우영산업 지회
모범조합원 상	• 우영산업지회 박정환 조합원 • 아진카인텍지회 김정표 조합원

경주시부 13기 2년차 대의원 명단

순번	소 속	선거구	성 명	비고
1	금강지회	당연직	엄 기 훈	
2	광명산업지회	당연직	김 대 건	
3	KBI동국실업지회	당연직	김 정 욱	
4	다스지회	당연직	김 재 흥	
5	동진이공지회	당연직	지 광 환	
6	두양정공지회	당연직	김 수 하	
7	디에스시지회	당연직	최 강 민	
8	리어코리아지회	당연직	전 동 훈	
9	명성공업지회	당연직	우 정 완	
10	발레오만도지회	당연직	신 시 연	
11	비투지지회	당연직	이 종 혁	
12	세진지회	당연직	안 현 철	
1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당연직	김 영 선	
14	아진카인텍지회	당연직	서 동 찬	
15	에코플라스틱지회	당연직	김 만 조	
16	엠에스정밀지회	당연직	황 수 훈	
17	엠에스지회	당연직	박 지 웅	
18	우영산업지회	당연직	박 진 호	
19	인지컨트롤스지회	당연직	최 용 복	
20	일진베어링지회	당연직	김 희 진	
21	청우지회	당연직	노 태 현	
22	코레스지회	당연직	장 진 호	
23	코리아에프티	당연직	이 상 훈	
24	플라스틱옴니엄지회	당연직	양 명 덕	조합대의원
25	현담산업지회	당연직	이 상 윤	
26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당연직	임 영 진	
27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당연직	김 환 철	
28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당연직	이 명 호	조합대의원

29	현대엠시트지회	당연직	고 학 봉	조합대의원
30	현우지회	당연직	이 재 찬	
31	금강지회	1 선거구	최 규 선	
32	금강지회	2 선거구	김 관 형	
33	금강지회	3 선거구	김 춘 석	
34	금강지회	4 선거구	류 주 진	
35	금강지회	5 선거구	고 태 운	
36	금강지회	6 선거구	박 흥 집	
37	금강지회	7 선거구	조 장 래	
38	금강지회	조합대의원	백 한 기	
39	다스지회	1 선거구	장 경 춘	
40	다스지회	2 선거구		공 석
41	다스지회	3 선거구		공 석
42	다스지회	4 선거구		공 석
43	다스지회	5 선거구	류 훈	
44	다스지회	6 선거구	김 덕 구	
45	다스지회	7 선거구	김 형 우	
46	다스지회	8 선거구		공 석
47	다스지회	9 선거구	최 종 석	
48	다스지회	10 선거구	최 현 렬	
49	다스지회	11 선거구	정 호 성	
50	다스지회	12 선거구	우 지 훈	
51	다스지회	13 선거구		공 석
52	다스지회	14 선거구	최 재 소	
53	다스지회	15 선거구	박 남 석	
54	다스지회	16 선거구	장 기 원	
55	다스지회	17 선거구		공 석
56	다스지회	18 선거구		공 석
57	다스지회	19 선거구	임 도 형	
58	다스지회	20 선거구	노 진 걸	
59	다스지회	21 선거구	배 용 득	
60	다스지회	22 선거구		공 석

61	다스지회	23 선거구	이 준 호	
62	다스지회	24 선거구	임 선 욱	
63	다스지회	25 선거구	유 성 관	
64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이 제 욱	
65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노 진 우	
66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하 정 민	
67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황 점 순	
68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장 경 속	
69	KBI동국실업지회	1 선거구	이 지 락	
70	KBI동국실업지회	2 선거구	서 정 태	
71	두양정공지회	1 선거구	최 종 식	
72	디에스시지회	1 선거구	황 인 구	
73	디에스시지회	2 선거구	김 동 하	
74	디에스시지회	3 선거구	김 종 호	
75	디에스시지회	4 선거구	오 범 석	
76	디에스시지회	5 선거구		공 석
77	디에스시지회	6 선거구		공 석
78	디에스시지회	7 선거구		공 석
79	디에스시지회	8 선거구	박 영 훈	
80	디에스시지회	9 선거구	장 용 섭	
81	디에스시지회	10 선거구	권 혁 만	
82	디에스시지회	조합대의원	김 태 흥	
83	리어코리아지회	1 선거구	손 원 진	
84	리어코리아지회	2 선거구	황 영 태	
85	리어코리아지회	3 선거구	이 상 현	
86	리어코리아지회	4 선거구	김 광 철	
87	리어코리아지회	5 선거구	허 성 만	
88	리어코리아지회	6 선거구	송 재 익	
89	리어코리아지회	7 선거구	최 영 호	
90	리어코리아지회	조합대의원	박 해 근	
91	명성공업지회	1 선거구	이 임 건	

92	명성공업지회	2 선거구	최 규 찬	
93	명성공업지회	3 선거구	조 창 민	
94	명성공업지회	4 선거구	정 인 성	
95	명성공업지회	조합대의원	신 민 철	
96	발레오만도지회	1 선거구	이 종 수	
97	발레오만도지회	2 선거구		공 석
98	발레오만도지회	3 선거구	장 재 만	
99	발레오만도지회	4 선거구	장 상 환	
100	발레오만도지회	5 선거구	구 태 준	조합대의원
101	발레오만도지회	6 선거구	유 병 철	
102	발레오만도지회	7 선거구		공 석
103	발레오만도지회	8 선거구	한 승 우	
104	발레오만도지회	9 선거구	최 총 원	
105	발레오만도지회	10 선거구		공 석
106	발레오만도지회	조합대의원	김 환 진	
107	비투지지회	1 선거구	송 흥 성	
108	비투지지회	2 선거구	백 승 재	
109	세진지회	1 선거구	박 규 환	
110	세진지회	2 선거구		공 석
111	세진지회	3 선거구		공 석
112	세진지회	4 선거구		공 석
113	세진지회	5 선거구	이 자 영	
114	세진지회	6 선거구	조 민 균	
115	세진지회	7 선거구		공 석
116	세진지회	8 선거구		공 석
117	세진지회	9 선거구		공 석
118	세진지회	10 선거구	김 정 우	
119	세진지회	11 선거구	이 민 우	
120	세진지회	12 선거구	문 종 호	
121	세진지회	13 선거구		공 석
122	세진지회	14 선거구	이 상 근	
123	세진지회	15 선거구	강 도 현	

124	세진지회	조합대의원	최영욱	
125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1 선거구	조영빈	
126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2 선거구	김혜진	
127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3 선거구	김희정	
128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4 선거구	이상민	
129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조합대의원	이찬균	
130	아진카인택지회	조합대의원	서동찬	
131	에코플라스틱지회	1 선거구	박영호	
132	에코플라스틱지회	2 선거구	배정현	
133	에코플라스틱지회	3 선거구	박장근	
134	에코플라스틱지회	4 선거구	하경오	
135	에코플라스틱지회	5 선거구	김성현	
136	에코플라스틱지회	6 선거구	김인하	
137	에코플라스틱지회	7 선거구	장승호	
138	에코플라스틱지회	8 선거구	박석근	
139	에코플라스틱지회	9 선거구	김수혁	
140	에코플라스틱지회	10 선거구	김주철	
141	에코플라스틱지회	11 선거구	김준모	
142	에코플라스틱지회	12 선거구	남순열	
143	에코플라스틱지회	13 선거구	류성욱	
144	에코플라스틱지회	14 선거구	정영훈	
145	에코플라스틱지회	15 선거구	구본운	
146	에코플라스틱지회	16 선거구	허태주	
147	에코플라스틱지회	17 선거구	김무성	
148	에코플라스틱지회	18 선거구		공석
149	에코플라스틱지회	조합대의원	손수환	
150	에코플라스틱지회	조합대의원	한효섭	
151	엠에스지회	1 선거구	권두현	
152	엠에스지회	2 선거구	김지수	
153	엠에스지회	3 선거구	손장혁	
154	엠에스지회	4 선거구	이상헌	
155	엠에스지회	5 선거구	김민석	

156	엠에스지회	6 선거구	서 일 용	
157	엠에스지회	7 선거구		공 석
158	엠에스지회	8 선거구	이 상 하	
159	엠에스지회	9 선거구		공 석
160	엠에스지회	10 선거구	신 기 성	
161	엠에스지회	11 선거구	윤 영 준	
162	엠에스지회	12 선거구		공 석
163	엠에스지회	13 선거구		공 석
164	엠에스지회	14 선거구		공 석
165	엠에스지회	15 선거구		공 석
166	엠에스지회	조합대의원	이 희 석	
167	우영산업지회	1 선거구	김 인 준	
168	우영산업지회	2 선거구	엄 병 진	
169	우영산업지회	3 선거구	윤 민 기	
170	우영산업지회	4 선거구	조 선 제	
171	우영산업지회	5 선거구	강 미 정	
172	우영산업지회	6 선거구	김 진 현	
173	우영산업지회	7 선거구	이 혜 자	
174	우영산업지회	8 선거구		공 석
175	우영산업지회	9 선거구	정 대 주	
176	우영산업지회	10 선거구		공 석
177	우영산업지회	11 선거구		공 석
178	우영산업지회	12 선거구	허 남 행	
179	우영산업지회	13 선거구	최 동 윤	
180	우영산업지회	14 선거구		공 석
181	우영산업지회	조합대의원	김 용	
182	인지컨트롤스지회	1 선거구	황 명 속	
183	인지컨트롤스지회	2 선거구	김 명 순	
184	일진베어링지회	1 선거구	최 원 호	
185	일진베어링지회	2 선거구	하 정 수	
186	일진베어링지회	3 선거구	김 인 국	
187	일진베어링지회	4 선거구	김 명 균	

188	일진베어링지회	5 선거구	김진규	
189	일진베어링지회	6 선거구	최민석	
190	일진베어링지회	7 선거구	서상훈	
191	일진베어링지회	8 선거구	박정호	
192	청우지회	1 선거구		공석
193	코리아에프티지회	1 선거구	임성우	
194	코리아에프티지회	2 선거구	박진석	
195	플라스틱옴니엄지회	1 선거구	황채석	
196	플라스틱옴니엄지회	2 선거구	정민석	
197	플라스틱옴니엄지회	3 선거구	황기준	
198	플라스틱옴니엄지회	4 선거구	이현성	
199	현담산업지회	1 선거구	도경록	
200	현담산업지회	2 선거구		공석
201	현담산업지회	3 선거구	정태화	
202	현담산업지회	4 선거구	김병민	
203	현담산업지회	5 선거구		공석
204	현담산업지회	6 선거구		공석
205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1 선거구	강제경	
206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2 선거구	박기복	
207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3 선거구	이경우	
208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 선거구	최병호	
209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2 선거구	이준호	
210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 선거구		공석
211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4 선거구	최해성	
212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5 선거구	최현욱	
213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6 선거구	손광일	
214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7 선거구	조영식	
215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8 선거구	류성문	
216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9 선거구	안윤철	
217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0 선거구	이재근	
218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1 선거구	손창희	
219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2 선거구	김병찬	

220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3 선거구	미 가	
221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조합대의원	김 태 흥	
222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 선거구	이 미 향	
223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2 선거구	윤 병 한	
224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 선거구	이 승 진	
225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4 선거구	이 동 찬	
226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5 선거구		공 석
227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6 선거구		공 석
228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7 선거구	이 성 희	
229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8 선거구	오 용 우	
230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9 선거구		공 석
231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0 선거구	신 정 걸	
232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1 선거구		공 석
233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2 선거구		공 석
234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3 선거구		공 석
235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4 선거구	정 연 재	
236	현대엠시트지회	1 선거구	김 세 영	
237	현대엠시트지회	2 선거구	백 규 태	
238	현대엠시트지회	3 선거구	김 동 환	
239	현대엠시트지회	4 선거구	한 상 업	
240	현대엠시트지회	5 선거구	정 준 용	
241	현대엠시트지회	6 선거구	강 경 인	
242	현우지회	1 선거구	정 연 규	
243	현우지회	2 선거구	방 병 태	
총원 243 명, 공석 43 명, 재적 200 명				

**보고 1. 금속노조 13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5년 투쟁 방침**

**금속노조
13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5년 투쟁방침을
보고 드립니다.**

13기 2년차 사업계획 및 2025년 투쟁 방침

1 2025년, 국내와 국외의 정세

1.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이후의 한국

1) 총괄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저지른 짓은 국가 원수인 자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헌정을 중단한 '친위 쿠데타(국가전복)'이며 법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군사반란임
- 반란이 민중의 저항으로 실패했으나 정작 반란의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란을 집행하거나 동조한 무리가 세력을 잃지 않고 계엄의 정당성, 탄핵의 부당성, 내란죄 부정을 주장하고 있음.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과 처벌이 지지부진한 상황
- 내란을 막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대중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인 진보층인 40~50대만이 아니라 내란을 가부장적 질서의 강화로 받아들인 2030여성 세대가 큰 특징을 이루고 있음. 다소 이질적인 구성처럼 보이나, 저항하는 대중은 '내란 반대'를 넘어 짧은 기간의 투쟁을 통해 '연대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사회적 울림을 만들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적폐 청산'은 커녕 적폐들이 살아남아 집권하고 내란을 결행할 정도에 이른 점을 생각하면, 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에서 출발해야 함을 알 수 있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친 진보적 사회운동 집단은 현재의 내란 저지 투쟁을 2025년으로 연장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서 노동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한 해 동안 완강하게 진행하여 예상되는 조기 대선 이후의 신정권 체제에서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 결국 2025년 한 해의 투쟁이 이후 10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

2) 정치

- 2025년의 정치 국면은 크게 ▲ 윤석열 현재 탄핵 심판 결정까지의 시기(2~3월경) ▲ 현재의 탄핵 인용과 파면으로 인한 60일간의 조기 대선 시기(4~6월경) ▲ 대선 개표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하반기로 나뉘며 운동의 국면과 시민의 삶도 이 시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조기 대선인 관계로 인수위 없이 개표 다음 날 대통령 취임)
- 총선은 아직 3년이 더 남은 관계로 신정권 체제에서 개혁 입법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구도의 변화가 필수임. 즉 국민의힘 세력이 내부에서 붕괴하고 분열하도록 대중 투쟁을 통해 파상공

세를 전개해야 함

-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우경화와 대중운동과의 거리 두기가 예상되는 속에서 양당 중심의 기성 정치 체제를 조합원과 시민 대중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투쟁이 특정 정치 세력의 디딤돌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이는 민주노조운동이 진보정당 중심의 정치사업이라는 원칙을 관철하고 실제로 진보정당의 강화를 이룰 때 가능함. 노조는 현장의 조합원이 진보정치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하반기 개헌의 가능성보다 개헌논의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지에 더 주목해야 함. 기득권 세력의 권력 재생산과 장기 지배를 위한 권력 구조 개편에 반대하고 1987년 헌법을 뛰어넘는 사회 논의와 제헌 수준에 가까운 권리의 확장이 사회운동의 요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개헌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노동운동은 '성장하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장기저성장과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2023년 111차 ILO의 총회의 '새로운 사회계약'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한국사회 전반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중심으로 다시 판을 짜자는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야 함

3) 경제

- 윤석열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의 제거는 한국 경제에 청신호이나, 트럼프가 몰고 오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증대는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될 것임
- 1월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1.8%로 추정 발표함. 그러나 모든 전문가들이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을 주목하며, 트럼프가 예고하는 관세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0.2%p의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는 상황. 그럼에도 2025년 상반기에는 책임 있는 권력의 부재를, 하반기에는 신임 정권의 정책 미숙이 우려되는 조건임
- 세계 경제는 ▲장기저성장의 지속과 이로 인한 성장률의 전반적인 하락 ▲국지적인 전쟁의 미해결 ▲국제적 협력의 단절과 자국 이기주의 심화 ▲이를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조건이 2024년에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이 분명한 추세
- 수출이 호전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1년 내내 악전고투할 것으로 전망. 한국 경제는 이를 상쇄할 내수시장이 튼튼하지 못하고 전체 경기와 함께 침체하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하반기에 신정권이 들어서면 당장에 급한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버거울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정책의 미래지도를 만들지 못하면 모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공감을 사업장에서부터 중앙까지 노조가 나서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통계청). 이는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소비가 줄었던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 하락. 지난해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광범위한 상품군에서 나타남.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결합한 악조건이 새 정권 출범 이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기술의 변화는 시장으로 연결된 지구촌에서 특정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실제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국가 단위의 정치(법질서)나 경제(국내 시장)의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 동시에 AI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음. 기술에 대한 사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특히 시장에 변화를 맡겨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운동 차원의 저항이 지구적으로 조직될 필요도 같이 커지고 있음

4) 산업

(1) 자동차업종

- 2025년 자동차 산업 전망은 국내생산-소비물량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수출물량 축소로 전년 대비 1.4~1.5% 감소할 전망이다. 2025년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9,471만 대로 예상
-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 생산은 감소하고 내수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쳐 전년 대비 1.4~1.5% 감소한 406.4만 대(산업연구원 추정)에서 407만 대(KAMA 추정)로 전망됨. 국내 소비는 위축된 내수 시장의 경색이 지속되어 전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측. 수출 전망도 △통상·무역 정책 △자국 생산 기조 △자동차 재고 증가 및 중국산 자동차 경쟁력 강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액과 물량 모두 감소 예상함
-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와 보편관세 부과로 현지 생산 늘릴 것으로 전망.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축소와 연비 규제 완화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수출 위축과 전동화 부품 생산 관련 재정 부담 가중 요인임. 미국이 관세율 20% 보편관세 도입 시 대미 자동차 수출은 최대 13.6% 감소 예상

(2) 조선업종

- 2024년 신조선 발주는 전년도 발주량을 크게 상회. 신조선 수주에서는 중국이 약진. 반면 2025년 신조 발주는 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이유는 조선불황 이후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며 공급능력이 축소되었고, 조선소들이 시황 호황에도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아 연간 인도량 증가도 제한적이기 때문. 또한, 조선소들의 높은 수주 잔고로 신규 수주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
- 한국수출입은행은 2025년 신조선 시장이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발주 감소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를 전망하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점유율 약화에 기술력과 품질, 생산능력 개선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 반면 삼일회계법인은 LNG선 수주 확대를 예상하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는 양호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여 대비됨
- 트럼프의 화석연료 선호로 LNG 선박 수요 증가와 국내 조선소의 LNG선 발주 증가 전망 나옴. 이는 친환경선박 발주 후퇴 및 교역 위축 우려로 이어짐. 그러나 연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메탄, 암모니아 등과 같은 친환경연료 추진선 발주도 이어질 전망

(3) 철강업종

- 2025년 철강 수요와 관련하여 유럽과 신흥국의 경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중국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25년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철강 수요는 신흥국의 경우 5~10%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EU, 러시아, 일본의 경우 0~5%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철강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수요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철강 원료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동시에 제조업 재건 공약은 미국 내 조강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철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분 가져올 수 있음. 또한 한국 철강 산업은 미국의 원산지 규제 강화로

인한 철강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도 존재함

(4) 전기전자업종

- 정보통신기기산업은 2024년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도 성장세 지속될 전망. 신제품 수요 증가와 AI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와 내수 회복 전망됨. 반도체산업은 2024년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으며 2025년에도 성장세 지속될 전망. 2023년에는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생산이 축소되었으나 2024년 AI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생산량 회복됨. AI산업 인프라 투자와 AI디바이스 출시에 따른 수요증가로 생산 확대 지속될 전망
- 가전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낮은 수익성의 영향으로 해외 생산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가전 브랜드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의 추격에 따른 압박이 커지고 있음.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 물량은 22년 9.3%에서 23년 7.7%로 감소 추세임
- 이차전지산업은 전기차 부문의 위축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 이어짐. 미국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감소로 돌아섰으며 트럼프의 친환경차 관련 지원책 축소로 위축세는 가중할 것으로 전망. 한국 기업은 북미 집중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88%에 달하고 이는 더 늘어날 전망

5) 노동

-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국가 안에서도 꼴찌 수준의 낮은 공공성과 상위권의 노동시간을 특징으로 함. 과잉노동과 과소복지라는 한국 사회의 모순은 평균 임금수준이 높은 편임에도 결국은 노동자와 부양 가족의 '삶의질'과 '행복지수'를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됨.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노동강도의 완화와 보편적 복지의 증대를 통한 삶의 여유를 확보하는 투쟁은 여전히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목표임
- 그러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하는 반면 우리 사회는 연금의 생계 대체 효과가 미비하고 기타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못해 고령층의 경제 대책이 순식간에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됨. 고령 인구의 빈곤화는 양극화를 가속하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소이자 경제 문제임. 사회복지를 제대로 갖춰 고령인구의 빈곤화를 막는 것이 정답이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자 증세 등 다른 사회제도의 급격한 변화와도 연동된 문제이기에 정권과 자본은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런 배경에서 최근 퇴직자의 재고용이나 정년의 조정 같은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
- 노동운동은 고령자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법과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은 끊임없는 개악 시도에 시달리고 집행과 처벌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꾸준히 상실함. 그 결과 중대재해의 발생은 법 제정 직후의 짧은 감소세를 뒤로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의 투쟁과 동시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투자와 자본의 책임이 강조되도록 만들어야 함
- 2024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무력화함에 따라 사업장별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됨. 사업주들은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그 한 방편으로 사업장 수준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만약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도 임금체계 개편과 쉬운 해고 도입을 들고 나올 경우 정권과 자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화 같은 주장을 자본이 다시 들고 나올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힘을 얻지

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 오히려 경제 조건의 악화를 핑계로 법정 최저임금의 후퇴가 논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전히 중심적인 정책 수단이지만 노동운동은 시선을 사무직을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과, 특히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인하고 법과 단체협약의 보호 안으로 들이는 방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만큼이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함. 인구절벽 현상으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당연한 조건에서 이주노동자가 자본을 위한 값싼 노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동운동의 힘을 투입해야 함. 금속노조는 지난해 쟁취한 양질의 일자리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기업이 청년의 고용과 신규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함

6) 사회/운동

- 한국은 양극화의 심화에 더해 지역/세대/성별/진영 등으로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라는 특성을 가짐. 윤석열 정권은 분열과 갈등을 더 키우고 악화시킨 주범. 그러나 윤석열이 사라진다고 해서 골이 깊은 분열과 갈등이 저절로 치유되지 않음.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사회운동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쿠데타 이후 거리로 나온 대중의 정서는 '응징'에만 있지 않고 "연대하는 삶, 저항하는 사회, 공생하는 경제"라는 가치로 확장하고 있음. 사회운동이 이러한 열망을 읽고 실천으로 승화하지 못한다면 진보적 사회운동은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를 놓치는 것임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 구성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음. 그러나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노동시장의 고령화 문제도 세대의 갈등으로 둔갑시키거나 노동자 내부의 반목으로 변질시킬 수 있음. 한국 사회의 연대성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며 복지나 공공성의 강화 투쟁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함. 동시에 이주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한 국가이면서 정작 이주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회인지 내부의 자성과 변화도 시급하게 요구됨
- 한편, 내란 이후 열린 광장을 채우는 2030여성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인식되어야 함. 1987년 6월 항쟁이 개발독재에 억눌려 있던 노동자의 폭발로 이어졌듯, 군사문화와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한국 자본주의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제도화했고, 이에 대한 순응을 거부한 여성들이 쿠데타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를 통해 폭발로 이어지는 것임. 여성 대중들이 연대를 장애인·농민으로 확장하는 모습이나 평등을 실천으로 체득하는 모습은 기존의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대목이며 집회 방식 등 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두 번째 트럼프 집권을 맞는 세계

1) 기후

- 기후 위기는 악화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 변동으로 인해 각종 자연 재난이 증가하며 시민의 안전만이 아니라 문명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
- 기후 문제는 본질적으로 생산과 성장을 위해 탄소의 이용과 배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임. 이러한 인식은 위기의 심화와 함께 공감대를 넓히며 확산하고 있으나 동시에 70억 명에 달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 방식 자체가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탄소 배출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음

-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회운동의 발전이 요구되나 대표적인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트럼프의 재집권과 극우 세력의 정치적 성장은 이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2) 공급망 변동

- 트럼프 정부가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이익 중심의 고립주의 통상무역정책,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상관관계 약화) 강화 등은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특히 미국을 주요 시장국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산업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아닌 공급망을 포함해 미국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조건이 형성될 것. 이러면 자본의 이익 증대와 국내 산업의 공급망-일자리 성장의 불일치가 커질 수밖에 없음. 또한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에 따라 공급망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2023년 기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수입총액의 22.2%인데, 이 가운데 중간재가 67.2%에 달함
- 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 다극화가 강화되는 세계적 흐름,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자본의 이익이 아닌, 국내 공급망-일자리 성장을 중심에 둔 산업정책 요구를 설계하고 관철하는 노동의 노력이 필요

3) 국제관계

-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지구촌의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음
- 트럼프의 재등장은 미국의 패권이 세계 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2기 트럼프 권력은 일론 머스크로 상징되는 새로운 독점 자본과 결합해 노동을 공격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임. 이미 머스크는 당선된 부통령의 존재감을 지우고 유럽의 극우파 정치, 한국의 탄핵반대 진영 등을 횡단하며 내정 간섭의 줄타기를 하고 있음
- 유럽에서 극우파·파시즘 세력이 힘을 얻으며 성차별과 인종주의를 강화하고 갈등을 키우며 새로운 이념 전쟁을 시작하고 있음. 경제의 위기와 기성 정당의 무능, 국가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우경화 흐름은 가속하는 경향. 특히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이었던 노동자의 우경화가 반전되지 못하고 있음
- 세계 정세의 불안은 국지적인 분쟁이 장기 지속하면서 상호 심화하는 형상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양국의 경제를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극동의 한반도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번지며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를 더욱 요동치게 만들고 있음.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는 지역 내 국가들의 고질적인 정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미얀마 군사정권의 폭압이나 팔레스타인 민중이 처한 고통을 국제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도주의의 국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

4) 동아시아

-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화하고, 특히 군사력의 증대와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평화의 문제가 동아시아 전체 민중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

-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은 중국과 대만의 소위 양안 관계,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 문제와 맞물려 있음. 특히 미국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7개국 중 4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나라가 군비를 확장하고 있음.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세계 군사력 순위의 1위부터 5위를 차지함
- 세계의 무력이 집중하는 지역인 동아시아의 특성상 정부간 노력만으로 온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님. 202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이고 2025년이 원폭 투하 80주년이기도 하다는 점은 동아시아에서 핵무기가 역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줌. 따라서 평화를 위한 지역 내 민중연대의 필요와 국제적인 반전평화군축운동을 통한 역내 긴장 완화가 절실함
- 마침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을사늑약의 120주년, 한일협정이 맺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복권 등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함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운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전망됨

3.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기회

1) 노동운동 반전의 기회

-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는 대중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시각과 연대가 확산하고 있음. 이는 우선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온 성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쿠데타 당일부터 투쟁의 제일선에서 후퇴 없는 투쟁을 완강하게 벌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가 만든 결과임
- 그러나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내란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동원의 능력을 갖춘 조직된 사회운동이 사실상 노동운동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저항하고자 하는 시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진지는 민주노총밖에 없음.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를 함께 가져야 함
-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조합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연대의 성장을 놓치지 말고 더 확장해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청산 이후 새로운 나라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읽어낼 필요가 있음. 조직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이 임금 노동자 계층 전반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으며 나아가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투쟁한다는 점을 안으로는 조합원들과, 밖으로는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의 존재가 모두의 보편적 이익과 맞닿으며, ‘파업의 금지’가 아니라 ‘파업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반동을 막는 방파제와 같다는 인식이 대중에게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함
-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길은 ▲ ‘나라’는 모르겠고 ‘나’라도 살자는 내란 세력과 그 정치결사인 국민 의힘을 청산하는 **민주주의 투쟁**과 ▲ 노동의 존재와 가치가 우리 사회공동체의 토대이자 중심임을 확인하고 제도로 보장하는 **사회구조개혁 투쟁**에 있음. 이를 압축하면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노동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으로 제시할 수 있음

2) 투쟁을 통한 금속노조의 강화

- 광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민주노총의 앞에는 언제나 금속노조가 있다는 자부심을 12.3내란 이후

의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과 함께 확인하고 있음. 이 투쟁을 2025년에도 확장하고 지속해서 ‘투쟁을 통해 단결하고, 투쟁을 통해 승리한다’는 금속노조 운동의 기풍을 19만 조합원과 현장이 공감하고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함

- 그러나 투쟁이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나, 투쟁의 강도가 자칫 우리 내부의 산적한 문제나, 오류, 갈등을 감추고 노조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조용하는 조직의 혁신을 뒤로 미루는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2025년 금속노조의 투쟁이 ▲기존의 조직에는 활력을 ▲신규 조직에는 의식의 성장을 불러오고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을 고취하며 ▲새로운 활동가·간부를 키우고 ▲미래의 지도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아울러 ▲단결을 만드는 민주적 토론의 일상화와 ▲현장권력을 강화하는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야 함. 이를 통해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며, 결정은 반드시 수행해서 모두의 힘으로 쟁취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금속노조가 사업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적 의식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함
- 13기 2년차 노조의 투쟁과 사업이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금속노조답게 싸운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채워 2025년의 거대한 승리를 향하도록 모든 조직과 모든 조합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

2 13기 2년차 사업 방향과 목표

1. 2025년 사업과 투쟁의 중심 기조

- 유동적·역동적 정세에 맞게 언제나 금속노조 최대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를 갖추
- 내란 세력과 정책의 완전 청산,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지구력을 가지고 줄기차게 전개.
- 내란 세력의 결집, 극우세력의 준동에 맞서 노동자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각오를 조직 안에 굳건히 세움
- 예상되는 대선과 정권 교체 정세를 적극 활용해 산업·노동 정책 요구를 전면화
- ‘내란 세력 청산,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7월 19만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한다는 결의

2. 2025년 목표

- 1)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완전 청산과 노동중심 민주주의의 토대 마련
- 2)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쟁취
- 3)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사회 여론의 형성
- 4) 공급망-일자리 보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 산업·노동 정책 개입력 확대
- 5) 노조 조직률 확대 등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확장

3. 2025년 금속노조 투쟁 중심 구호

- 2025년 대선 정치투쟁, 임금단체협상 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관통할 금속노조 투쟁의 중심 구호

19만의 총파업으로
내란 세력 완전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3 핵심투쟁 과제

핵심 투쟁	○ 내란 세력 완전 청산!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전면 개정!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하는 19만의 투쟁
중점 투쟁 사업	① 노동의제 전면화하고 민주주의 강화하는 대선 투쟁 ② 산업별 노사관계 쟁취와 제도화를 위한 투쟁 ③ 공급망-일자리 위기와 인구절벽 대응 산업 투쟁 ④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공세적 조직화 투쟁

1. 핵심 투쟁

1) 내란 세력 완전 청산!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전면 개정!

- 내란의 종식은 단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파면하거나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을 실행한 자들을 내란죄로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을 방해한 세력 전반과 정치의 무능을 가져온 기득권 세력과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사회 개혁 투쟁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임. 특히 내란 세력의 정치적 구심인 국민의힘을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해체하는 것이 2025년 노동운동이 주력할 과제임
-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조속히 실현하고, △윤석열이 후퇴시키거나 도입한 노동 탄압의 법제도를 원상회복하고, △ILO 핵심협약이라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투쟁을 함께 진행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금속노조는 ‘12.3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조합원의 투쟁 태세를 2025년으로 이어받아 조기 투쟁 전선을 빠르게 형성해야 함. 그리고 지구력을 갖추고 1년 내내 정권과 자본에 대한 파상공세를 벌여야 함. 이를 통해 더는 기득권 세력이 군사 반란을 꿈꾸고 실행할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의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세력 청산!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금속노조

2) 투쟁의 방향과 목표

- 금속노조는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시민의 투쟁과, 지역의 투쟁을 뒷받침하는 연대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2월 이후로도 현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과 결의로 총파업을 준비함
 - 현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즉시 파업 돌입, 민주노총과 함께 비상한 투쟁 전개(만약 정기 대의원대회 이전에 현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노조 중립의 결정으로 총파업)
 - 광장의 투쟁과 현장을 연결하고 조합원의 투쟁 의지를 복돋기 위해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전체 사업장 교육 또는 총회를 열고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
 - 현재 탄핵심리가 3월 이후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속한 탄핵 인용-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정치총파업을 결의하고 실행. 내란 동조세력과 극우 집단의 결집과 준동을 제압
- 윤석열만 파면되면 내란이 정리된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가져야 함. 내란을 직접 실행한 자들은 법정에서 세우고, 동시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국정 인사들 전반에 대한 청산이 이어져야 함. 그리고 윤석열의 쿠데타가 내란임을 부정하고 청산 작업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무력화하는 투쟁이 청산의 핵심 과제임. 궁극적으로는 언론방송 및 내란의 도구로 이용된 국가 기구 체제 전반의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 투쟁을 완성해야 함
- 국회에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의 재상정과 통과를 요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일정을 구체화함. 이 과정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후퇴시키거나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의 결정 이전에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표하도록 대중 투쟁을 전개해야 함. 회계공시 등 윤석열이 도입한 노조 탄압 제도를 폐기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공시 거부 동참과 가맹산별조직의 공감대를 조직함. 이를 통해 새 정권 취임 후 바로 회계공시 시행령 폐기토록 압박
- 2월로 예고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입장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일으키는 각종 기획사업을 배치하고, 연말 정기국회시기까지 법 개정의 실물화를 이루기 위해 끈기있는 투쟁을 전개함. ▲노조할 권리의 보장, ▲노동3권의 실질화,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교섭권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타임오프 폐지, ▲산업별 노사관계 제도, ▲방위산업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 쟁취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
- 올해 모든 조직이 작업중지권 요구를 전면화하고 싸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 받도록 만들며, 동시에 금속노조의 투쟁을 통해 산안법을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사회 의제로 끌어 올려야 함. 특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유명무실해진 중대재해처벌의 집행과 처벌 강화를 위한 재개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대선 시기에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제기함

3) 7월 총파업 기획

(1) 왜 새 정부 임기 초반부터 큰 투쟁을 벌여야 하는가

- 수구-보수 양당 간 극한 대립 구도가 만성화돼 있어, 새 정부 임기 초반 소위 '허니문 기간'은 없을 가능성이 큼. 수구세력의 준동은 새 정부가 야당 탓을 하거나 국민통합 타령을 하며 진보·개혁 과제를 뒷전으로 미룰 핑계가 될 것
- 지난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서 확인됐듯,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정책의 우경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큼. 특히 박근혜 퇴진 국면과 달리 윤석열 내란 사태는 정경유착 이슈와 연동돼 있지 않아 과거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친재벌 기조로 경도될 수 있음
- 따라서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수립되는 임기 초반부터 노동기본권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도록 압박하는 조직노동의 위력적 투쟁이 필요
- 특히 윤석열 퇴진광장으로 분출된 대중의 힘이 전농의 남태령 투쟁, 민주노총의 한남동 투쟁뿐 아니라 거제의 조선하청이나 한국유틸칼하이테크 등 투쟁사업장 문제에까지 연대가 확장되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음. 새 정부 집권 후에도 이 힘이 사그라지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여는 싸움을 전개해야 함

(2) 금속노조 7월 총파업의 의미

- (사회적 의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파업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함.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투쟁을 통해 금속노동자의 파업이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세력에 맞선 저항의 수단일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증명해 냈음. 이제 저항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파업이 쓰임새가 있음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는 제도개선은 정권이 교체된 정세라고 해서 위력적 투쟁 없이 쟁취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
- (노동관계에서의 의미) 새 정부에 금속노동자가 산업을 멈출 힘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함.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층위에서 노조의 정부 정책 개입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실효성 없는 노사정 대화에 국한되거나 노조 의견수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조직노동의 대응력이 약하면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일 게 뻔함. 심화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공급망-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산업·노동정책에 대한 산별노조의 개입력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을 멈추는 수준의 위력적인 투쟁이 필요함
- (노사관계에서의 의미) 자본에게 금속노조의 위력을 보여줄 적기임. 윤석열 정부 시절 타임오프 감독 등 반노동 정책 기조를 등에 업고 노조를 탄압하거나,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늘었음. 윤석열이 날아가는 첫 해 교섭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전개해야 전 조직적으로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교섭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생산 타격을 핵심 전술로 삼아야 함

(3) 7월 총파업의 상

- 국내법이 ILO 핵심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투쟁을 19만 조합원이 함께 전개

- 윤석열 노동개악 정책 폐기와 더불어 노동 중심의 산업·노동시장·노사관계 정책이 수립·집행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
-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가 파업권을 온전하게 누리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며, 노동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임을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각인시킴
- 산별임단투에서 기후·공급망·일자리·인구구조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체 사업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4) 총파업의 대정부·대국회 핵심 요구(개요)

<p>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 산별교섭 제도화 *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 타임오프 노사자율 보장 * 노조 회계공시 제도 폐기 *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한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일터 마련 <p>② 제조업 양질의 일자리 보호·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전환기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정교섭 보장 * 재벌·대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에 대한 보호 책임 제도화 * 불법파견 감독 및 처벌 강화 * 국민연금 수급 공백 해소 대책 마련 <p>③ 일터와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중지권 온전한 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

(5) 총파업 전술 (* 세부 일정, 전술은 해당 시기 쟁대위에서 결정)

- 시기 : 7월 중순
- 투쟁 방식 : 지역별 총파업대회, 수도권 서울 집중
- 참가 : 전 조합원 (파업권 확보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이 돌입)

(6) 추진 흐름

- 4~5월 임원 현장 순회와 전체 조합원 교육
- 대선(5~6월) 시기 대정부 요구 쟁점화 사업 전개
- 6월 하순 일괄 쟁의조정신청
- 대선 직후 노동기본권 침해 사업장 기획 투쟁 전개
- 7월 초순 대정부·대국회 요구 및 총파업 계획발표, 시민사회 연대 조직
- 7월 중순 총파업 돌입

2. 중점 투쟁 사업

1) 노동의제 전면화하고 민주주의 강화하는 대선 투쟁

- 예상되는 조기 대선은 1) 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2) 연대하는 삶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광장 대중의 열망을 실현할 정권을 세워야 하는 선거임. 동시에 대선에 뛰어드는 정치세력들도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못하는 조건임. 따라서 노동의 의제를 주요 정당과 후보 선본에 반영하기 좋은 조건인 동시에 노동조합이 한국 정치·경제·사회의 각 영역에서 노동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선거임
- 노조는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노동의제의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러한 노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대중 투쟁을 동시에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주요한 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 집권하는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할 과제가 있음
- 특히 조기 대선의 경우 대통령 인수위 기간이 없이 취임하는 만큼 주요 후보들에게 선거운동 시기에 내각 전체, 최소한 노동부 장관을 미리 제시하도록 민주노총과 함께 압박하여 당선 후 빠르게 개혁 입법 등이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함
- 내란에 대한 반성과 예방을 위한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치제도, 특히 친자본 보수정당의 양당제를 강요하는 정치제도(선거·정당·정치자금)의 개혁을 대선 시기 제기하고 주요 정당과 후보에게 약속받는 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진행함.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실현하는 정치제도와 진보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을 추구하는 제도로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교육과 현장 실천방안을 마련

2) 산업별 노사관계 쟁취와 제도화를 위한 투쟁

- 산별교섭 법제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회에서의 법제화만을 사고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산업별 노사관계의 의의를 한국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을 형성하는 투쟁을 전개
- ‘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낡은 체제의 한 축이 바로 기업별 노사관계 관행과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별노조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노동법·노동행정·사회인식도 산업별 노사관계로 이행해야 양극화와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 연초에 산별교섭 제도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조기 대선 시기 정당과 선본에 공약화를 요구. 언론과 연구자들과 협력해 산업별 노사관계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 활동 기획
- 근래에 조직된 신규 사업장과 조합원, 새롭게 육성된 신규 간부들을 대상으로 산별교섭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활동을 집중하고 기업의 벽을 넘는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전 조직적 의식화를 추진. 노조 밖으로는 민주노총과 가맹산별조직과 적극 논의하여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노조 안팎으로 산업별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금까지 노조가 만든 기존의 산별교섭 결과를 활용하는 후속 사업을 전개
 - ① 2024년 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금속 노사가 도출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새 정부 출범 후 이슈화
 - ② 현장에서 산별교섭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2024년 통일요구로 제기해 쟁취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일자리 합동조사를 구체적으로 집행

3) 공급망-일자리 위기와 인구절벽 대응 산업 투쟁

- 재벌·대기업 해외 현지 생산 체계 강화 추세에 대응한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 산업정책 대정부 요구
 -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무역장벽의 강화, 고립주의 정책 기조를 펴는 트럼프의 재집권 등 수출기업들의 해외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해 국내 공급망-일 자리를 위축시키는 정세 요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내 공급망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중간재 국내 공급 능력을 제고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정부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쟁점화하는 기획사업과 투쟁을 적극 추진
- 정의로운 자동차산업 전환 실현 등을 위한 완성차-부품사 공동투쟁 추진
 - 상반기 자동차업종분과 회의를 통해 완성차-부품사 공동투쟁 의제 및 계획 수립. 7월 총파업과 연동한 기획사업 및 투쟁 전개.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2025년 하반기 수립될 예정인 ‘자동차 부품생태계 기본계획’에 개입력 발휘
- 금속 노사 대정부 공동요구 활용한 대정부 협의를 마련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활용한 금속산업 사회적 협의를 마련을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산별교섭 요구를 한국형 공급망 실사법 추진 국면과 연동해 이슈화
 - 한국형 공급망 실사법이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과되도록 국회 안팎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기획사업을 시민사회와 함께 전개
 - 산별교섭에서는 국내 공급망-일 자리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 요구의 쟁취가 필요함을 조직 내외 이슈화,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재벌·대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흐름을 형성
- 고령노동 보호와 정년 재조정을 위한 입체적인 사업 및 투쟁 전개
 - 자본이 주장하는 재취업 방식의 계속고용 방식이 아니라, 법으로 정년을 일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투쟁. 동시에 고령노동 대책을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결해 대국회 기획 사업 및 투쟁으로 진행
 - 사실상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귀결될 계속 고용 의무화, 피크제 같은 임금체계 개악과 연동한 계속고용 시행 등 고령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악 추진 시 단호한 투쟁 전개
 - 자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공동투쟁을 조직해 국민연금 소득 공백 없는 은퇴를 대자본 요구로 쟁취하는 흐름 형성

4)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공세적 조직화 투쟁

- 윤석열 정권 3년의 노동탄압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와 신규조직화의 정체 현상을 낳음. 금속노조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오랜 사업 경험과 전 조직적인 노력, 전략 조직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도 신규조직화의 성과를 만들어냄
- 내란 이후의 사회는 지난 3년간 억압된 노조 결성에 대한 열망이 새롭게 분출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는 반 윤석열 투쟁을 통해 의식화된 청년과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지부 미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조직화 역량과 3기 전략조직화 계획을 중심으로 집행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에 노조 중앙차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각종 기획 사업과 여론전을 씨줄과 날줄처럼 중층적으로 결합해 예년보다 조직화의 성과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함
- 중앙은 청년·이주·미조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사업과 내란 저지 투쟁에서 형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업종 조직화를 강화함. 신규 조직이 노조 안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하는 산별노조로의 기풍과 문화가 조직 내 모든 단위에 확산하도록 노력함
- 조직률의 확대와 금속노조의 성장은 노조의 사회적 투쟁과 사회연대사업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길 중의 하나임

3. 13기 1년차 계속 사업

- △ 교육 연수원 뿌리 내리기, △ 산별교육체계 정리 △ 노조 체계 혁신 현장 토론 △ 교육실 주관 노조 강령 교육사업 △ 산별교섭 진단 사업은 13기 1년차 계획에 따라 2년차 사업에서도 계속 이어져 진행. 세부 계획은 주관 노조 사무처 부서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함
- 지부·지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비 교부비율을 포함한 재정 문제 대안을 마련할 TF 팀을 구성하고 토론을 거쳐 마련한 대책안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결정

[보론] 노동중심 민주주의 해설

노동 중심 민주주의 사회!

내란을 넘어 노동자가 만들 새로운 세상의 깃발입니다

○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 현대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학자들은 다음의 3가지를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우선은 권력이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권재민’입니다. 다음은 국가 권력이 하나로 모이면 위험하고 분산되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권력분립’입니다. 마지막은 시민운동·노동조합·언론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 이러한 원리 위에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보편적 권리인 인권에서 출발해 노동권, 교육권,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지금의 우리나라 헌법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독재, 파시즘을 경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 윤석열이 일으킨 12.3 쿠데타

- 쿠데타는 ‘국가전복’이라는 뜻으로 군대 같은 무장세력이 정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군사반란, 즉 “내란”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이 30년 가까이 이어지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비로소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 민주사회는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군대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제해 불상사를 막도록 합니다.(‘문민통제의 원칙’)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장관은 군 통수권을 역으로 이용해 자기네 권력을 강화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통치와 유사한 포고령 정치로 윤석열 1인 독재 체제를 세우려 했습니다.
- 윤석열은 1987년 시민의 희생으로 되찾은 민주주의와 이후 모든 한국인의 노력으로 발전시킨 민주주의 질서를 단 하루 만에 파괴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목숨걸고 지키겠다는 서약을 스스로 뒤집은 ‘내란 수괴’입니다.
- 다행히 윤석열의 내란은 시민의 힘으로 일단 막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투쟁해야 합니다.
-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윤석열 없는 세상이 그 이전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번듯한 집도 지어야 하지만 그 전에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 민주주의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민주적인 사회제도, 특히 정치 체제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권리의 확대, 평등의 진전 같은 사회의 성숙을 의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그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틀 만큼이나 내용도 중요합니다.
- 세계는 1987년 이후 한국이 높은 수준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끝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반복하고, 사회제도와 기구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제도적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내용이나 사회제도의 민주적 토대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198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 절반의 민주화, 노동 없는 민주주의

- 1987년 개정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지금의 6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습니다.
 - ① 학계는 한국 사회가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라고 지적합니다. 노동자와 노동이라는 행위는 있으나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억압되어 사회가 균형이 없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는 반성입니다. (최장집: “민주화가 실질적 내용,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혁에서는 무력했다. 제도권 정치세력은 현실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보수적 경쟁’에 머물고, 그 결과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과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
 - ② 보수정당조차도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일터도, 시장도 민주주의의 원리(1인 1표)와 가치(평등)가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만 가면 멈춰버립니다.
 - ③ 한국은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민주주의가 성장하다 보니 한국인들 대다수가 시간이 갈수록 민주주의 제도의 혜택만을 누리며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이나 권력에 대한 감시에 소홀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④ 프랑스는 학교 사회 수업에서 모의 교섭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노동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을 가르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합니다. ‘노동과 노동권’을 보통선거권처럼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⑤ 홍세화 선생은 “뜰레랑스(관용)”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프랑스 시민의 연대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은 쿠데타 포고령에서 파업을 금지했습니다. 윤석열을 넘어서 우리가 쟁취할 사회는 “파업할 수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 자본 중심 민주주의 한국 사회

- 한마디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질서 ▲노동에 대한 경시 ▲취약한 사회

공공성을 약점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재벌과 이들을 비호하는 기득권 세력, 보수 일색의 정치가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을 부추겼습니다.

-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자본이 모든 것에 대해 우위에 서는 <자본중심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시장에서 나온다”는 발언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민주화 투쟁의 경로	민중이 쟁취한 것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	부족한 것	당면한 위협	당면한 과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군사독재타도 → 민주회복	대통령 직선제	문민정권 수립과 이후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적 절차의 성장	·경제 및 사회 민주화 ·노동의 사회적 인정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협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재벌·대기업 규제의 실패 ·내란 세력 청산



한국은 경제의 압축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압축발전(= 형식적 민주주의 중시,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데 부족)을 겪음

→ ‘노동’이 없는 민주주의 + 경제 민주화 없는 정치 민주화 →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이어져

○ 아닙니다, 노동중심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 노동중심 민주주의란, “① 노동이 사회 공동체가 누리는 부의 원천임을 인정하며, ② 노동과 노동권의 보호가 시민적 삶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③ 정치 권리의 평등만큼이나 경제적 평등, 부의 균등함이 중요하며 ④ 노동조합이 사회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회”입니다.
- 조합원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가?”, “너무 급진적인 이야기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지금까지 이런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나라 밖으로 나가면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지금은 자유주의 사회·민주 공화국의 상식입니다.

○ 노동은 역사와 사회의 시작이자 굳은 토대

- 1947년 제정된 이탈리아 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0조 1항은 “독일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4항에서는 “(쿠데타처럼)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합니다.
-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1년 “자본은 노동의 결과일 뿐이다. 애초에 노동이 없다면 자본은 존재조차 할 수 없다. 노동은 자본보다 소중하기에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 사실 이는 외국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에는 ‘기업의 이윤은 노동의 수고 덕분이므로 이는 기업과 노동자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이익균점권”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박정희가 집권하고 3공화국을 세우면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대다수의 정치 권리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도 사회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였습니다. 민주주의가 노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노동자를 억압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을 택한 압축성장과 개발독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본중심 민주주의로 만들었습니다.

○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경제 민주화와 사회 공공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학교, 직장, 거리에서 모두 실현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사회 원리입니다. 따라서 경제도 민주화의 영역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기업을 재벌 또는 대주주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편향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기업을 마음대로 경영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맺는 근로계약, 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 다수의 이익, 즉 공리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경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주의 경영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 소액 주주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규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결정 자체도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금속노조가 2021년에 주장한 노사공동 결정제도는 바로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금속노조가 힘을 쏟는 ‘원하청 공정거래’는 경제민주화 투쟁의 좋은 사례입니다. 노동이사제도 같은 맥락의 경제 민주화 장치입니다. 사회 공공성은 경제의 민주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공공교통의 요금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이런 가격정책은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활동의 목적이 이익의 증대 그 자체가 아니라 이익을 통한 사회 다수의 이익, 즉 공리의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 **작업장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 작업장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4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우리 노동운동은 여전히 임금복지의 증대와 노조 내부 민주주의의 사수 투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일터까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에 소홀했습니다. 작업장 민주주의 가장 높은 수준은 현장권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입니다. 노동시간, 작업장 속도, 생산 방식 결정 등에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평등을 확산하는 것도 작업장 민주주의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임금의 간격을 좁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관리자와 노동자, 또는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중지권도 작업장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입니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사업장 안의 모든 노동조합과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장(직장) 평의회’를 법으로 보장해 일터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보장받도록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별노조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벽을 넘어 노동자의 임금을 보다 균등하게 만들고 산업정책과 같은

노동자의 이해를 더 크게 만들어 사회적 영향력으로 발휘하는 것은 산별노조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정치 참여를 늘리고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노동중심 민주주의가 경제 영역, 일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는 기본적인 참여이지만 기본 이상으로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정당에 적극 참여하고 또 통제하는 당원 중심의 정당이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토대가 부족하다 보니 정당이 명망가에 의해, 또는 팬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노동자가 노동자 정당을 통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정치권에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장하고 실천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가치가 정치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보수정당, 기득권 정당, 자본가 정당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치자금제도가 모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정치세력 자체가 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다’거나 ‘차악을 강요한다’는 한탄은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 의원의 특권을 약화하고, 양당제를 강요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노동자와 청년의 정치 진출이 쉬워집니다. 사회의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가 생계와 노동의 보상에만 모든 신경을 쓰는 사회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가 참여하고 결정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 2025년을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로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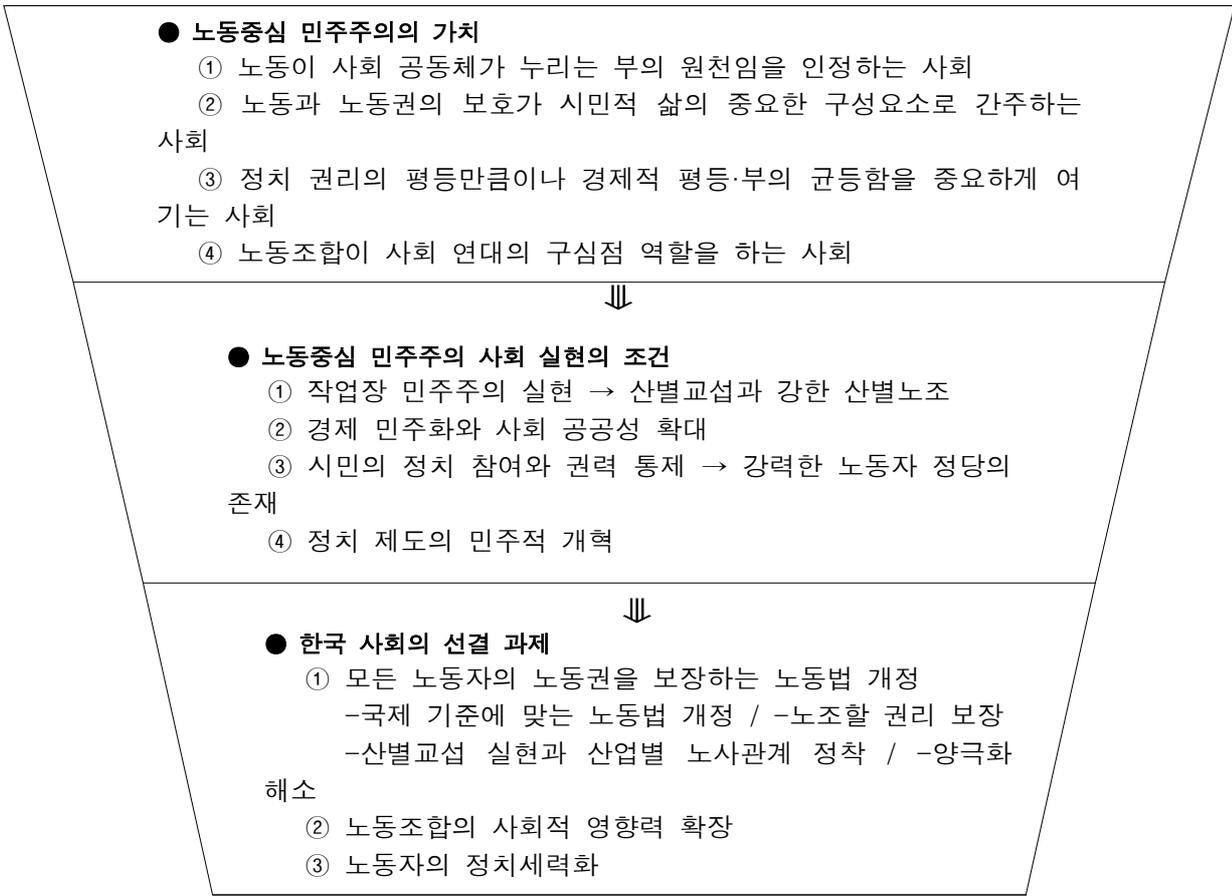
- 이런 제도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투쟁으로 노동중심 민주주의 사회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 중요한 것은 **노동이 우리 사회의 기반임을 확인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고 넓혀야 합니다. 5천만 한국인이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기 위해 유무형의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모두 공장과 사무실, 거리의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치적 입장이나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런 사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 ① 우선은 노동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노동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이 보호받고 특히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조할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파업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강한 노조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탱한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노동권의 보장을 통해 평등을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 ②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합원도 더 늘어나야 하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과 교섭력이 대폭 커져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주민등록증만큼이나 보편적이

고 자연스러운 사회,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의 내각을 보면 장관들 대다수가 산별 노조의 조합원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금속노조, 보건부 장관은 공공노조, 교통부 장관은 운수노조, 총리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인 내각.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 ③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보적인 노동자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동중심 민주주의 사회 어디를 보아도 보수정당 일색의 정치 독점 사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보정치가 취약한 미국, 일본을 노동중심 민주주의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 금속노조부터 실천합시다

-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동해방”이라는 구호에 담아 외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은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내란 세력, 특히 그들의 정치 구심인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투쟁에 온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2025년 금속노조가 실천하는 **① 내란 세력 청산 ② 노동법 개정 ③ 산업 정책 개입과 산별교섭 실현 ④ 공세적 조직화 투쟁**이 모두 우리 사회에 노동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쌓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4

2025년 산별교섭 방침

1. 기조 · 목표

- 임단투 전선의 일치성을 강화해 유동적 정세에 대응할 투쟁 태세를 구축하는 가운데
- 내란 세력 청산,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폐기,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위한 19만 총파업을 성사해 정세 요구에 부응하는 금속노조의 역할을 다하고
- 자본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위력적 쟁의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 *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는 총파업뿐 아니라 산별교섭요구의 성과적인 쟁취를 위한 완강하고 위력적인 쟁의 전술을 추가로 배치하자는 취지
- △전체 사업장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위기 대응책 마련 등의 '내용적 성과'와 함께
- 산별노조답게 19만이 힘 모아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조직적 성과'를 동시에 쟁취함.

2. 요구 방침

- ① 통일요구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에서 제기한다.
 - ✓ 임협만 진행하는 단위도 포함
- ② 중앙교섭 미참여 사업장은 사업장 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를 제기한다.
 - ✓ 임협만 진행하는 단위도 포함
- ③ 모든 사업장은 사업장공동요구 중 미쟁취 요구를 빠짐없이 제기한다.
 - ✓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 요구는 임협만 진행하는 단위도 제기. 그 외 사업장 공동요구는 임협만 진행 시 제기하지 아닐 수 있음.
- ④ 임금인상요구는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대각선교섭군은 사업장교섭에서 제기.
- ⑤ 임금인상요구 시 조합이 정한 요구액을 하향할 수 없다.
- ⑥ 교섭단위별 요구안은 조합 승인 절차를 거쳐, 노조 지침에 따라 전조직적으로 일괄 발송한다.
 - ✓ 중앙교섭요구는 조합 대의원대회, 지부 요구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 사업장 요구는 지부가 심의해 조합에 보고.
 - ✓ 조합 지침에 따라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총교섭 요구를 하나의 묶음으로 일괄 발송. 사업장보총교섭 요구안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이후 추가 발송.
 - ✓ 조기교섭 돌입에 따라 사업장 요구안을 선 발송한 단위는 조합 요구안 확정 즉시 추가 발송.

3. 요구안(개요)

구분	요구안
통일요구	- 작업중지권
중앙교섭요구	- 기후위기 대응

구분	요구안
	- 금속산업 최저임금
지부집단교섭요구	- 임금인상 - 기타 지부별 현안 요구
사업장공동요구	-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 - 좋은 일자리 창출 - 산업전환협약 -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권고요구	-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확대 -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 화재발생 대비 - 협정근무 조항 정비

4. 교섭방침

- ① 모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교섭권 위임과 대각선교섭의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기업 교섭단위(지부·지회)에는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음.
 - ✓ 지역지부에는 교섭권 위임 가능.
- ② 교섭 돌입은 중앙교섭 → 지부교섭 → 사업장교섭 순으로 하며, 교섭 돌입 시기를 최대한 일치시킨다.
 - ✓ 조기 교섭이 필요할 경우 조합 중집의 승인을 득함.
 - ✓ 교섭 돌입이 늦어지는 단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집 중심으로 점검·지도함.
- ③ 모든 교섭단위는 통일요구를 교섭 내용의 최우선에 두도록 교섭을 진행한다.
 - ✓ 요구안 설명과 사측 제시안을 둘러싼 공방 시 반드시 조합이 정한 통일요구를 우선함.
- ④ 임금교섭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⑤ 모든 조정신청은 위원장 명의로 하며, 조합 지침에 따라 일제히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 ✓ 불가피하게 조기 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득함. (조기 교섭 승인 단위는 조기조정 승인을 갈음함)
 - ✓ 조정신청이 늦어지는 단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집행위 중심으로 점검·지도함.
- ⑥ 교섭·투쟁의 조직적 질서와 집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섭 일정은 아래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 ✓ 중앙교섭 : 화요일 / 지부교섭 : 목요일 / 사업장교섭 : 금요일

5. 교섭체계

- 중앙교섭단 : 조합 임원 및 상집간부 약간 명과 지부장
- 지부교섭단 :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구성
- 각종 전국사업장 공동교섭 : 사업장 및 유관 지부 협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에서 교섭단 확정
- 쟁의대책위원회 : 중앙집행위 성원

6. 핵심 쟁의 전술

- 모든 교섭단위는 위력적 19만 투쟁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조합 지침에 따라 일괄 쟁의조정신청을 완료
- * 일괄 쟁의조정 접수는 6월 중하순으로 추진하되, 세부 일정은 정세와 임단투 현황을 고려해 중집에서 확정
- 내란 세력 청산, 윤석열표 반노동 정책 폐기, 노동법 전면개정을 위한 7월 19만 총파업을 성사함.
- * 세부 투쟁 요구와 계획은 해당 시기 정세를 고려해 중앙쟁대위에서 결정
- * 모든 단위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최대한 교섭 일정을 맞추되, 합법적 쟁의권이 없는 단위도 반드시 복무하는 총파업으로 추진
- 핵심 요구를 성과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해당 시기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본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위력적인 추가 쟁의전술을 구사함.

7. 타결방침

1) 기본 방침

- 통일요구 원안 수준 쟁취 없이 중앙교섭 합의 전 의견접근을 금지함.

2) 타결 절차

- 중앙교섭 : 의견접근 → 중앙위 의견접근안 승인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
- 지부교섭 : 의견접근 → 지부교섭단(또는 운영위) 승인 → 중앙집행위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
- 사업장교섭 : 의견접근 → 지부운영위 심의 → 조합에 심의 결과 보고 및 승인요청서 제출 → 위원장 승인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조합에 직인사용신청서 제출 → 조인
- ※ 모든 교섭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이 위원장 직인으로 조인함.
- ※ 모든 지회(분회)는 교섭 조인 후 합의서 전문을 조합에 제출하고 임단협DB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3) 승인 기준

구분	조건
불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요구 원안 수준 쟁취 없이 중앙교섭 합의 전 의견접근 - 중앙교섭보다 늦게 의견접근했지만 통일요구를 교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아 미쟁취 - 기존 단협의 현저한 후퇴 - 고정급 저하

	- 무분규에 따른 보상 내용 포함
미승인	- 중앙교섭 타결 후에도 통일요구 쟁취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쟁취 - 단협 전문(금속노조) 미흡 - 금속산별협약 제6조(조합비 일괄공제) 미쟁취

- 지부별 대의원대회 결정을 통해 위 승인기준에 조건을 추가할 수 있음.
- 지부 운영위에서 불승인 심의 시 조합에 즉각 보고하며, 중집에서 최종 판단함. 불승인 사업장은 조인식을 할 수 없음(위원장 직인 사용 불가).
- 지부 운영위에서 미승인 심의 시 조합에 보고, 위원장 검토 후 지부 운영위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찬반투표와 조인식 진행 가능.
- 구조조정 사업장 및 노조파괴공작·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조직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2018년 10월 2일 10기 3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조정사업장 타결방침을 준용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승인 여부를 판단.
- 신규사업장 첫 체결 단협과 복수노조 사업장은 해당 지부에서 판단해 승인절차 진행.
- 미승인, 불승인 사업장 처리방안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8. 요구안 세부 내용 및 취지

1) 통일요구

(1) 작업중지권

① 요구안 문구

- * 기존 단협에 작업중지권을 확보하고 있는 단위는 아래 문구를 참고해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요구.

【작업중지권】

- ①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재해가 발생했거나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등으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노동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② 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조합 등)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한 조합 등은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③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 또는 거부 시 노사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 또는 노동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에 알려 조합에서 이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④ 회사는 1, 2항에 따른 작업 중지·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와 조합 등에 대해 징계, 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소·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또한 또한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가 1,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거부했을 때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작업중지 후 실제 사고 또는 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또한 같다.

- ⑤ 회사는 작업중지권 활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작업중지로 인한 협력업체 손실 보상, 작업중지권 활용 우수 협력사 포상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②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52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노동자가 자신과 동료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중대재해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위험한 작업을 강요받아도 각종 불이익이 두려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

* 완성차 대공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측이 민형사상 고소·고발하는 사례들이 존재.

- 아울러 법원조차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먼저 판단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가리는 방식의 논리를 펴곤 했음.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를 ‘노동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았음.

- 그런데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장이 2016년 인근 공장 황화수소 누출 소식을 듣고 조합원들을 대피시켜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2023년 11월 대법원이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했다면서 1, 2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 환송함. 이 사건은 ‘노동자가 가진 인식’을 기준으로 작업중지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첫 대법 판결로 의미가 적지 않음. 이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의 징계와 고소고발, 이에 맞선 지난한 법정 투쟁을 감수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함.

- 이에 금속노조 전 단위가 제기하는 통일요구로 제기해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보장받고자 함. 특히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4항),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 손실 보상 등 작업중지권 활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토록 해(5항) 빈발하는 하청 중대재해에 제동을 걸고자 함. 아울러 민주노총과 함께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산안법 개정 투쟁도 연동해 전개하고자 함.

* 삼성전자(주)DS 2018년부터 ‘작업중지 독려제도’를 시작.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찾고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에 착수하는 협력업체가 늘었으나, 작업 도중에 작업중지권 사용은 늘지 않음. 이에 작업중지에 따른 납기 지연, 인건비 손실 문제 해소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2021년부터 작업중지 손실 보상체계, 작업중지권 활용 우수협력사 시상 등의 정책을 시행. 이에 따라 2020년 245건에 불과했던 협력업체 작업중지권 사용 건수는 2021년 상반기에만 1,200건을 넘어섬.

* 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요구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노출로 생명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하거나 작업중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작업 중지에 따른 하청업체 손실 및 하청 노동자 임금 손실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사업장 특성과 관례에 따라 작업중지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거나, 부서별 또는 대의원 선에서 이뤄지는 노사협의로 갈음하는 등 작업재개 절차·조건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3항 문구는 안전조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아울러 금속노조 내에 서비스 업종 조합원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작업중지 사유를 반영해 요구할 수 있음.

* 경기지부 유베이스수원지회 단협 : “고객 응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를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

* 서울지부 수입차지회 한성자동차 단협 : “회사는 고객응대 조합원이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폭행, 폭언 등을 당하거나 언쟁을 했을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서울지부 하이케어솔루션지회 단협 : “폭언, 성희롱, 폭력 등 고객의 유무선상 문제 행동 발생시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중앙교섭요구

(1) 기후위기 대응

① 금속산별협약 9장 이름 개정

현행	개정안
제 9 장 <u>산업전환</u>	제 9 장 <u>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u>

② 9장 내에 아래 조항 신설

【기후위기 대응】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 집행한다. 단,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이 있는 계획은 조합과 합의 후 집행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 지원 정책 마련, 협력사 선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회사는 1항, 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저감 계획 집행 현황을 조합에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 사안을 논의할 노사협의를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단, 기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조합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응해야 한다.
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및 계획의 점검·보완
 2.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
 3. 탄소중립 환경 구축으로 초래되는 노동조건 변화 대응책 마련
 4. 폭염·한파·폭우·폭설 등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환경변화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5. 기타 기후위기를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③ 취지

- 기후위기 대응이 인류의 생존뿐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정세.
 - * 국제 기후 연구단체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는 2025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2024년 12월 발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4개국 중 최하위인 60위.
 - *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기후·환경 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이들 장벽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기업은 사업장 또는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과 저감 노력이 필요.
 - * ESG 공시 중 기후 관련 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S2)은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공시하도록 설계. 주요 시장국들이 이 기준에 따라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 한국도 시기는 미정이지만 기후 공시 의무화 방향은 언급.
 - * 현대차는 이미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사에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체계 구축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범을 위반한 협력사가 적절한 개선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
 - * 수출 대기업들은 다른 한 축으로 해외 직접생산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해 아직 기준이 될 만한 '협약화된 합의'를 갖고 있지 않음.
 - * 2021년 통일요구로 제기해 쟁취한 '산업전환협약'은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노사 함께 수립·실행할 때 포함해야 할 의제와 방향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언급한 수준.
 - * 2021년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은 통해 탄소배출 저감의 원칙과 방향을 선언했으나 '협약'이 아닌 '선언'에 그친 한계가 있음.
 - * 2024년 통일요구로 제기해 쟁취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 합동 조사와 신규 채용 내용만 담고 있음.
- 이에 금속산별협약에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구체적으로 못 박아 국내 공급망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가운데, 금속 사업장 전체로 확산할 중앙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약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요구안 1항은 사용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할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와 계획 수립 의무를 강제하되,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조합과 합의 후 시행토록 해

노동자 희생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음.

- 2항은 사용자에게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하기 위함임.
- 3항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을 노사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기후 대응 정책에 대한 노조의 개입 경로를 확보하려는 취지임. 아울러 기후위기가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안전·보건 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조건 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 협의를 명시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되도록 강제하고자 함.
- 한편, 조합은 2024년 이 요구와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공급망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완성차·부품사 공동요구로 제기하도록 해, 2024년 12월 기준 83곳이 쟁취함. 2024년 요구를 원안 수준으로 합의한 곳은 추후 조합이 시행할 ‘요구안 발송 지침’을 참고해 기존 협약 개정 방식으로 요구.

(2)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요구안 문구

현행	개정안
<p>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p> <p>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p> <p>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p> <p>④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p>	<p>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p> <p>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210원과 월 통상임금 2,533,46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p> <p>② (현행 유지)</p> <p>③ (현행 유지)</p> <p>④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p>

② 취지

• 목표와 방향

- (안정성-연대성) 저임금 금속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 격차 해소
- (조직확대) 미조직 금속산업 노동자 조직화 및 금속노조 영향력 확대
- (산별임금체계) 금속노조 산별임금체계 진전

• 요구안 취지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보다 높아야 함. 그렇지 못한 경우 산업 내 임금 격차 해소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
- 금속노조는 2024년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의 결과와 2024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결과를 기초로 2025년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2020년 이후 실질임금 하락분 보정치를 참고해 2025년 고정급 최저인상분을 238,000원으로 산정하였음. 현재의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이상이므로 여기에 고정급 최저인상분을 더해 요구 수준을 확정함.

2024년 금속산업최저임 급		2025년 금속노조 고정급 인상요구		
2,293,900원	+	238,000원	=	11,203원
<hr style="width: 50%; margin: 0 auto;"/>				
226시간				
금속산업최저임금 기준시간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11,210원</div>				

- 이상의 논의에 따라 금속노조는 2025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210원과 월 통상임금 2,533,46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요구함. 이는 통상시급 기준급 1,060원을 인상하는 요구이며, 2025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 수준(고정급 기준 238,000원 인상)을 상회하는 것임.

3) 지부집단교섭 요구

(1) 임금인상

① 요구안 문구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1,3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② 취지

- **임금인상 요구의 목표**
 - 생활임금 확보 :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임금을 해소한다
 - 연대임금 원칙 : 노동자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체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마련한다
 - 분배구조 개선 : 자본에 치우친 노동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한다
- **임금인상 요구의 방향**
 - **(고려사항)**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 첫째 2024년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의 결과와 2024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결과를 기초로 △ 둘째 2025년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참고.
 - **(요구안 마련의 기준)**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성안하는 것이 타당. 금속노조는 중장기적으로 임금인상 요구와 합의의 기준을 고정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 중. 기존의 기본급 기준의 임금인상 요구 정책은 기본급에 따라 연동하는 고정상여금이나 정률수당의 있고 없음, 크고 작음의 차이로 인해 기본급 인상액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임금인상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한계를 드러냄.
 - **(고정급 중심의 임금정책)** 고정급 중심의 임금정책은 첫째,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 지급률이나 정률수당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고정급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어 사업장 간 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둘째, 기본급에 비해 임금인상 효과에 대한 이해가 쉬워 임금인상 수준 비교가 보다 용이해짐. 이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의 근거와 동력을 제공해 줄 것. 셋째, 고정급을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축소될 경우 이 통일성을 바탕으로 산별임금교섭과 산별임금체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짐.
 - **(요구기준)** 다만 기본급으로부터 다른 임금항목이 계산되는 대다수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당장 요구기준을 변경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한편으로 각 사업장에서 고정적인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점차 기본급으로 통합해 기본급과 고정급의 차이를 줄여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변동급을 점차 고정급으로 단순화시켜 나가는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금속노조 임금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

•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

- (2024년 고정급 추정) 2024년에 실시한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 결과 (231개 사업장 131,214명 참여) 사업장의 월 고정급 평균은 4,620,848원임. 한편 2024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고정급 인상분은 140,096원¹⁾. 따라서 2024년 고정급은 4,760,944원으로 추산.

4,620,848원	+	140,096원	=	4,760,944원
2023년 고정급		고정급 인상분		2024년 고정급
↑		↑		
2024년 임금실태조사		2024년 임금교섭 결과		

- (2025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전망)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율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국민소득 전체가 커졌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전체 소득 중 임금 소득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

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의 연간 증가율로 노동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생계비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커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됨.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²⁾,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1.9%³⁾이므로 3.9%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커야 함.

- (2020년 이후 실질임금 하락)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체감경기과 지표경기 간의 괴리가 두드러짐. 2025년 물가상승률은 20년 이후 5년만에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압박을 느끼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높은 물가 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은 제한적이었기 때문.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물가는 14.4% 상승⁴⁾. 같은 기간 금속노조의 명목임금은 11.9% 상승⁵⁾. 따라서 2024년 금속노조의 실질임금은 2020년에 비해 2.2%⁶⁾ 하락. 향후 2년에 걸쳐 2020년 이후 발생한 실질임금 하락을 해소하기 위해 보정치 1.1%⁷⁾를 부여.

- (2025년 임금인상 요구 근거) 고정급을 기준으로 2025년 5.0%(경제성장률 2.0% + 물가상승률 1.9% + 2020 이후 실질임금 하락 보정치 1.1%)의 임금 인상률 달성이 필요함. 이 고정급 인상분이 '기본급 인상분'과 '기본급에 연동하는 고정급 인상분'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고정급 인상분 238,000원을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하는 고정급'의 비율인 1.6842⁸⁾으로 나눈 141,313원이 기본

1) 2024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제외한 월 기본급 인상액 평균은 83,183원. (2024년 임금교섭 타결단위 전수조사) 기본급 인상 시 고정급 인상 효과는 168.42%. (2024년 임금실태조사) 이에 따라 2024년 교섭에 따른 고정급 인상액은 83,183원 × 1.6842 = 140,096원으로 추산.

2) 1.9% (한국은행, 2024.11. 경제전망보고서), 2.1% (OECD, 2024.12. Economic Outlook)

3) 1.9% (한국은행, 2024.11. 경제전망보고서), 1.9% (OECD, 2024.12. Economic Outlook)

4)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114.4(단위: 2020=100)

5) 금속노조 임금요구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 누계.

6) $실질임금_{2024} = \frac{명목임금_{2024}}{소비자물가지수_{2024}} \times 100 = \frac{명목임금_{2020} \times 1.119}{소비자물가지수_{2020} \times 1.144} \times 100 = 명목임금_{2020} \times 0.978$

7) 기존 요구안 수립 방식(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향후 2년간 보정치를 반영하여 2.2% 추가 인상 효과를 목표.

$실질임금_{2020} = 실질임금_{2024} \times (1 + 보정치)^2$

$명목임금_{2020} \times 1.144 = 명목임금_{2020} \times 1.119 \times (1 + 보정치)^2$

보정치 = 1.1%

급 인상의 최저선이 됨. 여기에 십원단위를 반올림해 기본급 141,300원 인상을 요구함.

$$\begin{array}{ccccccc}
 \boxed{4,760,944} & \times & (& 2.0 & + & 1.9\% & + & 1.1\% &) & = & 238,047 & \text{원} & \approx & \boxed{238,000\text{원}} \\
 \text{2024년} & & & \text{2025년} & & \text{2025년} & & \text{2020년 이후} & & & & & & \text{2025년} \\
 \text{고정급} & & & \text{경제성장} & & \text{물가상승} & & \text{실질임금} & & & & & & \text{고정급} \\
 & & & \text{률} & & \text{률} & & \text{하락분} & & & & & & \text{최저인상} \\
 & & & & & & & \text{보정치} & & & & & & \\
 \\
 \boxed{238,000\text{원}} & \div & 1.6842 & = & 141,313\text{원} & \approx & \boxed{141,300\text{원}} \\
 \text{2025년} & & \text{기본급에 연동하는} & & \text{2025년} & & \text{기본급 인상 요구액} \\
 \text{고정급} & & \text{고정급 비율} & & \text{기본급 최저인상} & & \\
 \text{최저인상} & & & & & &
 \end{array}$$

- (최저기준이라는 의미) 한편 임금인상 요구는 하향할 수 없는 최저선이며 사업장 조건에 따라 상향가능함. 특히 상여금이 대폭 기본급화되어 상여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인 경우처럼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됨.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효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을 모두 같은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정률 고정상여금이나 정률 수당이 작은 사업장은 기본급 인상 이외의 고정급 인상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데 반해 해당 수당이 큰 사업장은 기본급 인상 이외에도 고정급 인상분 상당의 추가 인상 효과를 누리기 때문.
- 정률 고정상여금이나 정률 수당이 작은 사업장은 많은 경우 조직력이 약하고 임금 총액이 작은 사업장이기도 해서 기본급 정액인상은 오히려 임금격차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음. 이런 상여금과 수당을 미리 선반영한 고정급 정액인상은 이런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음. 금속노조가 견지해 왔던 정액인상 방침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률인상을 지양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함. 따라서 정액인상 원칙도 실생활의 안정적 기초가 되는 고정급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재의 임금구조에 부합하며,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급의 차이가 거의 없는 사업장은 요구액을 상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액인상 방침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금속노조의 기본급 요구액만을 기준으로 삼기에 현실적으로 임금구조가 맞지 않은 사업장은 위 논리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함. 예를 들어 기본급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 평균이 아닌,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평균 통상급·고정급의 5.0%를 계산해 이를 사업장 내 기본급 정액 인상 요구로 삼을 수 있을 것.

4) 사업장공동요구

(1)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

【사용자단체 가입】
 회사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의 중앙교섭(과 OO지역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2) 좋은 일자리 창출

8) 기본급 1만원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16,842원 인상 (2024년 임금실태조사)

【좋은 일자리 창출】 또는 【신규채용】

- 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 ②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하되,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 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2항부터 제3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3) 산업전환협약

【산업전환협약】 또는 【산업전환대응】

- ①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 4. 기후위기 대응
 - 5. 공정거래
-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 ④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 ⑤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

(4)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 ① 회사는 금속노조에서 실시하는 조합간부(조합·지부·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를 대상으로 하는 2박3일(24시간)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 ② 2박3일의 유급교육시간은 조합이 자유롭게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사용 시 교육 참가 대상 및 사용시간을 사전에 통보한다.

5) 권고 요구

(1)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① 요구안 문구

* 대다수 사업장은 정년이 되는 해 연말을 퇴직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나,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도 일부 존재. 해당 사업장 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요구 문구를 설정.

【정년퇴직】

(퇴직 시점이 연말인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으로 하되 그해 말일로 한다.

(퇴직 시점이 생일인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으로 한다.

※ 나이만 명시하면 생일 기준으로 해석됨. 생일을 명시해도 무관.

② 취지

-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위기의 심화,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위기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다만, 정부와 정치권 논의 흐름을 봤을 때, 온전한 법정 정년 연장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긴 어려울 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악 등과 연동될 가능성도 큼.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2025년 초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추진...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년연장, 임금체계개편, 고용유연성 확대 등을 세트로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짐.

* 민주당은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정년 연장을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권 교체 후에는 이 같은 안이 상향되기보다는 후퇴할 가능성이 클 것.

*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윤석열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28일 까지 10차 회의를 진행. 정년연장 관련 노사 입장에 대한 공익위원의 검토가 이뤄진 단계. 경영계(경총)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재고용 '노력'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과 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을 조정을 가능케 하고 △과거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조항처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또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조(과반 노동자) '의견청취'만으로 가능케 하자는 방안을 제안.

-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리가 존재하며, 노동계 내에서도 이 같은 프레임에 간혀 정년연장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걸 주저하는 태도가 없지 않음. 하지만 수세적 대응은 자칫 고령자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 악화를 방관하는 꼴이 될 수 있음.

*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청년 신규 채용이 감소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어차피 상당수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 대신 외주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축소를 추진해 왔음.

- *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정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 있어 65세 정년연장이 신규 채용을 대체하는 효과는 일시적이고, 길게 보더라도 신규 채용 감소 폭은 11~13%에 불과. 이는 출생률 저하를 고려한 인구구조 변화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
- *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층(55~64세) 임시직 비중이 OECD 1위이며, 노인빈곤율도 1위. 고령층 임시직 비중이 OECD 2위인 국가는 바로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65세까지 계속고용(기업이 정년연장이나 폐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을 '의무화'한 일본임. 현재 재계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일본보다 훨씬 더 후퇴한 방안임을 고려하면, 노동의 시급한 개입이 필요.
- 특히 현대·기아차에서 시작된 정년퇴직자 촉탁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 정책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그룹사와 다른 완성차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온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해서라도 교섭에서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함.
- * 현대차, 기아는 촉탁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퇴직 후 최대 2년. 현재 6개 그룹사들도 1~2년의 촉탁 재고용 제도를 도입. 임금은 신입 초봉 수준.
- *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노사도 2024년 단체교섭에서 정년퇴직 후 1년, 신입사원 초임 수준의 재채용 조건을 합의. (조합원 자격도 부여)
- 한편, 정년연장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 요구처럼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경총은 지난 2024년 10월 24일 열린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전체 임금 수준(또는 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과반수 근로조(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의견정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
- 이에 정년 연장 요구에 아래와 같은 문구 추가를 검토할 수 있음.

회사는 정년 조정 과정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의견청취 내지 협의로 시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내지 부문별 근로자대표 등과의 협의 및 합의 등으로 조합과의 합의를 갈음할 수 없다.

(2)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확대

① 아래 현대차 노사의 2023년 특별합의를 참고해, 임신·출산·육아 지원 관련 단협조항 강화를 요구

구분	시행안
임신	<p>1. 난임유급 휴가 확대 [기존] 유급 휴가 3일 [변경] 유급 휴가 5일(※ 고평법 상으로는 연간 6일을 보장하되 이 중 2일은 유급으로 보장)</p> <p>2. 난임 시술비 실비 지원 신설 - 시술 1회당 총 100만 원 한도 내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납부금액에 대해 실비 지원한다.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p>

구분	시행안
	- 난임 시술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출산	1. 출산경조금 확대 [기존] 출산 경조금 100만 원 [변경] 첫째 300만 원 / 둘째 400만 원 / 셋째 이상 500만 원 2. 엄마/아빠 바우처 신설(첫만남) - 회사는 직원과 태어난 자녀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자녀의 순서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째 50만 원 / 둘째 100만 원 / 셋째 이상 150만 원)
육아	1. 유아교육비 확대 [기존] 1년 (만 5세 이상) 총 80만원(단협 기준 분기별 20만 원) [변경] 2년 (만 4~5세 이상) 총 240만원 (월 10만 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보조금 지원 확대 1) 사용 기간 [기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하여 총 2년 [변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합산하여 총 2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총 2년 사용한 직원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추가 사용 가능 2) 보조금 [기존] 2시간 단축 월 10만 원, 4시간 단축 월 20만 원 [변경] 2시간 단축 월 20만 원, 4시간 단축 월 40만 원 3. 엄마/아빠 바우처 신설(첫등교) - 회사는 직원 자녀의 생애 첫 등교를 축하하기 위하여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 이 속한 해의 9월에 그 자녀의 순서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한다. (첫째 50만 원 / 둘째 100만 원 / 셋째 이상 150만 원)

② 취지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사회의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 최근 젊은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사업장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 확대 요구가 강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단협이 강화되고 있음.
- 한편 특히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은 기업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로인해 임신-출산-육아 환경의 불평등이 심화됨.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가 최근 10년 사이 3배로 벌어짐. 이런 상황에서 산별노조는 어떻게 사업장 수준의 기업복지를 강화할 것인가와 함께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까를 고민해야 함.
- 따라서 한편으로 어떻게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 것인가의 고민과 어떻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것인가의 고민을 동시에 병행해 나갈 것을 제안.
- 급여 등 지원 강화는 사업장 규모, 지불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바 이는 개별화하고, 전체 교섭단위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확대와 노동형태 변경 등 노동시간 단축 중심으로 공동요구를 설계하는 것이 산별 일치성과 요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의 임신-출산-육아기 재택근무(난임치

료·배우자 출산 임박 포함)와 롯데의 자동육아휴직제, 남성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제 등.

구분	휴가·휴직 확대	노동형태 변경	비용지원
임신	- 태아검진휴가 - 난임치료 휴가·휴직	- 임신기·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 재택근무(임신기·육아기·난임치료·배우자 출산 임박 시)	- 난임치료비 지원
출산	- 유·사산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배우자출산 휴가	- 재택근무(임신기·육아기·난임치료·배우자 출산 임박 시)	- 출산장려금
육아	- 육아휴직 확대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재택근무(임신기·육아기·난임치료·배우자 출산 임박 시) - 자동육아휴직제 -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1개월)	- 직장 어린이집 (포스코, 그룹사, 협력사 직원 자녀가 함께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 이상 구성)

- 한편, 위 표의 포스코 사례처럼 입지 조건이나 조합원 수요를 고려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부 집단교섭요구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 공동요구로 제기할 수 있음.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성과를 낸다면 조합원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또는 공단 차원의 초기업 노사관계 효용성을 지역사회에 확인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정부가 아래와 같이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음.

구분	지원종류	지원내역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¹⁾)	10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시설임차비 ²⁾		3억원 ³⁾	소요비용의 80%		
운영비	무상지원	인건비	월 1인당 최대 138만원	- 대상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운영비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	

*주1) 토지매입비 제외,

*주2)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주3)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3)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① 요구안 문구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공지능(AI)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 후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작업공정 및 인사 관리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조합이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한다.
 1. 인공지능(AI)이 수집하는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의 종류 및 범위
 2. 인공지능(AI)이 수집한 조합원의 업무 및 인사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3. 인공지능(AI)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
 4. 인공지능(AI)이 수집한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목록
 5. 사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권한
- ③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사 조치에 대해 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당함을 주장할 시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가 진다. 이때 회사가 인공지능(AI)이 제공한 정보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면, 인공지능(AI)이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 인사 조치에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

② 취지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이 노동에 미칠 영향은 다각적. AI가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인간의 일자리 자체를 대체해 고용불안 및 소득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큼. 아울러 AI가 수집한 데이터가 오염돼 있으면 AI의 판단도 그릇될 수밖에 없어, 과도한 AI 의존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AI가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노사 합동으로 실시한 후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하도록 정함으로써, 인간 노동을 대체할 목적의 무분별한 AI도입을 규제하고자 함.
- 한편 한국은 제조업 로봇 밀도가 전 세계 1위. 국제로봇연맹(IFR) 2024년 6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1,012대로 2위인 싱가포르(730대), 3위인 독일(41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높은 로봇 활용도는 생산 관리나 인사 관리에 AI 활용 가능성을 높일 기반이 됨. 예를 들어 생산 공정에 투입된 로봇이 노동자와의 상호작용 정보를 수집해 AI 시스템에 전송하면, AI시스템은 이를 분석해 작업자를 평가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이미 일본 IBM에서 노동자를 평가해 임금을 조정하는 데 AI를 도입, 노사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존재.
 - * 일본 IBM은 2019년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Watson)을 인사관리에 도입. 왓슨은 노동자 개인의 성과, 숙련, 직무 등 40가지 정보를 취합·분석해 관리자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면, 관리자가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조정. 노조 측은 △개인정보 침해 △공정성 및 차별 존재 △AI의 불투명성 △관리자의 AI 의존 편향 등을 문제삼아 도쿄도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측은 AI는 보조도구에 불과하다고 항변. 2024년 8월 노동위는 △AI가 수집한 정보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노동자에게 AI 평가내용을 제공하며 △AI임금평가 시스템 운영과정상 문제를 지속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화해 결정.
- 현재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인사평가에 AI도입이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기술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고, 인사조치에 활용될 경

우 회사가 분명한 근거를 밝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4) 화재발생 대비

① 요구안 문구

<p>【화재발생 대비】</p> <p>① 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한 피난계획을 노동조합에 제공한다.</p> <p>② 회사는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한다.</p> <p>③ 회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실시한다.</p> <p>④ 회사는 화재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노동자를 대피시킨다.</p>

② 취지

- 화성 아리셀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라는 본질적 문제뿐 아니라 화재발생 시 피난로 확보나 사전 피난훈련의 부재가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이에 법률로 보장된 소방훈련과 교육을 단협으로도 명시하되, 대상을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로 삼아 화재 발생 시 전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노동조합도 화재발생 노동자 피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제공받고, 화재 발생 시 노동자 즉시 대피 의무도 강제하고자 함

(5) 협정근무 조항 정비

① 요구안 문구

현행(예)	개정안
<p>【협정근무】</p> <p>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협정근로자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며, 자기 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p> <p>1. 전기, 통신, 수도, 냉난방 등 기계·시설 담당자</p> <p>2. 전산·정보시스템 및 각 통제실 업무담당자</p> <p>3.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p>	<p>1안) 조항 삭제</p> <p>2안)</p> <p>【협정근무】</p> <p>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며, 자기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u>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자는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하며 당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조합간부는 본 조항 적용의 예외로 한다.</u></p> <p>1. 각 부서 담당자 최소 인원 명시 (예 전기, 통신, 수도, 냉난방 등 기계·시설 담당자 0명)</p> <p>2. 제1호의 인원 선정은 매년 1월 조합과 합의하며 (쟁의 행위 개시 전 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합의)한다.</p>

② 취지

- 단체협약에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쟁의 참가 배제자에 대해 △협정근로자 △협정근무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체결 수준에 따라 일부 인원이 아닌 해당 부서원 전체가 쟁의 참가 배제자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를 통해“공중(公衆)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민간 기업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업무에 대한 정의는 없음.
- 단, 사용자들은 노조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②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이나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②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협정근무를 명시하고자 하고 있음.
- 최근 본 조항을 근거로 파업 참가 인원을 제한하려는 사측의 움직임이 사업장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곳에서 파악되고 있음. 만약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는 최소 필요 인원·교대제 등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체협약 문구 그대로 해당 부서원 전체가 협정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협정근무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최소한의 인원이 해당, 쟁의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단체협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안건 1. 13기 1년차 결산 감사보고 승인 건

[별지 자료 참조]

의결주문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안건 2. 13기 1년차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건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1. 조직현황 (2024년)

순 번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속								
1	광명산업지회		23	22	21	20	20	17	17
2	금강지회		159	159	158	166	166	166	166
3	다스지회		753	743	743	743	743	743	742
4	KBI동국실업지회		35	34	34	34	34	34	34
5	동진이공지회		3	3	3	3	3	3	3
6	두양정공지회		27	27	27	27	27	26	26
7	디에스지회		208	204	204	204	204	204	204
8	리어코리아지회		-	-	127	158	161	161	161
9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1	9	-	-	-	-	-
10	명성공업지회		77	76	76	74	74	73	75
11	발레오만도지회		403	387	391	394	395	400	404
12	비투지회		56	55	55	55	54	53	49
13	세진지회		314	317	317	317	317	317	317
14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3	72	71	71	71	71	71
15	아진카인텍지회		5	4	18	18	18	18	18
16	에코플라스틱지회		369	357	360	361	361	361	363
17	엠에스지회		297	294	294	294	294	294	295
18	엠에스정밀지회		77	78	78	78	72	67	67
19	우영산업지회		283	282	282	282	283	281	280
20	인지컨트롤스지회		54	49	49	49	49	49	49
21	일진베어링지회		169	167	167	167	167	167	167
22	청우지회		23	21	21	21	21	21	21
23	코레스지회		10	10	10	10	10	10	10
24	플라스틱옵니엄지회		71	72	72	70	69	70	70
25	현담산업지회		132	131	132	131	131	131	131
26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51	51	51	51	51	51
27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45	347	350	350	350	353	353
28	현대아이에이치엘지지회		317	318	318	318	318	318	318
29	현대엠시트지회		114	114	114	114	114	114	114
30	현우지회		59	59	59	59	59	46	45
합 계			4,459	4,403	4,543	4,580	4,577	4,573	4,576

순 번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소속							
1	광명산업지회		17	17	16	16	16	
2	금강지회		165	164	167	167	168	
3	다스지회		742	742	742	741	741	
4	KBI동국실업지회		34	34	34	34	34	
5	동진이공지회		3	3	3	3	3	
6	두양정공지회		26	26	26	26	26	
7	디에스지회		204	203	203	203	203	
8	리어코리아지회		161	173	176	187	187	3/12 리어코리아지회 설립
9	명성공업지회		75	75	75	74	74	
10	발레오만도지회		404	403	403	406	405	
11	비투지회		48	47	46	46	46	
12	세진지회		317	317	315	314	314	
1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2	73	72	72	72	
14	아진카인텍지회		18	18	18	19	19	
15	에코플라스틱지회		369	371	370	370	371	
16	엠에스지회		294	294	294	295	295	
17	엠에스정밀지회		67	63	63	53	53	
18	우영산업지회		279	277	277	277	278	
19	인지컨트롤스지회		49	49	49	49	49	
20	일진베어링지회		167	167	167	167	167	
21	청우지회		21	22	23	23	23	
22	코레스지회		10	10	12	12	12	
23	코리아에프티지회		-	-	-	34	34	11/07 코리아에프티지회 조직형태변경
24	플라스틱옵니엄지회		71	73	74	75	77	
25	현담산업지회		131	131	133	133	133	
26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51	51	51	51	
27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53	353	351	353	353	
28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8	318	318	318	319	
29	현대엠시트지회		114	114	114	114	114	
30	현우지회		45	45	45	45	44	
합 계			4,580	4,588	4,592	4,632	4,637	

2. 각종 회의 진행 결과보고

1) 대의원 대회

(1) 경주지부 13기 1차 정기대의원 대회 결과

1.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11일(월) 13시, 지부 대강당

☞ 1부 개회식, 2부 성평등교육, 3부 본회의

2. 성원 보고 : 총원 244명 미선출 50명 재적 194명 중 189명 참석

- 자료수정 : 19쪽 총원 244명, 재적 194명으로 수정

229쪽 제6조 [조합활동 보장], 230쪽 제 8조 [조합활동시간] 으로 수정

268쪽 교섭위원 78, 79번 '아이티더블유 아산지회'로 수정

269쪽 교섭위원 106번 황하경 '부지회장'으로 수정

- 감사보고서 중 89쪽 하단 "소수사업장 감사 중 여러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로 수정 함.

3. 개회선언 : 성원 보고 후 15시에 개회를 선언함.

4. 서기 : 최윤정 정책부장 지명함.

5. 감표위원 : 1구역 21번 노태현, 조청호, 2구역 61번 김종호, 이광우, 3구역 101번 서현우, 황준하, 4구역 141번 박규재, 안의선, 5구역 181번 김석중, 손해용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함.

6. 회순 통과 : 회의자료 3쪽에 따른 원안대로 회순 통과

7. 심의 안건

안건 1. 12기 2년차 결산 감사보고 승인 건 (배문성감사위원장 발제)

☞ 감사보고서 89쪽 흥아포밍 관련 문구 삭제하고 그 외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2. 경주지부 감사위원 선출 건

☞ 후보 7명 중 아래 5명의 감사위원을 선출함.

기호	이름	득표수	득표율
1번	김 석 준	121	64.02%
2번	김 재 영	142	75.13%
4번	배 문 성	113	59.78%
6번	신 영 순	152	80.42%
7번	오 수 석	150	79.36%

안건 3. 12기 2년차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승인 건

☞ 원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4. 13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안) 승인 건

☞ 원안에 대해 다수 찬성을 확인하고 승인함.

- 수정안> 지부 집단교섭요구안 중 69조 건강진단 항 삭제 안 찬성 5표로 부결됨.

안건 5. 13기 1년차 예산(일반, 특별회계)(안) 승인 건

☞ 원안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 원안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7. 지부 자산 폐기 건

☞ 원안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8. 경주지부 운영규정 및 특별세칙 개정 건

1) 대의원 배정 및 감사위원 여성할당제

☞ 원안에 대해 183명 중 128명 69.9%의 찬성으로 개정함.

- 수정안> 대의원 배정은 현행대로 하고 감사위원 할당제 적용 시 공석은 비워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찬성 8명으로 부결됨.

2) 임금 기준표 변경

☞ 원안에 대해 180명 중 150명 83.3%의 찬성으로 개정함.

- 수정안> 호봉 적용을 1년 단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동의없음으로 폐기됨.

안건 9.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확정 건

☞ 원안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10.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 원안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1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건

☞ 원안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승인함.

안건 12. 결의문 채택 건

☞ 원안과 “윤석열정부가 시행하는 회계공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을 추가하여 승인함.

안건 13. 기타 건 - 없음

2) 운영위원회 회의

차 수	날짜 및 장소	토 의 안 건	참 석
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월 8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교섭요구 공문발송 현황 점검 건 2-2) 지부 대의원 배정선거구 확정 건 2-3) 13기 경주지부 미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2-4) 13기 경주지부 여성위원장 승인 건 2-5) 경주지부 자산 및 비품 폐기 건 2-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2-7) 디에스시지회 지부 파견 유예 건 2-8)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표창 추천 건 3-1) 특별결의금(7,500원) 정기예금 예치 건 3-2) 경주지부 12기 2년 차 선관위 평가 논의 건 3-3) 민주노총 경주지부 설 재정사업 조직 건 3-4) 경주지부 11기 2년 차 사업평가 논의 건	32명 중 32명 참석
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월 15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교섭요구 공문발송 현황 점검 건 2-2) 13기 중앙위원 선출 건 2-3)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건 2-4) 민주노총 경북본부 / 경주지부 대의원 선출 건 2-5)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2-6) 13기 지부 1년차 신입간부 교육 기획안 논의 건 2-6) 금속법률원 고문계약 체결 논의 건 3-1) 13기 지부 사업계획 검토 건	32명 중 29명 참석
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월 22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교섭요구 공문발송 현황 점검 건 2-2) 경주지부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 점검 건 2-3) 대전충북지부 컨테이너탈지회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탄원서 조직 건 2-4) 민주노총 / 금속노조 정기대대 표창 추천 건 3-1) 13기 지부 규정 개정안 논의 건	32명 중 32명 참석
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월 29일(월) 14시 구미 오펀티칼 하이테크지회	2-1) 경주지부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 점검 건 2-2) 2024년 총선 진보의제에 관한 조합원 설문조사 실시 건 2-3) 지부 자산구매 논의 건 2-4) 경주지부 사회공헌기금 운영위 구성 건 2-5) 경주지부 개별조합원 승인 요청 건 2-6) 민주노총 / 금속노조 정기대대 표창 추천 건 3-1) 13기 지부 1년 차 집단교섭 의제, 투쟁 방침안, 예산안 논의 건	33명 중 27명 참석
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2월 05일(월) 14시 30분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 점검 건 2-2) 조양한울 투쟁승리! 금속노조 경북권 결의대회 조직 건 2-3) 한국오펀티칼 투쟁 사수!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조직 건 2-4) 「신입간부가 알아야 할 금속노조ABC」 교육영상 건	33명 중 32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경주지부 1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논의 건 2-6) 민주노총 / 금속노조 정기대대 표창 추가 논의 건 2-7) 경주지부 운영위 수련회 기획(안) 논의 건 3-1) 엠에스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플라스틱옴니업지회 조기 교섭 승인 요청 건 3-3) 13기 지부 정기대대 안건 현장 토론안 의견수렴 건 3-4) 금속노조 13기 현장 토론안 논의 건 	
6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2월 19일(월) 15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조직 건 2-2) 13기 1년차 지회장 교육 건 2-3) 금속노조 사업장 최저임금수준 실태조사 건 2-4) 13기 1년 차 조합원 의무교육 강사단훈련 건 2-5) 경주지부 여성의 날 기념사업 기획안 논의 건 2-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2-7)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명단 제출 건 	33명 중 30명 참석
7차 운영위원회 수련회 및 회의	2024년 2월 26일(월) 14시 청담 펜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 건 2-2) 3.20 금속노조 2024년 투쟁선포식 조직 건 2-3)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건 2-4) 경주지부 1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안건 확정 건 2-5) 13기 지부 조합원 참여 및 사회연대 사업 기획안 논의 건 3-1) 다스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세진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3) 2024년 교섭위원 교육 진행 의견수렴 건 3-4) 지부 12기 2년 평가 및 13기 1년차 사업/투쟁계획 최종 점검 건 3-5)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회계통장 지부 관할 건 	33명 중 33명 참석
8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3월 04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2024년 임단협 요구안 발송 지침 건 2-2) 현대비앤지스틸 경영책임자 구속 처벌 탄원서 조직 건 2-3) 중소기업지회 지원 지회 최저교부금 3차 교부대상 취합 건 2-4) 지부 미조직담당자 채용의 건 2-5) 13기 지부 조합원 참여 및 사회연대 사업 기획안 논의 건 3-1) 경주지부 유튜브(Youtube) 채널 개설 건 3-2) 지부 감사위원 선출 온라인 투표 논의 건 3-3) 에코플라스틱지회 보충교섭 요구안 심의·승인 건 	33명 중 32명 참석
9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3월 12일(화) 13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2. 2024년 지회별 요구안 심의·승인 건 	33명 중 27명 참석
1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3월 19일(화) 14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경주지부 2024년 요구안 발송 점검 건 2-2) 리어코리아지회 설치 승인 및 지부 대의원 선거구 확정 건 2-3) 독일기업 말레페어 한국공장폐쇄 철회 촉구 1만 서명운동 협조 요청 건 2-4)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 모금 진행 건 	34명 중 26명 참석

		2-5)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추가명단 승인 건 3-1)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교육 건 3-2) 경주지부 2024년 집단교섭 진행방안 논의 건 3-3) 디에스시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4) 경주지부 1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	
1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3월 25일(월) 14시 경주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요구안 발송 점검 건 2-2) 한국유포티칼 투쟁 승리 경북본부 결의대회 조직 건 2-3) 금속노조 2024년 조합원 의무교육 실시 건 2-4) 13기 당선인 의무교육 실시의 건 2-5) 지부 13기 1년차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건	34명 중 32명 참석
1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4월 01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집단교섭 및 보충교섭 상견례 일정 점검 건 2-2) 리어코리아 사내하청지회 편제 승인 요청 건 2-3) 2024년 금속노조 법률학교 실시의 건 2-4) '노사자율, 노조 자주성 침해, 노조 무력화' 노동부 규탄 투 쟁 건 2-5) 경주지부 조합원 참여사업 기획안 논의 건 3-1)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경주지부 1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	34명 중 33명 참석
1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4월 08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집단교섭 및 보충교섭 상견례 일정 점검 건 2-2)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3) 고공농성 100일! 유포티칼 고용승계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건 2-4)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건 2-5) 5~6월 미조직 조직화 및 시기 집중의제 선전전 진행 건 2-6) 금속노조 조합원 고용노동 인식 조사 설문지 배포 및 취 합 건 2-7) 경주지부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사용 승인 건 2-8)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2-9)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회 연대단 기획안 논의 건	34명 중 31명 참석
1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4월 15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4 세계노동절 경북대회 조직 건 2-3) 13기 경주지부 당선인 의무교육 실시 건 2-4) 13기 1년차 지부 역사 순례 기획안 논의 건 3-1) 경주지부 각종 업체 협약 체결 논의 건	34명 중 33명 참석
1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4월 22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세월호 10주기 추모 및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노 동자 선언> 조직 건 2-3) 금강지회 재가입 조합원 심의·승인 요청 건 2-4)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2-5)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3-1) 금강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후원주점 티켓 구매 건	34명 중 32명 참석

		3-3) 세월호 10주기 영화 “바람의 세월”관람 건	
16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4월 29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4년 민주노총 도보순회 투쟁 건 2-3)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명단 변경 건 3-1) 리어코리아지회 임·단협 요구안 심의·승인 건 3-2) 조합 규정 및 규칙 제·개정안 토론 건 3-3) 4.17 오택탈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 평가 건 3-4) 지부 집행위 현장 순회 평가 건	34명 중 33명 참석
17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5월 1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6.12 금속노조 1만 간부 상경 투쟁 조직 건 2-3) 6.22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건 2-4) 2024년 사업장 임금수준 및 노동시간 실태조사 실시 건 2-5)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3-1) 지부 현장 순회 평가 건	34명 중 31명 참석
18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5월 20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산재처리지원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건 2-3) 금속노조 13기 1년차 확대간부교육 건	34명 중 31명 참석
19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6월 0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4년 임단협 7월 시기집중파업 계획 논의 건 2-3) ILO 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전조합원 서명운동 건 2-4) 금속노조 법 개정 요구안 논의 건 2-5) 경주지부 특별회계-특수목적기금 사용 건 2-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3-1) 플라스틱옴니업지회 조기 조정신청 심의·승인 건 3-2) 금강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 안 심의·승인 건	34명 중 30명 참석
2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6월 10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4년 임단협 7월 파업투쟁 계획 논의 건 2-3) 6.12 1만 간부 상경 투쟁 점검 건 2-4) 현우지회 민주노조 사수 투쟁 건	34명 중 34명 참석
2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6월 17일(수) 13시 40분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4년 금속노조 7월 총파업 방식 논의 건 2-3) 현우지회 민주노조 사수 투쟁 건 3-1) 현우지회 조기 조정신청 심의·승인 건 3-2) 우영산업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3) 경주지부 13기 조합원 참여사업 평가 건	34명 중 32명 참석
2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6월 24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4년 임단협 쟁의 조정신청 지침 건 2-3) 대유위니아그룹 체불임금 국회 국민청원 조직 건 2-4) 2024년 조합원 가족캠프 및 하계휴양소 운영 건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지회별 선전전 진행 건	34명 중 28명 참석

		<p>3-1) 7월 집단교섭 공동 전술 논의 건</p> <p>3-2) 에코플라스틱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p> <p>3-3) 발레오만도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p> <p>3-4)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p> <p>3-5) 경주지부 13기 조합원 참여사업 평가 건</p> <p>3-6) 6.12 1만 간부 결의대회 평가 건</p>	
2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7월 01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p>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p> <p>2-2) 금속노조 총파업 경주·포항 지역결의대회 건</p> <p>2-3)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200일, 고용승계촉구! 먹튀방지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건</p> <p>2-4) 경주지부 2024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점검 건</p> <p>2-5) 쟁의대책위원회 전환 건</p> <p>2-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p> <p>2-7) 경주지부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사용 승인 건</p> <p>3-1) 7월 집단교섭 공동 전술 논의 건</p> <p>3-2) 엠에스정밀지회 교섭 의견접근 유보 건</p> <p>3-3) 현우지회 2024년 보충교섭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p>	34명 중 30명 참석
2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7월 08일(월) 10시 30분 지부 회의실	<p>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p> <p>2-2) 금속노조 7월 총파업 2차 투쟁 건</p> <p>2-3) 엠에스정밀지회 현안 대응 논의 건</p>	34명 중 29명 참석
2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7월 15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p>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p> <p>2-2) 발레오만도지회 투쟁 대응 논의 건</p> <p>2-3)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p>	34명 중 30명 참석
26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7월 22일(월) 13시 지부 회의실	<p>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p> <p>2-2) 발레오만도지회 투쟁 승리! 경주지부 결의대회 건</p> <p>2-3) 2024년 지부·지회 단체교섭 승인 및 결과 보고 지침 건</p> <p>2-4) 집단교섭 공동 전술 논의 건</p> <p>3-1) 다스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p> <p>3-2) 다스지회 특별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p> <p>3-3) 에코플라스틱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p>	34명 중 31명 참석
27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8월 05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p>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p> <p>2-2) 엠에스정밀지회 현안 점검 건</p> <p>2-3) 윤석열 정권 퇴진! 815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건</p> <p>2-4)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신문·라디오 광고 기금모금 건</p> <p>2-5) 집단교섭 공동투쟁 전술 논의 건</p>	34명 중 33명 참석
28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8월 12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p>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p> <p>2-2)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건</p> <p>2-3) 8.17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망버스 참가 조직 건</p>	34명 중 30명 참석

		2-4) 발레오만도지회 투쟁 계획 논의 건 2-5) 엠에스정밀지회 현안 점검 및 조합비 유예 승인 요청 건	
29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8월 19일(월) 14시 발레오만도지회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발레오만도지회 2024년 투쟁 승리 경주지부 결의대회 건 3-1) 한국 오퍼칼 추석 생계기금 마련 재정사업 구입 건 3-2) 민주노총 경주지부 추석 재정사업 구입 건	34명 중 32명 참석
3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9월 02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9.7 기후정의 행진 조직 건 2-3) 2024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 사업장 전수 조사 실시 건 2-4) 금속법률원 자문계약 무료(10회) 변론 사용 승인 건 3-1) 8.22 발레오만도지회 투쟁 승리 지부 결의대회 평가 건	34명 중 32명 참석
3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9월 09일(월) 13시 지부 회의실	2-1)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중소기업사회 지원 최저교부금 4차 교부대상 취합 건 2-3)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2-4) 경주지부 운영비 예산 일반회계 목간 전용 건 2-5) 경주지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건 3-1)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복귀 건 3-2)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징계 요청 건	34명 중 29명 참석
3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9월 2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9.27 윤석열 퇴진! 경북 민중대회 참가 조직 건 2-3) 2024 금속노조 외투자본 대응을 위한 간담회 건 2-4)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2-5) 경주지부 특별결의금 세척 임금기준표 조정 건 3-1) 세진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2) 8.22 경주지부 결의대회평가 건 3-3) 금강지회 질의에 대한 논의 건 3-4)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투쟁기금 마련 연대의 밤 티켓 구매 건	34명 중 31명 참석
3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9월 30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2024년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 합의(안) 찬반투표 건 2-3) 2024년 미승인, 불승인 사업장 사유서 취합 건 2-4) 2024년 지부 확대 간부교육 미사용 1일 사용 건 2-5) 2024년 지부 총회 시간 사용 논의 건 3-1) 에코플라스틱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3) 지부 진상조사 건	34명 중 31명 참석
3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0월 17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11.9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건 2-3) 윤석열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건 2-4)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3-1) 발레오만도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요청 건	34명 중 29명 참석
3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 10월 14일(월) 14시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11.9 전국노동자 대회 조직 점검 건 2-3) 엠에스정밀지회 매각 반대! 생존권 사수 투쟁 건	34명 중 32명

	지부 회의실	2-4)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2-5)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건 3-1)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취합 건 3-2) 발레오만도 노동탄압 백서 구매 건	참석
36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0월 21일(월) 14시 우영산업지회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11.9 전국노동자 대회 조직 2차 점검 건 2-3)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300일, 연대버스 참가 건 2-4)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일정 점검 건 3-1)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취합 건 3-2) 일진베어링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4명 중 27명 참석
37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0월 28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11.9 전국노동자 대회 조직 3차 점검 건 2-3)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일정 점검 건 2-4) 민주노총 정책대회 참가조직 및 명단 취합 건 2-5) 2024 본부 활동가대회 참가 조직 건 2-6) 경주지부 13기 1년차 경정예산(안) 승인 건 3-1) 엠에스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2) 두양정공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3) 발레오만도지회 보충협약 요구안 심의·승인 건	34명 중 31명 참석
38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1월 05일(화) 14시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현대중공업 폭력 사태 규탄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조직 건 2-3)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일정 점검 건 2-4) 경주지부 13기 1년차 경정예산(안) 승인 건 3-1)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2) 에코플라스틱지회 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3) 세진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4) 리어코리아지회 근무형태변경 교섭 요구안 심의·승인 건	34명 중 29명 참석
39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1월 18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12.7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 및 3차 총궐기 조직 건 2-3) 금속노조 13기 2년차 조합 대의원·중앙위원 배정 및 대의원 선거 건 2-4) 경주지부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 건 2-5) 경주지부 코리아에프티지회 설치 승인 건 2-6)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일정 점검 건 3-1) 금강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2025년 열사사업 재정 마련 건	35명 중 30명 참석
4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1월 25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12.7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 참가 점검 건 2-3) 경주지부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구 배정 건 2-4)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일정 점검 건	35명 중 34명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디에스지지회 특별교섭 개최 심의·승인 건 3-2) 다스지지회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3) 비투지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4) 11.9 전국노동자대회 평가 건 3-5) 2024년 하반기 지부 확대간부교육 평가 건 	
4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2월 02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엠에스정밀지지회 투쟁 현황 점검 건 2-3) 경주지부 13기 2년 차 가예산(안) 승인 건 2-4) 경주지부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사용 승인 건 2-5) 조합비 정상 납부계획 승인 건 3-1) 두양정공지지회 특별교섭 개최 심의·승인 건 3-2) 윤석열 퇴진 경주시민행동 건 3-3) 금속노조 체계 혁신 과제 현장 토론 건 	35명 중 31명 참석
4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2월 05일(월) 09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건 1) 내란죄 윤석열 퇴진 긴급 투쟁 건 	35명 중 29명 참석
4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2월 09일(월) 14시 디에스지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구속! 금속노조 투쟁계획 논의 건 2-3) 엠에스정밀지지회 투쟁 현황 점검 건 2-4)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2-5)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부당징계 탄원서 조직 건 3-1) 금속노조 체계 혁신 과제 현장 토론 건 	35명 중 32명 참석
4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2월 16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2025년 임·단협 교섭 요구 공문발송 지침 건 2-3) 금속노조 경주지부 2025년 사무식 건 	35명 중 31명 참석
4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4년 12월 2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건 2-2) 경주지부 13기 2년차 신입간부 교육 건 3-1) 금속노조 13기 1년차 사업평가 현장토론안 논의 건 3-2)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건 3-3) 윤석열 퇴진 요구 현장조합원 참여 건 	35명 중 29명 참석

3. 각종 사업 집행 건

지회명	조합원수	01/04	01/29	02/16	02/22	02/23	02/28	03/08	03/11	03/12	3/20	3/31	
		금속노조 13기 경주시 부 2024년 사무식 (양산)	한국 오퍼칼 지회투쟁 약식 보고대회 (구미)	오퍼칼 투쟁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구미)	조양한 울 분회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대구)	민주노총 2024 투쟁선포 영남권 결의대회 (구미)	금속노조 13기1차 정기 대의원 대회 (단양)	윤석열 정권 퇴진 경북 민중대회 (구미)	금속노조 13기 경주시 부 1차 정기대회 (지부)	리어코 리아지 회 설립 조합원 총회 (지회)	금속노조 2024 투쟁 선포식 (서울)	경주시 부 여성의 날 기념 조합원 단합대회 (울진)	
광명산업지회	21	-	1	-	-	-	-	-	1	1	-	-	
금강지회	158	3	1	3	-	-	2	2	9	4	11	1	
다스지회	743	7	2	6	-	-	4	-	19	8	19	16	
KBI동국실업지회	34	3	1	2	-	1	1	-	3	1	2	-	
동진이공지회	3	-	-	-	-	-	-	-	-	-	-	-	
두양정공지회	27	1	1	2	-	-	1	1	2	1	5	-	
디에스지지회	204	2	1	-	4	4	1	6	9	-	8	-	
리어코리아지회	127									96	-	-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9	-	-	-	-	-	-	-	-				
명성공업지회	76	2	1	-	2	-	-	2	5	2	9	-	
발레오만도지회	391	1	1	-	15	-	2	4	11	2	15	-	
비투지지회	55	2	1	-	8	4	1	2	4	3	6	-	
세진지회	317	4	1	4	5	4	2	4	12	4	10	34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1	1	1	-	5	4	1	3	9	2	8	31	
아진카인텍지회	4	-	-	-	-	-	1	-	1	-	-	-	
에코플라스틱지회	360	4	1	-	8	-	2	6	20	5	20	-	
엠에스지회	294	5	2	-	5	4	1	6	10	8	27	-	
엠에스정밀지회	78	2	1	1	8	-	1	4	5	2	-	-	
우영산업지회	282	6	2	4	2	2	1	4	13	3	18	13	
인지컨트롤스지회	49	1	-	1	1	-	1	1	3	1	4	16	
일진베어링지회	167	2	1	2	2	-	-	2	9	3	10	-	
청우지회	21	2	1	-	-	-	1	1	1	1	2	-	
코레스지회	10	-	-	-	-	-	-	-	1	-	-	-	
플라스틱옵니엄지회	72	1	1	1	2	2	1	1	2	1	-	-	
현담산업지회	132	3	1	-	-	1	-	-	5	1	15	16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1	1	-	2	-	-	2	4	1	8	-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50	6	3	8	4	4	2	12	15	10	29	-	
현대아이에이치엘지지회	318	1	1	4	5	-	3	6	10	5	12	38	
현대엠시트지회	114	1	1	-	-	-	1	-	7	-	4	-	
현우지회	57	2	-	2	1	-	-	-	2	3	-	-	
지부	14(전체)	5	27	14	9	9	6	5	10	16	14	12	15
	5(개별)												
합계	4,595	90	42	49	88	36	35	79	208	182	257	180	

지회명	조 합 원 수	4/04	4/05	4/17	4/24	5/01	5/08	5/22	5/24~2	5/29	6/12	6/19	
		읍터칼 규탄 민주노 총 경북본 부 결의대 회 (구미)	노동부 규탄 동시다 발 기자회 견 및 면담 (포항)	읍터칼 생존권 사수 금속노 조 결의대 회 (평택)	건강한 일터 쟁취 민주노 총 결의대 회 (서울)	134년 세계 노동절 경북 대회 (구미)	경주지 부 동시 다발 노동의 제 선전전 (각거점)	경주지 부 동시 다발 노동의 제 선전전 (각거점)	5 경주지 부 여순 항쟁 역사기 행 (여수, 순천)	경주지 부 동시 다발 노동의 제 선전전 (각거점)	금속노 조 2024 1만 간부 결의대 회 (서울)	경주지 부 동시 다발 노동의 제 선전전 (각거점)	
광명산업지회	17	-	-	-	-	4	-	-	-	-	-	-	
금강지회	166	7	1	5	2	27	3	3	1	3	30	-	
다스지회	743	13	-	7	1	49	11	7	5	10	39	-	
KBI동국실업지회	34	1	1	1	-	33	2	1	1	2	-	3	
동진이공지회	3	-	-	-	-	1	-	-	-	-	-	-	
두양정공지회	27	1	1	1	-	5	2	2	-	4	5	2	
디에스시지회	204	5	1	6	-	17	4	-	4	2	20	3	
리어코리아지회	161	-	-	-	-	34	6	6	2	6	14	3	
명성공업지회	73	3	1	3	2	8	4	1	-	1	6	-	
발레오만도지회	400	3	2	14	1	18	8	8	2	6	16	4	
비투지지회	53	4	1	4	1	10	4	4	3	3	3	4	
세진지회	317	8	2	11	1	29	5	5	6	5	16	4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1	4	-	4	1	21	4	4	-	4	12	3	
아진카인텍지회	18	1	-	-	-	10	-	-	-	-	-	-	
에코플라스틱지회	361	12	1	11	1	39	8	6	-	7	31	7	
엠에스지회	294	8	2	8	3	32	4	4	3	3	28	4	
엠에스정밀지회	67	6	1	6	2	6	2	1	4	-	12	2	
우영산업지회	281	6	2	2	2	26	10	7	-	8	24	9	
인지컨트롤스지회	49	1	-	-	-	8	-	-	1	-	3	-	
일진베어링지회	167	6	2	6	1	19	4	6	6	3	17	4	
청우지회	21	1	1	-	-	1	1	2	2	1	2	1	
코레스지회	10	-	-	-	-	-	-	-	-	-	-	-	
플라스틱옵니엄지회	70	1	1	3	-	6	3	2	-	3	4	-	
현담산업지회	131	1	-	-	-	16	-	3	-	1	13	-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1	1	-	-	10	1	-	-	-	5	-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53	4	-	6	2	30	6	-	4	6	29	-	
현대아이에이치엘지지회	318	13	2	10	2	16	13	6	6	6	18	6	
현대엠시트지회	114	1	1	3	0	16	3	2	-	-	8	-	
현우지회	46	3	2	1	0	4	1	2	-	2	-	-	
지부	14(전체)	5	9	5	7	6	19	21	15	10	11	14	8
	5(개별)												
합계	4,625	123	31	119	28	514	130	97	60	97	369	67	

지회명	조합원수	6/22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서울)	6/26 산재처 리지연 규탄 금속노 조 결의대 회 (울산)	7/10 금속노 조 2024년 1차 총과업 결의대 회 (포항)	7/17 발레오 사회적 책임 추구 기자회 건 (시청)	7/18 현대차 규탄 금속노 조 결의대 회 (울산)	7/23 발레오 만도지 회 투쟁승 리 경주지 부 결의대 회 (발레오)	7/24 교용승 계 먹튀방 지벌제 정 민주노 총 결의대 회 (옵티칼)	8/06 수도검 침원분 회 정규직 전환촉 구 기자회 건 (시청)	8/13 발레오 쟁의권 인정 도급중 단 기자회 건 (포항)	8/17 아리셀 중대재 해 참사 추모 희망버 스 (아리셀)	8/17 노조법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 (서울)	
광명산업지회	17	-	-	-	-	-	-	-	-	-	-	-	
금강지회	165	10	4	28	1	6	6	-	2	2	-	5	
다스지회	742	10	10	22	-	13	7	18	-	-	2	8	
KBI동국실업지회	34	1	3	5	-	-	1	3	-	-	-	1	
동진이공지회	3	-	-	-	-	-	-	-	-	-	-	-	
두양정공지회	26	2	-	5	1	2	-	2	-	1	-	2	
디에스시지회	204	5	5	19	-	6	6	8	-	-	-	4	
리어코리아지회	161	5	-	14	-	-	6	8	4	5	2	2	
명성공업지회	75	4	5	45	1	4	-	5	-	1	1	2	
발레오만도지회	404	6	3	17	16	202	350	-	3	8	-	-	
비투지지회	48	-	-	3	2	3	2	3	2	2	-	2	
세진지회	317	14	-	25	-	13	10	10	-	-	-	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2	4	5	13	1	4	4	2	-	-	-	4	
아진카인텍지회	18	-	-	-	-	-	-	-	-	-	-	-	
에코플라스틱지회	369	14	-	39	2	13	14	14	2	-	1	11	
엠에스지회	294	8	7	29	2	18	20	-	-	2	1	4	
엠에스정밀지회	67	3	9	-	1	3	-	-	-	-	-	-	
우영산업지회	279	9	9	25	3	10	7	4	2	2	6	-	
인지컨트롤스지회	49	1	5	5	-	2	1	-	-	1	-	-	
일진베어링지회	167	6	4	31	2	7	6	5	-	1	-	4	
청우지회	21	1	-	3	1	1	1	2	-	1	-	1	
코레스지회	10	-	-	-	-	-	-	-	-	-	-	-	
플라스틱옵니엄지회	71	1	-	3	-	3	2	3	-	1	-	1	
현담산업지회	131	-	3	-	-	-	2	3	-	-	-	-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1	-	-	-	-	-	-	-	1	-	1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53	9	-	30	-	5	3	5	2	3	2	9	
현대아이에이치엘지지회	318	12	14	13	2	12	11	13	2	2	1	10	
현대엠시트지회	114	4	5	9	-	-	-	1	-	-	-	3	
현우지회	45	-	-	3	1	3	-	2	-	-	-	-	
지부	14(전체)	5	13	7	18	12	13	13	13	5	8	12	7
	5(개별)												
합계	4,630	143	98	404	48	343	472	124	24	41	28	84	

지회명	조 합 원 수	8/22 발레오 투쟁승리 경주시부 조합원 결의대회 (발레오)	9/03 인권유린 울산 출입국 규탄 결의대회 (울산)	9/11 민주노총 경북본부 기후 정의 학교 (지부)	9/26 미조직 거점 동시다발 선전전 (각거점)	9/27 윤석열 퇴진 경북 민중대회 (의성)	10/24 미조직 거점 동시다발 선전전 (각거점)	11/01 2024 민주노총 경북본부 활동가 대회 (성호)	11/02 유타칼 교공농성 300일 연대 버스 (구미)	11/02 2024 성평등 어우러짐 축제	11/04 2024 경주 지부 확대간부 교육 (더케이)	
광명산업지회	16	-	-	-	-	-	-	-	-	-	-	
금강지회	167	100	2	2	-	-	7	3	2	-	17	
다스지회	742	308	3	-	5	7	6	8	14	-	40	
KBI동국실업지회	34	-	1	-	1	-	-	2	1	-	8	
동진이공지회	3	-	-	-	-	-	-	-	-	-	-	
두양정공지회	26	2	2	2	2	1	2	-	-	-	5	
디에스시지회	203	57	-	6	3	4	3	-	2	-	21	
리어코리아지회	178	6	-	2	6	4	6	-	4	-	15	
명성공업지회	74	4	3	2	-	1	-	-	2	-	10	
발레오만도지회	403	310	-	-	6	4	6	-	4	-	17	
비투지지회	46	3	2	-	-	2	-	-	-	-	-	
세진지회	314	-	7	8	-	4	2	-	2	-	18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2	8	-	1	4	4	3	-	-	3	12	
아진카인택지회	19	-	-	-	-	-	-	-	-	-	-	
에코플러스지회	370	118	-	-	5	10	6	-	6	-	38	
엠에스지회	294	112	-	-	4	6	3	-	4	-	29	
엠에스정밀지회	59	-	-	-	-	-	-	-	-	-	-	
우영산업지회	277	7	2	3	9	-	-	-	3	-	22	
인지컨트롤스지회	49	1	-	-	-	-	-	-	-	-	2	
일진베어링지회	167	97	-	-	4	6	3	1	-	-	17	
청우지회	23	1	1	-	-	-	-	-	-	-	3	
코레스지회	12	-	-	-	-	-	-	-	-	-	1	
플라스틱옵니업지회	75	2	-	-	1	1	-	-	1	-	3	
현담산업지회	133	1	-	-	-	6	-	-	-	-	13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	-	-	-	-	-	-	1	-	-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51	13	-	-	6	6	-	-	6	-	29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8	128	-	3	6	8	7	9	7	4	17	
현대엠시트지회	114	2	-	-	-	-	-	-	-	-	-	
현우지회	45	5	1	-	-	1	-	-	-	-	3	
지부	14(전체)	5	17	4	2	13	12	11	7	10	5	17
	5(개별)											
합계	4,640	1,302	28	31	75	87	65	30	69	12	357	

지회명	조합원수	11/07 코리아 에프티 지회 조직형 태 변경 총회	11/09 전태일 정신계 승 전국 노동자 대회 (서울)	11/19 금속노 조 2024년 법률학 교 노동법 특강 (지부)	11/21 미조직 거점 동시다 발 선전전 (각거점)	12/04 불법계 업 규탄 선전전 및 울산 촛불집 회	12/05 윤석열 퇴진 경주지 부 긴급 기자회 견 (시청)	12/06 불법계 업 규탄 윤석열 퇴진 경주지 부 결의대 회	12/07 내란죄 윤석열 퇴진 3차 총궐기 (서울)	12/10 탄핵불 참 규탄 국힘해 체 긴급 기자회 견	12/12 민주노 총 1만 간부 상경 결의대 회 (서울)	12/14 윤석열 구속 국힘해 체 경주 울산 촛불집 회	
광명산업지회	16	-	5	-	-	-	-	-	-	-	-	1	
금강지회	168	4	28	2	4	13	3	13	14	3	-	9	
다스지회	741	6	55	3	5	-	-	27	11	-	11	10	
KBI동국실업지회	34	1	10	-	-	1	1	1	2	1	1	1	
동진이공지회	3	-	1	-	-	-	-	-	-	-	-	-	
두양정공지회	26	1	5	-	2	-	1	-	2	-	-	-	
디에스시지회	203	4	20	-	3	6	2	7	4	-	4	6	
리어코리아지회	187	5	86	6	7	4	6	9	7	-	4	5	
명성공업지회	74	7	11	3	-	6	0	6	5	-	3	4	
발레오만도지회	409	3	26	1	2	7	-	34	6	7	7	33	
비투지지회	45	-	-	-	-	2	2	4	3	2	3	1	
세진지회	314	5	27	3	-	7	1	11	9	-	-	5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2	2	28	1	2	2	1	11	7	-	6	-	
아진카인텍지회	19	-	7	-	-	-	-	-	-	-	-	2	
에코플라스틱지회	371	7	56	3	5	11	4	20	15	-	4	15	
엠에스지회	295	6	29	4	4	6	4	25	27	5	7	10	
엠에스정밀지회	53	-	-	-	-	-	-	-	-	-	-	-	
우영산업지회	278	13	27	5	6	10	-	20	9	-	6	2	
인지컨트롤스지회	49	-	4	-	-	-	-	5	4	-	1	3	
일진베어링지회	167	5	27	2	3	4	2	15	9	2	5	-	
청우지회	23	1	1	-	-	1	1	3	1	-	1	2	
크레스지회	12	-	-	-	-	-	-	-	-	-	-	1	
코리아에프티지회	34	33	-	-	-	-	1	2	7	2	3	4	
플라스틱옵니엄지회	77	1	3	-	-	1	1	4	3	-	1	-	
현담산업지회	133	-	15	1	-	14	2	8	-	-	4	1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	7	-	1	1	1	4	4	-	2	1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53	10	30	1	-	17	7	9	27	-	-	9	
현대아이에이지엘지회	319	4	28	-	4	1	-	11	11	1	11	4	
현대엠시트지회	114	-	-	-	-	4	3	8	-	-	-	4	
현우지회	44	4	25	-	1	-	1	3	2	-	1	-	
지부	14(전체)	5	17	17	3	12	14	11	14	12	7	12	16
	5(개별)												
합계	4,684	139	578	38	61	132	55	274	201	30	97	149	

4. 2024년 교섭경과 보고

1) 경주지부 집단교섭

구분	교섭일시	내용
1차	4/18(목), 14시, 더케이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	5/02(목), 10시, 지부 회의실	요구안 취지설명
3차	5/09(목), 10시, 지부 회의실	질의응답
4차	5/16(목), 10시, 지부 회의실	1개 조항 의견접근
5차	5/23(목), 14시, 지부 회의실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6차	5/30(목), 10시, 지부 회의실	2개 조항 의견접근
7차	6/13(목), 14시, 다스	1개 조항 의견접근
8차	6/20(목), 14시, 발레오만도	제시안 없음
9차	7/18(목), 10시, 엠에스	2개 조항 의견접근
10차	7/22(월), 15시, 지부 회의실	명성공업지회 의견접근(시급 100원)
11차	8/19(월), 10시, 발레오만도	우영산업지회 의견접근 (시급 150원, 일시급 120만원, 위로금 100만원)
12차	8/21(수), 10시, 발레오만도	-
13차	8/22(목), 09시, 발레오만도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의견접근 (시급 180원, 일시급 100만원) 세진지회 의견접근 (시급 140원, 일시급 10만원)
14차	8/23(금), 09시, 발레오만도	다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330원, 성과금 800만원) 발레오만도지회 의견접근 (시급 400원, 성과금 500만원, 타결금 300만원) 세진지회 의견접근 (시급 140원, 일시급 40만원, 격려금 40만원)
15차	8/26(월), 09시, 세진	금강지회 의견접근 (시급 20원, 일시급 50만원) 세진지회 의견접근 (시급 150원, 일시급 40만원, 격려금 40만원)
16차	8/27(화), 09시, 지부	세진지회 의견접근 (시급 150원, 일시급 40만원, 격려금 40만원, 생산장려금 25만원) 디에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300원, 일시급/성과금 720만원) 다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350원, 성과금 850만원, 타결금 50만원)
17차	8/28(수), 10시, 지부	-
18차	8/29(목), 08시, 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의견접근 (시급 350원, 타결일시급 600만원, 품질목표달성격려금 600만원)
19차	8/30(금), 09시, 지부	엠에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380원, 성과금 950만원, 32시간) 에코플라스틱지회 의견접근 (시급 390원, 일시급 700만원, 특근 4일)
20차	9/03(화), 09시 30분, 지부	엠에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380원, 성과금 950만원, 40시간) 에코플라스틱지회 의견접근 (시급 400원, 일시급 800만원, 특근 4일)
21차	9/04(수), 08시 30분, 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의견접근 (시급 400원, 타결일시급 600만원, 품질목표달성격려금 720만원, 상품권 30만원)
22차	9/05(목), 09시, 지부	일진베어링지회 의견접근 (시급 350원, 타결일시급 900만원, 특근 4일)

23차	9/10(화), 09시, 일진베어링	일진베어링지회 의견접근 (시급 400원, 타결일시금 1,350만원, 특근 6일)
24차	9/11(수), 09시, 일진베어링	일진베어링지회 의견접근 (시급 400원, 타결일시금 1,350만원, 상품권 20만원, 특근 6일)

2) 사업장 보충교섭

구분	지회명	단협유무	교섭차수	쟁점내용 및 사측탄압	비고
1	금강	임금/보충	1차(4/19)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6)	요구안 설명	
			3차(5/03)	질의응답	
			4차(5/10)	질의응답	
			5차(5/14)	2개 조항 의견접근	
			6차(5/21)	상호공방	
			7차(5/28)	2개 조항 의견접근	
			8차(6/04)	상호공방	
			9차(6/14)	1개 조항 의견접근	
			10차(6/21)	제시안 없음	
			11차(8/06)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12차(8/26)	보충교섭 의견접근
2	다스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30)	요구안 설명	
			3차(5/07)	사측 요구안 설명	
			4차(5/10)	질의응답	
			5차(5/21)	제시안 없음	
			6차(5/28)	제시안 없음	
			7차(5/31)	제시안 없음	
			8차(6/04)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6/14)	1개 조항 의견접근	
			10차(6/21)	제시안 없음	
			11차(7/23)	1개 조항 의견접근	
			12차(7/24)	상호공방	
			13차(8/06)	2개 조항 의견접근	
			14차(8/08)	상호공방	
			15차(8/09)	1개 조항 의견접근	
			16차(8/13)	상호공방	
			17차(8/19)	상호공방	
			18차(8/20)	상호공방	
	19차(8/21)	1개 조항 의견접근			

			20차(8/22)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3.3% 가결
3	다스간비교섭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6)	요구안 설명	
			3차(5/03)	질의응답	
			4차(5/07)	상호공방	
			5차(5/14)	제시안 없음	
			6차(5/28)	제시안 없음	
			7차(5/31)	1개 조항 의견접근	
			8차(6/04)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6/14)	제시안 없음	
			10차(6/21)	제시안 없음	
			11차(8/12)	상호공방	
			12차(8/13)	2개 조항 의견접근	
			13차(8/21)	보충교섭 의견접근	
			14차(8/26)	임금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3.2% 가결
4	두양정공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30)	요구안 설명	
			3차(5/10)	요구안 설명	
			4차(5/14)	질의응답	
			5차(5/24)	제시안 없음	
			6차(5/28)	제시안 없음	
			7차(6/04)	1개 조항 의견접근	
			8차(6/11)	제시안 없음	
			9차(6/18)	제시안 없음	
			10차(6/21)	제시안 없음	
			11차(7/23)	1개 조항 의견접근	
			12차(8/06)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13차(8/12)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6% 가결
5	디에스시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미합의)	
			2차(4/26)	교섭원칙 합의	
			3차(5/03)	요구안 설명	
			4차(5/10)	질의응답	
			5차(5/17)	5개 조항 의견접근	
			6차(5/24)	4개 조항 의견접근	
			7차(5/31)	3개 조항 의견접근	
			8차(6/04)	3개 조항 의견접근	
			9차(6/14)	3개 조항 의견접근	
			10차(6/21)	제시안 없음	

			11차(7/19)	제시안 없음	
			12차(8/06)	상호공방	
			13차(8/13)	제시안 없음	
			14차(8/16)	6개 조항 의견접근	
			15차(8/22)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4.2% 가결
6	명성공업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6)	요구안 설명	
			3차(5/03)	질의응답	
			4차(5/10)	1개 조항 의견접근	
			5차(5/21)	3개 조항 의견접근	
			6차(5/28)	제시안 없음	
			7차(6/07)	제시안 없음	
			8차(6/21)	제시안 없음	
			9차(7/19)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70.59% 가결
7	발레오만도	임금/보충	1차(4/19)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6)	요구안 설명	
			3차(5/03)	요구안 설명	
			4차(5/10)	요구안 설명	
			5차(5/24)	13개 조항 의견접근	
			6차(5/31)	상호공방	
			7차(6/10)	2개 조항 의견접근	
			8차(6/14)	10개 조항 의견접근	
			9차(6/21)	제시안 없음	
			10차(7/22)	상호공방	
			11차(7/23)	상호공방	
			12차(8/06)	23개 조항 의견접근	
			13차(8/07)	상호공방	
			14차(8/09)	12개 조항 의견접근	
			15차(8/12)	4개 조항 의견접근	
			16차(8/13)	상호공방	
			17차(8/19)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18차(8/20)	1개 조항 의견접근	
			19차(8/21)	1개 조항 의견접근	
			20차(8/22)	4개 조항 의견접근	
			21차(8/23)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9.1% 가결
8	비투지	임금/보충	1차(4/23)	질의응답	
			2차(4/30)	요구안 설명	
			3차(5/07)	요구안 설명	

			4차(5/28)	질의응답	
			5차(6/04)	5개 조항 의견접근	
			6차(6/11)	3개 조항 의견접근	
			7차(6/13)	상호공방	
			8차(6/18)	제시안 없음	
			9차(6/20)	제시안 없음	
			10차(8/06)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8.1% 가결
9	세진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6)	요구안 설명	
			3차(4/30)	요구안 설명	
			4차(5/03)	경영설명회	
			5차(5/10)	제시안 없음	
			6차(5/14)	제시안 없음	
			7차(5/21)	제시안 없음	
			8차(5/24)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5/28)	1개 조항 의견접근	
			10차(6/04)	제시안 없음	
			11차(6/11)	제시안 없음	
			12차(6/21)	제시안 없음	
			13차(8/12)	1개 조항 의견접근	
			14차(8/19)	상호공방	
			15차(8/21)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7.4% 가결
10	아이티더블유경주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3)	경영설명회	
			3차(5/07)	요구안 설명	
			4차(5/14)	질의응답	
			5차(5/17)	질의응답	
			6차(5/21)	제시안 없음	
			7차(5/24)	상호공방	
			8차(5/28)	4개 조항 의견접근	
			9차(5/31)	1개 조항 의견접근	
			10차(6/04)	상호공방	
			11차(6/11)	1개 조항 의견접근	
			12차(6/14)	1개 조항 의견접근	
			13차(6/21)	제시안 없음	
			14차(8/06)	2개 조항 의견접근	
			15차(8/07)	5개 조항 의견접근	
16차(8/13)	1개 조항 의견접근				

			17차(8/14)	7개 조항 의견접근	
			18차(8/16)	1개 조항 의견접근	
			19차(8/20)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1.2% 가결
11	에코플라스틱	임금/보충	1차(4/19)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3)	요구안 설명	
			3차(4/30)	요구안 설명	
			4차(5/03)	요구안 설명	
			5차(5/07)	요구안 설명	
			6차(5/10)	1개 조항 의견접근	
			7차(5/14)	제시안 없음	
			8차(5/17)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5/21)	1개 조항 의견접근	
			10차(5/3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1차(6/04)	1개 조항 의견접근	
			12차(6/11)	2개 조항 의견접근	
			13차(6/18)	제시안 없음	
			14차(6/21)	4개 조항 의견접근	
			15차(7/25)	7개 조항 의견접근	
			16차(8/08)	6개 조항 의견접근	
			17차(8/13)	5개 조항 의견접근	
			18차(8/16)	상호공방	
			19차(8/21)	6개 조항 의견접근	
			20차(8/23)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21차(8/26)	1개 조항 의견접근				
22차(8/27)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73.2% 가결			
12	엠에스	임금/보충	1차(4/26)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3)	요구안 설명	
			3차(5/08)	질의응답	
			4차(5/10)	제시안 없음	
			5차(5/29)	제시안 없음	
			6차(5/31)	2개 조항 의견접근	
			7차(6/05)	제시안 없음	
			8차(6/11)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6/14)	상호공방	
			10차(6/21)	상호공방	
			11차(8/09)	상호공방	
			12차(8/12)	상호공방	
			13차(8/13)	상호공방	
			14차(8/14)	1개 조항 의견접근	

			15차(8/19)	4개 조항 의견접근	
			16차(8/21)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1.1% 가결
13	엠에스정밀	임금/보충	1차(4/2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7)	요구안 설명	
			3차(5/14)	제시안 없음	
			4차(5/21)	1개 조항 의견접근	
			5차(6/04)	2개 조항 의견접근	
			6차(6/11)	제시안 없음	
			7차(6/14)	제시안 없음	
			8차(6/18)	제시안 없음	
			9차(6/21)	제시안 없음	
			10차(7/25)	제시안 없음	교섭 중단, 매각 진행 중
14	우영산업	임금/보충	1차(4/19)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6)	요구안 설명	
			3차(4/30)	제시안 없음	
			4차(5/03)	제시안 없음	
			5차(5/07)	3개 조항 의견접근	
			6차(5/10)	3개 조항 의견접근	
			7차(5/14)	1개 조항 의견접근	
			8차(5/17)	2개 조항 의견접근	
			9차(5/24)	2개 조항 의견접근	
			10차(5/31)	4개 조항 의견접근	
			11차(6/14)	6개 조항 의견접근	
			12차(6/21)	제시안 없음	
			13차(8/09)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8.5% 가결
15	일진베어링	임금/보충	1차(4/19)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3)	요구안 설명	
			3차(5/10)	질의응답	
			4차(5/17)	사측 경영설명회	
			5차(5/21)	1개 조항 의견접근	
			6차(5/28)	1개 조항 의견접근	
			7차(6/04)	1개 조항 의견접근	
			8차(6/14)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6/21)	제시안 없음	
			10차(7/19)	제시안 없음	
			11차(7/23)	2개 조항 의견접근	차기 교섭 미정
16	청우	임금/보충	1차(4/19)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30)	요구안 설명	
			3차(5/03)	질의응답	
			4차(5/14)	제시안 없음	
			5차(5/17)	6개 조항 의견접근	
			6차(5/21)	제시안 없음	
			7차(5/28)	제시안 없음	
			8차(5/31)	2개 조항 의견접근	
			9차(6/04)	제시안 없음	
			10차(6/11)	제시안 없음	
			11차(6/14)	제시안 없음	
			12차(6/21)	제시안 없음	
			13차(7/19)	의견접근	
			14차(8/09)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85% 가결
			17	현대성우솔라이트	임금/보충
2차(4/23)	요구안 설명				
3차(4/26)	요구안 설명				
4차(4/30)	1개 조항 의견접근				
5차(5/03)	4개 조항 의견접근				
6차(5/10)	제시안 없음				
7차(5/14)	제시안 없음				
8차(5/17)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5/28)	제시안 없음				
10차(5/31)	제시안 없음				
11차(6/21)	제시안 없음				
12차(7/19)	2개 조항 의견접근				
13차(7/23)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6.7% 가결			
18	현대아이에이치엘	임금/보충	1차(4/25)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3)	요구안 설명	
			3차(5/08)	요구안 설명	
			4차(5/10)	요구안 설명	
			5차(5/14)	요구안 설명	
			6차(5/17)	요구안 설명	
			7차(5/28)	전체 1독 완료	
			8차(5/31)	요구안 설명	
			9차(6/11)	요구안 설명	
			10차(6/14)	질의응답	
			11차(6/18)	4개 조항 의견접근	

			12차(6/21)	제시안 없음	
			13차(7/25)	상호공방	
			14차(8/27)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6% 가결

3) 별도교섭 사업장

구분	지회명	단협 유/무	교섭 차수	쟁점 내용 및 사측 탄압	비고
1	KBI동국실업 (경주. 아산)	임금/보충 (총남집단)	1차(4/25)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9)	요구안 설명	
			3차(5/23)	질의응답	
			4차(5/30)	질의응답	
			5차(6/13)	상호공방	
			6차(6/14)	상호공방	
			7차(6/20)	상호공방	
			8차(6/21)	상호공방	
			9차(6/27)	상호공방	
			10차(6/28)	2개 조항 의견접근	
			11차(7/03)	상호공방	
			12차(7/04)	상호공방	
			13차(7/1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7/12)	상호공방	
			15차(7/18)	상호공방	
			16차(7/19)	교섭 결렬	
			17차(8/21)	2개 조항 의견접근	
			18차(8/22)	상호공방	
			19차(8/29)	상호공방	
			20차(8/30)	상호공방	
			21차(9/04)	상호공방	
			22차(9/05)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2.3% 가결
2	현담산업 (경주. 아산)	임금/보충 (총남집단)	1차(4/19)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3)	요구안 설명	
			3차(5/10)	질의응답	
			4차(5/17)	질의응답	
			5차(5/24)	사측 경영설명	
			6차(5/31)	경영설명 질의응답	
			7차(6/14)	제시안 확인	
			8차(6/21)	제시안 없음	
			9차(7/19)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0차(8/09)	4개 조항 의견접근	
			11차(8/20)	제시안 없음	
			12차(8/23)	제시안 없음	
			13차(8/30)	3개 조항 의견접근	
			14차(9/02)	제시안 없음	

			15차(9/03)	제시안 없음	
			16차(9/04)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9.1% 가결
3	현대모비스물류 (7개 공동교섭)	임금/보충 (대구집단)	1차(5/08)	상견례(교섭원칙 미합의)	
			2차(5/17)	교섭원칙 미합의	
			3차(5/22)	사측 불참	
			4차(5/29)	교섭원칙 미합의	
			5차(6/05)	교섭원칙 미합의	
			6차(6/13)	교섭원칙 합의, 요구안 설명	
			7차(6/19)	질의응답	
			8차(6/26)	제시안 없음	
			9차(7/17)	제시안 없음	
			10차(7/24)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11차(8/14)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12차(8/30)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90% 가결
			4	현대엠시트 (경주, 아산)	임금/보충 (충남집단)
2차(5/24)	요구안 설명				
3차(5/28)	질의응답				
4차(6/05)	제시안 없음				
5차(6/14)	제시안 없음				
6차(6/19)	제시안 없음				
7차(6/21)	제시안 없음				
8차(7/23)	3개 조항 의견접근				
9차(8/23)	4개 조항 의견접근				
10차(8/30)	상호공방				
11차(9/06)	제시안 없음				
12차(9/16)	5개 조항 의견접근				
13차(10/08)	2개 조항 의견접근				
14차(10/10)	사측 제시안 없음				
15차(10/16)	사측 제시안 없음				
16차(10/18)	사측 제시안 없음				
17차(10/22)	사측 제시안 수용 거부				
18차(10/25)	사측 제시안 없음				
19차(11/07)	사측 제시안 없음				
20차(11/08)	사측 제시안 없음				
21차(11/12)	사측 제시안 없음				
22차(11/15)	사측 제시안 없음				
23차(11/19)	사측 제시안 없음				
24차(12/12)	2개 조항 의견접근				
25차(12/19)	사측 제시안 없음				
26차(12/26)	사측 제시안 없음				
27차(1/06)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9.2% 가결			

4) 신규교섭 사업장

구분	지회명	단협 유/무	교섭차수	쟁점내용 및 사측탄압	비고
1	리어코리아	24년 임단협	1차(5/0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14)	요구안 설명	
			3차(5/17)	요구안 설명	
			4차(5/21)	요구안 설명	
			5차(5/23)	2개 조항 의견접근	
			6차(5/28)	4개 조항 의견접근	
			7차(6/11)	5개 조항 의견접근	
			8차(6/14)	30개 조항 의견접근	
			9차(6/18)	46개 조항 의견접근	
			10차(6/21)	10개 조항 의견접근	
			11차(6/27)	4개 조항 의견접근	
			12차(6/28)	26개 조항 의견접근	
			13차(7/16)	임금 및 단체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79.8% 가결

5. 경주지부 2024년 집단협약 및 임금합의서 (참고자료 참조)

6. 부서 사업보고 및 평가

6-1. 조직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지회 소통 강화 및 조직력 위상강화
- 2)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역량강화
- 3)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조직력 복원

2. 주요사업

1) 조직 담당자회의 및 수련회 월별 일정

① 회의 및 수련회 일정

차 수	날 짜	장 소	회의 안건	비 고
1	24. 01. 19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경주지부 13기 1년차 조직부 사업계획 논의 건. 안건 2. 1월16일~18일(3일) 지부 집행위 현장순회 평가 건. 안건 3. 지회 정기 현장 점검 건. 안건 4. 기타 건.	지부3층 회의실
2	24. 03. 28,29	지부 조직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안건 1. 당면 투쟁 일정 논의 건. 안건 2. 13기 1년차 지부 조합원 참여사업(스포츠대회)논의 건. 안건 3. 경주지부 유튜브 채널 개설에 따른 홍보 방식 논의 건. 안건 4. 기타 건.	울산바다 별펜션
3	24. 04. 30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5월1일 노동절 지부 현장순회(4월24일~26일)평가 건. 안건 2. 경주 지부 상반기 집회 평가(배차 주차 문제) 건. 안건 3. 경주 지부 조직 담당자 13기 1년차 하반기 사업계획 건. 안건 4. 경주 지부 조합원 참여 사업(스포츠) 점검 건. 안건 5. 기타 건.	디에스시 지회
4	24. 06. 05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당면 투쟁 건. 안건 2. 지회별 조직력 강화 방안 논의 건. 안건 3. 경주지부 조합원 참여 사업(e스포츠 분야 스타대회) 건. 안건 4. 기타 건.	현우지회
5	24. 07 12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당면투쟁 건. 안건 2. 경주 지부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 논의 건. 안건 3. 기타 건.	현대성우 솔라이트 지회
6	24. 09 03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당면 투쟁 건. 안건 2.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 및 금속노조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안건 3. 13기 1년차 하반기 조직 담당자 수련회 건. 안건 4. 기타 건	리어코리 아지회
7	24. 10 24	지부 조직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안건 1. 당면 투쟁 건. 안건 2. 13기 1년차 조직부 사업 평가. 안건 3. 13기 1년차 하반기 조직 담당자 수련회 평가. 안건 4. 기타 건.	강원도 속초한화 리조트

8	24. 11 29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당면 투쟁 건. 안건 2. 13기 1년차 조직부 사업평가. 안건 3. 13기 2년차 조직부 사업계획(초안). 안건 4. 기타 건.	지부 4층회의실
---	-----------	---------------	---	-------------

② 참석자 현황

지부/지회	직 책(부장)	성 명	1차 01/19	2차 03/28	3차 04/30	4차 06/05	5차 07/12	6차 09/26	7차 10/24	8차 11/29
금강지회	조직부장	박세현	0	0	0	0	0	×	0	0
	쟁의부장	홍정상	0	0	0	×	0	×	0	0
	문체부장	박상복	0	0	×	0	0	×	0	0
다ს지회	조직부장	허성일	0	×	0	0	0	0	0	×
	조직부장	손경익	×	0	×	×	0	0	0	0
	조직부장	강주환	0	0	0	0	0	×	0	0
	선봉부장	임지훈	0	0	0	0	×	0	0	0
문화체육부장	유현철	0	0	0	0	0	0	0	0	
KBI동국실업지회	조직부장	김민석	0	0	0	0	×	0	0	0
두양정공지회	조직부장	윤인호	0	×	0	0	0	×	×	
디에스시지회	조직부장	최병근	0	0	0	0	0	×	0	0
	문화체육부장	허성대	×	0	0	0	0	×	0	×
명성공업지회	조직부장	김채석	0	0	0	0	0	0	×	
리어코리아지회	조직부장	정성화	×	×	×	0	0	0	0	×
발레오만도지회	조직부장	추재덕	0	0	0	0	0	×	×	×
비투지지회	조직부장	이상민	×	×	×	×	0	×	×	0
세진지회	조직부장	박대형	0	0	×	0	0	×	×	0
	쟁의부장	황제운	0	0	×	0	0	×	0	0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조직부장	최혁민	0	0	0	0	0	0	0	0
에코플라스틱지회	조직1부장	정기호	0	0	×	0	0	0	×	0
	조직2부장	정진락	0	0	0	0	0	0	×	0
	문체부장	윤지환	0	0	0	0	0	0	×	0
엠에스지회	조직부장	김병호	0	0	0	0	0	0	0	0
	조직부장	우진하	0	0	0	×	0	0	0	0
	문화체육부장	김태민	0	0	×	0	0	0	0	0
우영산업지회	조직1부장	김진희	-	0	0	0	0	×	0	0
	조직2부장	임경훈	0	0	0	0	0	0	0	0
	문화체육부장	윤상훈	0	0	0	0	0	0	×	×
인지컨트롤스지회	조직부장	최재명	0	×	×	×	×	0	×	×
일진베어링지회	조직부장	오수민	-	0	0	0	0	0	0	0
	조직부장	서창현	0	0	0	0	0	0	0	0
코리아에프티지회	조직부장	최영호	-	-	-	-	-	-	-	0
플라스틱옵니업지회	조직부장	박준호	0	0	×	0	0	0	×	0
현담산업지회	조직부장	서창환	0	0	0	0	0	0	0	0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조직부장	하기호	×	×	0	×	0	×	×	0
	조직부장	김윤호	0	0	×	0	0	0	0	×
	쟁의부장	고광태	0	0	×	0	0	0	0	×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문체부장	이현오	0	0	×	0	×	0	0	×
	조직부장	이보우	0	0	0	0	0	0	0	0
	쟁의부장	오세벽	0	0	0	0	0	0	0	0
현대엠시트지회	조직부장	유현철	0	0	0	×	×	×	×	0
	문화체육부장	강대현	×	0	×	×	×	×	×	0
현우지회	조직부장	이교경	0	0	0	0	0	0	0	0
경주지부	수석부지부장	차상호	0	0	×	0	0	0	0	×
	조직부장	황준하	0	0	0	0	0	0	0	0
	조직부장	손현석	0	0	0	0	0	0	0	0
성원 : 46명			40명	40명	31명	38명	39명	31명	32명	34명

2) 월별 사업보고

구 분 (2024년)	날짜	사업 내용	비고
1월	04일	경주 지부 시무식(양산 솔밭산 역사 묘역)	양산
	05일	현우지회 조합원교육(지부 최익선 미비국장교육)	현우지회
	09일	구미 한국옵티칼 기자 회견	구미
	10일	현우지회 주간조 간담회	외동뜰안
	11일	미조직 선전전	금장교
	16일	경주지부 임원 및 집행위 지회현장 순회 -엠에스(천북)부터 일진베어링지회까지 8개지회현장순회	경주
	17일	경주지부 임원 및 집행위 지회현장 순회 -현대엠시트지회부터 발레오만도 지회까지 8개지회현장순회	경주
	18일	경주지부 임원 및 집행위 지회현장 순회 -세진지회부터 우영산업지회까지 9개지회현장순회	경주
	19일	지부 조직 담당자 1차 회의	지부1층강당
	22일	조직 강화위원회 13기1차회의	지부2층회의실
	23일	13기2차 중앙집행 위원회	한국옵티칼
	24일	조합 문화담당자,조직담당자 회의	서울금속노조
	25일	에코플러스티지회(지부규정개정,특별결의금안 확산설명회)	에코회의실
	29일	지부4차운영위 회의 한국 옵티칼에서 개최(약식집회)	구미
30일	박근태 전현대 중공업 지부장 가석방 참석	내남교도소	
31일	엠에스 지회 방문	내남	
2월	01일	미조직 선전전/ 플라스틱옵니엄 조합원 교육(주-야간조)	보문교
	02일	경주지부 조합대의원 선거 개표	지부2층회의실
	05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 대회	일산킨텍스
	06일	노조자주성 탄압규탄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기자회견	대구노동청
	07일	설귀향인사(경주역11시)/한국옵티칼 지부별 순환농성(1박2일)	구미옵티칼
	08일	한국옵티칼 고공 농성장 사수지부별 순환농성2일차	구미옵티칼
	14일	엠에스지회 확산회의(경주지부13기정기대대안건설설명회)	엠에스황성
	15일	경주지부13기1년차 신입간부교육/비투자확간수련회(루지펜션)	성호리조트
	16일	구미 한국 옵티칼 사수투쟁 결의대회	구미옵티칼
	19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임시지부운영위원회 회의/지부6차운영위	지부3층회의실
	22일	대구조양 한울 금속노조 경북권 결의대회	대구노동청
	23일	민주노총 투쟁선포 영남권 결의대회	구미옵티칼
	26일	지부 운영위 수련회 1일차	경주청담펜션
	27일	지부 운영위 수련회 2일차	경주청담펜션
28일	금속노조 58차 정기대대	단양연수원	
3월	03일	민주노총 지부3월 정기 운영위원회/지부8차 운영위	지부3층
	05일	현우지회 임금체불 아침 선전전	현우지회
	06일	현우지회 임금체불 아침 선전전	현우지회
		조합 조직담당자 회의	금속노조
	07일	3.8세계 여성의날 지역 공동 기자회견	경주시청
	08일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	구미옵티칼
		현우지회 임금체불 아침 선전전	현우지회
		구미한국 옵티칼 투쟁 지부 순환농성 2차	구미옵티칼
	11일	경주지부13기 1차 정기 대대	지부1층강당
	12일	지부9차 운영위	지부3층
		신규지회 설립	리어코리아
	18일	엠에스 정밀 지회 출근 선전전	엠에스정밀
		민주노총 80차 입시대대	일산킨텍스
	19일	지부 10차 운영위	지부3층
20일	24년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서울세종대로	
21일	엠에스 정밀 지회 지부장 간담회	엠에스정밀	
	리어 코리아 지회 조합원 간담회	황성선비오리	

	22일	엠에스 정밀 지회 등반대회	석굴암
	25일	지부 운영위11차 / 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간담회	지부회의실
	27일	리어 코리아 지회 조합원 간담회	황성선비오리
4월	01일	지부 12차 운영위	지부
	03일	지회장 의무교육	단양
	0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결의대회(한국옵티칼 투쟁승리)	구미옥계
		지부별 순환농성 1박2일	구미옵티칼
	08일	지부13차 운영위	지부
		노동부 규탄 1인시위	포항노동부
	09일	노동부 규탄 1인시위	포항노동부
	11일	노동부 규탄 1인시위	포항노동부
	12일	노동부 규탄 1인시위	포항노동부
	15일	지부14차 운영위	지부
	17일	고농성100일 한국옵티칼 고용승계쟁취 금속노조결의대회	평택옵티칼
	18일	경주지부 집단교섭 상견례/사회공헌 기금 전달식	더케이
		경주지부 집행위 수련회	경주푸르미르
	19일	지회별 보충교섭 상견례	각지회
	22일	지부15차 운영위	지부
	24일	산안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
		5월1일 노동절 조직화 지부집행위 현장순회	2개조 주야간
	25일	5월1일 노동절 조직화 지부집행위 현장순회	2개조 주야간
	26일	5월1일 노동절 조직화 지부집행위 현장순회	2개조 주야간
	29일	지부16차 운영위/조강위 3차	지부
30일	지부 조직담당자 3차 회의	디에스시	
5월	01일	134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	구미시청
	02일	지부집단 2차교섭	지부
	07일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 1인시위	포항지사
	08일	시기 집중 거점 선전전/산재처리 지연 1인시위(포항)	5개구역
	09일	산재처리 지연1인 시위/지부집단 교섭 3차	포항지사/지부
	10일	엠에스 지회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엠에스지회
	12일	조합원 참여 사업 (당구)	브라보클럽
	13일	지부 17차 운영위	지부
	14일	조합 4차조직담당자회의/조합 4차문화담당자회의	금속노조
	16일	지부집단 4차교섭	지부
	20일	지부18차 운영위	지부
	21일	24년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자회견(최저임금인상)	첨성대
		민주노총 24년 1차 중앙위원회	서울
	22일	시기 집중 동시다발 거점 선전전	5개구역
	23일	조합 1차 조직담당자 수련회	전북장수
		지부집단 5차교섭	지부
	24일	지부 역사기행(여수/순천)	여수/순천
	28일	24년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 순회 1일차	안동/평택
		조합 1차 복수노조 대표자 회의	대구
	29일	시기집중 동시다발 거점선전전	5개구역
24년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 순회 2일차		평택	
30일	지부집단 6차교섭	지부	
	24년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 순회 3일차	포항	
31일	24년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 순회 4일차/도보순회단 기자회견	경주시청	
6월	02일	지부 조합원 참여사업 (e스포츠 스타대회)	용강pc토랑
	03일	지부19차 운영위	지부
	05일	지부 조직담당자 4차회의	현우지회
		지부 동시다발 거점 선전전	5개구역
		24년 민주노총 최저 임금인상 투쟁 캠페인	황성5일장
	10일	지부 20차 운영위	지부
	11일	현우지회 지키기 아침 선전전	현우지회
12일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서울	
13일	현우지회 아침 선전전	현우지회	

		지부집단 7차 교섭	다스지회
	14일	현우지회 아침 선전전/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현우지회/시내
	16일	조합원 참여 사업(스크린 골프)	김상일스크린
	17일	현우지회 아침 선전전 지부21차 운영위	현우지회 지부
	18일	플라스틱 옴니업 출근선전전/현우지회 아침 선전전 금속노조 위원장 경주지부2차현장 순회 중앙 교섭 10차 (경주지부)	옴니업/현우 발레오/일진 일성콘도
	19일	지부 동시다발 거점 선전전	5개
	20일	현우지회 아침 선전전 지부 집단교섭 8차	현우지회 발레오
	21일	현우지회 아침 선전전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현우지회 황성공원
	22일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서울
	24일	지부22차 운영위/금속 사회연대단 1차회의	지부
	25일	지부별 평택 농성장 사수투쟁	평택
	26일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울산
	28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황리단길
7월	01일	지부 23차 운영위 회의 플라스틱 옴니업 지회 총파업 보고대회	지부 옴니업
	02일	지부 확대간부 의무 교육 3차(단양청소년 수련원)1일차	단양
	03일	지부 확대간부 의무 교육 3차(단양청소년 수련원)2일차 조합 조직 담당자 수련회(부산) 1일차	단양 부산
	04일	조합 조직 담당자 수련회(부산) 2일차	부산
	08일	지부 24차 운영위 회의 지노위 조정회의(대구)	지부 대구
	10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경주/포항 지역별 결의대회(포항)13시	포항노동청
	12일	지부 5차 조직 담당자회의(현대 성우썬라이트 지회)10시	썬라이트
	15일	지부 3차 쟁대위 회의(지부25차 운영위)14시	지부
	16일	국회 기자회견(발레오 중국산 부품역수입 금지 촉구기자회견)	서울국회
	17일	발레오 만도지회 투쟁기자회견(경주시청)10시 엠에스 정밀 지회 간담회	경주시청 엠에스정밀
	18일	발레오만도 지회 투쟁결의대회(울산 자동차 정문)15시	울산현대차
	19일	발레오만도 지회 투쟁 격려 커피트럭 행사	발레오
	22일	엠에스 정밀 도시락 간담회 11시 지부4차 쟁대위 회의(지부26차 운영위)	엠에스정밀 지부
	23일	경주지부 발레오 투쟁승리 결의대회 08시	발레오
	24일	플라스틱옴니업지회 09시/현우지회 현장순회 11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20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15시	옴니업/현우 구미옵티칼
	27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여름캠프	산청
8월	05일	지부 5차 쟁대위 회의(지부 27차 운영위) 강제단속 인권유린 규탄1인시위 11시30분	지부 울산출입국
	06일	경주시수도검침원 분회 대법원 판결 즉각이행 기자회견 11시	경주시청
	07일	노조법 2,3조 개정 선전전 07시30분	금장교
	09일	민주노총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의료 강화 선전전 11시	동대병원로비
	12일	지부 6차 쟁대위회의(지부28차 운영위) 경주시청 부시장 면담 (발레오 사태해결 촉구) 10시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지회별 선전전 출퇴근/중식 선전전	지부 경주시청
	13일	포항고용노동부 포항시청기자회견(발레오 노동3권 준수촉구)10시 경주시 수도 검침원 분회 시청 중식 선전전 11시30분	포항 경주시청
	14일	발레오 보고대회	발레오
	16일	발레오 보고대회	발레오
	17일	노조법 2/3조 거부권행사 윤석열정권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15시 8.17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망버스 13시	서울 화성시

	19일	지부 7차쟁대위 회의(지부29차 운영위)	발레오만도
		지부 11차 집단교섭 10	발레오만도
		발레오 만도지회 양재동 현대본사 1인시위	19일~23일까지
	20일	경주시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규탄 선전전 11시40분	경주시청
	21일	경주지부 12차 지부집단 교섭 09시	발레오
	22일	24년 투쟁승리 경주지부 결의대회 13시	발레오
	23일	발레오보고대회/ 지부집단교섭 14차	발레오
	26일	지부 집단교섭 15차	세진지회
	27일	지부 집단교섭 16차	경주지부
	28일	지부 집단교섭 17차	경주지부
	29일	지부 집단교섭 18차	경주지부
30일	지부 집단교섭 19차	경주지부	
9월	02일	지부 8차 쟁대위회의(지부30차 운영위)	지부
	03일	조합 8차 조직 담당자 회의	서울
		폭력단속,강제추발 울산출입국 규탄대회 14시	울산출입국
	04일	지부 집단교섭 21차	경주지부
	05일	공동체활동 진행자 양성교육 수련회 1일차	영동노근리
		경주시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규탄 선전전 11시40분	경주시청
	06일	공동체활동 진행자 양성교육 수련회 2일차	
	09일	지부 9차 쟁대위회의(지부31차 운영위)	경주지부
	10일	지부 23차 집단교섭	
	11일	지부 24차 집단교섭	
	13일	엠에스 정밀지회 조합원 간담회 12시	엠에스정밀
		추석 귀향 선전전 11시	경주역
	19일	경주시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규탄 선전전 11시40분	경주시청
	23일	지부 10차 쟁대위회의(지부32차 운영위)	경주지부
		지부 6차 조강위 회의	경주지부
	24일	경주시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규탄 선전전 11시40분	경주시청
	26일	동시다발 미조직 선전전 07시30분	5개거점
경주시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규탄 선전전 11시40분		경주시청	
	지부 6차 조직 담당자 회의 14시	리어코리아	
27일	윤석열정권 퇴진 경북 민중대회 11시	경북의성	
30일	지부 11차 쟁대위회의(지부33차 운영위)	경주지부	
10월	02일	조합 8차 쟁대위 14시	서울
	07일	지부 12차 쟁대위 회의 14시	지부
		현대차 부지부장 간담회 15시	지부
	08일	조합 9차 지부조직 담당자회의/ 조합 문화 담당자회의	금속노조4층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분	경주시청
	10일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조직 집행위 현장순회	지회
	11일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조직 집행위 현장순회	지회
	13일	이주노동자 체육대회	리어코리아
	14일	지부 13차 쟁대위 회의 14시	지부
	15일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조직 집행위 현장순회	지회
	16일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조직 집행위 현장순회	지회
	17일	윤석열 퇴진 및 11.9일 전노대 조직 대시민 선전전	용강네거리
	18일	장창열 위원장 하반기 현장순회	다스
			리어코리아
	21일	엠에스 정밀 지회 고용보장 천막 설치(투쟁1일차)	엠에스정밀
	23일	복수노조/소수노조 조직화 사업 11시30분	옴니엄
	24일	미조직 선전전	경주5개 거점
		지부 조직 담당자 7차 회의 및 수련회	강원도 고성
	25일	총연맹 위원장 엠에스 정밀지회 농성장 방문	엠에스정밀
28일	지부 15차 쟁대위 회의/7차 조직강화 위원회 회의	지부	
29일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분	경주시청	
31일	윤석열 퇴진 및 11.9일 전노대 조직 대시민 선전전	용강네거리	
	2024년 집단교섭 조인식 13시	더케이	

11월	01일	본부 활동가 대회 10시	성호리조트
	02일	옵티칼 희망버스 고공농성 300일 14시	구미옵티칼
	04일	지부 확대 간부 교육 09시	더케이
	05일	지부 16차 쟁대위 회의 14시	지부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	경주시청
	06일	조합 10차 조직 담당자회의 14시	금속노조4층
		윤석열 퇴진 선전전 07시30분	용강네거리
	07일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분	경주시청
		코리아 에프티 지회 조직형태 변경 후 금속노조 설립	코리아에프티
	0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 노동자 대회 14시	서울
	12일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	경주시청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선전전 08시30분	보문교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분	경주시청
	16일	코리아 에프티지회 단합 대회 10시	보문
	17일	광명산업지회 단결강화 수련회 10시	통일전
	18일	지부 18차 쟁대위 회의 14시	지부
	19일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	경주시청
	20일	미조직 동시다발 거점 선전전 07시30분	경주5개거점
	21일	윤석열 정권 퇴진 대시민 선전전 08시30분	용강네거리
		한국니토옵티칼 지부순환 당직 및 문화제	평택옵티칼
25일	지부 18차 쟁대위 14시	지부	
26일	타임오프/회계공시 노동부 규탄 윤석열퇴진 1인시위	포항노동부	
	수도검침원 분회 시청 선전전 11시30	경주시청	
28일	타임오프/회계공시 노동부 규탄 윤석열퇴진 1인시위	포항노동부	
29일	지부 조직 담당자 8차 회의	지부3층	
12월	2일	지부 18차 쟁대위	지부3층
	3일	타임오프/회계공시 노동부 규탄 윤석열퇴진 1인시위	포항노동부
	4일	윤석열 계엄령 긴급 시국 기자회견	대구역
		윤석열 퇴진 긴급 확대간부 선전전	용강/금강
	5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금속노조 경주지부 기자회견	경주시청
		민주노총/금속 경주지부 집행위 윤석열탄핵 대시민 선전전	구경주역
	6일	국가 내란범 윤석열 퇴진 경주지부 결의대회	김석기사무실
	7일	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중대회 3차 총궐기	서울
	9일	지부 20차 쟁대위	디에스지회
	10일	내란수괴 윤석열탄핵!구속!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규탄 기자회견	김석기사무실
		내란동조 정당 김석기 대시민 규탄 선전전	김석기사무실
	11일	내란동조 정당 김석기 대시민 규탄 선전전	김석기사무실
	12일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국힘해체! 노동자 시민대회	서울
	13일	내란동조 정당 김석기 대시민 규탄 선전전	김석기사무실
	14일	내란주범 윤석열 탄핵 경주 촛불 집회	경주봉황대
	26일	동시 다발 미조직 선전전	5개 거점
28일	윤석열 퇴진 경주시민 촛불 집회	신라대중앙	

3) 집회 및 투쟁일정

구분 (2024년)	날짜	내용	비고(장소)
1월	04일	경주 지부 시무식(양산 솔밭산 역사 묘역)	양산
	09일	구미 한국 옵티칼 기자 회견	구미
	23일	13기2차 중앙집행 위원회	구미옵티칼
	29일	경주지부4차 운영위원회의(구미 한국옵티칼 약식집회후 회의)	구미옵티칼
	30일	박근태 전현대 중공업 지부장 가석방 참석	내남교도소
2월	06일	노조 자주성 탄압규탄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기자회견	대구노동청
	07일	한국옵티칼 지부별 순환 농성	구미옵티칼
	16일	구미 한국옵티칼 사수투쟁 결의대회	구미옵티칼

	22일	대구조양 한울 금속노조 경북권 결의대회	대구노동청
	23일	민주노총 투쟁선포 영남권 결의대회	구미옵티칼
3월	07일	3.8세계 여성의날 지역공동 기자회견	경주시청
	08일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	구미옵티칼
		구미 한국옵티칼 지부별순환 농성 2차	구미옵티칼
	12일	신규지회 설립	리어코리아
	20일	24년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서울세종대로
4월	0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결의대회(한국옵티칼 투쟁승리)	구미옥계사서리
	17일	고공농성100일 한국옵티칼 고용승계쟁취 금속노조결의대회	평택니토옵티칼
	24일	산안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
5월	01일	134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	구미시청
6월	12일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	서울
	22일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	서울
	26일	산재처치 지연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울산
7월	01일	플라스틱 옴니업지회 총파업 보고대회	플라스틱옴니업지회
	10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경주/포항 지역별 결의대회(포항)13시	포항노동청
	18일	발레오만도 지회 투쟁결의대회(울산 자동차 정문)15시	울산현대차정문
	23일	경주지부 발레오 투쟁승리 결의대회 08시	발레오민주광장
	24일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20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15시	구미한국옵티칼
8월	17일	노조법 2/3조 거부권행사 윤석열정권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15시	서울
		8.17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망버스 13시	화성
	22일	24년 투쟁승리 경주지부 결의대회 13시	발레오민주광장
9월	27일	윤석열정권 퇴진 경북 민중대회 11시	경북의성
10월	21일	엠에스 정밀 지회 고용보장 천막 설치(투쟁1일차)	엠에스정밀
11월	02일	옵티칼 희망버스 고공농성 300일 14시	구미옵티칼
	07일	코리아 에프티 지회 조직형태 변경 후 금속노조 설립	코리아에프티
	0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 노동자 대회 14시	서울
	24일	한국니토옵티칼 지부순환 당직 및 문화제	평택옵티칼
	4일	윤석열 계엄령 긴급 시국 기자회견	대구역
12월	5일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금속노조 경주지부 기자회견	경주시청
	6일	국가 내란범 윤석열 퇴진 경주지부 결의대회	김석기사무실앞
	7일	내란범 윤석열 퇴진 민중대회 3차 총궐기	서울
	10일	내란수괴 윤석열탄핵!구속!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규탄 기자회견	김석기사무실앞
	12일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탄핵구속!국힘해체! 노동자 시민대회	서울
	14일	내란주범 윤석열 탄핵 경주 촛불 집회	경주봉황대

3. 사업 평가

1) 지부/지회 소통 강화 및 조직력 위상강화

13기 1년차는 소통강화를 위해서 지부 임원과 집행위들을 대각선 교섭 사업장 교섭 담당임원 배정과 각종 위원회의 담당을 배정함으로써 지부 지회가 소통을 통해 지회별 현안문제 해결방안 등을 고민하였다.

양산 솔밭산 시무식을 시작으로 1월부터 현장순회를 시작하였고 5월1일 노동절 조직화 현장순회와 11월 9일전국 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해 현장순회를 진행하였고,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노조 위원장의 현장순회 일정을 조율하여 상시적으로 지회 현장순회 및 간담회를 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현우지회 지키기 선전전 및 발레오 만도지회 아침 보고대회를 지속적으로 같이 진행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 및 집행위들이 지회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진행하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였다.

지부 집단교섭 및 대각선 사업장 교섭에 최선을 다하였고 여러 가지 조합원 참여형 사업을 통해 조직의

위상 강화 및 지부 지회들간의 유기적인 교류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일반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조합원 참여형 사업인 최강자 대회를 마련해 지부에 사업이 지회 간부 증점을 둔 사업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에게 보다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함으로써 지부사업의 다양함과 새로움을 채울수 있게 노력하였다.

지부는 리어코리아지회와 코리아에프티지회가 신규 설립하여 13기 1년차는 29개 지회에서 30개 지회로 변화함에 따라 더많은 소통과 조직력을 확보하기 위한 2년차 사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역량강화

13기 1년차에는 조직담당자회의를 통합(조직,쟁의,선봉,문체)으로 정례화하였다.

조직담당자 회의를 시작할 때 민중의례를 시작함으로써 조직 담당자들의 기본 선동교육을 실시하였고 수련회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배치하고 전반기는 교육 및 조직담당자들의 기본 소양을 만들고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었고 후반기에는 기존의 수련회 방식을 탈피해, 보다 생동감 있고 진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금속노조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주제로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고민해 보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투쟁사업장 및 현안문제가 있는 지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연대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현우지회에 소속감 강화와 조직력 향상을 위해서 조직부 성원들의 모금으로 금속노조 단체티를 지급함으로써 조직력과 연대감을 강화 하였다. 2년차에도 조직부들이 먼저 찾아가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3)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조직력 복원

조직강화 위원회를 정례화함으로써 복수노조 및 대각선 사업장 현안문제 등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지부 지회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13기 1년차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노조/지부가 일체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적극 결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매년 진행하는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여름캠프를 마련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복수노조 및 대각선 사업장의 단결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2년차에는 대각선 및 복수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순회 강화와 조합원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조직력 강화와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조/지부/지회가 강화되는 확장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2. 조직강화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대각선/복수노조 사업장 상시적인 회의실시
- 2) 지부/지회 간 통일된 결정구조를 통한 조직력 강화
- 3) 복수노조 및 투쟁사업장 단합 및 단결의 마당을 기획하여 조직력 확보

2. 주요사업

1) 회의 현황

차 수	날 짜	장 소	회의 안건	비고
1차	24.1.22	경주 지부	안건 1. 경주지부 13기 1년차 조직강화위원회 사업계획(초)안 논의건 안건 2. 복수노조 및 소수노조 조직배가 사업비 논의 건 안건 3. 기타 건	
2차	24.3.25	경주 지부	안건 1. 경주지부 중소기업지회 지원 지회 최저교부금 대상 지회 최종 보고 건 안건 2. 13기 1년차 조직 배가사업계획서 취합 건 안건 3. 기타 건	
3차	24.4.29	경주 지부	안건 1. 경영분석 지회 선정 건 안건 2. 지부.지회 복수노조 사업 논의 건 안건 3. 기타 건	
4차	24.6.10	경주 지부	안건 1. 복수노조 단결기획 사업 심의 승인 건 안건 2. 조직배가 사업 토론회 논의 건 안건 3. 기타 건	
5차	24.7.15	경주 지부	안건 1. 조직배가 사업 토론회 및 역할극 참여 사업장 세부기획 점검 건 안건 2. 2024 경북본부 여름캠프 참여 사업장 점검 건 안건 3. 기타 건	
토론회	24.7.21	경주 지부	안건 1. 토론회 일정 건 안건 2. 상황극 주제 및 참여사업장 선정 건 안건 3. 토론회 평가 건 안건 4. 기타 건	임원토론회
6차	24.9.23	경주 지부	안건 1. KBI동국실업지회 단결강화 기획사업 건 안건 2. 13기 1년차 복수노조 사업비 지출 현황 건 안건 3. 지회별 하반기 조직화사업 기획 논의 건 안건 4. 기타 건	
7차	24.10.28	경주 지부	안건 1. 조직강화위원회 수련회 일정 논의 건 안건 2. 상황극 주제 및 참여사업장 선정 건 안건 3. 마음돌봄 심리치유 사업 진행 건 안건 4. 기타 건.	
8차	24.11.18	경주 지부	안건 1. 지회별 마음돌봄 심리치유 사업 취합 확정 건 안건 2. 상황극 주제 및 참여사업장 점검 건 안건 3. 광명산업지회 단결강화 기획사업 승인 건 안건 4. 조직강화위원회 임원 수련회 세부 기획 논의 건 안건 5. 기타 건	
수련회	24.12.15	경주 지부	안건 1. 임원 수련회 일정 건 안건 2. 수련회 평가 건 안건 3. 13기 1년차 사업 평가 건 안건 4. 기타 건	임원수련회

2) 회의 참석 현황

지 회 명	이 름	1차 1/22	2차 3/25	3차 4/29	4차 6/10	5차 7/15	조강위 토론회 7/21	6차 9/23	7차 10/28	8차 11/18	임원 수련회 12/15
광명산업	김대건	○	○	○	○	○	×	×	○	×	×
KBI동국실업	김정욱	○	○	○	○	○	2	○	○	○	2
동진이공	지광환	×	○	○	○	×	2	×	○	×	2
두양정공	김수하	○	○	○	○	○	4	○	○	○	4

아진카인텍	서동찬	○	○	○	○	×	10	○	○	○	3
인지컨트롤스	최용복	○	○	○	○	○	3	×	○	○	9
청우	노태현	○	○	○	○	○	2	○	○	○	3
플라스틱옵니엄	양명덕	○	○	○	○	○	4	○	○	○	3
코레스	장진호	×	○	×	○	×	1	○	×	○	2
지 부	이중희	○	○	○	○	○	○	○	○	×	강사 3명
	최익선	×	○	○	○	○	○	○	×	○	
	손현석	○	○	○	○	○	○	○	○	○	
	정진홍						○			○	○
총 원	12명	9명	11명	11명	12명	9명	32명	9명	10명	10명	35명

3. 조강위 지회별 상황 보고

① 광명산업지회

- 설립 연도 : 2023년 4월 23일 설립.
- 2023년 4월 말경 광주, 천안, 본사 한국노총설립.
- 규모 : 경주공장 금속노조 조합원 16명, 한국노총 0명, 비조합원(사무직군) 15명
- 한국노총 광주, 천안, 아산, 본사 6~80명 (최대 120명 이상 예상)
- 현 상황 및 쟁점 : 현재 조합사무실, 타임오프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속노조가 설립되면서 신규인원 전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경주공장 자체는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협력 관계 분위기 형성 중.

② 동진이공지회

- 설립 연도 : 1989년 설립
- 규모 : 금속 3명, 기업노조 75명, 비조합원 30여명
- 현 상황 및 쟁점 :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로 있고, 현재 쟁점상황 없음.
- 조직화는 현실적으로 답보 상태 중

③ 두양정공지회

- 설립 연도 : 2018년 3월 8일 설립
- 규모 : 금속노조 26명, 비조합원 8명
- 현 상황 : 중국물량 현지화로 인한 물량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매출감소 및 일감부족으로 조합원들은 회사의 존속여부에 대해 불안감 존재
- 사업장 쟁점 :
 - 1) 테슬라 M3, MY제품 중국 현지화 (테슬라 제품 납품처 - 중국공장, 미국공장) 및 단산 관련 물량 확보 방안 협의
 - 2) 중국공장 현지화로 인한 매출감소 및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방안협의 (고용안정위원회 진행 중)

④ KBI동국실업지회

- 설립 연도 : 2014년 11월 설립
- 규모 : 금속인원 : 경주지회(34명), 아산지회(54명), 한국노총: (46명), 기업노조: 약 150여명
- 사업장 쟁점 : 현재 금속, 한국노총, 기업노조 등 3개 노조가 있으며 금속노조와 한국노총이 공동교

업을 10년째 진행 중. 사측에서도 크게 도발하는 상황이 없으므로 별다른 마찰없이 활동 중.

- 현 상황 : 별다른 마찰은 없으나 가끔씩 한국노총조합원과 신 아산 기업노조 조합원을 접촉하면서 금속노조 가입 조직 활동을 하고 있음.

⑤ 아진카인텍지회

- 설립 연도 : 2002년12월3일 금속지회 설립, 2011년 11월 27일 복수노조(한국노총)설립
- 규모 : 교섭대표노조(한국노총): 52명, 금속: 19명(현재), 비조합원:1명
- 사업장 쟁점 : 사측에 우의적인 현 장조·반장 및 반 금속노조성향의 노조간부 중심
- 정년 및 퇴사자 충원 없이 비정규 채용 확대
- 현 상황 : 특근, 잔업근무 차별로 조합원들을 경제적 압박 심화, 기존 임금 복지 조건 저하 없음
- 노동 강도 강화, 노조활동 축소 진행, 노조 무력화 진행
- 자본 논리적 공장별.직책별 성과 배분 성과금제도실시로 인한 조직화 난항

⑥ 인지컨트롤스지회

- 설립 연도 : 2008년 설립
- 규모 : 금속 조합원 경주 49명, 안산 86명, 한국노총 205명, 비조합원 대략 20명
- 사업장 쟁점 : 한국노총이 장기간 교대노조로 인한 단협 축소와 저임금 구조가 현장기능직 사원들에게 힘든 상황
- 현 상황 : 물량 축소로 인한 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
- 매년 정년퇴직으로 조합원수 감소에 따른 타임오프 시간 축소에 비례한 조합활동 위축 우려
- 이후 안산, 경주, 옥천의 3사 연대방향에 따라 조직화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⑦ 청우지회

- 설립 연도 : 2008년 11월 설립
- 2011년 7월 복수노조(기업별 노조설립), 금속 소수노조 전환, 2020년 금속 다수노조 전환
- 규모 : 정규직 56명 중 금속 조합원 23명, 비조합원 11명, 비정규직 78명
- 사업장 쟁점 : 노사 합의사항 잘 이행이 안 됨, 노노 갈등 발생
- 현 상황 : 신규채용 없이 외주화 처리로 인한 문제

⑧ 플라스틱음니엄지회

- 설립 연도 : 2001년 금속지회 설립
- 2010년 7월15일 금속탈퇴, 2021년 4월8일 금속지회 설립, 기존 기업노조 있음(복수노조 사업장)
- 2023년~2024년 금속지회 교대노조, 2024년 교섭 창구단일화 결과 교대노조 확정
- 규모 : 금속 조합원 75명, 기업 조합원 66명, 비조합원 35명
- 사업장 쟁점 : 교대제 변경(3조2교대), 2025년3월4일 확정, 하지만 사측이 교대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축소 예정
- 현 상황 : 현장 지게차 외주화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 고심

⑨ 코레스 지회

- 설립 연도 : 2013년 설립
- 규모 : 금속노조 12명, 한국노총(전주, 경주 : 205명)
- 사업장 쟁점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금속노조 조직화
- 현 상황 : 복수노조. 소수노조 10년 동안 현장의 양극화 심각(양대 노조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

4. 사업 평가

1) 회의평가

- 13기 1년차 조직강화위원회 회의는 1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8일 8차 회의로 마무리되었다. 정례적으로 진행된 조직강화위원회 회의는 12기와 같은 방식인 운영위 회의종료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복수노조 지회의 타임오프 등의 문제로 인해 주간조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 상.하반기 조강위회의에서 확정된 지회별 릴레이 소식지 발간, 조직배가 사업 토론회, 임원수련회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조강위 사업이 유실되지 않고 실행되었다.
- 조직강화위 성원의 변화는 3월 12일 리어코리아지회 설립으로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는 제외되었고, 비투지 지회와 현우지회는 조합원 감소로 인해 13기 2년차에 조직강화위원회 성원으로 결합할 예정이다.

2) 영역별 사업평가

① 조직배가 사업 영역

12기 때와 동일하게 지부 특수목적기금에서 700만원을 운영위원회 회의와 대의원대회 사업예산 승인을 통해 복수노조 및 단일노조 사업장 내 조직배가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지회로 지원하였다. 12기 2년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3기 사업영역에 포함하여 중. 장기적인 조직배가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확장성이 있었고, 복수노조 사업장의 조직배가 사업비의 중요성은 13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 예산 및 지출 내역

예산	지출 총액	잔액	집행률(%)
7,000,000원	6,219,180원	780,820원	88.84%

② 복수노조 사업비 지원

노조에서 지원된 복수노조 사업비 400만원은 지회별 단결강화 기획사업 안 제출을 통해 조직강화위원회 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금액을 지원하였다. 13기 1년차에는 아진카인텍, 플라스틱옵니엄, 광명산업, 인지컨트롤스, KBI동국실업 지회에서 단결강화 기획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단합과 조직력이 결집되었다. 이후에도 수련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기획을 통해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다져나가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예산 및 지출 내역

예산	지출 총액	잔액	집행률(%)
4,000,000원	3,734,100원	265,900원	93.35%

③ 현장 조직력 강화 영역

1년차에는 선전사업 강화를 위해 분기별 2~3개 지회 중심으로 소식지 발행과 영상제작을 진행하였다. 지회별 기사(소식지등) 내용 발생 시기에 맞게 잘 정리되는 지회와 다소 전달이 지체되는 지회도 발생되었다. 13기 하반기부터 계획된 복수노조사업장 중심의 현장순회 및 조합원 간담회 진행사업은 엠에스 정밀지회가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면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3기 2년차에는 지회별 대면사업으로 조직강화위원회 실천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④ 지부/지회 단결력 강화 사업

13기 1년차에도 경북본부와 함께 준비한 여름캠프 사업에 결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1년차 여름캠프 사업에서 평가된 숙소 문제와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한 것은 추후 여름캠프 진행시 보완지점으로 남았다. 공동 진행 방식의 긍정적이 평가와 지부 조직강화위 차원의 단결기획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 등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1년차 처럼 본부/지부/지회가 함께 하는 여름캠프 사업 진행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기획 점검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조직배가 사업 토론회/수련회 사업

12-2년차에 순연된 조직배가 사업토론회는 상반기에 개최되었고, 각 지회별 조직배가 사례발표와 대응 방안 및 소수노조 사업장의 현장탄압 사례를 상황극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부장간담회를 통한 조강위 사업 확대 방안, 조강위 임원 중심으로 진행된 발전방안 토론회는 조강위 사업 축소, 결합 부재 등에 대한 지회별 의견 제시로 결의를 다지는 토론회로 평가된다. 하반기에는 임원수련회를 통해 지회별 마음상태와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보기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진단과 조직진단 영역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지수와 치유방안을 모두 다 같이 공유하는 등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 조직배가 사업 토론회 약평

- 조직강화위 활동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지속적인 공유와 사업을 통해 발전해 나가자.
- 지역지부 내 복수노조, 중, 소 영세 사업장과 지부예산 등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지부.지회가 좀 더 성숙되고 지치지 말고 활동하자.
- 조직강화위원회 성원이 주체적 역할과 토론회, 수련회, 회의참석 등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조직강화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 만큼 지회별 조직화 및 사업 결합에 적극 복무하자.

▣ 조직강화위 임원 수련회 약평

- 수련회에서 많은걸 배웠으며 복수노조지회 동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타 지회의 상황 공유로 인한 소통의 시간이 됨.
- 24년 조강위 수련회를 하면서 복수노조사업장들의 상황과 노동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아진카인텍지회와 인지컨트롤스지회의 상황극을 보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을 한 번 더 다지는데 도움이 됨.
- 조직진단과 마음건강 돌봄 설문을 통해서 지회 조합원들의 생각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음.
- 처음으로 시행된 마음 돌봄 심리치유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그동안 지회 집행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조합원들의 평가와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됨.
- 조강위 사업으로 조직진단 및 마음돌봄 프로그램이 추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자.
- 이후 조직진단 및 마음돌봄 사업 진행시 조합원 참여형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총괄 평가

- 13기 1년차 수련회(교육 및 주요사업 집행방식)의 방식이 아닌 복수노조 사업장 중심의 조직배가사업 사례, 조직사업 준비-과정-결과 등 지회가 직접 준비하고 발제하는 참여형 수련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13기 1년차 주요한 사업인 조직배가 사업 토론회에서 발전방안 설정을 통해 하반기 사업과 13기 2년차 조직강화위원회 사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 13-1년차 지부.지회 하반기 대면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2년차에는 조직화 집행사업장을 선정하고 공동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3. 미조직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미조직,이주노동자 가입 사업 추진을 통한 조합 가입률 확대, 강화
- 2) 노조 미조직위-지부 미조직위 활동 강화 및 교육 사업 강화
- 3) 노조-지부 이주조합원 권익향상 사업 및 지회별 활동 지원 사업 배치

2. 주요사업

1) 월별 주요 사업보고

월별	회의 및 사업	회의 안건 및 실천 활동 내역	비고
1	공단선전전	- 지부 집행위 현장 순회	
	1차 미조직회의	- 1년차 사업계획 및 미조직 조직화 선전 용품 방안 논의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리어코리아 지회)	
2	신규사업장	- 광명산업지회,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안정화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1)	
	미조직 회의	- 미조직 회의 격월 처리	
3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리어코리아 지회)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우천 순연	
	2차 미조직회의	-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 진행 논의	
4	상담 및 조직화	- 4~6월 실천사업 계획 논의	
	신규사업장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광명산업 지회)	
	공단선전전	- 리어코리아 지회	
5	미조직 회의	- 미조직 회의 격월 처리	
	실천의 날	- 시기집중 선전전 현수막 배치	
	신규사업장	- 리어코리아 지회 단협 준비	
6	기타 사업	- 복수노조 단결기획 사업 논의	
	공단선전전	- 시기집중 선전전 대체	
	3차 미조직회의	-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 확정	
7	시기집중 선전전	- 6~7월 미조직 세부 사업 논의	
	실천의 날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 진행 논의	
	상담 및 조직화	- 동시다발(5개거점) 선전전(8,22,29)	
8	신규사업장	- 영천 도남공단 주변(17)	
	공단선전전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	
	신규사업장	- 리어코리아 지회 임.단협 교섭	
9	공단선전전	- 시기집중 선전전 대체	커피트럭 선전전
	미조직 회의	- 미조직 회의 격월 처리	
	시기집중 선전전	- 동시다발(5개거점) 선전전(19)	
10	실천의 날	- 영천 도남(5),언하(19,27),계중네거리(12)	
	신규 사업장	- 리어코리아 지회 교섭, 광명산업지회 총회 지원	
	이주사업	-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14,20)	
11	공단선전전	- 찾아가는 기획 사업 대체	유료 게시대 홍보사업 및 커피트럭
	4차 미조직 회의 및 수련회	- 제3회 이주조합원의날 기획 논의	
	실천의 날	- 13-1년차 상반기 사업보고 논의	
12	상담 및 조직화	- 8~9월 미조직 세부사업 논의	
	신규사업장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 진행 논의	
	공단선전전	- 찾아가는 커피트럭 (인지.엠에스정밀.아진)	
1	신규사업장	- 조직화 상담 진행	
	공단선전전	- 리어코리아 지회 교섭 아진카인텍 신규 조합원 간담회 지원	
2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동시다발 선전전(7)	

	미조직회의	- 미조직 회의 격월 처리	
	실천의 날	- 미조직 조직화 선전물 배포(영천도남공단)	
	신규사업장	- 리어코리아 지회 교섭 및 지원 업무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진행	
9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동시다발 선전전(26)	현수막 게시 및 커피트럭
	5차 미조직회의	- 제3회 이주조합원날 행사 확정 논의 - 9~10월 미조직 사업 세부 논의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 진행 논의 - 본부 미.비특위.노조 미조직활동가 대회 참석 논의	
	실천의 날	- 미조직 조직화 선전물 배포(영천도남공단)	
	이주사업	- 제3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 기획단 회의	
	신규사업장	- 리어코리아 지회 공정 개선 TFT 회의 지원	
10	공단선전전	- 윤석열 퇴진 대시민 선전전 대체(17.31)	
	미조직 회의	- 미조직 회의 격월 처리	
	신규사업장	- 리어코리아 지회 8+8교섭 지원	
	실천의 날	- 찾아가는 커피트럭(23)	
	이주사업	- 제3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리어코리아지회 운동장)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진행	
11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동시다발 선전전 - 윤석열 퇴진 대시민 선전전 (21.28)	
	6차 미조직회의	- 제3회 이주조합원날 행사 평가 - 11월 미조직 사업 세부 논의 - 13-2차 미조직위 수련회 개최 논의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진행	
	신규사업장	- 코리아에프티 지회 설립(11.7), 신규 조합원 단합대회 - 리어코리아 지회 교섭	
12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26)	
	7차 미조직회의 및 2차 수련회	- 1년차 사업보고 및 평가 확정 - 노조 전략조직사업 논의 - 13-2년차 사업계획 초초안 논의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진행	
	신규사업장	- 코리아에프티 지회 실무 협의.. 리어코리아 지회 교섭	

2) 실천의 날 활동 보고

(1) 5~6월 시기집중 의제 대시민 선전전

- 방식: 문산공단,외동기업은행,금강교.용강네거리.영천도남공단
- 5개 거점 동시다발 선전전

- 1차 선전전(5월 8일)

- 문산공단: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13명,세진지회:5명,현우지회:1명, 현대엠시트:4,명성공업:4,디에스시:4,지부3
- 외동기업은행:다스:11,우영10,감사:1,ITW경주:4,KBI동국실업:2,현대모비스경주물류:1,엠에스정밀:12,청우:1.지부:3
- 용강네거리: 플라스틱옴니업:3, 에코플라스틱:8,엠에스:4,감사:4,지부:4
- 금강교네거리: 리어코리아6,발레오만도:8,일진베어링:4,지부:3
- 영천도남공단네거리: 현대성우솔라이트:6,금강:3,두양정공:2,비투지:4,지부:3

- 2차 선전전 (5월 22일)

- 문산공단: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6명,세진지회:5명,현우지회:2명,현대엠시트:2,명성공업:1,지부2

- 외동기업은행: 다스:7,우영7,감사:1,ITW경주:4,KBI동국실업:1,엠에스정밀:1,청우:2,현담산업:3,지부: 3
- 용강네거리: 플라스틱옴니업:2, 에코플라스틱:6,엠에스:4,감사:4,지부:4
- 금장교네거리: 리어코리아6,발레오만도:8,일진베어링:6,지부:3
- 영천도남공단네거리: 금강:3,두양정공:2,비투지:4,지부:3

- 3차 선전전 5월 29일

- 문산공단: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6명,세진지회:5명,디에스시:2,현우지회:2명,명성공업:1,지부2명
- 외동기업은행: 다스:10,우영8,ITW경주:4,KBI동국실업:2,현담산업:1,청우:1,지부: 2명
- 용강네거리: 플라스틱옴니업:3, 에코플라스틱:7,엠에스:3,지부:1
- 금장교네거리: 리어코리아6,발레오만도:6,일진베어링:3,지부:3
- 영천도남공단네거리: 금강:3,두양정공:4,비투지:3,현대성우솔라이트:6,지부:2

- 4차 선전전 6월 5일

- 문산공단: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6명,세진지회:6명,디에스시:2,현대엠시트:4,명성공업:5,지부:3
- 외동기업은행: 다스:9,우영10,ITW경주:4,KBI동국실업:3,엠에스정밀:1,엠에스정밀:1,청우:1,현담산업:2,지부:2
- 용강네거리: 플라스틱옴니업:3, 에코플라스틱:7,엠에스:3,지부:3
- 금장교네거리: 리어코리아:5,발레오만도:8,일진베어링:5,지부:2
- 영천도남공단네거리: 금강:3,두양정공:2,비투지:2,지부:4

- 5차 선전전 6월 19일

- 문산공단: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6명,세진지회:4명,디에스시:3,지부1
- 외동기업은행: 우영:9,ITW경주:3,KBI동국실업:3,엠에스정밀:2,청우:1,지부: 1
- 용강네거리: 에코플라스틱:7,엠에스:4,지부:1
- 금장교네거리: 리어코리아:3,발레오만도:4,일진베어링:4,지부:3
- 영천도남공단네거리: 금강:3,두양정공:2,비투지:4,지부:1

(2) 커피트럭 및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

1) 지부 커피트럭 일정 (6~7월)

- 장소: 영천공단 부근 집중 / 시간: 11시40분~ 13시
- 진행방식: 미조직 조직화 및 최저임금 캠페인 병행
- 커피트럭 진행 후 인근 주차 차량 선전물 배포

▣ 1차 진행

→ 일시: 6월 05일(수) / 장소: 영천 도남 공단 앞 공영 주차장

참가: 에코플라스틱지회 손수환 부지회장,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정대 부지회장, 세진지회

우영산업지회 박찬형 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박문환부지회장, 두양정공지회 김수하 지회장, 비투지회 황진민부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박해근 부지회장,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 지회장, 명성공업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엠에스지회 이준오 수석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ITW경주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회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부장

▣ 2차 진행

→ 일시: 6월 19일(수) / 장소: 영천 언하공단 부근(중식당 앞 또는 인근)

참가: 에코플라스틱지회 손수환 부지회장,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정대 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박문환 부지회장, 비투지회 황진민 부지회장, ITW경주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박해근 부지회장,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 지회장, 명성공업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

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부장

▣ 3차 진행

→ 일시: 6월 27일(목) / 장소: 영천 언하자연숲 앞

참가: 금강지회 백창익 부지회장 외 3명, 현대성우솔라이트 지회 김정대 부지회장, 비투지회 서재영 지회장, 황진민 부지회장, ITW경주 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명성공업 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우영산업 지회 박찬형 부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부장

▣ 4차 진행

→ 일시: 8월 08일() / 11시 30분 ~ / 장소: 영천 도남 공단 앞 공영 주차장 부근

참가: 에코플라스틱지회 손수환 부지회장,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환철 지회장 외 4명, 엠에스지회 이준오 수석부지회장, 비투지회 서재영 지회장 외 1명, ITW경주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박해근 부지회장, 명성공업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외 5명,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부장

▣ 5차 진행

→ 일시: 9월 26일(목) / 장소: 영천 도남 공단 앞 공영 주차장 부근,

- 방식 : 커피트럭 진행 후 인근 주차 차량 선전물 배포

참가: 엠에스지회 이준오 수석부지회장, 우영산업 박찬형 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박문환 부지회장, ITW경주 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박해근 부지회장, 명성공업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부장

▣ 6차 진행(성평등 어울림 축제 대시민 미조직화 커피트럭)

→ 일시: 11월 3일(토) / 장소: 황성공원 주변

- 방식: 성평등 어울림 축제 미션 완료후 노동자 권리 찾기. 미조직화 물티슈 배포

참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외 2명, 지부 집행위 중심

(3) 최저임금 인상 집중 캠페인(커피트럭)

→ 일시: 6월 21일(수) / 장소: 계중 네거리

참가: 에코플라스틱지회 손수환 부지회장,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정대 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박문환 부지회장, 비투지회 황진민 부지회장, ITW경주 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 지회장, 명성공업 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엠에스지회 이준오 수석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이명호 지회장 외 5명, 민주노총 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의 3명, 지부 정진홍 지부장의 7명

(4) 공단 주변 선전물 배포

→ 6~9월 커피트럭 진행 후 배포 방식으로 진행

1) 영천공단 집중 실천의날

- 일시: 10월 25일(금) / 11~ 13시

- 참가: 엠에스지회 이준오 수석부지회장, 우영산업 박찬형 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박문환 부지회장, ITW경주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박해근 부지회장, 명성공업 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다스지회 이동혁 부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부장

2) 문산공단 주변 집중 실천의날

- 일시: 11월 15일(금) / 12~ 14시

- 참가: 다스지회 이동혁 부지회장, ITW경주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명성공업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박해근 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박문환 부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 부장

3) 민주노총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 미조직위 공동 실천의날

- 장소: 황성공원 주변 및 서천둔치 주차장
- 참가: 다스지회 이동혁 부지회장, ITW경주지회 이찬균 부지회장, 명성공업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박해근 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박문환 부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 부장
- 민주노총 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 이재욱 조직국장

(5) 찾아가는 기획 사업

- 사업장(복수노조) 미조직 조직화 사업

① [외동공단 부근 사업장]

- 일시: 7월 22일(월) / 10시 30분 ~ 오전.오후 이동 진행
- 오전 장소: 인지컨트롤스지회 / 대상: 인지컨트롤스지회 조합원 및 조직화 대상
- 오후 장소: 엠에스정밀지회 / 대상: 힘내라 엠에스정밀지회, 조직화 아진카인텍 모화공장
- 참석: 인지컨트롤스지회 최용복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부지회장 외 5명, 명성공업지회 김광현 부지회장, 다스지회 이동혁 부지회장, 우영산업지회 박찬영 부지회장,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이광우 미조직부장

② [플라스틱 읍니엄]

- 일시: 10월 23일(수) / 11시 00분 ~ 13시
- 대상: 지회 조합원 및 기업노조 조직화 대상
- 참석: 플라스틱읍니엄지회 지회장 외 1명, 지부 이중희 부지부장, 최익선 미조직국장, 손현석 조직부장, 김진산 선전부장

(6) 미조직 조직화 현수막 사업

▣ 경주.영천 공단 주변 게시대 게시 사업

The image displays four posters for union recruitment, each featuring a table of nearby businesses and union information. The posters are arranged in a 2x2 grid.

Top-Left Poster:

- Header: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Labor unions are the rights of worker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 Table:

관리번호	게시대명	연수	담당종	유계(cms)	게시기간
0400	성원한의원	02	남부동	700*90	24.05.24 - 24.05.30
0410	도통사거리	02	남부동	700*90	24.05.24 - 24.05.30
0415	영랑초등학교	01	남부동	700*90	24.05.24 - 24.05.30
0425	영랑고등학교	02	동부동	700*90	24.05.24 - 24.05.30
0445	영랑교(남)주	05	관산동	700*90	24.05.24 - 24.05.30
- Footer: 신항우당 : 5장

Top-Right Poster:

- Header: 무명노동상담 054-748-3223 한국 1611-9509
- Table:

관리번호	게시대명	연수	담당종	유계(cms)	게시기간
0005	강릉(영고형면)	01	동부동	700*90	24.07.29 - 24.08.04
0025	아사주공-과	01	동부동	700*90	24.07.29 - 24.08.04
0205	도남공단	01	남부동	700*90	24.07.31 - 24.08.05
0215	복원공단(영천)인입로	01	남부동	700*90	24.07.31 - 24.08.05
0225	복원공단 영천2번	01	남부동	700*90	24.07.31 - 24.08.05
- Footer: 신항우당 : 5장

Bottom-Left Poster:

- Header: 10,000원을 친착 넣었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 Table:

관리번호	게시대명	연수	담당종	유계(cms)	게시기간
0400	성원한의원	04	남부동	700*90	24.07.12 - 24.07.18
0405	도남오물	04	남부동	700*90	24.07.12 - 24.07.18
0410	도통사거리	05	남부동	700*90	24.07.12 - 24.07.18
0420	강릉	03	동부동	700*90	24.07.12 - 24.07.18
0435	후방-과	03	동부동	700*90	24.07.12 - 24.07.18
- Footer: 신항우당 : 5장

Bottom-Right Poster:

- Header: 10,000원을 친착 넣었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 Table:

관리번호	게시대명	연수	담당종	유계(cms)	게시기간
0025	아사주공-과	01	동부동	700*90	24.08.19 - 24.08.25
0205	도남공단	03	남부동	700*90	24.08.21 - 24.08.27
0210	복원공단	01	남부동	700*90	24.08.21 - 24.08.27
0225	복원공단(영천)인입로	01	남부동	700*90	24.08.21 - 24.08.27
0420	강릉	02	동부동	700*90	24.08.23 - 24.08.29
- Footer: 신항우당 : 5장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2070	대성우유소(홍길)	02	홍길종	610-70	24.05.02	24.05.08
2161	서경우역	05	한복면	610-70	24.05.09	24.05.15
2025	경주어고 및장 앞(2단)	01	상건종	610-70	24.05.16	24.05.22
0525	출몰리스 앞 (우)	01	홍길종	610-70	24.05.22	24.05.28
2190	골길hcc삼거리 (우)	01	홍길종	610-70	24.05.23	24.05.29

배달건수 : 5건

■ 시간 화일명 : 급속노조 계시대용 5월5~5.jpg

**10,000원은
진작 넘었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족인**

헌법·가정법제 1811-9509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2070	대성우유소(홍길)	02	홍길종	610-70	24.05.02	24.05.08
2161	서경우역	05	한복면	610-70	24.05.09	24.05.15
2025	경주어고 및장 앞(2단)	01	상건종	610-70	24.05.16	24.05.22
0525	출몰리스 앞 (우)	01	홍길종	610-70	24.05.22	24.05.28
2190	골길hcc삼거리 (우)	01	홍길종	610-70	24.05.23	24.05.29

배달건수 : 5건

■ 시간 화일명 : 급속노조 계시대용 5월5~5.jpg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무료노동 054-748-1811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2415	홍무초등학교 앞 (우)	05	상건종	610-70	24.05.01	24.05.07
2030	고속우유소(5단)	03	배만종	610-70	24.05.02	24.05.08
2270	천북면 신라공고(송강길)(좌)	02	천북면	610-70	24.05.02	24.05.08
2305	청년회의소 (중)	03	상건종	610-70	24.05.23	24.05.29
2345	타미남 남곡(건영화물)	05	상건종	610-70	24.05.23	24.05.29

배달건수 : 5건

■ 시간 화일명 : 급속노조 계시대용 5월.jpg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무료노동 054-748-1811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2415	홍무초등학교 앞 (우)	04	상건종	610-70	24.05.12	24.05.18
2040	고속우유소(2단)(우)	02	배만종	610-70	24.06.20	24.06.26
2190	불국역 (우)	03	배만종	610-70	24.06.20	24.06.26
2270	천북면 신라공고(송강길)(좌)	03	천북면	610-70	24.06.20	24.06.26
2290	피달APT(건영크레인)(좌)	05	황상종	610-70	24.06.27	24.07.03

배달건수 : 5건

■ 시간 화일명 : 급속노조 계시대용 5월.JPG

**10,000원은
진작 넘었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족인**

헌법·가정법제 1811-9509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2220	상곡교삼거리	03	상건종	610-70	24.07.17	24.07.23
2030	고속우유소(5단)	02	배만종	610-70	24.07.10	24.07.16
2030	홍곡대청문(우)	02	석창종	610-70	24.07.10	24.07.16
2125	박달동 주차장 앞 (2단)(우)	01	안향종	610-70	24.07.25	24.07.31
2165	신우이마트 앞 (좌)	03	홍상종	610-70	24.07.25	24.07.31
2045	근항보우이마트(좌)	02	홍상종	610-70	24.07.31	24.08.06

배달건수 : 6건

■ 시간 화일명 : 급속노조 계시대 7월.jpg

**10,000원은
진작 넘었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족인**

헌법·가정법제 1811-9509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0370	골길교및문현(골향옥)(2단)(우)	02	황상종	610-70	24.07.03	24.07.09
2005	고속우유소(2단)(좌)	01	배만종	610-70	24.07.04	24.07.10
2200	홍길대우문현(신영도우옥)(우)	02	홍상종	610-70	24.07.04	24.07.10
0445	이천한계 삼삼거리(2단)(우)	02	황상종	610-70	24.07.10	24.07.16

배달건수 : 4건

■ 시간 화일명 : 급속노조 계시대 7월.jpg

**10,000원은
진작 넘었어야 한다
최저임금
대족인**

헌법·가정법제 1811-9509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0391	삼정아파트문현구(2단) (좌)	01	송효종	610-70	24.08.14	24.08.20
0490	주공1차APT(황성파출소앞)(우)	02	황상종	610-70	24.08.21	24.08.27
0515	출몰리스 앞 (좌)	01	홍상종	610-70	24.08.21	24.08.27
0395	골길교및문현(골향옥)(2단)(좌)	02	황상종	610-70	24.08.28	24.09.03
0430	홍길삼거리(해이마트앞)(우)	03	홍상종	610-70	24.08.28	24.09.03

배달건수 : 5건

■ 시간 화일명 : 8월-급속노조 계시대용.jpg

**아직도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나요?
언제나 당신편! 급속노조!**

무료노동 054-748-1811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2100	동대교(우공미아트센터)(좌)	05	상건종	610-70	24.08.07	24.08.13
2075	홍곡대청문 (좌)	05	석창종	610-70	24.08.08	24.08.14
2270	천북면 신라공고(송강길)(좌)	04	천북면	610-70	24.08.08	24.08.14
2395	출몰리스삼거리(홍성유리)(우)	05	홍상종	610-70	24.08.08	24.08.14
2220	상곡교삼거리	04	상건종	610-70	24.08.21	24.08.27

배달건수 : 5건

■ 시간 화일명 : 8월-급속노조 계시대용.jpg

**아직도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나요?
언제나 당신편! 급속노조!**

무료노동 054-748-1811

헌수약자계시대별 신청내역

관리번호	계시대명	면수	발행종	규격(cm)	계심일자	실거일자
0391	삼정아파트문현구(2단) (좌)	01	송효종	610-70	24.08.14	24.08.20
0490	주공1차APT(황성파출소앞)(우)	02	황상종	610-70	24.08.21	24.08.27
0515	출몰리스 앞 (좌)	01	홍상종	610-70	24.08.21	24.08.27
0395	골길교및문현(골향옥)(2단)(좌)	02	황상종	610-70	24.08.28	24.09.03
0430	홍길삼거리(해이마트앞)(우)	03	홍상종	610-70	24.08.28	24.09.03

배달건수 : 5건

■ 시간 화일명 : 8월-급속노조 계시대용.jpg

**아직도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나요?
언제나 당신편! 급속노조!**

무료노동 054-748-1811

□ 영천 공단 주변 사업장 미조직 현수막 게시 (10월 실천의 날)

**원터에서 일어나는 궁금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재, 부당해고, 직장감질 등
법률상담은 급속노조로~**

한국급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무료노동상담
054-748-3223
전국 1811-9509

**회계(조합비)가 투명하고 조합원이 주인인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급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무료노동상담
054-748-3223
전국 1811-9509

**아직도 조합원이 노동조합 눈치박!
조합원이 주인인
급속노조와 함께 합시다.**

한국급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무료노동상담
054-748-3223
전국 1811-9509

**연차축적금 체불임금 산재처리 아직도 사람을 불권취급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노조가입 상담**

한국급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무료노동상담
054-748-3223
전국 1811-9509

**아직도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나요
언제나 당신편! 급속노조**

한국급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무료노동상담
054-748-3223
전국 1811-9509

3) 조직화 신규 사업장 평가

① 리어코리아 지회

[조직화 과정]

- 2022년 5월 최초 초동주체 상담 시작으로 23년 8월부터 노조가입 상담을 진행함
- 초동주체 상담 과정에서 2000년대 노동조합 활동과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조직이 와해 된 경험이 존재하면서 현장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에 기인한 불안감을 자신감으로 변화시키는 내적 분위기 전환에도 집중함.
- 설립과정에서 2~3번 정도의 금속노조 설립에 대한 카더라 통신이 발동되면서 자칫 내부적인 의견그룹 존재등 내부적 단속을 통한 보완을 유지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업장내 사내하청지회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수노조인 아주산업 기업노조를 통해 정규직 노조설립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현장 내 전파되는 현상도 발생됨.
- 지회 설립전 1주일간 사전 점검, 설립이후 대책 등에 대해 집중토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조직화에 대해 확정을 결의하고 조직함.
- 최초 조직상담에서 설립까지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통해 기존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금속노조 조직화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설립 이후]

- (초기) 지회 설립 당일 조합원총회 공문을 통해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원만한 설립 총회 지원에 대한 사측의 방해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 하였다.
- 지부.지회는 설립이후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 부당노동행위금지, 불이익금지 등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현장내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대한 자신감과 이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 지회는 1사1조직 결의를 통해 단결력을 피하는등 빠르게 조직통합과 안정화 사업에 매진함.
- 지회는 운영위에 설치승인 이후 지회대의원 선거 및 상집부서장 선임을 통해 간부를 구성 완료 하였다.
- (중기) 현장 계약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속노조 가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면서 조직화에 노력함.
- 조직화 결과 경주공장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현장 기능직 노동자들은 전체가 가입하는 결과로 이어짐.
- 과정에서 울산공장 계약직 노동자 경우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최종 가입은 정규직 전환 이후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탈퇴는 개인의사가 우선이지만 조직력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쉬운 지점으로 보임.

[교섭 관련]

-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임.단협 교섭은 노.사 큰 마찰없이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 교섭과 1,2분기 노사협의회를 병행화 과정을 통해 성과금, 노동강도 완화에 따른 방안이 합의되는 중간 성과도 있었다.
- 교섭 요구안 확정과정에서 기존 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합의를 최우선 조직적 과제로 설정하고 전체 계약직 동지들을 정규직화에 최종 합의한 것은 주요한 성과적 측면이다.
- 교섭 과정에서 노.사간 최종합의전 외투 자본 특성상 선 조치, 후 보고 방식이 아닌 선 보고-논의-결정 구조로 이어지면서 기존 노사협의회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함.
- 이후 하계휴가 전 임.단협 교섭 마무리되고 단협 체결에 따른 후속 협의를 통해 단협적용에 혼란을

최소화함.

[이후 과제]

- 사무직군 과 아주산업 조합원에 대한 조합활동 방안. 내부 조직화 주체 발굴등 지부.지회가 주도적인 중.장기 기획과 실천 방안이 논의 될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경주공장 이외 울산 창고.상주원 조합원과의 지회 활동과 교류가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상화사업도 병행되어야 함.

㉔ 코리아에프티 지회

[조직화 과정]

- 2024년 8월 20일 초동주체 상담을 통해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기존 기업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의 독재적인 조합활동. 각종 비리 등이 현장내 확인되면서 기업노조의 한계와 금속노조 가입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표출됨.
- 안성, 경주공장 내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안성공장은 금속노조. 사무직 중심의 한국노총, 경주공장은 기업노조로 운영되었다.
- 동일법인 내 금속노조가 교대노조. 한국노총, 기업노조는 소수노조이나 각 개별교섭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 금속노조 기초적인 교육과 조직형태 전환 총회에 대한 점검으로 진행되었으며, 10월 4일 위원장 선출 총회이후 경기. 경주지부와 안성, 경주지회 임원 간담회를 통해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 최초 10월 29일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기획하였으나, 기존에 관행처럼 진행한 단독후보시 무투표 방식의 임원 선출방식의 문제로 인해 11월 7일 위원장 선거 및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진행 하게 되었다.
- 당일 위원장 당선과 동시에 진행된 조직형태 변경 총회는 전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무사히 진행되었다.
- 금속노조 가입에 대한 불안감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안성, 경주지회가 9년 만에 금속노조로 하나가 될수 있었다.

[설립 이후]

- 준비과정에서 상집부서장 선임과 기존 대의원까지 모두 금속노조에 사전 가입하면서 3/2 찬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
- 노.사 실무 협의를 통해 지회 안정화를 위해 임원들의 기초적인 조합활동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합의하고 현장내 기존 위원장 중심으로 분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현장 활동을 하였다.
- 사무직군들의 별도 도발은 없었으나, 기존 8+9 근무변경에 대한 후속 대책 협의를 통해 25년 1월 8+9 근무형태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 24년 8월 체결한 단협 유효기간으로 26년 안성, 경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과제]

- 경주, 안성지회 조합원들의 현장 정서와 단협 등 차이 등은 양 지회 임원. 간부들의 내부적 논의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사무직군 조직화와 예전 기업노조 탈퇴자들에 대한 조직화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 특히, 25년 임금교섭, 26년 단체교섭 요구안 준비 등 내부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총 평]

- 리어코리아지회는 2000년대 노조와해 공작의 아픔을 극복하고 현장내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가입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큰 마찰 없이 조직화 되었다.
- 노사협의회 체계의 한계와 현장 인원대비 살인적인 노동강도, 쪼개기 계약기간, 사측의 노.노 갈등 유발 등 현장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우선 사업으로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강도 완화 방안, 계약직 정규직화, 현장 조.반장 업무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이 현장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8+8 교섭을 통해 신규 설비투자 및 인원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강도 완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갈 것이다.
- 코리아에프티지회는 기업노조 위원장 후보군들이 적극적인 조직형태 변경 초동주체로 활동하면서 조직형태 변경에 필요한 3/2에 절반인 10여명이 조직화 주체로 설립 준비위에 결합되었다.
- 기업노조 위원장의 독재와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방식등에 조합원들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조직형태 변경일이 순연되는 등 과정상의 문제도 있었으나, 한치의 흔들임이나 사측의 회유 등에도 굳건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안성, 경주지회의 차이점을 단시간에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다소 힘들수도 있다. 경주, 안성지회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결된 지회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지부의 역할과 양 지회의 상시적인 소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4) 이주조합원 간담회 사업 평가

1.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 일정

순번	지회	날짜/시간	장소	조합원수	국적 및 통필여부
1	금강	6/20/(수) 14:40~16:40 (주.야1시간)	지회	17명	캄(5)/필(2)/베(6) 중(2)/우즈(2)/필(2)/통필
2	엠에스(천북)	6/14/(금) 08:00 (통합1시간) 사전 협조	천북공장	15명	캄/통필
3	현대성우솔라이트	6/20/(수) 08-09시(통합 1시간)	지회	17명	베트남3.중국7.캄7.몽1/필요

2. 간담회 내용 및 간담회 방식

→ 캄보디아, 베트남(통역사) 동시통역 방식 → 통역기 이용한 국가별 통역

1. 지부장 환영 인사 발언 및 인사
2. 13기 금속노조 투쟁방침 (노조)
3. 노동조합의 중요성 및 이주노동자 조직화
4. 지회 간담회

(1) 진행 과정 및 약평

- 1년차 노조-지부 공동사업으로 실시된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는 6월 14일, 20일 진행되었다.
- 12기에 이어 13기에도 진행된 이주조합원 간담회 사업은 조합원들 의견수렴과 이후 과제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 현대성우솔라이트, 금강, 엠에스 3개 지회로 KBI동국실업, 현우지회는 지회 일정상 진행되지 못했고, 국적은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벡, 몽골 7개 국적의 이주조합원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통역사 배치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국적별 전체 통역이 어려웠고, 진행자,통역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영역도 발생되었다.

- 이주조합원 간담회 사업이 12기에 이어 13기에도 진행된 만큼 정주-이주 조합원, 집행간부들과의 관계개선과 이주조합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회 사업에 안착해 나가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 지부내 정주-이주 조합원 간의 인식변화 교육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지회별 이주 조합원 간담회 약평

① 현대성우 스피릿 지회

- 13기-1년차 이주조합원 대의원 구역구 배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주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회로 전달할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정주-이주 단협 적용 및 고용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의 시간이 좋았다.
- 이주조합원의날 행사를 통해 전체가 하나되는 활동에 대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② 금강 지회

- 비자, 기숙사비, 주52시간 근무 등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었고, 불안감 해소와 직접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좋았다.
- 이주조합원 간담회 사업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 임.단협 교섭 등 지회 일상사업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자.

③ 엠에스 지회

- 금속노조 조합원 자긍심 및 현장 노동관련 질의응답을 통한 집행부와 이주조합원들간의 이해도가 반영된 시간이었다.
- 숙소문제 및 단협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오해가 해소되었고,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5) 제3회 이주조합원 날 사업 평가

- (진행과정) 지부 미조직위원회에서 2차 회의부터 조직화, 프로그램 논의등 초벌 논의를 진행하였다.
- 최초 13기 1년차 이주조합원의날 행사는 고국 음식 만들기 행사로 진행 논의하였으나, 공간, 예산, 시기등의 문제로 인해 대폭 수정되었다.
- 최종 기획안은 6차 미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노조-지부 이주조합원 행사 공동 회의를 통해 영역별을 사업예산과 준비과정을 논의 하였다.
- 12기 경우 1년차에는 금속노조 주체 교육 및 이주노조에 대한 내용이었고, 2년차에는 공동체 놀이 체험 행사로 진행되었다.
- 3회 이주조합의날 행사는 정주-이주조합원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방식으로 최종 확정되고 준비팀으로 지부미조직부-리어코리아 지회 간부로 구성하여 행사준비를 완료하였다.
- (조직화) 지회별 자체 이동수단을 통해 담당간부들 중심으로 이주조합원동지들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도록 노력하였다.
- 행사일정이 지회 체육대회 등과 중복되면서 참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 여전히 일요일 진행에 대한 참여도 저하, 이동수단, 이주조합원 중심적인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과 지부.지회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약평 및 의견)

- 리어코리아지회 운동장에서 진행된 행사에 지회별 이주조합원 및 가족과 지부 미조직위, 노조담당임

- 원 등 100여명의 참석하여 정주-이주노동자 운동회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특히, 5가지 종목으로 진행된 운동회는 처음 접해본 종목에도 이주조합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종목별로 배포된 경품지급과 미조직위.리어코리아에서 준비한 참가자 수건, 2회 행사에 이어 최종 우승팀의 경우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가 협찬한 배터리 교환권은 최고의 경품으로 선정되었다.
- 3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에서도 기존 보완지점으로 나온 국적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과 통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달방식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지점으로 남았다.
-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적별 행사 기획과 통역국가별 통역사 배치 방식등을 통해 높은 참여도와 함께 이주노동자 미조직 사업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사업의 고민도 필요하다.
- 행사 취지는 좋았으나,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자. 노조-지부 사업이 결합되지 못하는 업무상의 미흡함은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노조사업-지부사업의 공동행사 취지에 입각하여 공동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13기 2년차 이주조합의 날 사업은 노조-지부(미조직위) 세밀한 점검과 준비과정을 통해 국가별 집중 행사로 진행될 수 있는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사업 평가

1) 미조직위 회의

- 13기 1년차 미조직위회의는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7차 회의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부서별 회의는 격월, 수련회 2회 진행을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 5~6월 시기별 집중의제 대시민 선전전, 7차례의 미조직 조직화 커피트릭, 실천의날, 영천공단 집중 미조직화로 기획되고 실천을 담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 30개 지회 중 17개 지회가 성원으로 참석하였고, 11월에는 신규지회인 코리아에프티지회, 12월에는 비투지지회가 성원으로 결합 되었다.
- 6~10월 집중 실천의날 행사를 통해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적극 결합하였다.
- 13-2년차 미조직위원회는 격월 회의 진행의 사업누적과 커피트릭을 이용한 미조직 조직화 사업시 시기조절 부분을 노조-지부 논의를 통해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 2년차에는 미조직위원회의 활성화와 실천 과제 영역을 세분화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민주노총 경북본부 미.비특위 사업

- 민주노총 경북본부 미.비특위 회의와 실천사업에 지부미조직 담당임원,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특히, 본부가 하반기 전략 조직화 사업으로 설정한 “경북 모두의 노동조합” 미조직위 토론 결합 등 진행사업에 지부 미조직위 전체가 결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 민주노총이 주관한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본부는 온라인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 실 조직화 과정에서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혼선이 발생되었고, 지부 미조직위 실천사업에 병행되는 등 적극적인 사업으로는 진행되지 못했다.
- 12-2년차에 좋은 평가로 남은 라디오 송출 방식의 민주노총 홍보사업은 예산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총연맹-본부-지역지부로 이어지는 통일적인 미조직 실천사업의 담보와 지부별 결합인원 부족 등 한계의 문제는 추후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3) 노조-지부 미조직위사업 강화

- 13-1년차 노조 미조직전략위 사업의 주요한 영역은 3기전략 사업 논의로 진행되었다.
- 13-1년차 노조결합사업으로는 미조직활동가 대회에 미조직위 성원이 결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2차레 노조-지부 간담회를 통해 기초적인 상담 교육사업, 지부.지회까지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는 일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의견과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조-지부 확정된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적극 결합 하였고 신규노조 조직화 자료 재편집 사업 및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지부별 의견이 개진되는 것으로 하였다.
- 미조직 사업의 특성상 지회사업의 영역까지 담보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13-2년차 3기 전략조직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결합력을 높여가는 실천사업에 적극 복무할 예정이다.

4) 총괄 평가

- 13기 1년 차 미조직위원회는 7차 회의와 2차레 상·하반기 수련회로 진행되었다.
- 지부 미조직위원회 중심으로 미조직 조직화 실천사업과 홍보사업을 병행하였고, 공단 미조직 조직화 커피 트럭, 찾아가는 기획사업인 지부 내 복수노조 사업장 지원 사업, 유료게시대 홍보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 13기 1년 차에 설정한 영천공단 집중 조직화 사업을 통해 기업노조 및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실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영천공단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로의 가입을 조직해 나갈 예정이다.
- 5~6월 시기 집중 의제 대시민 사업은 매년 전체 지회 상근자 동지들이 결합 되면서 힘있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미조직위원회 자체 사업을 넘어 지부 사업으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 신규지회의 경우 자체 보안을 우선으로 설립 과정 → 경과 →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다만 보안 유실로 인한 혼선은 이후 고민 지점으로 보인다.
- 13기에도 미조직위원회가 주체로 진행된 제 3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와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는 이주사업의 중요성과 정주-이주 노동자 간의 인식변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13기 2년 차 미조직위원회 사업은 격월 회의 때 발생하는 사업의 과부하, 미조직 조직화 선전방식의 다양한 접근방식, 이주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 기획 등이 실천 사업 과제로 보여진다. 이후 미조직위원회 공동사업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6-4. 교육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현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의 통일성을 높임
- 2) 조합원 및 간부교육의 다양화와 내실있는 추진
- 3) 신규, 중소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 교육사업 지원

2. 주요사업 보고

1) 지부 교육위원회 회의 진행경과

① 회의참석 현황

순	지 회	직책	이름	1차	2차회의 및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회의 및

번				(1/12)	수련회 (3/18-19)	(4/19)	(5/14)	(6/13)	(8/6)	(9/12)	수련회 (11/14~15)
1	다스	교육부장 교육위원	최정길 박문성	○ ○	○ ○	○ ○	○ ×	○ ○	○ ○	○ ○	○ ○
2	디에스시	교육부장 교육위원	정진우 박신웅	○ (최병근)	○ ○	× ○	○ ○	× ○	○ ○	○ ○	○ ○
3	리어코리아	교육부장	이진원							○	○
4	비투지	교육부장	권재민	○	○	○	○	○	×	×	사임
5	세진	교육부장 교육위원	김현기 최영욱	○ ○	○ ○	○ ×	○ ○	○ ○	○ ○	○ ○	○ ○
6	아이티더블유코 리아경주	교육부장 교육위원	조현진 정석원	○	○ ○	○ ○	○ ×	○ ×	○ ○	○ ○	× ○
7	에코플라스틱	교육부장 교육위원	강현정 김인하	○	○ ○	○ ○	○ ○	○ ○	○ ○	○ ○	○ ○
8	엠에스	교육부장	윤대호	×	○	○	×	○	○	○	×
9	우영산업	교육부장	차중훈	○	○	○	○	○	○	○	○
10	현대성우솔라 이트	교육부장	심완주	○	○	○	○	○	○	○	○
11	현대아이에이 치엘	교육위원	이성희	×	○	○	○	×	○	○	○
12	KBI동국실업	교육부장	김태진	○	○	○	○	○	○	○	○
13	지부	부지부장 교육국장	우정식 조청호	○ ○	○ ○	○ ○	× ○	○ ○	○ ○	○ ○	○ ○
	합계			14명 (전승무 교육위원)	18명	16명	14명	15명	17명	18명	17명

㉔ 회의 진행 결과

차수	일시 및 장소	안건 및 논의사항	기타
1차	24. 1. 12 지부회의식	13기 2년차 사업계획 논의 건, 13기 2년차 신입간부 교육 논의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4명 참석
2차	24. 3. 18-19 성호리조트	13기 2년차 신입간부 보고,평가 건, 13기 1년차 교섭위원 교육 건, 13기 1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 건, 13기 1년차 조합원교육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8명 참석
3차	24. 4. 19 KBI동국실업지 회	13기 1년차 신입간부교육 평가 건, 13기 1년차 교섭위원교육 건, 13기 1년차 조합원교육 건, 13기 1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 교육 실시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6명 참석
4차	24. 5. 14 디에스시지회	13기 1년차 조합 의무교육 실시점검 건, 13기 1년차 확대간부교육 실시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4명 참석
5차	24. 6. 13 세진지회	12기 2년차 조합원 의무교육 실시 점검 건, 13기 1년차 확대간부교육 실시 건, 13기 1년차 교섭위원교육 보고,평가 건, 교육역량 강화 실습 건	15명 참석
6차	23. 8. 6 우영산업지회	13기 1년차 조합원 의무교육 보고,평가 건, 13기 1년차 확대간부교육 보고 평가 건, 13기 1년차 교섭위원교육 보고,평가 건, 교육역량 강화 실습건	17명 참석
7차	24. 9. 20 엠에스지회	13기 1년차 조합원 의무교육 보고,평가 건, 13기 1년차 확대간부교육 보고 평가 건, 13기 1년차 지부교섭위원교육 보고,평가 건, 13기 1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 보고,평가 건 교육역량 강화 실습건	18명 참석

8차	24. 11. 14-15 화랑마을	13기 1년차 교육위원회 사업보고.평가 건, 하반기 확대간부교육 평가 건, 13기 2년차 확대간부 의견수렴 건, 13기 2년차 신입간부교육 의견수렴 건, 교육역량 강화 실습 건	16명 참석
----	-----------------------	--	--------

③ 교육 참석 현황

주체 및 교육	날짜	장소	참석
13기 1년차 금속노조 조합원 의무교육 강사단 훈련	2023년 3월 13일	경주지부 강당	정진홍지부장,차상호수석부지부장,이중희,우정식부지부장,박진만사무국장,최익선미조직국장,이광우미조직부장,황준하조직부장,안의선총무부장,이형석선전부장,권형구,이영하노안부장,손해용정책부장,손현석조직부장,조청호교육국장,김인하,박문성,박신웅,이성희,정석원,최영욱 지부교육위원,최정길다스지회교육부장,정진우디에스지회교육부장,차종훈 우영산업지회교육부장,강현정 에코플라스틱지회교육부장,심완주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교육부장,김태진 KBI동국실업지회교육부장(27명)
13기 1년차 금속노조 지회장 의무교육	2023년 4월 6일~7일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정진홍지부장,엄기훈금강지회장,김재홍다스지회장,김정욱KBI동국실업지회장,김수하두양정공지회장,최강민디에스지회장,우정완명성공업지회장,신시연발레오만도지회장,서재영비투지회장,김영선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장,서동찬아진카인텍지회장,김만조에코플라스틱지회장,박지웅엠에스지회장,황수훈엠에스정밀지회장,박진호우영산업지회장,최용복인컨트롤스지회장,김희진일진베어링지회장,노태현청우지회장,양명덕플라스틱옴니엄지회장,이상윤현담산업지회장,이명호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장,임영진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장,고학봉현대엠시트지회장,이재찬현우지회장,안의선총무부장,조청호교육국장(26명)
13기 1년차 금속노조 교육활동가대회	2024년 10월 16일~17일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다스지회 교육부장 최정길,리어코리아지회 교육부장 이진원, 세진지회 교육부장 김현기, 아이티더블유코리아 경주지회 교육부장 조현진,에코플라스틱지회 교육부장 강현정,우영산업지회 교육부장 차종훈,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교육부장 심완주,KBI동국실업지회 교육부장 김태진,지부교육위원 김인하,박문성,박신웅, 최영욱,이성희,지부 교육국장 조청호(14명)

2) 교육실시 현황보고

가) 13기 1년차 신입간부교육 결과보고

(1) 취지 :

① 신입간부 역할과 자세 공유 ② 민주노총,금속노조에 대한 이해 ③ 공감과 나의 활동계획세우기

(2) 누가 : 신입간부. (3) 때 : 2월 15일(목)~16일(금) (4) 곳 : 성호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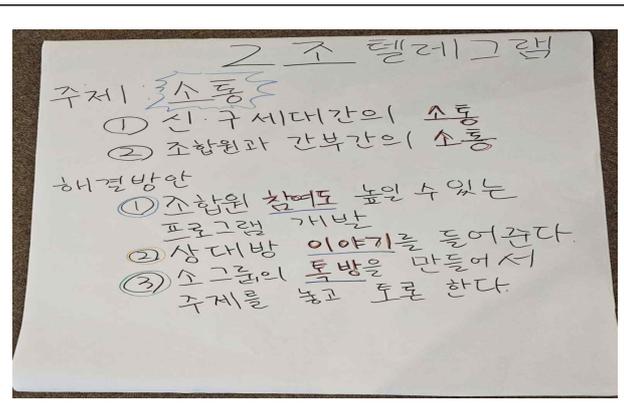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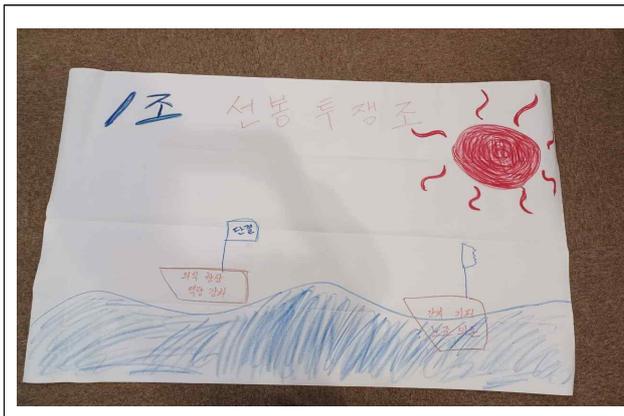
	시간	내용	비고
첫째날	09:00~09:30	입소식	
	09:30~09:40	휴식	
	09:40~10:10	조별 소개 및 나누기	조별 진행
	10:10~10:20	휴식	
	10:20~11:00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역사와 개요	영상교육
	11:00~11:10	휴식	
	11:10~12:00	간담회	지부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간부 기본교육	지부 교육위원장
	14:00~14:10	휴식	
	14:10~15:10	간부역할과 자세	이성희 교육위원
	15:10~15:20	휴식	
	15:20~15:50	나의 계획 세우기 실습	전원 작성
	15:50~16:00	휴식	
16:00~17:30	나의 계획 발표	개인별 계획 전원발표	

둘째날	17:30~	저녁식사 및 뒷풀이	
	09:00~10:40	지회활동 강화방안 토론	조별토론
	10:40~11:30	토론내용작성 및 발표	조별
	11:30~12:00	평가	엽서쓰기
	12:00~	현장으로	

<13기 1년차 신입간부교육 참석명단>

지회	인원	명단
금강	8명	김태일선전부장,주영기,최재규,윤교한,윤병윤,이정우,최정식,채석훈(대의원)
다스	5명	임지훈 선봉부장, 이성은,이재문,이재곤, 하정민(대의원)
명성공업	2명	김영유대의원, 신함규 감사위원
세진	3명	박만석 노안부장, 김성훈 후복부장, 최중수대의원
우영산업	7명	박찬형부지회장,임경훈조직2부장,이근형조사통계부장,정대주,차승철,박규대,김우현대의원
에코플라스틱	9명	정운석 조통부장,정기호조직1부장,정진락조직2부장, 윤지환 문체부장, 김정훈 사수차장, 민인섭,류성욱, 서현우,김무성대의원
엠에스	4명	권두현, 김지수, 이상하, 신현섭(대의원)
엠에스정밀	3명	권용국 선전부장, 이진훈 대의원, 서보경 대의원
인지컨트롤스	5명	최재명 조직부장, 이홍균 노안부장, 김경숙 후복부장,황명숙, 김명순대의원
일진베어링	3명	이호태,이재명,장민준(대의원)
청우	2명	박희준 노안부장, 김진환대의원
현담산업	6명	박지윤여성부장,박은정 복지부장,서창환 정책부장,최창근선전부장,정태화,도경록 대의원
현대모비스물류경주	2명	백광민사무장, 김억경대의원
현대성우썰라이트	1명	윤정민 노안부장
현대아이에이치엘	5명	오세벽 쟁의부장, 이현기 노안부장, 오용우, 김나영, 김선혜(대의원)
지부	1명	이형석 선전부장
교육위원/ 간부	14명	김인하,박문성,박신용,이성희,정석원(교육위원),조청호교육국장,우정식부지부장,김현기세진지회교육부장,노태현청우지회장,최용복인지컨트롤스지회장, 강현정 에코플라스틱지회교육부장, 차종훈우영산업지회교육부장, 최정길 다스지회교육부장, 박진만지부사무국장
합계	80명	

< 조별 토론결과 >



3조 습티컬사수즈

안전 / 생활인공 캠프 수업의 고정

- ① 일관성을 통한 수업의 확보
- ② 정정분작 | 정기적 실시

안전 2. 인력 미충원

- ① 단합기 명시된 조합으로 사측 압박
- ② 각종 위원회 안전 상정으로 노사 합의

안전 3. 간부기피 지회 조직력 약화

- ① 지회 강사명과 조합원 공주
- ② 조의 체계를 알은 신축한 권고 전달
- ③ 조합 활동시간 손실의 수행
- ④ 인회 교육중 위상 회복

4조 사생결단

1. 간부기피 현상

- 등기들의 신중성 경시 받음
- 신명하는 권위 받음 받음
- 관용기 거부당!

2. 조합원들의 참여도

- 구별별 회의기 주체
- 조합원들 주주권 인정 (모집부)
- 강압적 선출 (소통 강화)

3. 조합원들의 참여도

- 조합원들의 참여도
- 조합원들의 참여도
- 조합원들의 참여도

5조

오, 영원한 친구
오, 영원한 동지

- 문제점 : 1. 간부 활동 기피 현상, 2. 조합원들간의 단결력 부족, 3. 노조 관련 정보 전달 부족.
- 해결 방안 : 1. 순번제 도입 → 노조 관심도 향상, 2. 대표대회, 야회 등 활동 → 조합원 단결력 향상, 3. 밴드(SH)활동, 유원회 배후 → 신속한 정보 전달 관심도 향상

간부 - 동석부, 현안 - 도석부, 유원 - 리수현, 반배 - 김나

현 - 세영, IRU - 조우진, 대표 - 김민준, 현 - 김진숙, 예연 - 김진숙

"한 마음, 한 뜻으로 24특성 승리하자!!"

6조

<간부기피 회>

1. 간부활동비, 간부예탁 (조합원들여거 공개)
2. 상임간부, 대의권 (비도, 비산, 질타) (김행부, 상임간부 활동양상, 여거 공개) (조합원들과 소통)
3. 상임간부, 대의권 임명시 업무차차 부득 (부당중)

7. 전팔기

대의권
간부
기피현상

문제점
대의권 지회, 대의권의 합부, 의무적인 서울입회, 대의권은 유망이와 상의, 집행부도 줄이는 현실, 나이차로 인한 의견 차이, 의사도를 불가능, 화상으로 인한 퇴근시간 지연 (회의)

해결 방안
전임자에 대한 절차 필요, 상문간의 존중, 분리가 조성 필요, 허유 개선, 구별별 간담회 (앞문대면), 문제해결을 위한 현명한 소통

8조

김명순, 박희순, 채석훈, 신찬카

연대 강화
조합원 교육자원을 활용한 사전적 교육, 각종 집회 참여 확대, 유망사관양 등용 전.

등정민, 류심숙, 이현식

3. 동맹자 전담의 도우
• 동맹의 활동도 지원, 유망인 육성, 연대하는 조합원, 조합원들의 교육, 조합원들의 교육

연대
금속노조
연대

단결, 투쟁

나) 13기 1년차 교섭위원교육 결과보고 건

- (1) 경과 13-6차 운영위 안전 3-3. 2024년 교섭위원 교육 진행 의견수렴 건(2/26일)
 - ☞ 회의 결과 : - 교섭위원 교육 5회를 진행하며, 교육 주제는 지부 교육부에 일임한다.(열사교육포함)
 - 기획안은 추후 운영위에 제출한다.
 -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일정을 배치한다.
- (2) 교섭위원 교육 취지
 - 교섭위원 역량강화, 교섭위원 의식 교육, 교섭위원 단결과 소통강화
- (3) 교섭위원 교육개요

- 주 1회(집단교섭 일인 목요일) 강의로 5회 실시한다.
- 교육은 집단교섭 2차~6차 교섭 장소인 지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2차~4차, 5차), 오후 2시(5차) 시작하여 2시간 이내 마치도록 한다.
- 대각선 사업장 교섭위원도 필요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 예산은 지부 투쟁기금에서 사용한다.

(4) 교섭위원 교육 수칙

- 불참자는 사유를 적시하여 지부 소식지 등으로 공개한다.
- 집단적 혹은 개별적 이탈 없이 교육시간을 준수한다.
- 교육 전체 마무리 후 평가서를 제출한다.

(5) 교육 일정

주제	일정	장소	강사	내용
자본주의를 알자	5/2(목)	지부강당	임승수(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노동자가 지향해야 할 사회
자동차산업 전망과 노조의 대응	5/9(목)	지부강당	박근태 (전기차가 온다. 저자)	친환경 차 등 자동차산업 변화의 전망과 노조의 대응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5/16(목)	지부강당	최도은 노동가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투쟁 속에서 함께 한 노동가요
열사정신과 민주노조	5/23(목)	지부강당	부·울·경 열사회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해방을 위한 열사정신 계승
바뀐 노동법과 윤석열 정부의 행정개입	5/30(목)	지부강당	박경순 노무사	윤석열 정부 행정개입 및 개정노동법 이해

다) 13기 1년차 금속노조 확대간부교육 결과보고

(1) 목표 및 취지

-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의제 중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속노조 차원의 사업과 실천을 모색
- 현재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근본 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대안사회 주요 가치를 성찰
- 금속노조, 사업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녹색 노동운동 도모
- 녹색 단체협약 만들기를 통해 기후위기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대안 만들기

(2) 일정표

일정	시간	교육 내용	비고
1 일 차	~13:00	참가 접수	진행팀
	13:00~13:30	입소식 (참가단위 소개/ 여는 발언/일정안내)	전체
	13:30~14:00(30분)	[영상] 기후위기 관련 영상	
	14:00~14:50(50분)	[여는 활동] 아이스브레이킹	진행팀
	14:50~15:00(10분)	휴식	
	15:00~16:00(60분)	[강의1] 기후위기와 불평등	
	16:00~16:10(10분)	휴식	
	16:10~18:00(110분)	[모둠토론] 노조 도넛그리기 및 발표	진행팀
	18:00~21:00	저녁식사 및 뒤풀이	
	21:00~23:00	개인별 휴식	
	23:00~	취침	
2	07:30~08:30(60분)	아침식사	

일차	08:30~08:50(20분)	다함께 스트레칭	
	08:50~09:40(50분)	[강의2]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노동조합의 대응	
	09:40~09:50(10분)	휴식	
	09:50~10:50(60분)	[모듬토론] 녹색단협 만들기 및 발표	진행팀
	11:00	폐회	

(3) 경주지부 참가방안

①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 장소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1회차	6월 18일(화)~19일(수)
2회차	6월 25일(화)~26일(수)
3회차	7월 2일(화)~3일(수)

② 교육 참가대상

- 지부협약 적용 사업장(타 지부 소속 지회 포함) 및 교육시간 확보 사업장 간부
- 경주지부 참가 희망 간부 * 집단교섭 외 사업장도 참가 가능, 사전에 신청 바람.

< 지회별 확대간부 교육 참가 신청현황 1 >

지회	인원	1차	2차	3차
금강	20명	11명	8명	
다스	42명(22명)	50명	4명	4명
두양정공	5명		5명	
디에스시	21명			20명
명성공업	11명	7명		
발레오만도	18명		9명	9명
비투지	11명		7명	
세진	21명		20명	
아이티더블유경주	13명			13명
에코플라스틱	40명		36명	
엠에스	29명			28명
일진베어링	21명		9	9
우영산업	27명			24명
현대아이에이치엘	21명			16명
현대성우솔라이트	29명	29명		
리어코리아	15명		6명	
KBI동국실업	9명		5명	4명
청우	4명	2명	2명	
지부	24명	6명	14명	6명
합계	381명 (403명)	105	125	133

< 지회별 확대간부 교육 참가 신청현황 2 >

회차	지회	간부 명단	인원	합계
1차	금강	주영기,윤교환,윤병윤,이정우,최정식,채석훈,이종찬,박세현,박성환,김민우,엄기훈	11	105
	다스	김창우,우영주,강보천,임지훈,김철현,신동우,유현철,이상갑,김건아,이성은,손주익,이인환,(외동),김재홍,허성일,손경익,조진래,최정길,김두성,박정식,김준기,황점순,장경숙,류훈,고현익,우지훈,전국삼,이병관,이재곤,배용득,이준호,김형우,최창덕(경주),김학성,오영상,이동렬,정이석,이정준,방재식,곽우석,이성열,장인철,최광훈,장영선,서윤원,김태호,김학일,이용철,김영민,최지영,김진선(아산)	50	

	명성공업	우정완,김광현,신민철,김채석,손성철,김우창,김영유(외동)	7		
	청우	김진환,박희준	2		
	현대성우솔라이트	김환철,정기화,김정대,남호찬,김윤호,고광태,이현오,박병희,김지현,최정용,안성민,류현문,윤정민,심완주,김명교,최병호,이준호,한준기,최해성,최현욱,강경돈,조영식,이승환,윤석순,이재근,손창희,김병찬,미가,김재홍	29		
	지부	우정식(외동),권형구,이영하,박진만,안익선(경주), 조청호	5		
2차	금강	최재규,홍정상,박상복,이무곤,신정섭,김태일,백승훈,백창익	8	125	
	다스	손제호,김희용,이효영(외동), 박성호(경주)	4		
	두양정공	김수하,황성욱,윤인호,이진구,최종식	5		
	발레오만도	박문환,김환진,이상수,추재덕,구태준,최종식,장재만,장춘기,김영수	9		
	비투지	황진민,장창호,양현수,권재민,이종혁,송홍성,백승재	7		
	세진	안현철,강건우,강민창,강원모,박대형,황제운,최승민,김현기,김재범,박만석,김성훈,윤종업,이상현,류금환,이창욱,조병호,김정우,최중수,이상근,강도현(울산)	20		
	에코플라스틱	김만조,허원호,손수환,최정환,이원규,이탁건,안승찬,이경식,김현우,김준형,정운석,강현정,조성연,백용범,허영현,정기호,정진락,윤지한,서동남,김정훈,이재학,문성국,서현우,서완수,김유태,장승호,박석근,민인섭,최신식,김기태,류성욱,김태하,구본운,김동역,김인하,한효섭	36		
	일진베어링	박광일,오수민,윤수호,김대용,서후광,오승용,이호태,이재명,장민준	9		
	리어코리아	전동훈,박해근,김학균,정성화,이성관,손원진	6		
	청우	노태현,김정현	2		
	KBI동국실업	이지락,김완규,김태진,권도훈,유성열	5		
	지부	오수석,신영순,김재영,김석준,손현석,최익선,이광우,이중희,이형석,정진홍(경주) 최영욱,조청호(울산),박문성,배문성(외동)	14		
	다스	이동혁,강주환,조규락,하정민	4		133
	디에스시	최강민,김성홍,성정모,최병근,최규철,허남전,김도후,신진용,허성대,박보현,정진우,황인구,김종호,김수봉,권혁만,박신웅,신재홍,정종현(외동),김동하,홍석(경주)	20		
발레오만도	신시연,박기흥,김하동,이종수,장상환,최충원,한승우,최석동,박지환	9			
아이티더블유	김영선,이찬균,최석신,양재석,최혁민,황수민,조현진,권영삼(외동),서정민,박현숙,김기현,박준연,김희정(경주)	13			
엠에스	박지웅,이준오,유현석,이종대,장규민,윤장훈,박재민,김병호,우진하,김태민,양광호,이상목,이중희,이승엽,조현우,최명환,김동욱,윤찬호,금현섭,윤대호,권두현,김지수,손장혁,이상현,서일용,이상하,신현섭,최진욱,이희석	28			
일진베어링	김희진,서창현,서보정,박후곤,우수곤,권영규,박성일,박성환,박중락	9			
우영산업	차종훈,이상원,차승철(울산),박찬형,박상욱,김진희,임경훈,신동섭,엄병진,조선제,이혜자,전효재,정대주,박규대,김우현,이종혁(외동),박진호,황신봉,윤상훈,박규영,이근형,조병만,김인준,강미정(경주)	24			
현대아이에이치엘	이명호,심상우,이현기,김상민,이주은,이영주,황세정,조혜정,이보우,오세벽,윤병한,남호윤,이성희,오용우,김나영,김선혜	16			
KBI동국실업	김정욱,김민석,정진식,박정찬(외동)	4			
지부	차상호,황준하,최윤정(경주),정석원,손해용(외동),조청호	6			
합계				363	

(라) 13기 1년차 지부 하반기 확대간부교육 결과보고

(1) 취지

- 2024년 하반기 간부교육을 통해 지난 13기 1년차 활동을 돌아보고 2년차 사업을 준비한다.
- 냉철한 노동 정세인식과 실천투쟁으로 현장을 조직하는 준비를 한다.
- 노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민주노조가 가야 할 방향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 금속 경주지부의 확대간부의 자부심과 일체성을 강화한다.

(2)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04일 (월) 09시 00분 ~ 15시 30분

- 장소 : 경주 더케이호텔(보문) /본관 2층(거문고홀)
- 참가인원 : 경주지부 13기 1년차 확대 간부 (357명)
- 슬로건 : 2024년 금속노조 경주지부 확대간부 교육 내 삶을 지키는 투쟁! 도약하는 경주지부!

(3) 순서

[사회 및 진행 :우정식 교육위원장]

시간	내용	진행
09:00 ~ 09:20	행사장 사전 준비 및 자리 배치(대오정리)	조직부
09:20 ~ 09:50	< 입소식 > - 민중의례 - 여는발언 : 정진홍 지부장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 - 13기 1년차 활동 영상 - 교육일정 안내 - 각 지회 참가 인사 (지회별 대표인사)	교육위원장
09:50 ~ 10:00	휴식 (10분)	
10:00 ~ 11:00	[특강1] 하반기 노동정세와 민주노총의 과제 (한상균 동지) (60분)	
11:00 ~ 11:10	휴식 (10분)	
11:10 ~ 12:10	[특강2] 주4일제 논의와실험,노동조합 과제 (김종진 소장) (60분)	
12:10 ~ 13:00	점심식사 (50분)	
13:00 ~ 13:50	[문화공연] 노래로 물들다.1부 (50분)	
13:50 ~ 14:10	휴식 (20분)	
14:10 ~ 15:00	[문화공연] 노래로 물들다.2부 (문화공연) (50분)	
15:00 ~ 15:10	휴식 (10분)	
15:10 ~ 15:30	<폐회식> (20분) 평가서 작성 안내 - 구글링 / 단체 기념촬영 지회장 무대 앞 전체 도열, 금속노조가 제창	교육위원장

(마) 13기 1년차 조합원교육실시 결과보고

① 2024년 지회별 조합원 교육현황

지회	시간	1월	2월	3월
광명산업		단협 없음	단협 없음	단협 없음
금강	24	17일, 31일 투표 대체	이월	4일~13일 간담회
다스	24	15일 조합원교육	1-29일 간담회(현안)	14일 요구안 설명
KBI동국실업	8	이월	이월	15일 조합원교육
동진이공	24	26일 조합원교육	23일 조합원교육	22일 조합원교육
디에스시	24	23일 상집인사.영상교육	2,6,14일간담회(통상임금,단협)	22일 요구안 설명, 의무교육
두양정공	24	23, 30일 조합원교육	이월	이월
리어코리아	12	이월	이월	이월
명성공업	12	25일 간담회	이월	13일 요구안 설명
발레오만도	20	18일 조합원 교육	이월	이월
비투지	24	18일, 30일 투표 대체	29일 연금 설명회	13일 총회 대체
세진	24	이월	이월	25일~29일 간담회
아이티더블유경주	24	22일 조합원교육,31일 투표	이월	7일 조합원교육
아진카인텍	24	10일 휴간 대체	이월	13일 총회
에코플라스틱	24	30일 투표 대체	이월	13일 요구안 설명
엠에스	24	이월	22일, 23일 조합원교육	이월
엠에스정밀	12	30일 투표 대체	이월	이월
우영산업	24	31일 투표 대체	이월	28일 요구안 설명
인지컨트롤스	12	26일 조합원 간담회	이월	22일 사업계획설명 등

일진베어링	24	23일 통상임금 소송설명	이월	13일 통상임금. 요구안 설명
청우	8	이월	이월	14일 조합원교육(지부장)
코레스	12	26일 총회	8일 조합원교육	이월
플라스틱옵니엄	12	이월	1일 조합원교육(지부장)	이월
현담산업	12	이월	이월	22일 보고대회
현대아이에이치엘	24	30일 투표 대체	이월	28일 요구안 설명
현대성우솔라이트	24	이월	이월	19일 요구안 설명
현대모비스경주물류	4	이월	이월	이월
현대엠시트	24	11일 현안 설명회	23일 현안 교육,조반장평가	27일 임단협 설명
현우	12	5일 조합원교육	이월	12일 요구안 설명

지회	시간	4월	5월	6월
광명산업		단협 없음	단협 없음	단협 없음
금강	24	25일 의무교육	16일 조합원교육(경영분석)	이월
다스	24	18일 의무교육	22일 조합원교육(경영분석)	27일 조합원교육
KBI동국실업	8	이월	17일 의무교육	이월
동진이공	24	19일 조합원교육	17일 의무교육,31일조합원교육	28일 조합원교육
디에스시	24	23일, 30일 퇴직연금교육	17일 조합원교육(경영분석)	13일 통상임금 설명
두양정공	24	23, 30일 의무교육	이월	21일, 28일 조합원교육
리어코리아		단협 미체결	단협 미체결	단협 미체결
명성공업	12	25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발레오만도	20	8일 의무교육	이월	17~18일 금속노조 이해
비투지	24	이월	3일 의무교육	이월
세진	24	16일, 23일 의무교육	20일 경영분석설명회	21일 28일 조합원교육
아이티더블유경주	24	29일 의무교육	이월	14일 17주년 행사 대체
아진카인텍	24	16일, 18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에코플라스틱	24	30일 의무교육	20일~29일 조합원 간담회	이월
엠에스	24	4일~23일 간담회	8~9일, 28~30일 의무교육	17-18일 경영분석설명회
엠에스정밀	12	이월	22일 의무교육	이월
우영산업	24	19일 의무교육	이월	19일 조합원교육
인지컨트롤스	12	이월	17일 의무교육	28일 조합원교육
일진베어링	24	이월	3일 의무교육	이월
청우	8	30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코레스	12	26일 의무교육	이월	28일 조합원교육
플라스틱옵니엄	12	25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현담산업	12	30일 의무교육	29일 경영분석설명회	28일 보고대회
현대아이에이치엘	24	이월	3일 의무교육	5일 경영분석,18일 성평등교육
현대성우솔라이트	24	이월	9일, 16일 의무교육	이월
현대모비스경주물류	4	이월	이월	25, 27일 의무교육
현대엠시트	24	24일 현안교육	14일, 17일 조합원교육	14일 의무교육
현우	12	25일 의무교육	31일 현안 간담회	13일 조합원교육

지회	시간	7월	8월	9월
광명산업		단협 없음	단협 없음	단협 없음
금강	24	3일 투표 대체	이월	이월
다스	24	이월	이월	4일 특별요구안 설명
KBI동국실업	8	이월	이월	6일 조합원교육
동진이공	24	26일 조합원교육	23일 조합원교육	20일 조합원교육
디에스시	24	16일, 23일 조직문화교육	28일 투표 대체	10일 조합원교육
두양정공	24	이월	이월	이월
리어코리아	24	이월	21일 조합원설명회	30일 조합원교육
명성공업	12	3일 조합원교육	이월	이월
발레오만도	20	이월	이월	이월
비투지	24	2일 투표, 12일 지회설립기념	7일 투표 대체	이월
세진	24	이월	이월	이월
아이티더블유경주	24	이월	이월	이월
아진카인텍	24	10일,12일,15-16일 조합원교육	7일 휴간 대체	25일 총회대체
에코플라스틱	24	2일 투표 대체	이월	이월

엠에스	24	8-9,11-12일 교섭, 고용위보고	이월	이월
엠에스정밀	12	23일 조합교육(사례)	이월	이월
우영산업	24	4일 투표 대체	이월	이월
인지컨트롤스	12	이월	이월	27일 조합원 교육
일진베어링	24	4일 투표 대체	이월	이월
청우	10	이월	이월	11일 조합원 교육
코레스	12	이월	23일 조합원교육	14일 조합원교육
플라스틱옵니엄	12	24일 투쟁보고, 영상 교육	29일 경영분석 설명회	25일 조합원교육
현담산업	12	이월	이월	10일 조합원교육
현대아이에이치엘	24	4일 투표 대체	이월	이월
현대성우솔라이트	24	이월	이월	이월
현대모비스경주물류	4	이월	이월	이월
현대엠시트	24	10일, 15일 현안 설명회	19일 지회현안 공유	11일, 19일 임단협공유
현우	12	이월	이월	이월

지회	시간	10월	11월	12월
광명산업		단협 없음	단협 없음	단협 없음
금강	24	15일 투표대체	이월	10일 지회창립일, 11일 투표대체 31일 조합원 교육
다스	24	29일 은행변경 설명회	21일 조합원교육(영상)	이월
KBI동국실업	8	이월	이월	13일 노조법2.3조 교육
동진이공	24	18일 조합원교육	29일 조합원교육	27일 조합원교육
디에스시	24	23일, 30일 웃음치료교육	15일 통상임금 설명	27일 조합원교육
두양정공	24	24일, 31일 조합원교육	이월	6일 현안간담회
리어코리아	24	7일 조합원교육(문화) 21일, 28일 전노대관련	21일, 28일 조합원교육(영상교육)	이월
명성공업	12	16일 투표대체	이월	10일 투표, 13일 간담회
발레오만도	20	이월	이월	30일 조합원교육대체
비투지	24	이월	12일 총회대체	이월
세진	24	25일 성희롱. 장애인인식 29일 부서별 간담회	21일 경영분석설명	11일 조합원 간담회
아이티더블유경주	24	18일 조합원교육	20일 조합원교육	12일 투표, 27일 조합원교육
아진카인텍	24	29일 조합원교육	이월	31일 간담회
에코플라스틱	24	16일 투표대체	27일 민주노총.금속역사	11일, 18일 투표대체
엠에스	24	23일, 24일 전노대관련	이월	26일, 30-31일(역사영상교육)
엠에스정밀	12	투쟁사업장	투쟁사업장	투쟁사업장
우영산업	24	이월	이월	11일 투표대체
인지컨트롤스	12	이월	이월	20일 총회대체
일진베어링	24	이월	이월	10일 투표대체
청우	10	22일 조합원교육	27일 노동의 역사	19일 조합원교육
코레스	12	18일 조합원교육	22일 조합원교육	20일 조합원교육
코리아에프티	12		26일 근무형태변경 설명	이월
플라스틱옵니엄	12	이월	13일 조합원교육	17일 조합원교육(현안등)
현담산업	12	25일 조합원교육	19일 조합원교육	6일, 13일 조합원교육
현대아이에이치엘	24	16일 투표대체	이월	11일 투표대체
현대성우솔라이트	24	이월	이월	이월
현대모비스경주물류	4	이월	이월	이월
현대엠시트	24	15일, 16일 총회및투표대체	18일 교섭보고대회	23일, 30일 조합원교육
현우	12	이월	이월	이월

㉔ 2024년 조합 의무교육 실시현황

날짜	지회	교육대상	교육 내용	강사
----	----	------	-------	----

	광명산업			
4월 25일 14시 40분	금강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차상호 수석부지부장
4월 18일 13시 40분	다스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최정길 지회 교육부장
5월 17일 13시 30분	KBI동국실업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우정식 부지부장
5월 17일 15시 40분	동진이공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조청호 교육국장
4월 23일, 30일 14시 40분	두양정공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최윤정 정책국장
3월 22일 13시 40분	디에스시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박신웅 지부 교육위원
	리어코리아			
4월 25일 15시	명성공업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정진홍 지부장
4월 8일 8시~15시	발레오만도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최윤정 정책국장
5월 3일 8시	비투지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차상호 수석부지부장
4월 16일, 23일	세진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최영욱 지부 교육위원
4월 29일 15시 40분	아이티더블유경주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정석원 지부 교육위원
4월 16일(모화),18일(건천) 13시 40분	아진카인텍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조청호 교육국장
4월 30일 15시 40분	에코플라스틱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김인하 교육위원
5월 8-9일,28일 15시, 29-30일 15시 30분	엠에스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차상호 수석부지부장,우정식 부지부장
5월 22일 13시	엠에스정밀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우정식 부지부장
4월 19일 15시 40분	우영산업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차종훈 지회 교육부장
5월 17일 14:40	인지컨트롤스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최윤정 정책국장
5월 3일 13시 20분	일진베어링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최윤정 정책국장
4월 30일 15시 30분	청우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우정식 부지부장
4월 26일 15시	코레스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조청호 교육국장
4월 25일 8시	플라스틱옴니업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정진홍 지부장
4월 30일 13시 30분	현담산업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조청호 교육국장
6월 25일, 27일 11시	현대모비스경주물류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최윤정 정책국장
5월 9일 16일	현대성우솔라이트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심완주 지회 교육부장
5월 3일 13시 30분	현대아이에이치엘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이성희 지부 교육위원
6월 14일 13시 30분	현대엠시트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조청호 교육국장
4월 25일 8시	현우	조합원	2024년 정세와 투쟁방침	박진만 사무국장

(바) 13기 1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 결과보고

번호	지부	지회	직책	이름	여는 마당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11강	수료여부
					5/7	5/7	6/15	7/16	7/16	7/19	7/19	7/23	7/23	8/7	8/7	8/9	
1	경주	에코플라스틱지회	사무장	최정환	○	○	○	○	○	○	○	○	○	○	○	○	수료
2	경주	에코플라스틱지회	정책1부장	김현우	○	○	○	○	○	○	○	○	○	○	○	○	수료
3	경주	에코플라스틱지회	복지부장	허영현	○	○	○	○	○	○	○	○	○	○	○	○	수료
4	경주	에코플라스틱지회	조통부장	정운석	○	○	○	○	○	○	○	○	○	○	○	○	수료
5	경주	에코플라스틱지회	선전부장	조성연	○	○	×	○	○	○	○	○	○	○	○	○	수료

2) 교섭위원교육 평가

-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의무교육은 2월 26일 운영위에서 열사 교육을 포함하여 5회를 진행하고, 교육 주제는 교육위에서 정하며, 장소는 지부 강당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주제로 ① 자본주의를 알자, ② 자동차산업 전망과 노조의 대응 ③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④ 열사 정신과 민주노조 ⑤ 바뀐 노동법과 윤석열 정부의 행정개입으로 정하여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집단교섭 일에 다섯 차례 교육했다.

- 교육 주제와 강의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어느 해보다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설문에 따르면 교육 참여도가 보통 이상과 적극, 매우 적극이 다른 해 보다 많았고, 교육 시간에 대다수 간부들의 교육 집중도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주제 중 자본주의를 알자 와 노동법교육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지만, 다른 교육도 비슷한 평가를 해 주었다. 다만 자동차산업 전망은 교육 시간이 길어서인지 평가가 그리 높지 않았다. ‘자본주의를 알자’는 우리가 왜 임금인상 투쟁을 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잘 설명했으며, 나머지 주제들은 노동법과 행정개입, 노동운동의 역사, 노조의 전망 등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으며, 열사의 삶과 노동가 등의 사례를 통해 공감하기가 쉬워서 더욱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 그럼에도 장소나, 오전 교육, 와이파이 불통, 프로젝트 꺼짐 등 시설에 대한 불편을 개선 사항으로 제기하였다. 장소는 120여 명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현장이 많지 않은 점 때문에 정했지만 그럼에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오전 교육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은 2025년 교육 때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강사에 따라 강의 스타일과 언어사용에 대한 문제와 책 판매, 과한 용어 사용, 영상 촬영 등으로 본의 아니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의견도 나왔다. 또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휴대전화 사용 등 소수 교섭위원의 태도 문제, 대표 교섭위원들의 교섭이 끝나고 교육에 참여할 때 분위기 문제 등도 작지만 주의할 점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24년 교섭위원 교육이 주제의 다양성과 강사의 역량 등으로 전반적으로 좋게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된다.

3) 금속노조 확대간부교육 평가

- 경주지부 18개 사업장(타 지부 소속 1개 지회), 363명이 참가한 24년 확대간부 교육은 6월 18~19일, 6월 25~26일, 7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충북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였다.

- 24년 확대간부 교육은 23년 연극을 통해 비정규직, 세대 갈등 등을 다루었다면, 24년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교육을 진행했다.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나타났다.

기후위기라는 주제에 대하여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응답들이 많은 것은 산업전환의 계기라는 점을 넘어 우리 삶의 전반을 규정할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 공감하는 교육이 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이나 노조 차원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실천과 노조의 녹색단협의 필요성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1일 차 교육이 기후위기 불평등, 2일 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한 교육에 대해 다소 지루한 감을 지적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호응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넛그리기, 녹색단협 만들기 등 조별 토론과 실습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간부와 그렇지 못한 간부들이 나누어진 점, 노조의 실천 과제가 추상적인 점등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 그리고 교육 집중이 어려운 점, 시간에 쫓기는 듯한 진행, 지회별 토론 조 배치의 장단점, 음주 등으로 다음날 일정 소화 어려움, 개인적으로 행동하거나 영화시청 등 교육 자세 등에 대한 지적도 평가

설문에 기술했다. 또 2일간 일정을 모두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체험학습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교육 주제 등에 대해 좋은 평가가 제출되었지만, 지적된 문제들을 교육기획과 진행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지부에서도 피교육생의 입장에서 간부교육이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지부 하반기 확대간부교육 평가

- 지부 하반기 확대간부교육은 11월 4일 22개지회 357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루 교육으로 오전 강의식 교육과 오후 문화공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특강으로 하반기 노동정세와 민주노총의 과제, 주4일제 논의실험, 노동조합의 과제가 각각 1시간, 오후에는 문화공연이 1시 40분 정도로 배정되었다.

평가설문에 따르면 이번 확대간부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확대간부교육 전체 평가를 상,중,하로 나눈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을 선택한 비율이 73% 가까이 나왔고, 오전 특강 2개는 상이 67.5%, 오후 문화공연은 상이 78%를 기록할 정도로 모든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강의식 교육보다는 문화공연이 간부들에게 호소력이 좀 더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현안교육이 아닌 중.장기적 투쟁 및 실험적 과제가 제시된 특강이 확대간부동지들에게 당장의 현안으로 와닿지 않은 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대체적으로 이번 교육은 좋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강의와 공연에 대해 개선할 점을 지적한 것도 많았다. 강의와 관련해서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두루 제기되었고, 문화공연은 음향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그 외에 식사문제, 예산문제, 경품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지회 확산동지들과 사전에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하반기 확대간부교육은 운영과 소통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높은 참여율과 좋은 평가. 그리고 지부차원의 집단적 교육방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전교육에 비해 오후 문화공연의 영향이 커서 오전 교육이 주목도가 덜 했을 수도 있지만 특강은 이후의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충분히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백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교육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교육주제와 일방 혹은 쌍방향 교육방식 선택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제출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2025년 확대간부교육에서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5) 조합원 교육 평가

1) 개요

-2024년 금속노조 조합원 의무교육은 3월 22일부터 시작하여 6월 27일까지 경주지부 29개 지회 중 27개 지회가 실시하였다. 신규 단협체결과 미체결 사업장 2곳은 실시하지 못했다.

실시한 사업장 27개 중 24개 지회는 조합의 지침에 따라 5월 17일까지 조합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3개 지회는 임단협 일정 등으로 실시 시기가 늦추어졌다.

- 조합원 의무교육은 지회 교육담당자, 지부 교육위원 지부 임원 및 집행위원 등 금속노조 의무교육 강사단 교육을 이수한 동지들이 실시 했으며, 지부 교육위는 수련회를 통해 지부 시범교안을 토대로 지회 별, 강사별로 수정·보완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 교육안과 영상 등이 늦어진 문제, 교안의 통일성, 강사, 교육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보완할 점이 의견으로 제출되었다.

2) 총괄평가

- 해마다 제기되기는 하지만 조합의 요구안 및 지부 요구안 확정 이후 교안 및 영상 제작- 강사단 훈련- 지부 시범교안 작성- 교육실시 등의 일정이 빠듯하여 지회 교육담당자들이 실시 교안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조합과 지부의 요구안과 방침, 그리고 정세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평가가 어렵지만 교안의 양이 너무 많으며, 교육 내용이 조합원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고, 기업지부가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에 복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투쟁방침의 신뢰가 훼손되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해마다 지적하고 있다.

- 교안의 통일성은 조합의 교안이 지부와 지회에서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주지부는 지부 교육위원회에서 시범 교안을 준비하여 지회별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보완 후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부 교육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지부 임원이나 집행위원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에 따라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에서 비슷한 교안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 조합은 의무교육 강사단 훈련을 이수하면 조합원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지부는 그간 지부 교육위원회가 의무교육을 주로 시행해 왔지만, 강사단 훈련을 이수한 지부 임원이나 집행위원들이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부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무교육이 방침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지회 담당 지부 임원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교육위원들이 교차하여 실시해 온 의무교육은 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상호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 평가

① 교육개요

- 조합 방침에 따라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는 민주노조 활동가, 간부를 양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2024년 “노조간부 기본과정(11개 강좌)”을 진행하였다. 올해도 강의를 추가하거나 빼지 않았다. 모집 결과 1개 지회 7명이 참여했으며, 5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여 전원 수료하였다.

② 총괄평가

- 13기 1년 차 노조간부 기본과정은 12기 2년 차 4개 지회 27명을 2개 팀으로 나누어 실시한 데 비해 참가인원이 많지 않았다. 또 한 개 지회간부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 다양한 현장경험을 공유하는데도 아쉬움이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참여형 교육으로 매우 만족했으며, 다른 간부에게도 기본과정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과 중급과정에 대한 참여 의사도 높았다.

- 이번 과정에서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노조 역사와 노동조합, 대안 사회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과 발전 방향,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고민이 해마다 간부 동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있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점과 실습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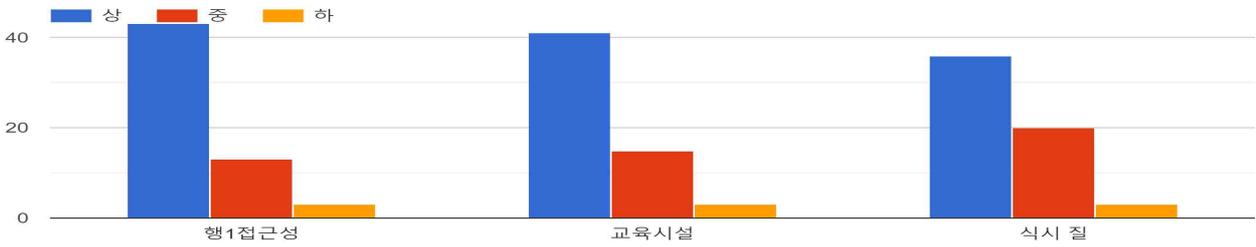
7) 교육위 총괄평가

- 13기 1년차 교육위원회의는 연 8회 진행되었고, 회의가 없는 달에는 교육역량강화 교육훈련을 3회 실시하였다. 매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로 긴급히 결정되어야 할 의제를 시급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준비하는 교안으로 조합원 의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안마련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하고 완성도 높은 교안을 마련하여 의무교육강사단 훈련을 마친 간부는 누구라도 교육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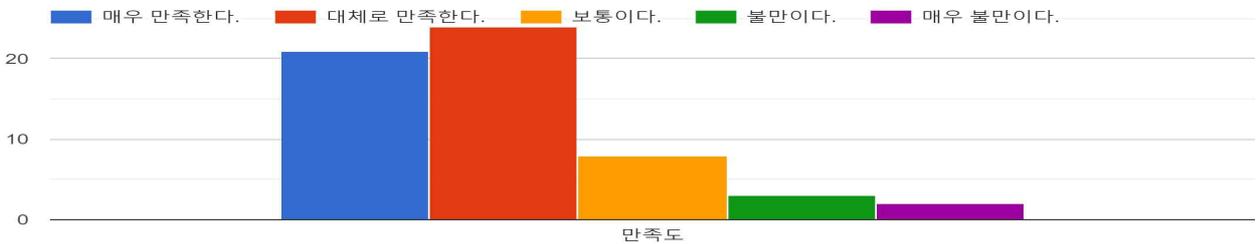
- 지부 교육위의 진행에 따라 교육사업을 잘 진행했고, 지회 교육사업을 책임지기 위해 담당자들이 조합 교육역량강화교육, 지부 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이 성장했고, 앞으로도 지부 교육사업과 역량강화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부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교육위원들이 지회교육사업에 대한 지원활동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사업이나 교육배치가 교육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
- 신입간부교육부터 조합원의무교육, 교섭위원교육, 확대간부교육 등 올해 교육사업 전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잘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조간부기본과정은 인원과 참석지회가 적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하고 임단투시기와 맞물리는 점이 있어서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운영체계에 맞게 교육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교육위원들의 조합원교육 배치, 교육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지회교육이 진행될 때 지부에서 교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부 교육위에서 마련한 교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교육위원회의 사업은 잘 진행되었지만 교육역량강화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등 역량강화 방식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합원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이월하거나 간담회, 투표등으로 대체하는 지회들이 많은 것 같다. 지회별 사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합원교육이 교육으로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가 없는 지회는 지부 교육위원회가 노력해야 하고, 교육담당자가 있는 지회는 교육담당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적으로 교육위원이나 교육담당자를 활용했으면 한다.
- 전반적으로 교육위원회 회의운영과 각 교육사업의 교육위원 활용등에 대한 개선 의견들이 많고, 지회 조합원교육에 필요한 교안 혹은 동영상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13기 2년차에는 이런 의견들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합교육사업, 지부교육사업, 지회교육사업에서 상급단위 교육사업의 집행과 지부 확대간부, 조합원대상 사업, 지회의 조합원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1. 2월15~16일 신임간부교육 평가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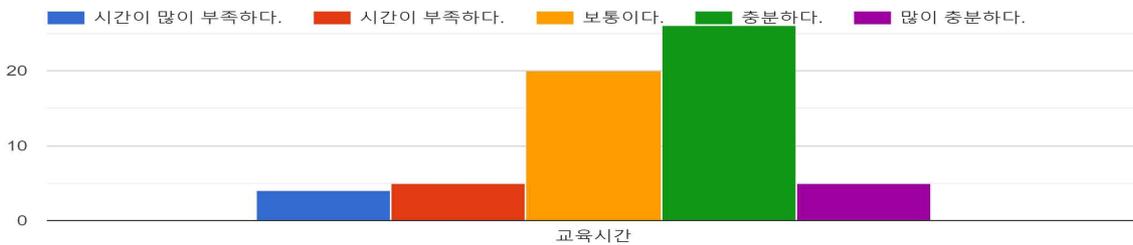
1. 장소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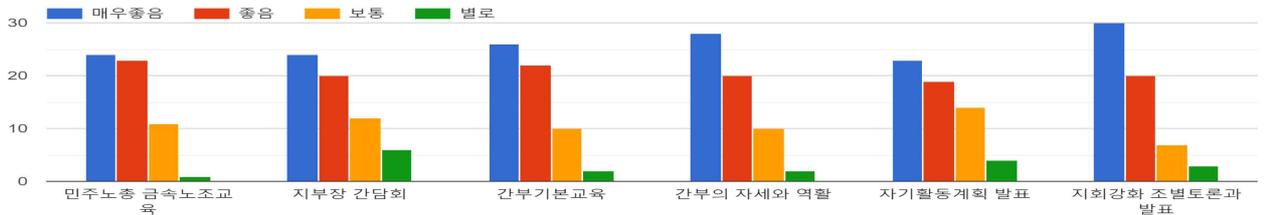
2. 전체 교육 일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2-1. 전체 교육 일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 이번 신임간부 교육에서 교육과 프로그램은 어땠는지 체크해 주세요.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1) 각 교육과 프로그램 중 좋은 이유나,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적어주세요)

요) (응답 32개)

자기활동 계획 발표.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꾸릴 수 있었음. 대체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시간때우기. 잘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재미있게 잘 설명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알찬 구성이 좋았다, 다른 지회랑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지회활동 강화방안 토론회를 하면서 평소 본 지회 문제 개선에 대한 타 지회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지회강화토론회가 타 지회 간부들과 함께 토론진행팀별 토론발표가 좋았습니다. 간부의 자세나 역할의 이해도를 높여 줘. 쉬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간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너무 얕아서만 교육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다. 조합의 주체는 우리다 교육이 와 닿았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신입간부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내용이 좋았습니다. 신입간부로서의 임하는 자세와 앞으로의 현장활동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알찬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 지회 팀별로 앉아서 많은 토론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이해력을 높여 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니 상대지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생각보다 받을 만하다. 없음. 지부장간담회 이유. 지부장과 소통할 수 있어서. 간부역할교육에서 학습하는 간부가 좋았다.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숙식하지 않고 인원을 나눠서 소규모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토론을 통해 조원들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었음. 대체로 만족함.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2) 민주노총 금속노조 교육이 좋은 이유 나, 좋지 않은 이유(응답 28개)

없음. 영상자료 내용 중 정치적인 내용, 미군철수 부분의 의미했습니다. 기본 민주노총을 배울 수 있었다. 관심도 상승.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좋습니다. 좀 더 노조에 대해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올바른 조합인식에 도움이 되고.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단합이 잘 되어 좋다. 대부분 만족. 기본 관련으로 조금 더 했으면 합니다. 노조를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간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신입간부라 아직 좋지 않은 점은 못봤습니다. 모르고 있던 내용의 교육이 좋았습니다. 금속노조에 몸담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더 알게 되어서 좋았다.어설프지만 앞에서 발표해 보니 용기가 좀 생겼다.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었으나 좋았습니다. 금속노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배움의 길이다. 대체로 좋다고 느꼈다. 단점 ; 광대한 내용 요약 필요성 느낌. 역사는 가장 기본 교육이니 좋아요. 비슷한 환경에서 투쟁하는 동지들과 같은 뜻을 가질수 있음. 함께 토론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음.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3)지부장 간담회가 좋은 이유 나, 좋지 않은 이유 (응답 29개)

유익했습니다. 궁금증 해소 시간이 짧음. 처음 조합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알게 되어 좋습니다. 좀 더 알아 갈 수 있어서 좋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부담없이 진행되어서 좋았습니다. 답변자의 소속을 알 수 없어서 아쉬움. 시간적 부족.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짧아 아쉬움.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간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간담회방식이 너무 성의없이 진행함. 진행이 너무 성의 없어 보였다. 평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데 이런 자리도 좋았음. 간부 대의원은 역할이 다를 뿐 함께 간다는 것.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다. 조금 더 많은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좋은 만남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었다.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수 있게 되서 좋았습니다. 발표 시키는 것 완전 싫음. 다 좋았다. 지루하지 않게 잘 풀어나가 좋았습니다. 장점:지부장의 투쟁의지와 소통이 좋음. 다양한 의견과 소통이 좋았다. 자동차 상황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자세한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대면 소통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4)간부기본 교육이 좋은 이유 나, 좋지 않은 이유 (응답 30개)

여러 지회와 연대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영상교육이 좋았다. 이해도 상승. 무슨 내용인지 모름. 맡은 역할이 뭔지 잘 알아서 좋습니다. 몰랐던 이유에 대해 알아서 좋다. 알아야 할 지식을 알려 주셔서 좋았습니다. 기초교육으로 역량강화됨. 기본교육이 조금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체계를 알수 있어 좋았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간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너무 얕아어만 함. 처음 시작할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많은 도움이됨 . 동기부여 의식향상됨. 나의 이상과 맞아 좋았다. 간부교육을 통해 금속노조에 애사심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 좋았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음.내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한번 더 경각심을 느끼며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말 그대로 기본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심. 기본적으로 다 좋았다. 몰랐던 부분들을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준비자세를 잡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점: 기본교육을 통해 열정 및 자세를배움. 역량강화에 좋은 것 같아요. 신입간부에게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것 투성인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기본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금은 준비가 될수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5)간부의 자세와 역할이 좋은 이유 나, 좋지 않은 이유 (응답 24개)

유익합니다 .초임간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었다.. 불필요.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확신이 생겨 좋다. 나가야할 방향성을 알려줘서 뜻깊었습니다. 집행부서별 업무의 명확한 소개. 이견 좋았습니다. 간부활동에 많은도움이 될 것 같다. 조합의 주인이라는 자세 좋았음. 간부기본교육과 반대인 점이 있다. 간부로서 책임감이 더 생겼습니다. 좋은 점을 찾지엔 아직 많이 부족.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잘 이해시켜 좋았다. 간부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조합원간의 소통이 필요함.간부의 자세와 역할보단 집행부와 대립하라는 식이었음. 다 좋았다.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신입간부에게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 것 투성인데 길잡이가 될수 있을 것 같음.현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느낌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6)자기활동계획 발표가좋은 이유 나, 좋지 않은 이유 (응답 28개)

자신감 상승.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가는 교육. 무슨 교육인지 모름.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목표를 생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 보게 되서 좋다.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 방법 획득. 간부기간 동안 계획을 세울 자기시간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소심한 성격에 가진 동지들에겐 굳이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다.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계획할 수 있어 좋았음. 어렵다. 마이크 잡을 기회가 살면서 없을 수도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많은 동지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긴장감으로 인한 발표력 저하로 부담감이 각자의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 표현력에 도움이 될 것.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개개인으로 발표가 부담될 수 있었지만 한번 더 나의 발전성을 보며 좋았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 되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개인발표 하는 건 별로인 듯 다 좋았다. 발표를 통해 개인 역량을 키울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자신감 상승! 단점 :개개인이 다하다 보니 시간소비 내용이나 주제가 굳이 발표가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의문입니다. 획일적이라 발표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평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없는데 이번 발표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음. 아직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잘 몰라서 어려움.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7)지회강화 조별 토론과 발표가좋은 이유 나, 좋지 않은 이유 (응답 26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통력 상승. 잘 모름. 남들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생기게 해 줘서 좋습니다. 나서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좋다. 다른 단사와 소통 자유로운 토론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지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대화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조별 토론 시 여기서 또한 참여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에 다른 방안이 필요해 보임. 나와는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각 지회별로 함께 의견 나누고 해서 좋았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다른 동지들의 생각을 알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우리 조원 조장님이 넘 잘 하시고 배울점이 많았 던 것 같다. 조별이 모여서 토론하고 다 같이 하는 게 나쁘지 않았음.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이론을 발표 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증가와 사람들 앞에 서는 부담감 감소. 각 여러지회 이야기도 들어보고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회에서 제시한 주제들이 비교적 흔한 편이고 그에 대한 결과들도 예상가능한 편이라 필요한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타지회의 분위기나 문제점들이 공유가 되고 같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음. 다른 지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2 이번 신입간부교육에서 느낀점.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 이상 써 주세요. (응답 28개)

조합간부들의 적극적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입간부로서 민주노총 급속노조 교육, 간부의 자세, 타 지회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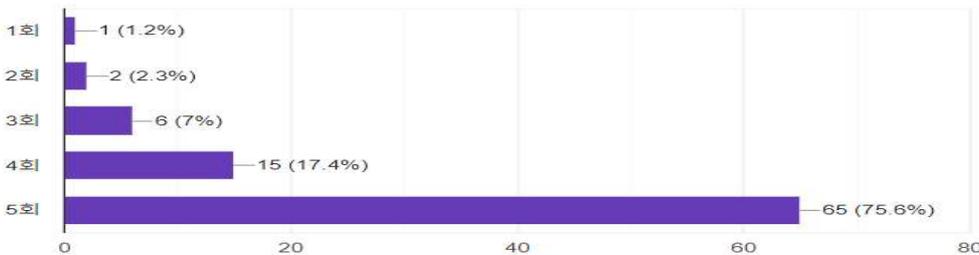
연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교육이었다. 교육이 무슨 내용인지 모름. 보완할 점 없습니다. 대체로 만족이다. 교육도 좋지 만 다같이 어울리는 레크레이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의 시간 확대. 기본간부 활동 틀을 구체적으로 했으면합니다. 여러지 회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부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강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간 부자세와 태도 좋음.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간부가 아닌 노조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느낌 니다.보다 아쉬운 교육이었습니다.구 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으며 시간때우는 교육으로 보이며 많이 배우기엔 부족했다. 소통의 중 요함. 없음. 신입간부로서 해야할 일들에 대해 상세히 잘 알려 주었다. 답에 다시 오면 잘 할 것 같다. 개인발표는 무조건 빼는 게 좋을 듯. 쉬는 시간이 부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간부교육을 통해 자세를 배울 수 있음.. 개인발표보다 조별대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 발표가 많아서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신입간부이기에 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신입간부들의 연령대가 낮아 진 것 같아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이제 지부도 변화하고 앞으로 잘 나아갈 것같았습니다. 신입간부 어떤 자세를 취 해야 하는지 알게됨. 수고 많으셨습니다.

3-3 신입간부교육에 반드시 있어야 할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다면 하나 이상 써 주세요.(응답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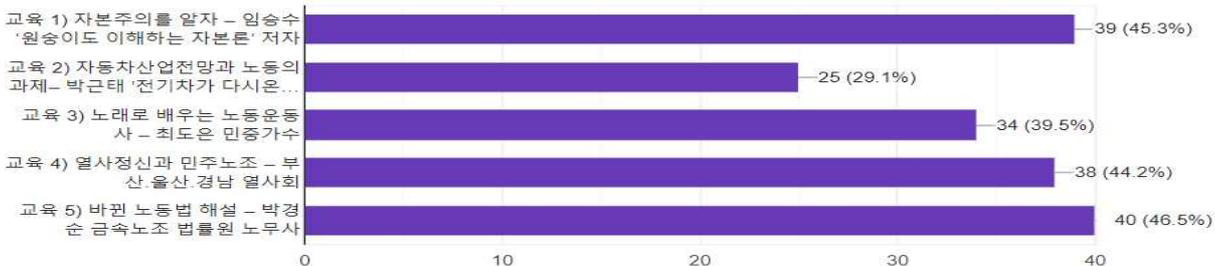
없다. 없음. 너무 앞서서 듣기만하기 너무 힘들다. 체육활동과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교섭방법도 추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없습니다. 활동적인 프로그램. 토론보단 지회 경험을 듣고 싶음. 금속노조 역사와 왜 노조 가 있어야 되는지 교육 영상이 좋습니다. 조말고 전체적인 자기소개필요. 조별 장기자랑. 조직력 강화 위한 놀이. 팀별토론 자기 활동 발표. 지부역사교육 필요. 운동. 주체적인 간부의 태도와 교육으로 의식향상. 역량강화 좋음. 신입간부의 마음 가짐과 간부 로써 자세. 대의원 및 상집간부의 역할과 그역할의 대표적인 예시로써의 교육영상 시청필요. 단체토론. 오락프로도 곁했음 한다. 딱딱하다. 교육 시간 부족, 더욱 열정적인 발표 필요, 개인적인 역량강화 훈련이 더 필요함. 조별토론 간부기본교육, 간부역할과 자세. 조합원과 소통하는 방법을 현재에 상황에 맞게 교육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2. 교섭위원 의무교육 평가설문 결과>

1. 교육진행 5회 가운데 참여한 횟수. 응답 86개



2. 교육에서 가장 도움 되는 강좌는. 응답 86개



3. 이번 교섭위원 교육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를 꼽은 이유는? 응답 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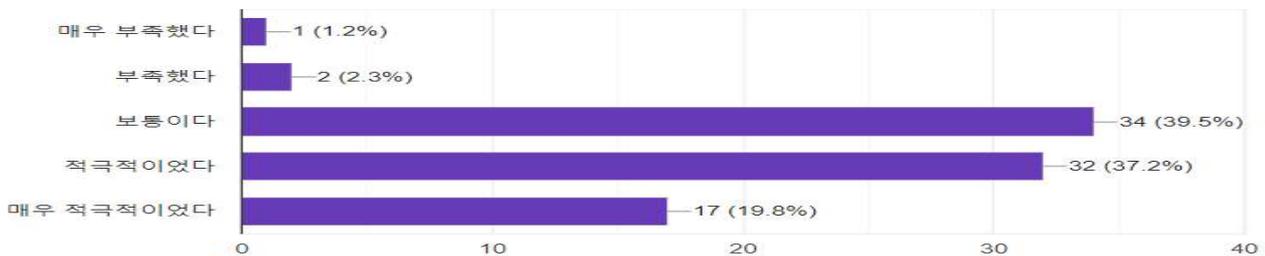
열사정신과 민주노조. 재미있고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노동법 해설, 사업장 이슈 및 대응을 해야돼서 현재 가장 이슈화된 현안이라서, 좋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황과 방향성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현실적 접근, 와 닿았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이라 판단, 회계공시, 과거를 알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서. 열사 교육, 현실적이다. 타임오프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1번.4 번, 참석한 강의입니다. 노래로 배우는 노동운동사. 어느 하나 빠짐없이 많은 도움이 되는 교육, 노동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계기였다. 자본론을 다룬 자체가 생소하면서 흥미로웠다.교육3 교육4. 교육5 간부 활동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기에..설명이 좋았다, 노조 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와 닿는 느낌입니다, 열사정신 가장 인상적이었고 내용도 집중할 수 있었음, 대부분 다들 좋은 내용으로 강의해서 좋았음. 내용이 현실성있게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많이 배웠다, 역사적 내용,1차 임승수 교육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평소 접근성이 떨어졌던 내용이라서...강의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해서 좋았습니다., 머리속에 쑥 들어온다, 노래로 배우는 노동역사 모든 교육이 도움이 되었음.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노동자로서의 자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현재 당면과제라서, 노동조합의 역사, 좋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 1, 몸과 와 닿았음, 재미가 있었음, 자본론 재밌었습니다.알아 듣기 쉬운 강의, 자본주의의 현실을 알게 됨, 사업장관련교육, 5번 노동법해석법.자본론 강의, 노동법해설을 쉽게 설명해줬음, 열사정신과 민주노조의 모르는 것을 많이 배웠다. 교육이 안지겹고 노동역사를 알수 있어서,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배우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익함. 교육5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내용이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나 교육1번 임승수 자본주의에 대한 강의도 재밌게 들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좋은 교육이었다.

4. 교섭위원 교육으로 추천하고 싶은 주제나 교육은? 응답 46개

없음(3), 인성교육, 교섭하는 법, 사측과 교섭 방법(4), 단협작성 및 협상교육, 노동가,타임오프,노동법, 교섭의 방법. 자본론, 교육1번.4번, 만족합니다, 지금도 좋다, 현재로 충분, 노동 역사교육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교육3, 교육4, 자본가의 성격, 5교육, 열사정신, 언론관련 교육, 모의교섭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열사정신과 민주노조, 노동운동사, 사회 경제면 쪽으로...강의다운 강의 요망. 노안 관련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교육, 노동역사, 정책적인 대응 대책에 관한 주제. 교섭방법, 실질적인 현장에서 투쟁이 아닌가 싶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육, 잘 모름, 지루하지 않은 주제를 정 하였으면.. 교섭에 관련강의, 첫 번째교육, 법률해석과 AI교육, 교섭에 관련된 강의, 단체교섭시 사측을 상대로 심리나 전략.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 노동관련 법, 명상교육(마음챙김), 조직내 소통(반대조직), 노조역사,

5. 참가자들의(나의) 참여정도 응답 86개



6. 교섭위원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시간, 장소, 주제,강사등. 응답 44개

수고하셨습니다, 없음, 알차게 장소도 괜찮아요,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에 변화. 휴대폰이 안됩니다. 평가서도 작성이 힘들니다, 좋았다., 강의장내 와이파이, 만족한다.지부강당 인터넷이 안되서 불편하다., 와이파이가 잘되면 좋겠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의 집중력부족 개선..자동차산업에 국한된 주제의 교육이 아쉽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는 자동차 산업만 있는게 아닌데...만족합니다, 교육대상자들의 집중력이 아쉽다., 빔 교체, 시간, 스크린 위에 볼륨 꺼주시고(화면이 잘 안보임) PPT화면이 자꾸 꺼지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교육에 집중하다가 집중이 흩어짐) 한군데서 좋은 환경으로 교육해서 너무 편하고 알찬 내용들이어서

좋았어요, 영상 교육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및 강사...진짜 강사를 요구합니다...실직적 도움이 되고...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진짜 강의 필요합니다.중간중간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로 짧고 굵게~, 장소가 좋다, 모든 것이 좋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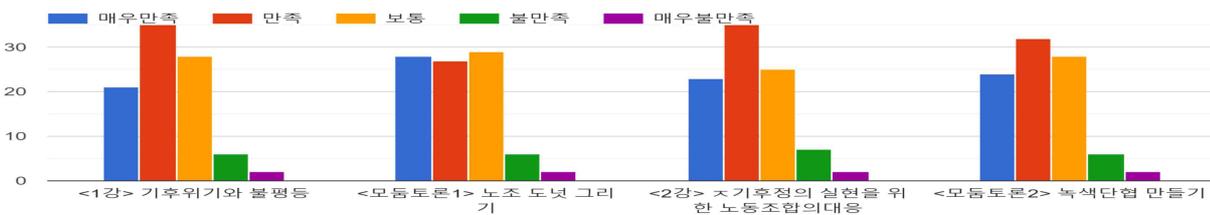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주차공간 부족, 오후시간으로 배치했으면, 좋았습니다. 시간은 너무 빠르다. 장소는 나쁘지 않고. 주제 및 강사는 좋은 것 같다. 시간은 오전이 집중도가 높은 듯 합니다. 이번처럼 다양한 강사 초빙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이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좋음,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반영해 주길, 모든 것이 좋았다, 집중하기에 쉬는 시간부족. 교육중 스크린이 자꾸 꺼지는 현상 교육흐름이 자주 끊어짐

10시부터 교섭을 하면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을수 있나 현실적으로 오전5시부터 출발해야 한다.교육시간에 졸다 가는 게 전부다. 타 지역에 배려 부탁한다. 장소는 만족했다. 강의 목소리가 뚜렷하지 못했다. 1박2일 집중교육도 검토해 주세요., 별 의미없는 주제. 올해 교육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교섭위원 교육이지만 다른 조합원들도 이런 교육을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멀리서 오는 교섭위원은 오전 10시에 참석 하기 힘들고 5시, 6시 출발해서 몇백키로를 운전하고 와서 교육 받기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침 식사도 못하고 시간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자료3. 금속노조 확대간부교육 평가설문 결과>

□ 2024년 확대간부교육 1회차 평가설문(4차) _ 응답 91명 2024년 6월 18일-19일(경주1팀,+포항1팀)

1. 종합평가



2. 위 종합평가에서 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하셨다면 이유는? (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한 분만 답변) 응답 44개

나도 잘 몰랐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 줬는 것 같습니다.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도넛은 좋았으나 강의는 졸음과 강사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 교육의 목적을 잃게 됨.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 주었다. 경치가 너무좋고 교육내용도 알차요. 교육은 알찬 교육이나 약간은 지루함이 있었어 좀더 재밌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족, 모듬토론에 여러동지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새롭게 알게된 내용이 많은 교육이었다.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교육, 토론해 볼수있어 뜻깊었다.속속 들어오는 내용전달. 기후위기의 인식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위기보다! 기후에 경고 수준이라 생각한다. 평소 관심 없던 내용이었지만 교육을 받아서 좋았다.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 강사 발언능력이나 내용이 좋았다.너무 재미있게 배워었어요. 이런교육이 자주하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일자리와 노동조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주제인 것 같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와 방법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 줬으며 도넛그리기로 내 직장이 환경에 얼마나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도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잘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유도, 토론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좋았음. 모든인류 생명체를 위하여 꼭 실천해야 됨. 유익한 교육이었다. 토론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질수 있어서. 문제인식 전환. 기후위기와 노동문제라는 인식. 확대간부 수련회를 처음 왔는데 교육이 알차고 좋았다.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게 되었음. 알아가는 단계. 노동조합과 기후위기의 접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 알찬 내용.기준 기초. 환경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 좋았습니다. 노동문제와 기후위기를 이어서 흥미롭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조합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내용이 신선하고 재미 있어요. 저희는 다르지만 각지회상황을 알아가게 되어 좋았다. 임금과 복지에만 신경쓰고 있었지만 환경을 생각해야만 우리의 미래와 고용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기후위기를 대조하여 교육 및 토론 좋았습니다. 조합으로서 생소하지만 기후위기 중요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산뜻하네요

3. 위 평가에서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응답하셨다면 이유는?(불만족, 매우불만족에 응답하신분만 답변)응답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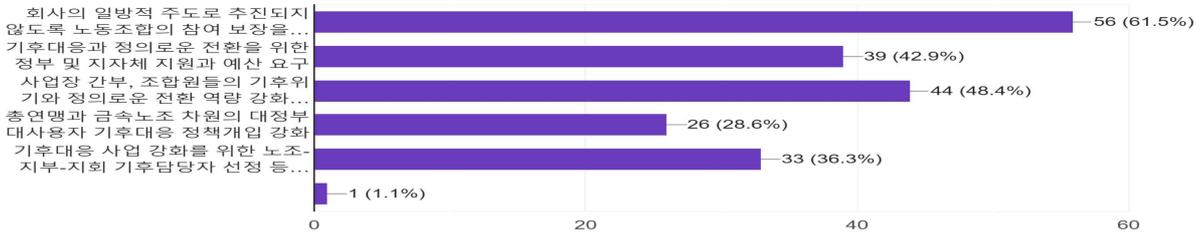
지루한 편에 불만족, 만족, 너무 지루했어요, 불만족이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강의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너무 지겹구 어려움. 참여도 떨어짐. 과제가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크게 와닿지 않음. 교육을 좀 더 집중력을 올릴수 있도록 조금의 재미를 감미 되었으면 합니다. 다소 지루한 교육으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간부 역량 내용으로 교육일정을 진행 배치했으며 합니다. 녹색단협 만들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4.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 개인 또는 노조 차원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응답 3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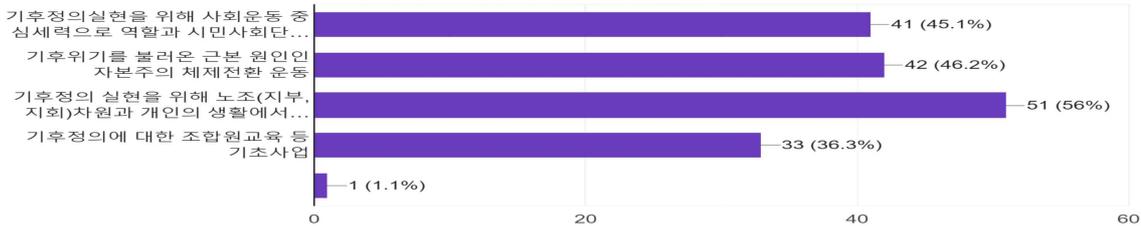
일회용품 줄이기. 기후문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나 재미가 없었습니다..잘 모르겠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녹색단협의 성과를 위해 안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함. 일회용품 절제. 산업전환 패러다임 총고용보장 투쟁. 색다른 느낌으로 전환한 것에 느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정화장치 개선,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전환사업. 전사원의 기후대응을 위한 템블러화. 기후위기는 정부차원의 입법이 우선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사용자 측과 기후위기에 함께 정의로운 전환에 공통 안건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대중교통 이용하기. 쉬운 것 부터 모두가 할 수 있는 회사에서도 텀블러 사용하기 물 아껴쓰기 전기 절약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내녹지공간 조성. 1회용품 사용자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작업장내 집진기 설치.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 및 회의가 필요하다고 느낌. 아직 멀기만한 사용자, 조합인식.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투쟁. 설비개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대기오염 최소화. 자동차로 통근을 줄이고 자전거로 더 많이 통근해 볼까 합니다. 회사에서의 에너지절약..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싶다. 토론한 주제로 조합원들이랑 협의하여 에너지 및 소모품관련 아껴쓰기 실천해야할것같아요. 기후대응의 대한 내용을 단협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분리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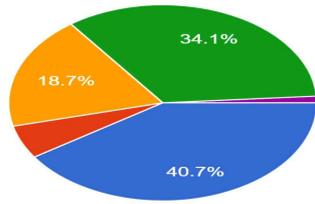
5. 기후정의 실현과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금속노조(지부,지회)가 더 힘써야 하는 사업은?(복수선택가능) 응답 91개



6. 기후위기는 일자리 변화 뿐만 아니라 지구적 위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복수선택가능) 응답 91개



7. 13기 2년차 확대간부 교육은 각 지부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는?
 응답 9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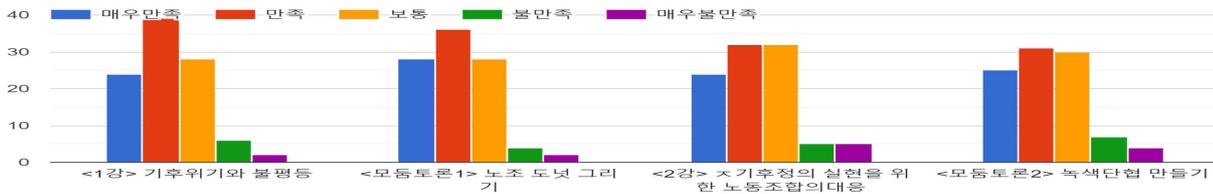
-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강화를 위한 사례 교육과 토론
- 노동자 계급의식을 높이는 노동인문 주제
-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통해 현재 역할과 자세를 성찰하는 주제
- 현장조직진단 등 현장조직력 강화와 현장리더십 강화를 위한 주제
- 조직의 유지와 와해에 대한 교육

8. 기타 의견 (응답 23개)

없음. 관심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연극같은 보여주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아쉬웠습니다. 옛날 치킨은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교육진행하시느니라 고생하셨습니다. 식당이 더 맛있으면 좋겠다.알찬 교육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듯한데 시간이 촉박해 시간에 쫓기듯 빠르게 진행 되는것 같습니다. 교육 준비하신 교육실 동지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교육 좀 줄여주세요. 교육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육 중요하지만 소중한 시간 체형학습(단양관광)도 필요함. 인성교육 및 금속노조 운영에 대한 교육추가. 전체적인 교육에 집중이 안됐다. 12기에 진행했던 교육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나은 거 같다. 수고 하셨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없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교육열정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 솔선수범하여 정리정돈 하는 모습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중 차에서 스피커폰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지맙시다. 시끄러움.

□2024년 확대간부교육 2회차 평가설문 (5차)_ 2024년 6월 25-26 (95명)경주2팀+포항2팀

1. 종합평가



2. 위 종합평가에서 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하셨다면 이유는? (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한 분만 답변) 응답 48개

시대전환과 부합하여서. 알찬 교육이었음. 매우만족. 내용이 좋았습니다. 첫 교육참가였는데 교육진행이 너무 알차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적극 대응 해야된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끔. 지루함. 강의내용이 알차고 만족스럽다. 강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실질적 대책방안의 길잡이가되었던 교육이었던 거 같다. 강사님의 디테일한 설명과 조원들과의 회의가 좋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다른 지회들의 기후환경 부분 그리고 노동강도등 몰랐던 부분들을 알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유익한 정보 좋은강의. 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수업내용이었다. 노동자에게도 중요한과제로 다가올 것 같아서. 강의 내용 및 강사 전달력이 좋았다. 미래에 대한 대응을 시도한다는 점.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아니라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음. 전반적으로 알찬 내용이었습니. 내용이 알차고 준비성이 좋았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서,,,첫날 교육은 좋았습니다. 몰랐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우리세대는 아니지만 지구가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한 이해도가 충분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슈가 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의 자연스러운 진행과 강사님의 알찬교육. 기후위기 극복하는 문제에서 노동자가 할 일 기업.정부. 나아가서 전세계적인 문제이기에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들이 몸소 참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차에 비해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졌음. 우리에서 다함께로. 기후위기에 대해 다시한번 더 생각했었다. 내용이 알차다. 기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였고 지구는 그대로지만 우리는 변화가 생긴다에 많은 것을 느꼈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다만 교육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평소 관심이 없었던 부분을 공부하고 알수 있게 되었다.관심이 생겨서,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토론하면서 정부와 회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었다. 아주 질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습니다. 우리들이 피부로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생활방식을 바꿔야하므로. 주제가 괜찮았고 강의가 인상깊었습니다. 도넛 그리기는 여러 단사의 문제점을 한눈에 확인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기후위기에 대해 대중 알고는 있었지만 교육을 받고 나니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투쟁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교육이라 더 좋았던 거 같습니다. 토론과 결과.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선이 생김. 우리가 당면한 과제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해서. 전반적으로 유익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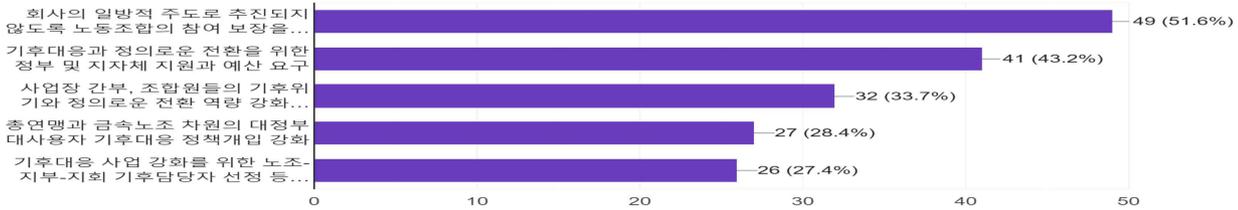
3. 위 평가에서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응답하셨다면 이유는?(불만족, 매우불만족에 응답하신분만 답변) 응답 17개

발표시간이 너무 길어 교육시간이 늦게 끝남. 매우만족. 교육강사가 무엇을 교육하는지 모르겠다 지루하고 기후변화 답은 정부와 같이해야 하는데 답은 없음. 강사님의 강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맥락이 없다. 기후위기가 기습에 안느껴지네요~ 강의내용이 팩트가 없는 것 같음. 전체적인 교안은 짜임새 있고 좋은데 설명이나 강의하는 내용은 많이 부족했던 거 같다..정확한 교육에 대한 사유와 내용등 이해도 안되고 와 닿지도 않고, 둘째날 교육은 힘들더라도 시간을 조금 앞당겨 첫째날 하고 둘째날은 작년 제작년처럼 둘째날 산보나 보트체험등 다른 지역동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배치했음 좋겠습니다. 1강 강사는 맥락도 없고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렵다. 2일차는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져 강의도 귀에 안 들어오고 토론하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다음부터 2일차는 다른방식의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없음. 앉아서만 교육하는게 불편합니다. 목소리들이 너무 좋으셔서 졸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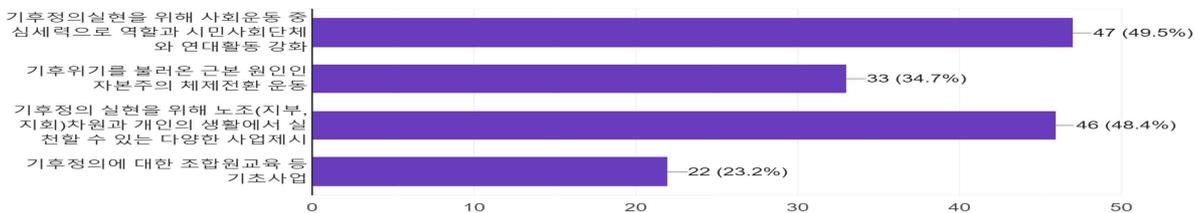
4.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 개인 또는 노조 차원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응답 45개

없음.매우만족. 회사내 불리수거부터 당장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감축. 내 주변 내가까지 부터 실천. 노동자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투쟁없는 기후대응 별루다. 잔반 남기지 않기, 차량 공회전 줄이기, 냉난방 적절온도유지. 각공장의 탄소배출 기준강화. 적발시 강력한 법적조치 강화. 대기오염 및 폐기물을 줄이는데 힘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도시정화사업. 중앙교섭 집단교섭 보충교섭에 매번 요구해 간다. 현장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야 할 것 같다. 폐기물 발생 줄임. 녹색단협 만들기. 원하청 공동대응 요구. 일회용 용기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주기적인 조합원 교육을 할 수 있게 교안이나 강사단 양산이 매우 필요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회사가서 간부,조합원들과 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고 실천 하겠습니다. 기후대응. 캠페인.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작업장 폐기물 줄이기,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고 반영구적 제품을 사용. 예를 들면 텀블러 사용. 자연보호 분리수거 일회용품 자제. 폐기물 줄이는 방법모색. 일회용 사용 적극적 제한하겠다 개인, 노조 차원을 떠나 전세계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변화는 없을 거 같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지구 온도를 미비하게 떨어졌다. 그것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변화할 수 는 없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명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야 할 것 같다. 그또한 기후변화에 기여는 할 수 없지만 나하나 실천하다보면 또 다른 개인들도 변화될 것이라고 본다. 회사에 태양광발전을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걸 고민해봤어요. 환경단체를 초청해서 환경단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듣고 싶다. 현대사회에 너무 빠른 산업발전에 기후 변화에 대응이 아쉬움. 아껴쓰자. 대정부 요구.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배출 및 화학연료 사용 줄이기, 교육생들이 교육오기전에 텀블러를 다 지참해서 참석하라고 준비물로 지정해줬으면 좋겠다. 가끔 아침선전전 후 주변 청소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 봐야한다. 친환경차량 구입확대, 현장에 전과교육 독려. 기후위기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여나가야 겠습니다. 리사이클 시스템과 에너지 절감방안. 생활속 탄소배출 줄이기. 전조합원 1천 사업 릴레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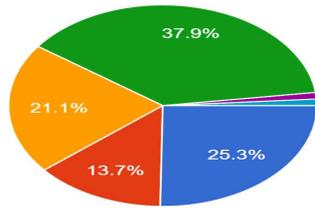
5. 기후정의 실현과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금속노조(지부,지회)가 더 힘써야 하는 사업은?(복수선택가능) 응답 95개



6. 기후위기는 일자리 변화 뿐만 아니라 지구적 위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복수선택가능) 응답 95개



7. 13기 2년차 확대간부 교육은 각 지부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는?
 응답 95개



-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강화를 위한 사례 교육과 토론
- 노동자 계급의식을 높이는 노동인문 주제
-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통해 현재 역할과 자세를 성찰하는 주제
- 현장조직진단 등 현장조직력 강화와 현장리더십 강화를 위한 주제
- 차등전 일반조합원도 참여 건의
- 교섭의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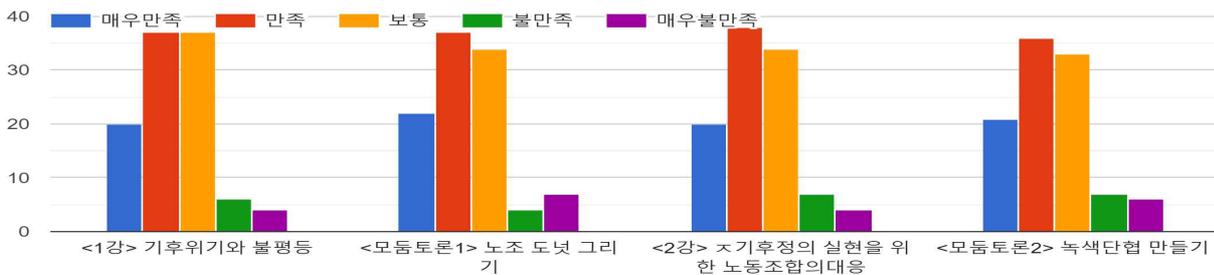
8. 기타 의견 응답 37개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에도 교육이 너무 루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좋은 교육 좋았습니다. 이런거 말고 좀 즐거운 프로그램 바랍니다. 도넛이나 녹색단협 같이 단체로 작성하는 이런 과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원초적이고 기억에 남지 않는 교육 같습니다. 야식으로 나눠준 가마솥 통닭 최고였습니다.교육 내용중 관련 영상물 자료도 반영이 필요. 영상교육 추가해주세요~. 작년처럼 외부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후 족구장,풋살장 이용 하면 즐길수있는 있는 방향모색. 새벽까지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음주문화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기후위기의 교육이 간부와 조합원에게 정말 필요하고, 위기의 식의 강조가 시급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안이나 체제가 필요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누가 번역했는지... 영어와 맞지않는...자본주의를 부정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지는건지? 한번씩 교육에서 느끼는 게 사상교육? 을 하는건지...진짜 이해 안됩니다...북한도 아니고...노동조합답게...각지회에..현실에 맞는 교육...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짜 교육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극 같은 것 보여 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몰랐던 내용 잘 배웠습니다

사업장별 조를 정해서 시행하는게 맞지요~^^ 하나가 아닌. 여럿이 힘을 모으면. 큰 힘이 됩니다. 변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유익한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2일차 교육을 1 일차에 몰아서하고 2 일차에는 단양이나 복귀하는 길에서 갈 수 있는 투쟁사업장 방문이라던지 상징성을 남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몇몇은 교육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술 마시러 단양까지 온 것 같다. 교육은 교육답게 술은 한병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식사등이 매우 만족합니다. 교육 시간에 30프로는 자고 60프로는 폰보고 있고 다들 정신 차려야 함.. 다양한 식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1일차에만 집중교육 해주시고 2일차는 다른 방식의 일정을 잡아주세요. 아이스크림이 맛있었습니다. 기후위기관련 동영상을 먼저 보고 교육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교육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일간 교육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투쟁! 저녁식단 돼지국밥 같은 것이나 수육. 숙소 배란다 안전시설 미흡. 난간이 없어 낙하 우려됩니다

□ 2024년 확대간부교육 3회차 평가 설문(6차)_응답102 / 경주3_ 2024.07.02.-03

1. 종합평가



2. 위 종합평가에서 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하셨다면 이유는? (만족, 매우만족에 응답한 분만 답변) 응답 48개

강사진 분들의 설명이 좋았습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번 계기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가는 것 같아서 강의내용이 만족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알게 되었음.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전환을 통한 일자리보장이 아니라 생산의 축소에 따른(일자리 감소) 자본 이윤의 공유를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본주의 체계가 문제점이라면 말이죠. 기후위기 교육이 공허한 것은 당면과제 조차도 멀게 느껴져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기문제 인식은 다 가지고 있을 듯. 앞으로 대비. 기후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단합.조직력 좋았습니다. 교육이.알차고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미래의 전략. 몰랐던 걸 알게 됨. 알지 못했던 기후위기,녹색단협 등을 알수 있었다. 참여토론 방식 좋음. 좋았습니다. 확대간부 참여. 우리 생존의 문제점.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어 너무 재미 있었다. 색다른 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없었던 부분이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니다. 강의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실적인 교육내용이 좋았음.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는 계기가 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교육받아 좋았다. 교육 내용이 좋았음.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 현장에서 와 닿지 않은 내용들이었지만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느낌.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다.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유용하였다. 현 시대는 녹색전환으로 가야되기때문. 지금 당장 직면된 과제라 생각되는 문제를 다뤄서 좋았다. 현재의 기후 위기가 불평등에서 초래되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의 몫이란 데에 공감되었다. 좋은 장소 청결한 숙소 머리에 숙들어오는 명강의와 금속 조합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됨. 체계적인 내용이었습니니다. 내가 몰랐던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인식변화. 새로운 교육주제. 귀사의 문제점 발취를 통한 방향성 설정. 산업발전과 기후대응 관련하여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과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용들이 현재의 나와 내 아이들의 피해로 다가 왔다는 게 현실로 느껴졌다. 같은 지회 사람들과 지회의 상황에 맞게 같이 토론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동지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토론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기후변화 의 심각성을 더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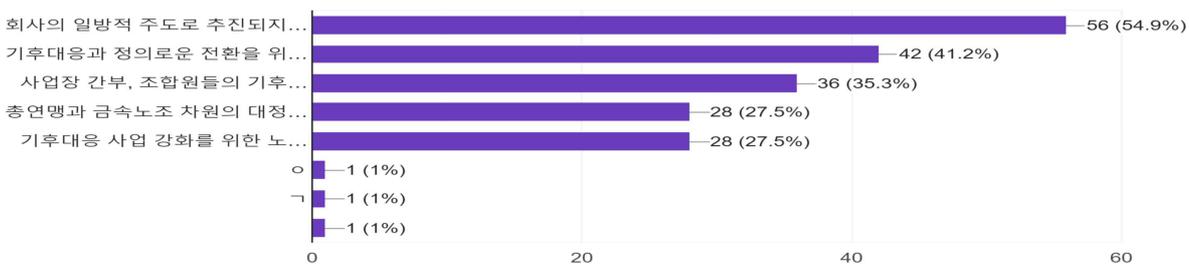
3. 위 평가에서 불만족 매우 불만족에 응답하셨다면 이유는?(불만족, 매우불만족에 응답하신분만 답변) 응답 16개

크게 필요성을 못느끼겠음. 아직 와 닿지가 않다. 기후위기는 알수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매년 똑같은 의미 없는 토론 발표. 도넛그리기 현실 개선방안까지 같이 겸해서 교육. 녹색단협 자료가 업데이트 필요. 현장일과 연관성을 모르겠음. 색다른 교육. 조금 지루하였다. 토론까진 좋는데 발표를 좋아하지 않음. 아직 생활속에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주제라.힘든거 같다. 단협에 중요할 시기에 기후위기가.교육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현실성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너무 나 도 같은 형식의 교육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였는지 집중력이 좀 떨어 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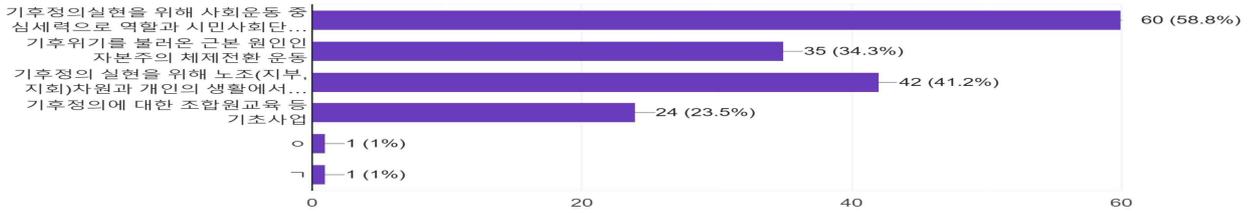
4.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 개인 또는 노조 차원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응답 40개

일회용품 줄이기,일회용품줄이기,탄소배출감소, 에너지절약, 현장에서 먼저 다 같이 찾아보고 조금씩 줄여나가면 될 것 같다. 교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 먼저 실천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신기술 도입. 에너지소비 줄이기. 녹색단협 문구삽입. 일회용 사용 안하기. 전기를 적게 쓰는 장비를 쓰자.작은 것부터 실천 일회용 줄이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깨끗한 현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회교육실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 작업장환경개선~ 작업장에 불필요한 폐기물 줄이기. 저탄소 관련 설비 투자 요구. 작지만 생활 환경부터 시작 하겠다. 조합 전체에서 같이 행동하자. 작은 것부터 일회용 줄이기.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활용. 단협 감화. 분리해서 버리는 생활습관을 키우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철저. 탄소배출 저감 위한 정부요구. 사업장에 돌아가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하여 전하고 싶다. 내 스스로 가 직접 참여해 보고싶다. 에너지절감 대책.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특별 노사협의회 요구 쟁취. 개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하며 기후위기에 힘 쓰겠다.1년에 하루 정도 대국민 운전금지. 실내 냉난방 온도랑 가까운 거리는 차량 운행이 아닌 도보나 자전거 이용 쓰레기 줄이거나 분리수거 활동정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5. 기후정의 실현과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금속노조(지부,지회)가 더 힘써야 하는 사업은? (복수선택 가능) 응답 102개



6. 기후위기는 일자리 변화 뿐만 아니라 지구적 위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 중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복수선택가능)
 응답 102개



7. 13기 2년차 확대간부 교육은 각 지부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는?
 응답 102개



8. 기타 의견 응답 24개

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교육실 동지들의 희생으로 확대간부교육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짝하네요. 지역지부 교육담당자 동지들의 지원이 필요할 듯. 밥 좀 맛있게 주세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이틀을 앉아서 듣는 교육은 고문입니다. 영상도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교육부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4)!! 발표금지, 고생하셨습니다.. 알찬 교육과 간부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좋았음. 간부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조합원들도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잘해주신 교육실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1일차 교육과 2일차 현장체험(투어) 했으면 합니다. 교육준비와 함께 해주신 동료 간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회별 조를 형성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지회랑 섞어서 토론보다 지회별 토론하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 같다

<참고자료4. 지부 하반기 확대간부교육 평가설문 결과> 응답자 2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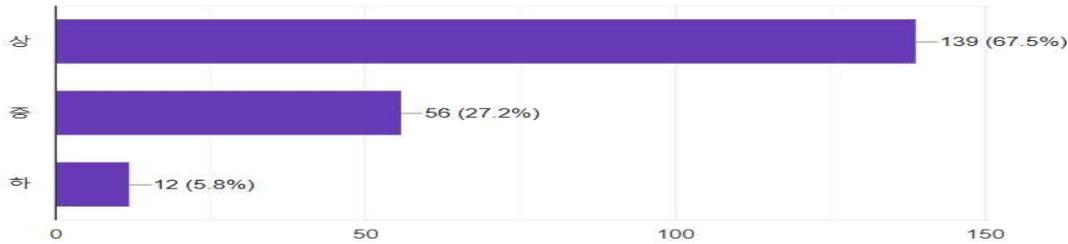
1. 13기 2년차 확대간부 교육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체크 바랍니다 응답 20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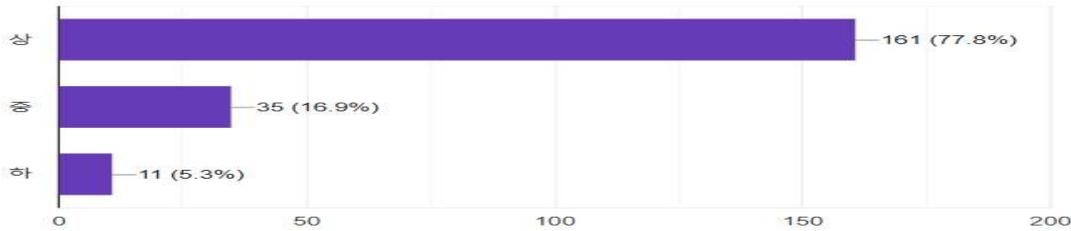
2. 특강1) 하반기 정세와 민주노총의 과제 교육에 대한 동지의 의견은어떠십니까?응답 207개



3. 특강2) 주4일제 논의실험과 노동조합의과제 교육에 대한 동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응답206개



4. 문화공연) 노래로 물들다 공연에 대한 동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응답 207개



5. 확대간부교육에서 동지가 받고 싶은 교육을 적어 주세요 응답 92개

- 주4일제 현상황에 대한 분석내용과 논의 및 노동의 과제(6)/법률교육(3),산재교육(2)/동영상시청(3)
- 현대 노동운동사(2). 노동조합 변천사(2). 노동운동의 역사(6)/간부의 역할과자세(4)/간부역량강화교육(3)
- 윤석열정권비판등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 교육받고 싶다(3) / 금속산별노조혁신강화(2)
- 언론관련 교육/ 성교육/선동교육/ 열사교육/ 리더십 관련교육/ 기후환경 교육
- 사업장의 현실적 상황과 현행유지/투쟁사업장 대응방법/ ILO협약과 타임오프제
-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 생각 차이나 입장을 좁힐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과거 선배들의 활동을 좀 더 보고 싶다./초심을 되찾을 수 있는 교육/성역없는 차별없는 간부가 될 수 있는 방법./ 간부의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강의//조직내 갈등 해소/간부의 현장 조직화 방안
- 초임 간부도 많고 연임이라도 학습을 안하니 잘 모릅니다./ 기본이지만 잘 모르는 내용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현정권의 노동조합의 현위치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
-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활동 내용 민주노총의 활동 방향성 과거보단 미래에 필요한 교육과 자세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기조 및 방향 앞으로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한다면 어떤방향으로 할것인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면 어떤방법으로 쟁취할것인지? /자동차동향/4차산업 및 산업의 페러다임변화에 대응하는 금속노조/줄리지 않는교육
- 지금 노동조합(금속노조)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이 노동자 권리만 주장하고 정작 본인의 역할은 제대로 하는지.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무작정 요구하기보단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그 다음 권리를 주장해야 적당한 요구가 된다는 교육을 했으면 한다.
- 연극도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문화공연(2)으로 연극과 노래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아직 1년차 잘모르겠슴/교육.공연 활기차고,지금처럼 유지되면 좋겠고. 너무 좋았습니다(7) 없습니다(5)

6. 확대간부 교육의 개선점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응답 87개

- 없음.만족. 좋음(18) 상품추천 더늘려주세요.다양한 행운권추첨(양은냄비.찜솥..빨래비누..등등..)
- 공연사운드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팠고 신나지도 않았음(3)/문화공연..실내외공연의 차이가 필요하다(소리)/문화공연이 너무 길고 노래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아쉬웠다(3)/공연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음/좁은 공간에 울동은 안맞음..(박수나 구호는 좋음..)- 교육시간에 흡연.화장실이용 등으로 출입문쪽에 커튼을 달아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집중이 잘안됨)/ 무대 앞자리 이벤트는 그 어떤 아쉬움이 많이남는다..ㅎㅎㅎ/^ ^ 공연 시간이 길어 아쉬웠다/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념교육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었으면 한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지만...아직도 옛날 방식... /별의미없는 교육으로 시간 낭비임/힘들었다./ 공연을 하지말고 그 예산으로 다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도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되어 짧게 하는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 충분한 시간으로 친철폰이 되었으면 한다./강연설명 긴 것 보다 짧게 여러개가 좋을 듯 싶습니다./시간을 쏙 줄었으면 좋겠습니다./교육내용은 좋았으나 너무 짧은시간에 주어진 시간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어서 알아듣기 힘들/ 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 시간이 짧은 듯해서 강사분도 쫓기듯 하시어 조금 아쉬웠습니다./실용적 교육으로 했으면 합니다./조금 지루했다는 점. 시간이 너무 길다. 참여형 교육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국내정세 교육, 교육부터 공연까지 짜여진 시간에 잘 진행되었습니다./전반적으로 괜찮음
- 대의원등 간부의 역할과 방향성등 신입간부들의 역량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원합니다. 신입간부의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올바른 간부라면 교육은 철저하게 해야한다 생각 됩니다. /불참자에 대한 공지
- 노 와 사가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하는 노조 활동에 대해 프로그램이 있으면 받아볼만 할듯요.
- 주4일제 논의실험은 현재 제조업 현장근무와는 너무 동떨어지는 강의 같았습니다.
- 교육시 이탈하는 간부들이 많은 것 같고 교육이 끝나기도 전에 귀가하는 간부들이 있다
- 교육시간이 짧다. 더 이상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교육 잘 받고 갑니다.
- 식사가 밥은 괜찮은데 불고기나 메인 메뉴가 좀 더 있었으면 해요 먹을 게 너무 없어요.
- 점심식사 질 개선 메뉴변경(5)/식당이 비싸고 맛은 별루 인 것 같아요! 가성비좋은 도시락도 괜찮을 듯.
-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초빙 교육/마스크착용
- 산업안전재해 등 이런 교육은 확대간부교육이 아닌 외부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7.기타 (지부의 사업이나 교육사업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세요) 응답 66개

- 새로운 도전과 실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경청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어렵고 힘든 지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부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나이도 젊어지고 있고...흐름에 따라 갑시다./지회장 의무교육 의미없다. /주4일근무제..열심히 들었고 배울 점이 많았다.-/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 공연 예산으로 퀴즈나 유익한 강사초청 해서 상품권을 더 많은 조합원동지들한테 돌아가게 하는게 더 나올 듯 합니다./ 공연을 빼고 건설적인 교육요망 /하루정도는 힐링하는 시간으로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범시민 홍보 차원에서 공익사업에도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경주시 시가지 쓰레기줍기 등등)
- 올해 많은 변화와 노력이 느껴지는 점 좋았습니다/몇년간 받아온 확대간부교육중에서도~ 수준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다./ 영상으로 기록된 것만 보아도 올 한해 지부사업이 활발했던 것이 보여졌다.
- 12기대비 유익하고 보람찬 교육이었습니다. 준비하신 집행위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 파벌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교육이어서 아직 미흡한듯 했지만, 신선했음.
-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동지들 간의 교류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감동도 있었고, 벽차기도 했다.지루할 틈 없이 좋았다.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을 모든분들에게 박수드리고 싶다/ 세계정세 전쟁내용 일자리 각국의 실천 실현등 현재 상황의 비교분석 교육이 좋았다 /잘하고 있음. 이교육을 통해 모여 함께하니 연대.단결된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교육을 최소 년2~3회 했으면 합니다. 더 분발 하이소
- 너무 시간 때우기식이나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말고 직접 현장 노조 활동에 필요한 교육위주로 프로그램에 짜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듯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어느때 보다 최상의 교육입니다
- 지난 1년 동안 바쁘고 알차게 사업을 진행하신것같다. 특히 조합원들이 참여 하는 사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면 좋겠다. 원칙에 만든 사업 추진. 시대에 맞는 사업 교육 사업 추진/ 현실에 맞는 정책과 실현 (국민연금)
- 오전교육시작할때 단결력과 조직력강화라는 슬로건으로 조직을 하나된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민주노총 최해술 지부장의 연대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장생활을하면서 제품생산에만 전념하고 회사안의 일들만 신경썼는데(한상균위원장의 하반기 노동정세 그리고 민주노총 과제), 김종진 소장의 주4일제논의와 실험 그리고 노동조합 과제 등을 설명 들었습니다/ 지회조합원들의 금속노조 교육. 상.하반기 교육필요
- 저희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노조에 관한 교육과 현시대에 살면서 부딪히는 사회문제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의 설명을 듣고 대외적으로 사고와 생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금속노조가 단지 회사에 조그만 하나의 이익만을 얻을려고하는 단체가 아닌 진정한 노사와 사회와의 공생을 이뤄낼려고 힘쓰는 모습에 제 스스로 금속노조 조합원이란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후교육을 통해 문화와 음악으로 하나된 마음을 확인했고 더쉽게 노동운동에 이해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역량있는 교육을 통해 더 발전하는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노동운동 예전에 했던 걸 시청. 현재와 비교 지부동지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산업전환에 따른 임금 개편은 어떻게 할것인지?등 산업전환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부에서 식사비 13000원 합시다. 좋은 공연.교육만족(8).지부 간부동지들수고(응원)하셨습니다(10)

<참고자료5. 노조 기본과정 교육 평가 설문 결과>

1.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로 표시)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불만이다
4	2	0

2. 교육과정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로 표시)

다른 간부에게 추천하고 싶다	예 (5)	아니오 (1)
중급과정교육에도 참여하고 싶다	예 (5)	아니오 (1)
참여형으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	예 (6)	아니오 (0)

3. 가장 좋았던 강의는 무엇입니까? (2개만 골라 √로 표시)

① 새로운시각	② 노동자	③ 일터	④ 삶터	⑤노동자와인권	⑥노동자와 성평등
	1				
⑦ 노동조합	⑧ 금속노조사	⑨노동운동과 미래	⑩환경과 기후위기	⑪대안사회	
3	3	1	2	2	

4. 가장 좋았던 강의로 선택한 이유를 적어 주세요.

②(노동자)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와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았다.	⑨(노동운동과 미래) 조합원으로서, 간부로서,활동가로서 미래의 방향에 대해 배울수 있었다.
⑦(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알게 되었다.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이어서 관심이 있었고 공감과 이해하기가 그나마 쉬웠다.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깊이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⑩(환경과 기후위기) 가볍게 생각한 인식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옛날부터 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좋았다.
⑧(금속노조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역사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소속되어 있는 금속노조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를 볼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이어서 관심이 있었고 공감과 이해하기가 그나마 쉬웠다.	⑪(대안사회)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지를 알게되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나라의 사례가 참고되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계기가 되었다.

5. 노조간부 기본과정교육의 개선점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사업장별 여건의 차이도 있지만, 교육시간이 타이트한 점이 아쉬웠다. 일정상 너무 시간이 타이트했다. 그림 그리는 실습은 안 했으면 좋겠다. 없다.
--

6. 나의 교육 참여도(√로 표시)

적극 참여	보통이다	소극적 참여
3	3	0

6-5. 선전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 사업과 활동 등을 종합 기획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
- 2) 조합, 지부, 지회 간 소통을 강화하여 일체성 강화
- 3) 선전담당자 간 토론과 교육을 통한 선전역량 강화

2. 주요 사업

- 1) 선전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참석 현황

차 수	날짜 및 장소	토 의 안 건	참 석
1차	01월 31일(수) 10시 경주지부 회의실	안건 1. 13기 1년차 선전 사업 계획 논의건 안건 2. 기타 건	17개 지회 18명 참석
2차	03월 19일(화) 10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안건 1. 소식지 제작 기획방향 결정의 건 안건 2. 선전부 13기 1년차 수련회 일자 및 장소 선정 논의건 안건 3. 기타 건	13개 지회 14명 참석
3차 (수련회)	04월 11일(목) 14시(수련회) 경주 씨로드 펜션 회의실	안건 1. 13기 1년차 선전 사업 계획 논의 안건 2. 기타 건	19개 지회 19명 참석

4차	06월 05일(수)10시 지부회의실	안건 1. 영상소식지 안건 2. 지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 강화 안건 3. 선전부 사업 중간평가 안건 4. 기타 건	14개 지회 14명 참석
5차	07월 12일(금) 10시 일진베어링지회 회의실	안건 1. 영상소식지 안건 2. 공동사업 제안 :탁상달력 제작 안건 3. 기타 건	16개 지회 16명 참석
6차	09월 13일(금) 10시 우영산업지회 대회의실	안건 1. 선전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 안건 2. 각 지회별 연간활동 정리영상 만들기 안건 3. 수련회 / 중앙 선전물 관련 안건 4. 기타 건	17개 지회 19명 참석
7차 (수련회)	11월 15일(목) 15시(수련회) 경북 칠곡 목수익집 펜션회의실	안건 1. 선전 사업 계획 논의 안건 2. 기타 건	14개 지회 17명 참석
8차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발레오만도지회 회의실	안건 1. 선전 사업 평가 안건 2. 기타 건	12개 지회 11명 참석

순	지회명	직책	성명	1/31 1차	3/19 2차	4/11 3차	6/5 4차	7/12 5차	9/12 6차	11/15 7차	12/13 8차
1	금강	선전부장	김태일	○	○	○	○	○	○	○	
2	다스	선전부장	조진래	○	○	○	○		○	○	○
3	KBI동국실업	선전부장	유성열	○	○	○	○	○	○	○	○
4	디에스시	선전부장	박보현 /정진우	○	○	○	○	○	○	○	○
5	명성공업	선전부장	천동민	○	○	○					
6	발레오만도	교육선전부장	박지환	○	○	○	○	○	○	○	○
7	비투지	선전부장	이종혁 /권재민	○		○	○	○	○	○	○
8	세진	선전부장	김재범		○	○	○				
9	아이티더블유경 주	선전부장	박현숙	○	○	○	○	○	○	○	○
10	에코플라스틱	선전부장	조성연	○		○	○	○	○	○	○
11	엠에스	선전부장	박재민	○		○	○	○	○		
12	엠에스정밀	선전부장	권용국	○	○	○	○	○			
13	우영산업	선전부장	조병만	○	○	○		○	○		
14	인지컨트롤스	선전부장	김보미	○	○	○	○	○	○	○	○
15	일진베어링	선전부장	윤수호			○	○	○	○	○	○
16	현담산업	선전부장	최창근	○		○	○	○	○	○	○
17	현대성우솔라이 트	선전부장	김명교	○	○	○	○	○	○	○	
18	현대아이에이치 엘	선전부장	조혜정	○	○	○		○	○		
19	현대엠시트지회	교육선전부장	임익두	○		○		○	○	○	
20	리어코리아지회	선전부장	박성인						○	○	
21	코리아에프티	선전부장	허정욱								○
22	경주지부	선전부장	이형석	○	○	○	○	○	○	○	○
23	경주지부	선전부장	김진산							○	
				17/18	13/14	19/19	14/14	16/16	17/19	14/17	12/11

2) 지부소식지 발행 현황

호	발행일자	주요 내용
1호	2024년 01월 04일	- 투쟁만이 윤석열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는 길이다 !! : 민주노총경주지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2024년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2호	2024년 01월 19일	- 경주지부 13기 임원 현장순회가 진행되었다. : 경주지부는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회와의 밀착력을 높이고자 여러 사업을 구상중이다. 특히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들과의 직접대면 기회를 늘려갈 예정이다. - 지부 운영위 1년 사업 논의에 박차
3호	2024년 02월 19일	- 7.7조 벌어진 일본 먹튀자본, 노동자를 책임져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강제집행, 함께 저지! : 일본 먹튀 자본이 이곳에서 수조원 이상의 이익을 거둬간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박탈해갔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고용승계뿐이다.
4호	2024년 03월 25일	- 경주지부 29번째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우다. 리어코리아지회 창립총회 : 리어코리아지회의 설립은 외국자본이 토대가 된 기업 속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가입한 사례로 금속노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5호	2024년 04월 05일	- 아진카인텍 현장, 희망의 벚꽃이 피어나다. : 기업 대표노조 집행부 교체과정, 역대 집행부의 만행, 계열사 임금체계 차별 등 일련의 상황을 현장에서 바라보던 젊은 노동자들의 분노는 금속노조 조직화로 이어졌다. 올해 아진카인텍지회의 조합원은 4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 즐겁게 투쟁하자! 경주지부 여성조합원 단합대회
6호	2024년 04월 05일	- 노동부의 노조의 자율.자주성 침해을 규탄한다. : 포항지청 앞에서 노사 자율.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부 규탄을 위한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호	2024년 04월 18일	- 금속노조를 향한 정권의 폭력성, 도를 넘었다. : 한국니토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용승계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진행 경찰의 집회 방해와 폭력으로 노동자 17명이 연행되고 2명이 응급후송 되었다.
9호	2024년 06월 24일	- 지회별 최강자를 가린다! : 조합원참여사업 지회별 최강자 대회 (당구,스타크래프트,골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 플라스틱옵니엄지회 2024년 투쟁 깃발을 들다! - 현우지회, 민주노조를 흔드는 분열세력에 맞서 조합원 단결로 민주노조 사수 투쟁중 - 엠에스정밀 매각중 : 현재 회사는 매각을 준비중이다. 3~4개 업체가 엠에스정밀 인수 합병을 검토하는 중이다.
10호	2024년 07월 22일	- 프랑스기업 발레오 경주공장 "수탈" 묵고할 수 없어 : 역수입 반대, 경주 공장 정상화 요구 투쟁의 파고를 올린다. - 힘내라! 발레오만도지회! 경주지부가 쏜다! 커피트럭 진행 : 지회의 조합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비조합원들의 조직을 위한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 신규지회 리어코리아지회 2024 단체협약 체결
11호	2024년 08월 28일	- 경주지부 미타결사업장 조합원 결의대회! 발레오 투쟁승리! : 경주공장 생산이 우선 생산 확대 철차 미이행시 해외 생산제품 국내반입 불가! - 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12호	2024년 09월 30일	- 9.27 윤석열퇴진, 시국대회 전국 동시 진행 : 경북민중대회는 경북 의성에서 개최 : 대구 대전 경북은 27일 수도권은 28일 동시진행 -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 경주시는 수도권검침원 대법원판결 즉각 이행하고,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즉각 변제하라!
13호	2024년 10월 08일	- 경주지부 사업장 대부분 단협 마무리 : 무더운 여름보다 더 치열했던 2024년 단체교섭
14호	2024년 10월 22일	- 전국 노동자대회 조직을 위한 경주지부 집행위 현장 순회를 가져 : 11월9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에 함께해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 현대자동차지부 미래변화대응 TF팀 지부 운영위원 간담회 열려

		- 제3회 정주, 이주노동자 명랑운동회 열려
15호	2024년 11월 06일	- 금속노조 경주지부 집단교섭 갈무리 - 성평등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다! - 시대적 메시지와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 : 2024년 금속노조 경주지부 확대간부 교육진행
16호	2024년 11월 11일	- 경주지부 30번째 깃발이 올랐다! : 코리아에프티 조직형태 변경 총회 진행
17호	2024년 11월 14일	- 54주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 : 전국 노동자 대회 1차 퇴진 총궐기
18호	2024년 11월 27일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평택) : 고용승계 쟁취 투쟁승리 문화제 전개
19호	2024년 12월 5일	- 내란범죄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 금속노조 경주지부, 5,6일 2시간 파업돌입, : 12월 7일(토) 서울 민중총궐기 총력 대응예정
20호	2024년 12월 5일	- 내란범죄자 윤석열 퇴진 촉구 : 동대구역 앞 “즉각퇴진” 촉구 기자회견 / 울산 시민대회 열려
21호	2024년 12월 31일	- 조합원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 : 이제부터 시작이다

3) 지부 교섭 속보

호	발행 일자	주요 내용
1호	2024년 04월 18일	2024년 경주지부 집단교섭 시작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가 교섭에 임해야.
2호	2024년 05월 02일	기본급 159,800원 임금인상 및 지부집단 의제안 설명 지부집단 교섭위원 의무교육으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강의 열려
3호	2024년 05월 09일	3차 교섭, 노측 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정년연장과 현대차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언급
4호	2024년 05월 16일	사측1차제시안 106조 협약의 유효기간 수용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지만 안전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
5호	2024년 05월 23일	사측 제시안 두차례 제시, 노측은 제시안 수용거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
6호	2024년 05월 30일	8조 조합활동 시간, 21조 휴직자의 처우에 대한 안 제시에 대한 의견접근 사측은 조금 더 교섭에 속도를 내야 한다.
7호	2024년 06월 13일	69조, 1개 조항, 원안 수용으로 의견접근 토론을 통해 69조 건강진단에 대한 원안수용으로 의견일치
8호	2024년 06월 20일	지부집단교섭 결렬 선언! 7.10 파업결의! 사측 제시안 제시하지 않음에 노측은 집단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9호	2024년 07월 18일	지부집단교섭 6개 의제 전체 원안대로 의견접근 노측의 결렬선언으로 중단되었던 지부집단교섭이 29일 만에 재개되어 6개 의제들에 대해 의견접근 하였다. 이제는 임금협상이다.
10호	2024년 07월 22일	10차 지부집단교섭, 임금교섭 돌입 명성의 의견접근안이 지부집단교섭의 최저 출발점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
11호	2024년 08월 19일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파업 돌입 사측의 임금제시안에 대해 우영산업지회는 3차례 정회 끝에 노-사 의견일치 하였다.
12호	2024년 08월 21일	지부공동파업 3일차, 내일부터 4시간 파업돌입 사측은 타결할 마음이 있는가? 진정성 있는 안 제출하라 세진,아이티더블유 사측제시안 수용거부
13호	2024년 08월 22일	아이티더블유, 세진 노-사 의견접근 회사 실적 나쁜 것 자랑할 일도 아니고 노동자 탓 아니다.

14호	2024년 08월 23일	지부집단교섭 공동파업 5일차 아이티더블유 지회 조합원 총회 가결 세진지회는 조합원 총회 부결로 3일째 교섭, 발레오 만도지회 ,다스지회 의견접근, 조합원총회는 각 26일 진행예정
15호	2024년 08월 26일	자본이 버랑으로 밀면 우리는 파업으로! 지부집단교섭 파업 2주차 돌입, 결품 운운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승인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세진,금강 1차 제시안 수용, 디에스시는 수용거부
16호	2024년 08월 27일	세진, 디에스시, 다스 노-사 의견 일치 보총교섭 진행중인 사업장은 3곳
17호	2024년 08월 28일	미타결 사업장 8시간 전면 파업 돌입 세진, 다스 조합원 총회 가결
18호	2024년 08월 29일	전면파업 2일차 사측의 결단을 요구한다! 디에스시 총회 가결되어 임단협 마무리... 현대아이에치엘지회 6차례 임금제시 끝에 의견접근 총회 진행
19호	2024년 08월 30일	길어진 파업에 사측은 댓가를 치를 것이다 엠에스, 에코플라스틱 3차례 제시 끝에 최종 의견접근 8월30일 총회 예정 2개 미타결사업장 남아.....
20호	2024년 09월 03일	지부집단교섭 미타결사업장 2개 남아.. 집단교섭 투명하고 정직하게 상호 안이 제시되어야 일진베어링 사측 처음 임금인상안 제출, 타결의지에 의문,..
21호	2024년 09월 04일	일진베어링, 불성실한 교섭 행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현대아이에치엘지회 3차례 제시 끝에 최종 의견접근
22호	2024년 09월 05일	속고의 시간은 충분했다. 이제와서 경영상태 운운은 핑계일 뿐! 일진베어링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하라
23호	2024년 09월 10일	일진베어링지회, 9월10일 2차 부결 매년 적자 타령, 조합원들의 불신 자초한 사측
24호	2024년 09월 11일	2024년 단체교섭 모든 사업장 마무리 일진베어링지회 총회 가결 교섭의 생산성,효율성 망가뜨린 사용자 측의 각성이 필요하다.

4) 영상제작

번호	발행 일자	주요 내용
1	2월 29일(금)	[경주지부가 간다 1호]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와 2024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2	3월 11일(월)	함께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금속노조경주지부 23년 12기 2년차 활동영상)
3	3월 16일(토)	[경주지부가 간다 2호] 3.8 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기자회견
4	3월 18일(월)	[경주지부] 대의원대회 다시보기 / 대의원대회 요약본
5	3월 27일(수)	[경주지부가 간다 3호] 리어코리아 창립총회
6	3월 29일(금)	[경주지부] 24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홍보영상
7	4월 2일(화)	[경주지부] 선전부장 회의 라디오 체험 녹화본
8	4월 9일(화)	[경주지부가 간다 4호] 엠에스정밀지회 고군분투 파업기
9	4월 22일(금)	[경주지부] 제12회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10	4월 22일(월)	[경주지부]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11	4월 22일(월)	[경주지부가 간다 5호] 여성의날 정신계승 조합원 단합대회
12	4월 23일(화)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상견례
13	4월 23일(화)	[경주지부] 우영산업지회 8주년 결의대회
14	5월 3일(금)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2차 / 교섭위원 의무교육
15	5월 8일(수)	[경주지부] 2024 경북 세계 노동절 대회
16	5월 8일(수)	[경주지부] 시기집중 미조직선전전

17	5월 10일(금)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3차 / 교섭위원 의무교육
18	5월 17일(금)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4차 / 교섭위원 의무교육
19	5월 22일(수)	[경주지부가 간다 6호] 당구 좋아하세요?
20	5월 28일(화)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5차 / 교섭위원 의무교육 / 최저임금 기자회견
21	5월 30일(목)	[경주지부] 지부집단교섭 6차 / 교섭위원 의무교육
22	6월 3일(월)	[경주지부] 2024 도보순회투쟁 / 지회 최강자대회
23	6월 4일(화)	[경주지부] 2024 도보순회투쟁 in 경주
24	6월 5일(수)	[경주지부] 지회별최강자 대회 스타크래프트 편
25	6월 11일(화)	[경주지부] 현우지회 지키기 선전전!!
26	6월 14일(금)	[경주지부] 경주지부 집단교섭 7차
27	6월 17일(월)	[경주지부]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17주년 기념 콘서트
28	6월 20일(목)	[경주지부가 간다 7호] 별들의 전쟁 - 투쟁은 사람을 잇는다
29	6월 21일(금)	[경주지부] 8차 지부집단교섭
30	6월 21일(금)	[경주지부] 13기 1년차 확대간부교육
31	6월 27일(목)	[경주지부] 전국노동자대회 돌아보기
32	6월 28일(금)	[경주지부] 2024 최저임금 인상투쟁 캠페인
33	7월 1일(월)	[경주지부] 2024 최저임금 인상투쟁 캠페인 with 커피트럭
34	7월 2일(화)	[경주지부] 플라스틱옴니엄지회 파업출정식
35	7월 3일(수)	[경주지부] 들어는 보셨나? 2024 발암물질 조사사업
36	7월 11일(목)	[경주지부] 7.10 금속노조 1차 총파업대회
37	7월 17일(수)	[경주지부] 프랑스 발레오기업 경주지역 사회적책임 촉구 기자회견
38	7월 19일(금)	[경주지부] 말레베어 청산철회! 발레오 부품 역수입 철회! 국회 기자회견
39	7월 22일(월)	[경주지부] 현대자동차는 나서라! 말레베어 청산철회! 발레오 부품 역수입 철회! 현대자동차 정문 집회
40	7월 23일(화)	[경주지부] 경주지부가 쏜다! 발레오 파업투쟁 지원 커피트럭!
41	8월 8일(목)	[경주지부] 2024 지회별 최강자대회 스크린골프편 (240616)
42	8월 8일(목)	[경주지부가 간다 ep.8] 덤벼라 세상아! (인지컨트롤스지회 조강위 영상)
43	8월 9일(금)	[경주지부] 240724 옵티컬하이테크 고공농성 20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44	8월 13일(화)	[경주지부] 발레오의 노동3권 유린, 노동부 대책촉구 기자회견
45	8월 16일(금)	[경주지부] 240814 2024 권역별 선전기초교육
46	8월 20일(화)	[경주지부] 11차 지부집단교섭 #우영산업 #우영산업지회
47	8월 20일(화)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앞 1인시위
48	8월 21일(수)	[경주지부] 12차 지부집단교섭 #세진지회 #아이티더블유지회
49	8월 29일(목)	[경주지부] 240822 경주지부 투쟁승리 결의대회 #발레오 #임금교섭
50	9월 3일(화)	[경주지부] 240826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파업현장 #현대모비스물류
51	9월 6일(금)	[경주지부] 9월 3일 ~ 9월 6일 지부집단교섭 결과
52	9월 10일(화)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인식 파행 #금속노조
53	9월 13일(금)	[경주지부] 9월 2주차 지부집단교섭 소식
54	10월 2일(수)	[경주지부] 윤석열정권 퇴진, 2024 의성 경북민중대회
55	10월 2일(수)	[경주지부] 투쟁에 힘겨워하는 여러분에게
56	10월 4일(금)	[경주지부] 경주시 수도검침원 분회 경주시 규탄 선전전
57	10월 11일(금)	[경주지부] 리어코리아 조합원교육 (노동가요교육)
58	10월 16일(수)	[경주지부] 이주, 정주노동자 모두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59	10월 17일(목)	[경주지부] 함께가요 전국노동자대회 2
60	10월 23일(수)	[경주지부] 함께가요 전국노동자대회 3
61	10월 23일(수)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 천막농성 돌입
62	11월 5일(화)	[경주지부] 2024 경주지부 확대간부교육

63	11월 8일(금)	[경주지부] 24 지부집단교섭 조인식
64	11월 11일(월)	[경주지부] 2024 성평등 어우러짐 축제
65	11월 11일(월)	[경주지부] 함께가요 전국노동자대회
66	11월 13일(수)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 천막농성 돌입
67	11월 13일(수)	[경주지부] 24 지부집단교섭 조인식
68	11월 13일(수)	[경주지부] 24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69	11월 13일(수)	[경주지부가 간다 9호] 함께걷다 경주지부 (2024 확대간부교육 영상)
70	11월 13일(수)	[경주지부] 24 금속노조 경주지부 확대간부교육
71	11월 15일(금)	[경주지부] 24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72	12월 5일(목)	[경주지부] 241126 타임오프 회계공시 강요 노동부규탄 1인 시위
73	12월 5일(목)	[경주지부] 가자 민중총궐기로!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
74	12월 5일(목)	[경주지부] 12월 5일 내란범죄자 윤석열 퇴진 긴급 기자회견
75	12월 9일(월)	윤석열을 구속하라! 금속노조 경주지부 결의대회
76	12월 10일(화)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상성명서 - 우리 조직을 믿습니다
77	12월 11일(수)	[경주지부] 내란범 김석기 규탄 기자회견 1 (우정식)
78	12월 11일(수)	[경주지부] 내란범 김석기 규탄 기자회견 2 (김재운)
79	12월 17일(화)	[경주지부] 금속노조 윤석열 탄핵기 -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80	12월 30일(월)	[경주지부가 간다 10호] 쇠내나는 아저씨들의 수학여행 - 조직부수련회
81	12월 31일(화)	[경주지부] 25년 우리는 함께 승리합니다

5) 기타

구분	일자	주요 내용
대자보	1월 03일	신년사
대자보	2월 06일	새해인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자보	4월 01일	410 총선, 정당투표는 “5번 녹색정의당”, 21번 “노동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취재요청서 보도자료	7월 16일	외투 먹튀 부품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취재요청서 보도자료	7월 17일	발레오차본 지역경제 책임 촉구 기자회견 (경주시청)
취재요청서 보도자료	8월 13일	발레오 불법하도급 노동부 조사 촉구 기자회견 (노동부포항지청)
대자보	9월 11일	풍요로운 한가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입장문	12월 4일	헌법파괴, 민생파탄 윤석열을 구속하라
취재요청서 보도자료	12월 5일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 (경주시청)
대자보	12월 27일	시무식 공지 대자보
대자보	12월 30일	2025년 신년사

6) 선전교육

차 수	날짜 및 장소	토 의 안 건	참 석
1차	03월 19일(화) 10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카메라의 이해 및 사진촬영 기초교육 - 라디오 매체 체험교육	13개 지회 14명 참석
2차 (수련회)	04월 11일(목) 14시(수련회) 경주 씨로드 펜션 회의실	- 영상편집프로그램 활용교육(모바비)	19개 지회 19명 참석
3차	09월 13일(금) 10시 우영산업지회 대회의실	- 영상편집프로그램 활용교육(캡컷 기초)	17개 지회 19명 참석
4차	11월 22~23일(목~금) 10~17 시경주지부 사무실	- 영상편집 프로그램 활용교육(캡컷) - 영상제작 실습	13개 지회 14명 참석

3. 사업평가

-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3기 1년 차에도 노동계에는 윤석열 정권의 수족인 검찰들의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한 해였다.
- 13기 1년 차 사업에서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대의원대회, 발암물질 조사사업, 경주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발레오만도 조직통합 등 경주지부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조합원들에게 각종 전달 매체와 지부 소식지, 교섭속보, 영상 소식지, 조강위 소식지로 신속하게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 한해였다.
- 텔레그램방을 적극 활용하여 조합, 지부, 지회 간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주기적인 선전부 회의와 수련회를 진행해 지부 및 지회 상황을 수시로 공유, 일체성 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선전부의 단합과 결속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홍보 및 선전물에 있어, 지면을 주로 활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종 행사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영상촬영 및 편집을 진행, 유튜브를 통해 가능한 많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이 경주지부 사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추가 선전부장이 선임되기 전(9월 이전), 각종 선전물(지면소식지, 영상소식지, 대자보 등) 및 선전업무 처리에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아닌 쇼츠라는 짧은 콘텐츠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선전부장 간 효율적 일정 및 업무 분담을 통해 기존의 메시지 매체로서의 대자보 및 지면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 및 비조합원 교육을 위한 콘텐츠 및 경주지부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 23년 12기에서 진행되었던 선전역량교육에 이어, 영상제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회의와 교육을 진행한 결과, 지부와 지회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각종 영상제작 수단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지회 선전부장들의 영상제작 관련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하지만, 시간적 한계로 인해 교육 횟수가 4회로 그쳐, 새롭게 선임되는 지회의 선전부장이나 추가교육을 필요로 하는 선전 인력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미흡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교육의 회기를 늘리거나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각 지회 선전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13기 1년차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부 및 지회의 소식만을 전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부의 핵심가치와 존재이유를 널리 알리는 진정한 ‘선전’으로서, 이후 선전역량 강화 및 조직강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6-6. 총무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 지회 회계 운영 효율성 강화
- 2) 지회별 업무지원으로 통일된 총무 사업 추진
- 3) 지회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2. 주요사업

- 1) 지부 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참석 현황

순번	소속	직책	이름	01/19 1차	03/21 2차	04/25 3차	06/05 4차	07/05 5차	09/12 6차	10/31 7차	12/20 8차
1	광명산업지회	사무장	김철호	×	×	×	○	○	×	×	○
2	금강지회	사무장	김민우	○	×	×	○	○	○	○	○

3	다스지회	사무장	우영주	○	×	×	○	○	○	○	○
		총무부장	박인룡	○	×	○	×	×	○	○	○
4	KBI동국실업지회	사무장	정진식	○	○	×	×	○	○	○	○
5	두양정공지회	사무장	황성욱	○	○	○	○	○	○	○	○
6	디에스지회	사무장	성정모	×	○	○	○	×	×	×	×
7	리어코리아	사무장	김학균		×	×	○	○	○	×	○
8	명성공업지회	사무장	신민철	○	○	○	○	○	○	○	×
9	발레오만도지회	사무장	김환진	×	○	○	○	×	○	○	○
10	비투지회	사무장	이승훈	○	○	○	○	×	○	×	○
11	세진지회	사무장	강원모	○	○	×	○	○	○	×	○
12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사무장	최석신	○	○	○	×	○	○	○	×
13	아진카인텍지회	사무장	김건한	×	×	×	×	×	○	○	○
14	에코플라스틱지회	사무장	최정환	○	○	○	×	○	×	○	○
15	엠에스지회	사무장	이종대	○	×	○	○	×	×	×	×
		총무부장	윤장훈	○	×	○	○	○	○	○	○
16	엠에스정밀지회	사무장	이상호	○	○	×	○	×	×	×	×
17	우영산업지회	사무장	황신봉	○	×	○	○	○	○	×	○
18	인지컨트롤스지회	사무장	이대호	○	×	×	×	○	×	×	×
19	일진베어링지회	사무장	박광일	○	○	○	○	○	○	○	×
20	청우지회	사무장	김정현	○	×	○	○	○	×	○	×
21	코리아에프티	사무장	배성민								○
22	플라스틱옴니업지회	사무장	한승민	○	○	○	×	×	○	○	○
23	현담산업지회	사무장	이상현	○	○	○	○	○	×	○	○
24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사무장	백광민	○	○	○	×	○	×	○	×
25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사무장	남호찬	○	○	○	○	○	○	○	○
		총무부장	박병희	○	○	○	○	○	○	○	○
26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사무장	이창현	○	○	○	×	○	○	○	○
27	현대엠시트지회	사무장	김석준	○	○	×	×	×	×	×	×
28	현우지회	사무장	손은경	○	○	○	○	×	×	×	○
29	경주지부	사무국장	박진만	○	○	○	○	○	○	○	○
		총무부장	안의선	○	○	○	○	○	○	○	○
성원 : 33명				27명	22명	22명	22명	22명	21명	21명	23명

2) 지부 사무장단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차수	날짜 (2024년)	장소	주요내용
1차	1월 19일	경주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교섭요구 공문발송 현황 점검 -경주지부 지회(지부) 대의원 선거 점검 -고용안정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절차 점검 -2024년 임단투 교실 참가 논의 -지회별 폐산자 점검 및 교육 관련 논의 -13기 1년 차 경주지부 총무부 사업계획 논의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논의 - 2024년 집단교섭 의제 논의 - 청우지회 폐산자 업무지원
2차 (수련회)	3월 21~22일	경주 바다여행펜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주지부 2024년 요구안 발송 점검 -2024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경주지부 유튜브 채널 개설에 따른 홍보방식 논의 -경주지부 여성의 날 기념사업 준비 논의 -13기 지부 조합원 참여 및 사회연대 사업 점검 -경주지부 1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서(위원회)별 수련회 물품 지원 방안 논의 -총무회계 업무 관련 논의
3차	4월 25일	경주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주지부 2024년 요구안 발송 점검 -2024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경주지부 “여순항쟁” 역사 순례 준비 점검 -경주지부 각종 업체 협약 체결사업 점검 -지회별 단협DB 업데이트 점검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4차	6월 5일	경주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2024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금속노조 13기 1년 차 확대간부 교육 참가 논의 -2024년 일괄 조정신청 준비 논의 -지회별 단협DB 업데이트 점검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5차	7월 5일	경주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2024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2/4분기 감사 일정 -금속노조 총과업 경주 포항 지역결의대회 점검 -2024년 조합원 가족캠프 및 하계휴양소 참가 점검 -민주노총 경북본부 2024년 여름캠프 참가 점검 -지회 투표결과 작성 점검 -2024년 지부·지회 단체교섭 승인 및 결과 보고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6차	9월 12일	경주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2024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2024년 사업장별 보충교섭 조인식 일정 점검 -2024년 지부·지회 단체교섭 승인 보고 점검 -2024년 지부 확대 간부교육 미사용 1일 사용건 -지부 총회 시간 사용 논의 건(3시간) -8.22 경주지부 결의대회평가 논의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경주지부 13기 사무장단 하반기 수련회 논의
7차 (수련회)	10월31일~ 11월1일	거제, 무찬펜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2024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11.9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점검 -2024년 하반기 확대간부 교육 점검 -지부 13기 1년차 사업평가 의견수렴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논의
8차	12월20일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지부 2024년 미타결 사업장 점검 - 2024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경주지부 지회별 조합비 납부 현황 보고 점검 -2025년 임·단협 교섭 요구 공문발송 지침 -지회별 투표함 제작 논의 -총무회계 관련 업무논의 -경주지부 13기 1년차 총무부 사업평가 논의 -경주지부 13기 2년차 총무부 사업계획 논의

3. 사업평가

- 신규지회와 신입 사무장에 대한 업무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과 개별적 지원을 통해 지회들이 노조의 방침에 따라 회계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무장단의 교류를 통해 일상적인 지회 활동을 의논할 수 있는 노력을 해 갈 예정이다.
- 식대 범위와 수련회 지출 항목 등에 대해 지회 회계 규정과 감사 규정이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여 보완 수정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소통하여 지회 회계 규정 등을 보완해 갈 예정이다.
- 올해 투쟁기금은 지부 차량 구매와 적극적 사업으로 1억1천6백여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은 6천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후 효율적으로 지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
- 현재 노조는 회계업무와 결재 시스템을 변경 중이다. 이에 따라 지부도 변경될 예정될 예정으로 예산 확보와 업무 준비가 필요하다.

6-7. 노동안전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재해예방 활동강화
- 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 3) 중대재해 예방 및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 4)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사업 강화

2. 사업 보고

1) 회의참석 현황

순	지회명	이름	1차 01/19	2차 04/04	3차 05/10	4차 06/14	5차 07/19	6차 09/12	7차 11/14	8차 12/19
1	금강	박 재 흥	○	○	○	○	×	○	○	○
2		이 무 곤	○	○	○	○	○	○	○	○
3	다스	김 두 성	○	×	○	○	○	○	○	○
4		강 보 천	○	○	○	○	○	○	○	○
5	KBI동국실업	권 도 훈	○	○	○	○	○	○	○	○
6	두양정공	이 진 구	○	×	○	○	○	○	○	○
7	디에스시	김 도 후	○	○	○	○	○	○	○	○
8	리어코리아	이 광 희	-	-	-	-	-	○	○	○
9	명성공업	손 성 철	-	○	×	○	×	○	○	×
10		권 성 현	○	○	○	-	-	-	-	-
11	발레오만도지회	박 기 흥	○	×	×	○	×	×	×	×
12	비투지	김 재 영	-	-	-	-	-	-	-	○
13		임 민 진	×	×	○	×	○	○	-	-
14	세진	박 만 석	○	○	○	×	○	○	○	○
15	ITW경주	황 수 민	○ 부지회장	○	○	×	○	○	○	○
16	에코플라스틱	이 원 규	○	○	○	○	○	×	○	○
17		이 탁 건	○	○	×	○	○	×	○	○
18	엠에스	최 명 환	○	○	○	○	○	○	×	○
19		이 승 업	×	○	○	○	○	○	×	○

20		조현우	○	○	×	×	○	○	×	○	
21	엠에스정밀	황수정	×	○	○	○	○	○	×	×	×
22		박유준	○	○	○	○	○	○	×	-	-
23	우영산업	김국권	○	○	○	○	×	○	○	○	
24	일진베어링	박후곤	×	○	×	○	×	×	×	×	×
25		오승용	×	○	×	○	○	○	×	×	○
26	청우	박희준	○	×	○	×	×	×	×	×	
27	코리아에프티	김승태	-	-	-	-	-	-	-	-	○
28	현담산업	윤영중	○	○	○	○	○	○	○	○	○
29		김경훈	○	○	○	○	○	○	×	○	○
30	현대아이에이치엘	류태욱	○	○	×	×	×	×	○	○	
31		이현기	○	○	○	○	○	○	○	○	×
32	현대성우솔라이트	류현문	○	○	×	○	×	×	○	×	
33		윤정민	○	○	○	○	○	○	○	○	○
34	현대모비스경주물류	김종현	○	×	○	×	×	○	×	○	
35	현대엠사이트	박영식	○	○	×	○	×	×	×	×	
36	경주지부 노안부장	권형구	○	○	○	○	○	○	○	○	
37	경주지부 노안부장	이영하	○	○	○	○	○	○	○	○	
38	경주지부 부지부장	우정식	○	○	○	○	×	○	○	○	×
참석 인원(명)			29명	29명	26명	26명	24명	23명	23명	23명	26명

2) 사업장별 안전교육 집행 결과

지회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광명산업					6월말								
2	금강	18,25 비대면	15,22 비대면	21,28 비대면	18 집체교육	23 집체교육	27 집체교육	16 집체교육	22 비대면	26 집체교육	17 집체교육	21 집체교육	26 집체교육	
3	다스	23,30 동계사고	7,14	20,27	25 주,야	서면대체	19,26	서면대체	서면대체	20,27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4	KBI동국실업	18,25 동계재해예방	8 교통사고	8,14 봄철건강관 리	23,30 각종재해사 례	9,16 전기안전	14,21	10 (합동)	20,27	27	17,24	12,19	5,12	
5	동진이공	25	22	21	18	30	27	25	22	19	17	28	26	
6	두양정공	24,31	21,28	20,27	9,16	16,23	19,26	16,23	21,28	19,26	16,23	20,27	19,26	
7	디에스시	비대면		29	비대면		비대면	1,8	비대면		14,21	비대면		
8	리어코리아						1~6월 통합교육	12,25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9	명성공업	24	21	11	18	08	20	09	28	25	25	20	27	
10	발레오만도	부서별 자체실시							파업	부서자체				
11	비투지	23 영상	29 자료	미진행	미진행	23 서면	미진행	12일 영상	21 서면	26 서면	23 영상	29 영상		
12	세진	29	15,22	21,28	18,25	16,23	19,26	온라인						
13	아이티더블유 경주	29	19	18	25	20	21	19	30	26	25	27	16	
14	아진카인텍													
15	에코플라스틱	18,25	22,27	21,28	18,25	16,23	20,27	11,19	13,22	26,30	17,24	7,14	19,12	
16	엠에스	내남:11,23 황성:18,23 천북:26	내남:22,26 황성:21,27 천북:23	내남:21,28 황성:21,26 천북:22	내남:18,25 황성:18,23 천북:19	내남:23,30 황성:23,28 천북:17	내남:20,27 황성:20,25 천북:14	내남:16,23 황성:16,23 천북:12	내남:9,14 황성:9,13 천북:9	내남:23,30 황성:23,30 천북:6	내남:23,29 황성:24,29 천북:9	내남:20,27 황성:21,26 천북:29	내남:17,24 황성:19,26 천북:27	
17	엠에스정밀	24,31	21,28	서면/28	18,24	22,29	19/26	서면교육						
18	우영산업	17	22	온라인 교육										
19	인지컨트롤스	완료												
20	일진베어링	10 비대면	5 비대면	4 비대면	8 비대면	7 비대면	4,11 집체교육	8 비대면	12 비대면	2 비대면	7 비대면	4 비대면		

21	청우	18	22	29	17	22	12	24	21	25	16		
22	코레스												
23	코리아에프티												
24	플라스틱옵니엄	8,15	19,25	18,25	22,29	23,27	17,24	15,22	19,26	23,30	23,28	12,18	9,16
25	현담산업	26	29	28	26	28	7/1	24	29	26	23	11	16
26	현대아이에이치엘	18	7	21	17	20,21,23	13	3	13	10	15	5	10
27	현대성우솔라이트	24,31			17,24	22,29	19,26	17,24	미진행			20,27	
28	현대모비스경주물류	31	26	27	29	28	28	24	23	27	21	21	26
29	현대엠시트	31 산업안전	21 직업병예방	28 위험성평가	26 질병예방	28,30	20	18	9.23	3.26	30	8	비상상황교육
30	현우	17,24	14,21	13,20	17,24	22,29	19,26	17,24	14,21	11,20	16,23	20,27	11,20

3)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 사업 집행 및 점검결과

지회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환경측정		건강 검진	비 고	
	1/4	2/4	3/4	4/4	상	하			
1	광명산업					4/19일완료	11월	일반:11월	
2	금강	3/25 사전회의 3/26 본회의 완료	6/10 사전회의 6/11 본회의 완료	9/24 사전회의 9/25 본회의 완료	12/26 사전회의 12/27 본회의 예정	6/28완료	12/20	일반:10월 중검:3월~12월	
3	다스	3월	5/7상견례 9/10 5차실무 10/2 조인식	11월중	11/27 회의진행	3/28,29	9/23,24	일반:6/27~28, 7/1~2 중검:3월~12월	
4	KBI동국실업	2/27	5/28	8/30	11/21	6/18	12/11	일반:11/14	
5	동진이공								
6	두양정공	1/26	4/18	10/17		3/15	10/17	일반:7/11~8/4 중검:매3년 해당자실시	
7	디에스시	5/17 상견례	8/14 상견례 11/24 조인식			5/23,24	11/27	일반(특수):11/4,11 중검:1월~12월	
8	리어코리아		6/28상견례 8/21조인식	10/16 상견례 11/1, 5 진행중	12/11 상견례 12/18 실무	6/19		일반: 11/3, 20 중검: 매2년	
9	명성공업	1/30 상견례 2/21 조인식	4/29 상견례 및 조인식	8/23상견례 10/11조인식	10/22 상견례	6/17	12월	일반:10/17 중검:1월~12월	
10	발레오만도	3/19	6/11	10/10	11/28	5/9~10	11월	일반:3월18,26 중검:2월~8월(단협갱 신추가)	
11	비투지	5/9	6/4 상견례 8/28 완료	9/25	12/18	6월20일	12/20	일반:11월	
12	세진	1/4,2/4 6/14	통합진행	9/25		6/17	12/12	일반:9/3,10/22 중검:4월~11월	
13	아이티더블유경주	3/26실무 3/28 조인식	6/05 7/04실무 8/6 조인식	10/04 실무	12/17 12/26 12/30(조인식)	4/12	10/16	일반:5/3 중검:2월~11월	
14	아진카인텍								
15	에코플라스틱	3/18 상견례 3/18~25 실무논의 3/26 완료	6/17~19 완료	10/14~17 완료	12/16~17 완료	5/14	11/5	일반:3월 중검:3월~12월	
16	엠에스	4/8 통합 상견례 4/12 완료	10/1 통합완료			황성:6/11 내남:6/12 천북:6/25	황성:12/10 내남:12/13 천북:12/09	일반:9~10월 중검:3월~11월	특수검진 내남:9/9 황성:10/14,10/21 천북:10/23,10/24,10/28
17	엠에스정밀	3/15~21 (5차 진행) 3/28 6차 및 조인식	4차 6/28 조인식			6/17	미정	중검:3월~11월 특수검진: 미정	
18	우영산업	4/2	6/7	8/9		5/28	12/27	일반:10/15 중검:1월~	
19	인지컨트롤스	완료				3월완료			
20	일진베어링	3월진행	6/5	9/25	12월	4/17	11/20	일반:3월 중검:4월~12월	
21	청우	3/27	6/28	9/27				일반 : 11/6	

22	코레스								
23	코리아에프티								
24	플라스틱음니엄	4/2완료	8월예정	9/12	12/16	6/21	11월 예정	일반:10/1,8 총검:4/1~11/30	
25	현담산업	3/29	6/27	9/24	12/27	5/13		일반:7/5,22 총검:1월~12월	
26	현대아이에이치엘	4/8	6/24	10/07		3월완료	9월완료	일반:4/5~8 총검:3월~9월	
27	현대성우솔라이트	3월완료	6월완료	11월완료		2/14~16	8월예정	일반:8월 20~21 총검:1월~12월	
28	현대모비스경주물류	3/18	6/18	8/30	11/11			일반,총검 본인 희망일자	
29	현대엠시트	3/28 화재관련건강관리 리실운영	6/25 인바다,치료베 드 추가	8/12,13 신발건조기구매		6/21	10/11	일반:10월 총검:3월~11월	
30	현우	5/29	통합 12월 예정			5/16	12/26	일반:11/14 총검: 3~11월	

4) 노동안전위원회 회의결과

차수	일자 및 장소	주요내용	비고
1차	1월19일 경주지부	안건1. 13기 1년차 사업계획(초안) 논의 건 안건2. 13기 신입노안간부 교육 참가 건 안건3. 2023년 위험성평가 결과 취합 건 안건4. 경주지부 건강권 확보(MOU)체결 사업 건 안건5. 노안 소식지 발행 건 안건6. 2024년 경주지부 집단협약 노동안전보건 의제 논의 건 안건7. 경주지부 7차 발암물질 조사 사업의 건 안건8. 기타 건	
2차	4월4일~5일 마우나오션	안건1.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지침 건 안건2. 경주지부 지역병원 MOU 체결 사업 점검 건 안건3. 2024년 위험성평가 추진현황 점검 건 안건4. 산재보험 실태 파악 설문 조사 건 안건5. 근골 산재처리 지연 대응 투쟁 계획 논의 건 안건6. 기타 건	수 련 회
3차	5월10일 우영산업지회	안건1. 산재처리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사업 점검 건 안건2. 경주지부 지역병원 MOU 체결 사업 점검 건 안건3.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건 안건4. 기타 건 4-1) 우영산업지회 현장 안전점검 건 4-2)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참관 건	
4차	6월14일 에코플라스틱지회	안건1.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탄원 대중 서명운동 조직 건 안건2. 경주지부 지역병원 MOU 체결 사업 점검 건 안건3.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점검 건 안건4. 경주지부 발암물질 조사사업 점검 건 안건5. 기타 건 5-1) 에코플라스틱 지회 현장 안전점검 건	
5차	7월19일 디에스시지회	안건1.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참가 평가 건 안건2. 금속노조 하반기 노안사업 투쟁 논의 건 안건3. 노안사업 자료 취합 건 안건4. 기타 건 4-1) 디에스시지회 현장 안전점검 건	

6차	9월12일 세진지회	안건1. 위험성평가 실태 조사 건 안건2. 중대재해 대응지침 토론 건 안건3. 근골유해요인조사 집체교육 진행 건 안건4. 사업장별 산재현황 취합 건 안건5. 기타 건 5-1) 세진지회 현장 안전점검 건	
7차	11월14일~15일 포항	안건1. 사업장별 산재현황 취합 점검 건 안건2. 근골유해요인조사 집체교육 사업 평가 건 안건3. 13기 1년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평가 취합 건 안건4. 근로복지공단 사고성 재해 처리 문제 관련 논의 건 안건5. 기타 건 5-1) 7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결과 보고회 건	수 련 회
8차	12월19일 다스지회	안건1. 13기 1년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평가 건 안건2. 13기 2년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계획 및 지부집단교섭 의제 의견 수렴 건 안건3. 기타 건 3-1) 현장안전점검 개선사항 공유 건 3-2) 다스지회 안전점검 건	

5) 주요사업(교육) 및 투쟁 현황

일자 및 장소	주요내용
1월15일 ~ 1월16일 (경남지부)	한화오션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1월31일 ~ 2월2일 (금속 수련원)	금속노조 신임 노안간부학교
2월6일 ~ 7일 (경남지부)	성동조선지회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2월14일 ~ 2월15일 (현중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2월29일 (경주지부)	경주지부 7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기획단회의
3월19일 (세종 고용노동부)	노동부장관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3월27일 (구미지부)	위험성평가 권역별 집체교육(경북권)
3월29일 (경주지부)	발암물질 조사사업 노·사 설명회 (화학3법 교육)
4월1일 (대구노동청)	안전한 일터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4월4일 (울산)	산재경위서 작성법 교육
4월8일 ~ 4월12일 (포항)	노동부 규탄 포항지청 1인시위
4월11일 ~ 4월12일 (경주)	발암물질 조사사업 경주지부 예비조사
4월17일 ~ 4월 18일 (금속 수련원)	노안양성학교 1회차
4월24일 (서울)	안전한 일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5월5일 (곡성)	금호타이어 곡성지회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5월7일 ~ 5월10일 (포항)	산재처리지연 근로복지공단 1인시위
5월13일 (경주)	엠에스지회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5월22일 ~ 5월23일 (금속 수련원)	노안양성학교 2회차
5월24일 (세진지회)	작업중지 지역사업장 인터뷰
6월24일 ~ 6월28일 (경주)	경주지부 7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6월26일 (울산)	산재처리지연 금속노조 결의대회
6월27일 (서울)	위험성평가 기획 개선단회의
7월1일 ~ 7월2일 (일산)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7월11일 ~ 7월12일 (금속 수련원)	노안양성학교 3회차
7월15일 ~ 7월16일 (광주,아산)	경주지부 7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타지역지회)
7월23일 (경주)	위험성평가 기획 개선단회의
8월20일 ~ 8월21일 (광주)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8월21일 ~ 8월22일 (금속 수련원)	노안양성학교 4회차
8월30일 (전북)	위험성평가 기획 개선단회의
9월3일 (세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처리지연 1인시위
9월10일 ~ 9월11일 (거제)	한화오션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9월19일 ~ 9월20일 (의정부)	서울지부 능원금속분회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9월25일 ~ 9월26일 (금속수련원)	노안양성학교 5회차
10월23일 ~ 24일 (금속 수련원)	노안양성학교 6회차
10월30일 (경주)	근골유해요인조사 집체교육
11월8일 (현대차)	현대차지부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11월20일 (현대차)	현대차지부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11월27일 (경주)	코리아에프티지회 현장 안전점검
12월20일 (경주)	경주지부 7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결과보고회

3. 사업평가

- 2024년 경주지부 노동안전 보건위원회는 8차례 정례화된 회의 및 수련회를 통하여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 사업체계 및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업장별 순회 방식의 회의체계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각 사업장 노안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조합원 건강권 확대를 위하여 경주·울산지역의 병원 및 장례식장에 대하여 MOU 체결사업을 진행하며 경주지부 전체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용실태 및 추가요청 병과목에 대해서는 13기 2년차 노안 회의를 통해 점검하여 사업의 지속 및 확대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부중심의 노안사업에 대한 분기별 노안소식지 발행을 통하여 현장에 좀 더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중요성을 알린 부분은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분기별이 아닌 월별 발행, 지회별 노동안전 개선사항등 다양한 코너를 다뤘으면 현장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 경주지부 12기 지부집단교섭을 통해 변경된 지부 발암물질조사사업 주기에 맞춰 올해는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 사업장에 대하여 2023년 보완자료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였다. 신규사업장 이외 사업장의 경우 물질 구매 단계에서 현장 사용까지 msds 확인등 노·사간의 물질 자율관리 체계가 정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3기 1년차는 대다수 사업장이 신입 노안간부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맞춰 경주지부는 1월 금속노조 노안 신입간부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은 총 10차례 노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노안활동가 양성 및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냈다.
- 산재 처리지연, 불승인 등에 대하여 금속노조 노안실과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포항 근로복지공단 항의 투쟁, 1인시위 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본부 투쟁 등에 앞장서 적극 복무하였으나 현실적인 산재처리지연 단축 합의에 대한 개선방안 등은 여전히 많은 숙제로 남고 있어 지속적인 투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투쟁전술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6-8. 정책·법규·조사통계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 정책, 조통, 법규 담당자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역량 강화
- 2) 지부·지회 임·단협 지원 및 지부 집단교섭 중장기 의제 마련
-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 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4)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강화

2. 사업보고

1) 회의 및 수련회 참석 현황

순	지회 명	이름	직책	1차 1/25	2차 4/11~ 12	3차 5/22	4차 6/20	5차 7/19	6차 10/08	7차 11/08	8차 11/28~ 29
1	금강	신정섭	정책부장	○	○	○	○	○	○	○	○
2		박성환	조통부장	○	○	○	○	○	○	x	○
3	다스	신동우	정책부장	○	○	○	○	○	x	○	○
4		김철현	조통부장	○	○	○	○	○	○	○	○
5		손제호	법규부장	○	○	○	○	○	○	○	○
6	디에스시	최규철	정책부장	○	○	○	○	○	○	x	○
7		허남전	정책부장	○	○	○	x	x	○	x	x
8	발레오만도	이상수	정책부장	○	○	○	○	x	○	○	○
9	명성공업	김광준	정책부장	성원추가>>			○	x	○	○	○
10		김태훈	조사통계부장				○	x	○	x	○
11	세진	최승민	정책부장	○	○	○	○	○	○	○	○
12	리어코리아	이성관	정책부장	성원추가(신규지회)>>			○	○	○	○	○
13	일진베어링	서보정	정책부장	선임>	○	○	○	x	○	○	○
14	엠에스	이상목	정책부장	○	○	○	○	○	x	○	○
15		양광호	정책부장	○	○	○	○	○	○	x	○
16		이중희	정책부장	○	○	○	○	○	○	○	○
17	엠에스정밀	한동환	정책부장	○	○	○	○	○	x	x	x
18	우영산업	신동섭	정책1부장	○	○	○	○	○	○	○	○
19		박규령	정책2부장	○	○	x	○	x	○	○	○
20		이근형	조사통계부장	○	○	○	○	○	○	○	○
21	에코플라스틱	김현우	정책1부장	○	○	x	○	x	○	○	○
22		김준형	정책2부장	○	○	○	○	○	○	○	○
23		정운석	조사통계부장	○	○	○	○	x	○	○	○
24	현담산업	최재강	정책부장	○	x	x	○	○	x	○	○
25	현대IHL	김상민	정책부장	○	○	○	○	○	○	○	○
26	현대엠시트	권도균	조사통계부장	○	x	x	x	x	x	x	x
27	현대성우솔라이트	김지현	정책부장	○	○	○	○	○	○	○	○
28	경주지부	손해용	정책부장	○	○	○	○	○	○	○	○
29		최윤정	정책국장	○	○	x	○	○	○	○	x
참석인원				25명	24명	25명	26명	20명	25명	23명	25명

- 일진베어링지회 서보정 정책부장 성원 추가됨.(2차 회의)
- 명성공업지회 (김광준 정책부장, 김태훈 조사통계부장 성원 추가됨. 4차 회의)
- 리어코리아지회(신규지회) 이성관 정책부장 성원 추가됨.(5차 회의)

2) 회의 및 수련회 진행결과

차수	날짜 및 장소	회의 안건	참석 인원
----	---------	-------	-------

1차	1월25일(목)10:30 지부회의실	안건1. 13기1년차 지부 정책,조통,법규 사업계획 논의 건 안건2. 경주지부 운영규정 및 특별결의금 세칙 개정 논의 건 안건3. 2024년 지부집단교섭 의제 토론의 건 안건4. 기타 건	25명
2차	4월11일(목)~12일(금) 바다별펜션(양남)	안건1. 고용노동 인식조사 설문지 배포 및 취합 점검 건 안건2. 2024년 사업장 경영분석 일정 점검 건 안건3. 2024년 금속법률학교 참가 점검 건 안건4. 2024년 사업장 단체교섭 요구안 공유 건 안건5. 기타 건 (노동소법전 구입 건)	24명
3차	5월22일(목)10:00 발레오만도지회 회의실	안건1. 2024년 사업장 경영분석 일정 점검 건 안건2. 하반기 교육진행 논의 건 안건3. 금속노조 사업장 임금수준/노동시간 실태조사 점검 건 안건4. 기타 건	25명
4차	06월20일(목)10:00 일지배어링지회	안건1. 2024년 사업장 경영분석 일정 및 점검 건 안건2. 쟁의조정 신청 점검 건 안건3. 기타 건	26명
5차	05월25일(목)10:00 세진지회	안건1. 2024년 사업장 보충교섭 점검 건 안건2. 하반기 정책사업 논의 건 안건4. 기타 건	20명
6차	6월16일(목)10:00 지부회의실	안건1. 단체교섭 총괄평가 논의 건 안건2. 24년 단체교섭 의견접근(안) 공유 및 점검 건 안건3. 금속경주 법률학교 진행 및 주제 선정 건 안건4. 지부 정책담당자 수련회 일정 확정 건 안건5. 선거관리 규정 개정 논의 건 안건6. 금속노조 외투자본 대응을 위한 간담회 진행 건 안건7. 기타 건	25명
7차	7월20일(목)10:30 지부회의실	안건1. 2024년 금속경주 법률학교 점검 건 안건2. 지부 정책,조통,법규 담당자 수련회 확정 건 안건3. 기타 건	23명
8차	11월28일(목)~29일(금) 화량마을(석장)	안건1. 금속경주 법률학교 평가 건 안건2. 13기1년차 정책부 사업평가 건 안건3. 지부집단교섭 의제관련 논의 건 안건4. 기타 건	25명

3) 교육 및 조사 사업 진행 경과보고

일시 및 장소	교육,사업 내용	참석 인원
2024년 4월11일(목) 바다별펜션	-지부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지부 현안 및 사업계획 공유) 60분 (진행: 정진홍 지부장) -노,시 합의서(문서) 작성 및 사례 교육 및 발제 (50분) 최윤정 정책국장	25명
2024년 4월17(수)~19일(금)	2024년 금속노조 법률학교 (금산 청소년 수련원) -1일차: 노동조합과 법률대응,조합활동과 쟁의행위 -2일차: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교섭창구단일화,금속노조 모범단협안 해설 -3일차: 구조조정 대응 및 제무제표 보는법	4명
2024년 6월20일(목) 일진배어링지회	-주4일제 논의와 실험, 노동조합의 과제 교안 발제 (60분) (강사: 손해용 정책부장)	26명
2024년 11월8일(금)	외투자본 대응 경주지부 간담회(참여사업장)	13명

근로자복지관(2층)	:리어코리아,발레오만도,아이티더블유 경주,플라스틱옴니엄,현담산업 지회) (주관:금속노조/고은아 부위원장)	
2024년 11월19일(화) 경주근로자복지관(3층)	금속노조 경주 법률학교 1강: 노동법의 이해 (강사: 탁선호 변호사) 2강: 노사합의서 작성 실무 (강사:탁선호 변호사) 3강: 퀴즈로 알아보는 노동법 및 최신판례 (강사: 박경순 노무사)	45명
설문 및 현장조사 사업 -세대별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조사 (15명) / 다스지회 확대간부 -2024년 자동차 부품사 사업장 전수조사 -2024년 임금수준,노동시간 실태조사 / 21개 사업장 -최저임금 실태조사(급여명세서 3개월) / 22개 사업장 -현대차그룹 부품계열사 연구 현장조사 / 사업장 : 현대아이에이치엘		

4) 사업장경영분석 사업 보고

(1) 신청지회 및 사업진행 현황표

순	지회명	일정	시간	대상	회계사
1	금강	5월16일	13:40~16:40	1.2조 통합 (전조합원)	장석우 변호사
2	다스	5월22일	13:40~15:40(1조) 15:40~17:40(2조)	전 조합원(경주)	
		5월24일	13:40~15:40(1조) 15:40~17:40(2조)	전 조합원(아산)	
3	디에스시	5월17일	15:30~17:30	1.2조 통합 (전조합원)	
4	엠에스	6월17일	08:00~10:00	전 조합원	
		6월18일	13:40~15:40 15:40~17:40 (총4회)		
5	현대아이에이치엘	6월05일	13:40~15:40 15:40~17:40	주간1조, 상시주간조 주간2조	송덕용 회계사
6	일진베어링	5월10일	13:30~15:00	확대간부	
7	에코플라스틱	5월10일	15:30~17:30	확대간부	
8	세진	5월28일	13:30~15:30	주간1조(상시)	동아송강 회계법인
			15:30~17:30	주간2조	

▶ 플라스틱옴니엄,청우,두양정공지회 경영분석 비용은 지부 정책사업비로 지급함.

(2) 2024년 경영분석 사업장별 특이사항 보고

순	지회명	사업장 핵심요약(총평)
1	금강	22년 대비하여 재무구조가 향상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황은 동일하지만 지표상으로 반등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짐.
2	다스	국내 매출이 1조를 넘어가며 전년대비 15% 매출이 증가됨.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향상됨.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여 현금유동성의 어려움.
3	디에스시	전년대비 매출상승,부채 변동이 없이 양호하며 100억을 노무비로 별도 보관중(통상임금 관련)
4	세진	매출은 증가,수익성은 양호 하지만 부채율이 높아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함.
5	엠에스	군산 전기차 사업은 완전 철수.영업이익은 높지만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은 낮아짐.
6	일진베어링	법인 내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법인 간 수익율의 차이가 높음. 부채율이나 재무상태는 양호한편임.

7	현대아이에이치엘	전년대비 영업이익율은 증가하며 차임금 꾸준히 감소중 /현대모비스의 종속 관계로 사업 확장성의 어려움
8	에코플라스틱	매출은 상승하였고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양호한편임.미국 조지아 공장에 210억 투자함.

3. 사업 평가

-지부 정책,법규,조통 담당자회의는 8회 진행이 되었다.(수련회 상,하반기 포함) 정기적인 부서 회의를 통하여 사업장의 현안문제를 공유하였고 조합의 정책사업(조사사업 및 교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4년 사업장 경영분석은 8개 사업장이 신청을 하여 진행을 하였고 장석우 회계사(금속법률원),송덕용 회계사 동지가 진행하였으며 2개월에 걸쳐서 사업장별 순회하면서 조합원 교육 ,확대간부 설명회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다. 회사에서 제출하는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경영분석이 진행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수 없는 부분의 한계가 있으며 매년 진행하는 경영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또 한 금속법률원 장석우 변호사의 지역순환 근무로 인한 업무 과다로 지속적인 지부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대각선,소수 사업장인 플라스틱옵니엄, 청우, 두양정공지회는 정책사업비의 예산으로 경영분석 비용을 지원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해당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재무 상황을 설명하고 공유를 한 부분은 의미 있었고 조합원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옵니엄지회는 복수노조 사업장이지만 교섭권의 지위를 확보한 지회가 공동교섭 및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분석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현장조직화 및 교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발레오만도 외투자본의 중국산 역수입 관련하여 국회, 경주시청, 노동부(포항지청) 기자회견 자료를 준비하고 지역에 여론화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발레오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법률원과 같이 고소, 고발 등 법률대응을 진행하였다.

-금속노조의 조사통계 사업으로 2024년 임금체계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실태조사(급여명세서)취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29개 사업장 중 22개 사업장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현대계열사 부품계열사 현장 연구조사 사업에 현대아이에이치엘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금속연구원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조사통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소수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어려움이 확인이 되었지만 지부 차원의 도움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 금속법률원(경주분소) 고문계약 체결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일반 생활법률 상담(전화,방문)은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여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였다.

지부 일정으로 인하여 24년 금속법률학교 참석이 저조하였으며 법률원(경주)과 일정을 조율하여 금속 경주법률학교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정책부회의를 통하여 주제를 결정하고 금속 경주 법률원에 제안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금속경주 법률학교 평가]

- 인원을 모집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여 집중도 높은 교육이 되었다.
- 노사합의서 작성법의 사례 교육으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알게 되었다.
- 주입식 교육이 아닌 O/X퀴즈를 통한 방식으로 변경된 노동법령을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다.
- 충분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배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육이었다.
- 단체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한 교육을 준비하여 주신 법률원 동지들

에게 감사 드린다.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준비하여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였다.
-내년에도 경주 법률학교를 꼭 진행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6-9. 여성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여성위원회 내실있는 운영과 여성간부 역량 강화
- (2) 성평등·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 (3) 지역 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강화

2. 사업보고

1) 지부여성위 회의 및 수련회

차수	날짜	장소	주요내용
1	2월 2일	지부 회의실	1. 사업계획 논의 2. 2024년 여성 관련 의제 검토 3. 3.8 여성의 날 관련 4. 민주노총 경북본부 여성할당 대의원(5명) 추천 건
2	3월 4일	지부 회의실	1.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관련 사업 점검 : 여성조합원 소풍 2. 기타
3	4월 16~17일	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	[교육] 주변인 개입전략 훈련 (노조 김민정국장) 1.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사업 평가 건 2. 기타
4	5월 31일	인지컨트롤스지회	[인지컨트롤스 현장순회] 1.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수련회 참가 건 2. 기타 : 최저임금인상 투쟁 캠페인 참여 건
6	7월 12일	인지컨트롤스지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통독] 1.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수련회 평가 2. 경주지부 여성간부 수련회 개최 건 3. 기타
7	9월 6일	인지컨트롤스지회	1. 경주지부 여성간부 수련회 계획 변경 건 2. 규약 개정안 검토 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통독]
8	12월 11일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	[교육] 페미니즘 (경주여노회활동가 박슬기) 1. 1년차 사업평가 건 2. 2년차 사업계획 건

○ 참석현황

순	지회명	직책	성명	1차 0202	2차 0304	3차 0416~17	4차 0531	5차 0712	6차 0906	7차 1211
1	지부	수석부지부장	차상호	○	○	○			○	○
2		정책부장	최윤정	○	○	○	○	○	○	○
3	금강	후생복지부장	백승훈	○	○	육아휴직	○	○	○	○
4	다스지회	여성부장	황점순	○	○	○	○	○	○	○

5		여성부장	장경숙	○	○	○	○	○	○	○
6	세진지회	수석부지회장	강건우	○		교섭		교섭	업무	
7	아이티더블유경주	여성부장	서정민	○	○	○	○	○	○	○
8	인지컨트	여성부장	김혜진	○	○	○	○	○	○	○
9	롤스	여성부장	유진희	○	○	○	○	○	○	○
10	현담산업	여성문제부장	박지윤	○	○	○	○	공석	공석	공석
11	현대아이	여성부장	이영주	○	○	○	○	○	○	○
12	에이치엘	여성부장	황세정	○	○	○	○	○	○	○
				7개지회 12명	6개지회 11명	5개지회 12명	6개지회 10명	5개지회 9명	5개지회 10명	5개지회 9명

2)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사업

(1) 교육지 배포

3.8여성의 날 정신계승 교육지

2024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

1857년 뉴욕에서 섬유·의류 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작업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하고, 1908년에는 미성년자 노동금지법 제정까지 포함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시위를 벌였다. 일 년 후, 미국사회당이 이를 기념하여 국가 여성의 날(National Women's Day)을 발표하고 뉴욕시 행진을 기획한 것이 ‘세계여성의 날’의 그 시작으로 보여진다.

이후 유럽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고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한국 ‘여성의 날’의 역사와 민주노총의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한국에서의 ‘세계 여성의 날’은 1925년 조선여성동우회가 ‘국제 부녀 주간’ 기념행사를 하려 했으나 일제의 의해 행사가 금지되었고, 대신 ‘국제 부인의 날’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의 시작이다.

해방 이후에는 “3월 8일을 조선 부녀해방투쟁의 기념일로”를 강력으로 내건 조선부녀총동맹의 주도하에 민주주의 쟁권 수립, 토지개혁, 태극권 등과 함께 여성 해방을 위해 투쟁했으며, 처음으로 국제 민주여성연맹에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도 지속되는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

경주시부는 그동안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빵과 꽃 나눔으로 “생존과 존엄” 정신을 기억했고 작은 예산이지만 기념품 나눔으로 현실의 차별속에서도 무엇이 일과 삶을 꾸어가는 여성노동자들을 격려해 왔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3.8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2024년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했던 조합원 단합대회를 준비했다. 3월 8일 일요일 여성조합원 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풍”을 통해 조합원들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경주시부, 나아가 민주노총을 보다 강건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현재 각 지회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정치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서부터 사업장의 달을 넘고, 국경을 뛰어넘어 연대하고 투쟁하는 장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조합원 소풍

2024년 3월 8일(일)

구분	시간	장소
소풍	07:30~08:30	지정된 장소에서 출발
점심	09:50~10:50	영해 휴게소 집결
산책	10:00~11:00	스카이워크 산책
점심	11:00~11:30	성류굴 주차장 집결, 여성의날 기념 행사
점심	11:30~12:30	성류굴 탐사
점심	13:30~14:00	주변 거주자 신청증 지참 시 입장료 50% 할인 (입장료는 지부에서 지출)
점심	12:30~14:00	점심식사
산책	14:30~15:30	죽변 등대공원 산책
집으로	15:30	집으로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2) 현수막 게시 (5개지회 참여) 및 스티커 제작 (1,000장)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세상 모든 당당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금속노조경주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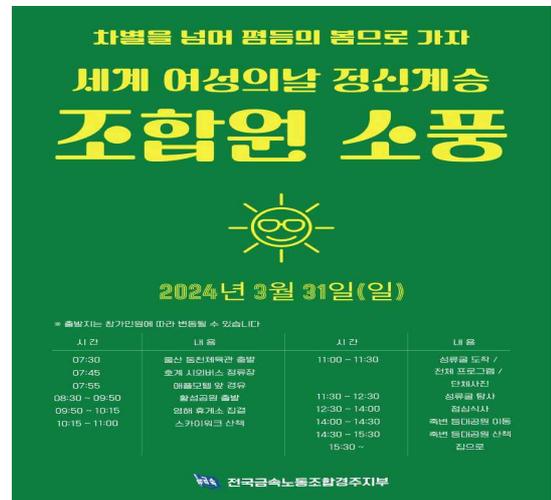
(3) 경주지역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7일(목) 11시
- 장소 : 경주시청
- 주관 : 경주여성노동자회
- 참석 : 경주여성노동자회,경북노동인권센터,민주노동총경주시협의회,전국여성노동조합경북지부 및 진보 시민단체 및 정당등
- 의제 : 성평등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내용, 총선을 대비한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4) 여성조합원 단합대회 “소풍”

- 일시 : 2024년 3월 31일(일) 08시~ 19시
- 장소 : 울진 일대
- 참가 : 8개 지회 조합원과 가족들, 경주여노회, 민주노동경북본부, 경주지부 총 180명

시간	장소
08시 /08시15분 /08시 25분	울산 동천체육관 외동 신답삼거리 외동 골프존 앞
09시 20분	항성공원 출발
10시 30분	삼사해상공원 휴식
11시30분 ~12시10분	스카이워크 ->출렁다리->후포 근린공원 ->주차장
12시45분~14시50분	성류굴도착, 전체프로그램, 점심 식사, 굴 탐방
15시30분~16시10분	죽변 등대공원
16시10분	집으로



○ 평가

-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사업으로 8개 사업장 현수막 제작, 스티커 제작, 교육지 배포, 경주시청 기자회견에 이어 3월31일 여성조합원 단합대회까지 3월 한달간 진행했다.
- 2022년에는 빵꽃 나눔 행사를 전체 지역이 진행했고 2023년에는 나눔행사와 더불어 여성간부들이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집회에 참석을 진행했었다. 올 2024년은 여성조합원 단합대회(소풍)에 방점을 두고 준비했다.
- 각 지회 여성부는 3.8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다스지회는 모듬떡, 아이티더블유지회는 간식팩, 인지컨트롤스지회는 지회명을 인쇄한 볼펜과 빵, 현담은 쿠키와 빵,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는 꽃과 빵을 지급했다. 여성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청소, 식당 등에서 일하시는 여성노동자들에게도 모두 챙겼다.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할 경우 예산의 한정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각 지회별 예산으로 진행되어 좀 더 풍성했다. 지부가 준비한 스티커를 사용해서 수월했다.
- 3월 31일 여성조합원 단합대회는 180명 정도가 참가했고 전체적으로 즐거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침 출발이 약 30분정도 지연되어 전체적으로 예정시간이 늦춰졌다.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는 했지만 마지막 코스인 죽변 등대공원은 길안내와 시간의 부족함으로 피로도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탑승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는 것과 성류굴에서 안내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 아침에 지급한 김밥이 맛있었고 이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을 13시 넘어서까지 집중력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전체프로그램은 인지컨트롤스지회장이 진행해 주었는데 지부 사업에 지회장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고 지루하지 않게 잘 진행되었다. 준비한 상품은 자녀들을 위한 상품권(30건)과 참가자 대상으로 48건을 준비했다. 민주노총경주지부와 지부장의 별도 지원도 있었다. 상품이 골고루 지급되지 않아 서운했다는 평가가 있다. 전체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짧아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짧아서 좋았다는 평가를 했다. 주최측과 참가자의 이런 차이를 좁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각 지회는 별도의 간식과 음료를 준비해서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과 나눔을 했다.
- “여성의 날 정신계승”이라는 의미는 여성 주체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사회적 관습과 억압을 헤쳐나가는 것을 결의하는 것인바 경주지부가 여성주체들의 단결의 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성과적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코로나 이전 진행되었던 단합대회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 약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로 매년 개최하는 것의 부담은 있다. 각 지회 여성부도 단합대회를 실시하는 만큼 전체가 적절히 배치되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행사를 준비하고 조직했던 여성부장동지들의 노고가 있었고 함께 만들어낸 사업들이 조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 지부 여성위원회 수련회 결과 및 평가

- 일시/장소 : 2024년 4월 16일(화)~17일(수) /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 참석 : 5개 지회 12명 참석
- 수련회 일정

4/16 (화) 1일차	
10:00 ~ 14:00	이동 및 점심식사
14:00 ~ 15:00	입소식
15:00 ~ 16:30	[교육] 주변인 개입전략 훈련 (노조 김민정 여성국장)
16:30 ~ 18:00	여성위 회의 (사업평가 및 이후 사업 논의)
18:00 ~ 20:00	저녁 식사 및 뒷풀이
4/17 (수) 2일차	
08:00 ~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 10:00	수련회 평가
10:00 ~ 12:00	주변 산책 후 해산

- 수련회 평가
 - 회의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사업이 한달동안 진행되었는데 모두 함께 잘 준비했다.
 - 주변인개입전략 교육이 좋았다.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하고 이것을 연극으로 해보니 훨씬 생생하게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연극도 재미있었다. 탁구공씨 영상이 기억에 남는다.
 - 장소가 멀었지만 침구류가 깨끗하고 조용하고 쾌적했다. 뒷풀이 안주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 황총무가 잘 챙겨주셔서 좋았다.
 - 2일차에 산행도 좋았다. 힘들었지만 함께 산행을 하니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던 듯 하다.

4)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수련회 참가

- 일시 : 2024년 6월 4일~5일 (화수)

- 장소 : 영동, 레인보우영동연수원
- 참가 : 지부, 3개 지회 총 15명
- 일정

시간	내용
[1일차]	
13:30	사전집결 - 참가자등록 및 방배치
14:00~14:10 (10분)	인사말 및 일정안내
14:10~14:20 (10분)	반가워요! 서로 인사말
14:20~15:10 (50분)	[교육] 여성노동자의 노래 배우기
15:20~16:20 (60분)	[강의] 여성의 산업재해 경험과 성인지적 노동안전보건활동
16:30~17:30 (60분)	[토론 및 발표]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더욱 성평등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17:30~	저녁식사 및 뒤편이
[2일차]	
08:00~09:30 (90분)	아침식사
09:30~12:00 (90분)	수련회 평가
12:00~	복귀

- 평가 :
 - 교육이 너무 급하게 진행된 듯하여 내용 전달이 미흡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 주요주제를 알차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아픈 부위 그리기는 모두 부담없이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길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전국 여성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수련회는 여러 사업장의 동지들과 교류하는 것의 의미도 있는데 몇 년전부터 지부, 지회 단위로 조별 편성이 되고 이것이 뒤편이까지 이어져 전국수련회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 참석자들의 복장이 불편했다. 치마, 맨발에 슬리퍼, 쪼리 등 근무시간에 모이는 수련회인데 조합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경직된 사고일 수 있으나 아직 그런 모습은 불편하다.
 - 노동가 배우기 좋았다. 다만 3곳을 다 배우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다.
 - 전체적으로 즐거웠다. 숙소도 쾌적했다.

5) 경주지역 2024 최저임금인상 투쟁 기자회견 및 캠페인, 실태조사 진행

- 기간 : 2024년 6월 한달 간 주 1회
-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1일 황성공원

차수	날짜	장소	시간	비고
1차	6월 5일	황성 5일장 앞	16시~17시 30분	
2차	6월 14일	시내 다이소 근처	16시~17시 30분	
3차	6월 21일	계림중 사거리	16시~17시 30분	지부 미조직 위원회,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 확산 참석 -커피 트럭 운영
4차	6월 28일	황리단길	16시~17시 30분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 여성간부 참석

-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참조)

6) 2024 경주지부 여성간부 수련회

- 일시 : 2023년 10월 28일(월) 13시 ~ 29일(화)
- 장소 : 성호리조트
- 참석 : 5개지회 16명, 지부 2명, 조합 2명 <총 20명>
- 일정

시간	내용	
[1일차]		
13시~13시30분	입소식	민중의례 차상호여성위원회 의장 인사말 일정 소개, 참가자 인사
13시30분~14시30분	[교육1] 노래 배우기	노조 문화국장 백일자
14시30분~14시45분	휴식	
14시45분~16시45분	MBTI 성향분석 및 다름이해와 존중하기	노조 문화국장 백일자
16시45분~17시	휴식	
17시~18시	[교육2] 민주노총 내 여성노동자 투쟁과 활동 알아보기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수정
18시~20시	저녁 및 뒤풀이	
[2일차]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수련회 평가	
10:00~	해산	

○ 평가

- MBTI 수업이 재미있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나의 성향을 확인하고 다른 성질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을 인식함. 또한 조별 논의를 통해 상호 다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의미가 있었음.
- 민주노총 여성사업을 알 수 있었고 여성할당제를 비롯해 여성간부들이 어떻게 현재의 의사결정과정에도달했는지를 알게 되었음. 매우 알찬 교육이었음.
- 타로를 통해 위로를 받았음.
- 지부 여성간부 수련회는 늘 열심히 활동하는 집회나 교육, 교섭 등 지역 사업에서 늘 만나는 여성간부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음.
- 지속적으로 여성간부 수련회가 이어지길 기대함.
- 작년에 비해 참가 인원이 축소된 점은 아쉬움.

7) 2024 성평등어우러짐 축제

- 일시 : 2024년 11월 2일(토) 13시 ~16시
- 장소 : 황성공원 입구 (계중사거리)
- 참가 대상 및 인원 : 경주시민 약 200여명
- 참여 단체 및 운영부스 주체

운영 단체	부스운영 내용	참여선물
민주노총 경주지부	전태일 사진 전시회, 즉석사진	물티슈
금속노조경주지부	성평등 다투 던지기	볼펜, 물티슈, 커피트럭(200잔)
경주다움성폭력 상담센터	부직포가방 100개, 치실100개	부직포 가방 100개, 치실 100개
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보드게임으로 놀자	할로윈 과자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평등의 전화 상담실	진행본부, 스탬프 찍어주기, 참가선물 전달	황실타올 230개, 이엠천연비누230개
경북노동인권센터	N행시 진행	떡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업! 부서라 성차별	양말 200개, 송판 200개
'너른벽'독립서점	성평 등 관련, 다양한 도서전시	
경주환경운동연합	리본달기	
참교육 학부모회	청소년 인권 뺏지 만들기	홍보물
경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성희롱,성차별, 노동상담, 모성권상담	

○ 평가

-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음.
- 10여 단체의 참가에 감사하고 체험 참가자분들에게 전달할 선물들도 준비가 잘 되어 알찬 행사가 됨.
- 보도자료 배포로 포항 mbc에 홍보영상으로 방송되어 홍보효과가 있었음.
- 금속노조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행사홍보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됨.
- 11월에 행사하는 것은 전국노동자대회 관계로 10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매년 행사 날은 10월 둘째주 토요일 또는 셋째주 토요일에 지정해서 하기로 함. 부득이한 경우 날짜를 당기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
- 체험부스는 참여단체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되었고 기념품 준비도 잘 되었음.
- 참교육학부모회가 준비한 인권뺏지 만들기는 참여자들이 좋아했음.
- 즉석 사진 촬영 체험부스는 중앙으로 배치하는게 좋겠음.
- 내년에는 노동상담부스 운영은 하지 않는게 좋을 듯함. 홍보물을 준비해서 홍보하는게 효율적일 듯함.
- 축제를 위해 준비해 주신 참가 단체들의 노고와 더불어 개개인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 형성 등 '함께 살아가기' 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
-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행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행사 영상을 만들어서 행사 취지가 잘 느껴지게 했음.

8) 교육지원

	일시	대상	주요 내용
1	3/11	지부 대의원	성평등 교육
2	3/19	엠에스정밀 조합원	성평등교육
3	4/8	발레오 조합원 (4회차)	금속노조 의무교육
4	4/12	동국대 노조 확대간부	간부의 자세와 역할
5	4/23, 30	두양정공 조합원 (2회차)	금속노조 의무교육
6	4/24	금강지회 조합원	금속노조 의무교육
7	5/3	일진베어링지회 조합원 (2회차)	금속노조 의무교육
8	5/13	당선자 의무교육	
9	5/17	인지컨트롤스 조합원 (2회차)	금속노조 의무교육
10	6/18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조합원	성평등
11	6/25, 27	현대모비스물류 경주, 냉천 조합원	금속노조 의무교육
12	6/28	당선인 의무교육 추가	당선인 의무교육
13	10/17	엠에스지회 확대간부	노선과 쟁점
14	10/22	청우지회 조합원	성평등 교육
15	10/25	현담지회 조합원 (2회차)	타임오프 제도와 대응

3. 사업평가

- 2024년 여성위원회는 내실있는 회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 지역 여성 단체와의 연대 강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 여성위원회는 총 7회차의 회의(수련회 포함)를 진행했다. 주요 사업 논의 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 책자를 각자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책을 소지하고 통독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었음에도 모든 성원들이 잘 협조해 주었다. 소중한 지부 간부 회의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한 것이었다.
- 12기 여성위원들 구성원이 많이 바뀌지 않고 13기로 이어져 멤버십이 형성되어 있었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었다. 상반기 여성위원회 수련회와 하반기 여성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여성위원수련회에서의 주변인 개입전략 훈련 교육은 모두 참여해 상황극을 만들어 시연을 했고 만족도가 높았다. 여성간부수련회는 작년에 비해 참가 인원이 축소되었다. MBTI와 공동체에서 상호 배려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좋았다는 평가이다.
 - 올해는 경주지부 여성조합원 단합대회 “소풍”을 준비했다. 여성조합원들과 가족들, 지부.지회 남성 간부들 180여명이 참여했다. 여성 조합원 참여율만 보면 전체 여성조합원 중 30%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 최저임금인상 요구 투쟁으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경주 시민 임금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21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간다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 단체와의 연대사업은 경주여성노동자회를 중심으로 여성노조경북지부와 각종 기자회견, 캠페인, 하반기 성평등어우러짐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어우러짐 축제는 3회차를 맞아 진행되었다. 이후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 관련 교섭의제를 논의한 바 있었으나 의제화되지는 못했다. 의제화를 위해서는 여성위의 의견이 아니라 지회 내의 제안과 동의를 거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듯하다.
 - 윤석열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여성단체들의 어려움이 크다. 경주성폭력상담센터는 모든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활동가 한 분의 희생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경주여노회의 경우도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기금, 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위원들은 물품 나누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옷, 신발, 가방, 모자 등을 정례적으로 모아서 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이후로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지부 여성사업은 여성 간부들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연대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이후로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7. 역사기행-여수·순천 항쟁

- 일시 : 2024년 5월 24일(금) ~ 25일(토) 12시 (1박2일)
- 장소 : 여수, 순천 일대

1. 참가 현황

지회명	참가자 수	엠에스정밀	4
금강	1	일진베어링	6
다스	5	인지컨트롤스	1
KBI동국실업	1	청우	2
디에스시	4	현대성우솔라이트	4
리어코리아	2	현대아이에이치엘	6
발레오만도	2	지부	7
비투지	3	민주노총경주지부	2
세진	5	금속 법률원	1
엠에스	3	합계	59

2. 일정

시간	내용	비고
5/24 (금) 1일차		
0700 ~ 1140	1호차 0740 황성공원 출발 2호차 0700 황성공원-호계- 동천 경유 휴게소 함안휴게소(순천방향)	김밥 제공 예정
1140 ~ 1230	점심 식사	여수 한식부페(여수시 시청서5길 8-1)
1230 ~ 1730	여수 항쟁지 일대	여수 14연대터 / (여기서부터 도보이동) 여수서초등학교, 충무로타리, 진남관, 여수경 찰서, 여수중앙초등학교 / (버스이동) 만성리 형제묘
1730 ~ 1900	저녁 식사	요트식당 (여수시 소호7길 8)
1930 ~	숙소 도착	케렌시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527-32)
5/25 (토) 2일차		
08:00 ~ 09:30	아침식사	24시대감집해장국 (여수시 시청서5길 5)
10:00 ~ 11:50	순천 항쟁지 일대	장대다리, 순천대
12:00 ~ 13:30	점심 식사	천계산장 (순천시 중앙로 515, 1층)
13:30 ~18:00	귀향	

3. 평가

- 참가 60명을 목표로 조직했다. 전날 1명이 취소하면서 59명이 참가했다. 애초 예산은 10,330,000원을 설정했으나 조식으로 김밥이 추가 제공되었고 1일차 저녁과 뒷풀이, 2일차 점심이 초과되었다. 1,193,550원이 추가되어 총 11,523,550원이 지출되었다.
- 이번 여순항쟁 역사기행은 “잊지말고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광주항쟁은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보상과 묘역과 역사지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여순항쟁지는 불모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 역사기행의 취지는 역사의 재조명을 위함인데 참가자들은 대부분 역사 인식의 주체자에 의해 역사가 재조명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승만의 정권 창출과정에서 민중들이 학살당한 과정을 이해하는 일정이

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담긴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여순항쟁의 경우 정비되지 않는 장소로 해설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금속노조 조합원인 강사동지를 섭외함으로써 과거 역사와 오늘날 노동조합과 간부로서 역할을 연계하여 재해석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강사는 참가자 공유방을 통해 기행지와 연계한 당시 사진을 공유하면서 설명했는데 이 역시 몰입도를 높이는 기재로 작용했다.

- 참가자들은 대부분 역사기행이 지속되어야 하며 다시 참석하길 희망하고 있다.

- 대오 이탈과 개별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광주항쟁 기행에서 제기된 바 있다.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고 단체행동인 만큼 문제 제기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평일 배치 의견도 있었다. 토요일을 포함하여 배치한 것은 역사기행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시간할애가 어려운 조합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식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동경로와 단체 수용 가능한 곳, 예산을 고려하여 섭외한 것으로 최선이었다.

- 역사기행 의미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도록 깃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은 이후 준비과정에 고려가 필요하다. 조합원 참여 시 조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참가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조끼 미착용을 공지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참가자들 공유방을 통해 사전에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 참가자들의 집단 교육 배치가 필요하다. 영상공유와 자료집, 현장 해설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전 안내교육 또는 숙소 내 집합 교육이 배치되었다면 내용을 더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8. 2024년 투쟁 승리! 전 조합원 결의대회

1. 취지

- 경주지부 조합원결의대회를 계기로 미타결사업장 투쟁 승리의 토대를 구축하고 발레오 투쟁에 경주지부의 결집력과 투쟁력을 집중하는 자리
- 현안 사업장에 경주지부 전체가 함께하고, 지회만의 투쟁이 아닌 함께 투쟁해서 함께 승리한다는 경주지부만의 기풍을 확립
- 노조 탄압과 혐오로 일관하고 있는 발레오 자본에 맞선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에 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 승리 결의를 높여냄.

2. 개요

- 일시 : 2024년 8/22(목), 13시
- 장소 : 발레오만도 1공장 민주 광장(변동될 수 있음)
- 참가 대상 : 미타결사업장 조합원 및 전체사업장 교섭위원/상근자

3. 순서(사회 : 황준하 지부 조직부장)

시 간	식 순	내 용	담 당
12:50 ~	대오 정비	각 지회별 조직담당자 협조 요청	조직부
13:00 ~	사회자 소개		황준하 지부 조직
13:05 ~	민중 의례	목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전체 대오
13:10 ~	깃발 입장	전체 지회 깃발/금속노조가	각 지회 조직부
13:20 ~	참가 단위 소개		각 지회 소개
13:25 ~	대회사		지부장
13:30 ~	투쟁사		조합 임원
13:35 ~	격려사		김태영 본부장
13:40 ~	문화공연	3곡	노동 가수 "이수진"
13:55 ~	투쟁사		발레오만도 지회장
14:05 ~	현장 발언	결의 발언	대의원 중 1인
14:10 ~	상징의식	종이박스 깨기	대표자
14:20 ~	파업가 제창		전체 대오

4. 평가

- 프랑스 기업 발레오는 2023년 11월부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경주지부는 발레오의 중국산 부품의 기종과 수량의 수입확대는 이후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5월부터 대책팀 구성 운영했다. 지회는 2024년 임단협 과정에서 해외 제품 반입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투쟁을 전개했다. 여론형성과 고객사 압박 전술을 운영하고 7월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 한달이 지나서도 교섭이 진척이 없자 지부 운영위는 8월19일 29차 회의에서 미타결사업장 전조합원 집중 결의대회를 발레오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 매우 짧고 준비기간이었지만, 참가 대상 미타결사업장 조합원들 80%가 넘게 조직되었고 타결사업장의 간부들도 참석해 1,600여명 집결했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결의대회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투쟁 승리의 염원이 집중되었다.
- 아쉬운 점으로 전체 구성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 문화공연이 길었다는 것, 그들로 이탈한 대오가 많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 당일 폭염을 생각한다면 야외 집회 개최 자체가 무리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타결 사업장 조합원들과 그 외 간부들 모두가 10여 년 전 발레오 자본의 노조탄압 투쟁을 기억하면서 이번 투쟁은 승리해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 경주지부는 지역과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같이 투쟁했던 역사가 있다. 이것은 산별노조, 하나의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과 동지애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가능했다. 8.22 지부 결의대회는 발레오 투쟁에 지역 전체가 집중하면 승리한다는 경주지부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결의대회로 평가한다.

9.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1. 지회 상황

- ㈜ 엠에스정밀은 2021년 12월 13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을 통하여 2022년 02월 08일 회생 개시 결정된 회사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임금체불 발생, 회생절차 미이행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사실상 임금 체불, 공장 생산 가동을 저하(20%)에 따라 고용불안, 생계 어려움이 발생하며 2024년 7월부터 휴업에 돌입함.

사측은 기업 매각을 통하여 채권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입장속에서 엠에스정밀지회의 투쟁은 시작됨.

2. 투쟁 경과

05월 → 임금체불 발생 (24.년 8월 5월분 미지급 분 지급)

06월 17일 → 부분 조업 진행 (생산율 20%)

07월 09일 지회 현안대응 TFT 구성

- TF팀 : 지부 우정식 부지부장, 권형구 노안부장,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지회 황수훈 지회장, 손창익 부지회장, 이상호 사무장, 한동환 정책부장

- 조합원 중식 간담회, 미모직 커피트럭 지원. 내부단결 프로그램 기획

- 기업 M&A 관련 정황 파악, 3개부문 분할 매각추진 확인

07월 12일 조합원 중식 간담회 총회진행 / 미조직 커피트럭 지원

07월 22일 조합원 중식 간담회 총회진행 (법률원 현안 질의 등) - 하계휴가 + 휴업

08월 06일 비상쟁대위회의 - 사측 제안 휴업에 결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생존권 사수 집중

08월 07일 경주지부 운영위 조합비 납부유예 승인

08월 08일 지노위 휴업수당 신청

08월 14일 조합원 총회 및 간담회 진행 (휴업관련)

08월 22일 클락사 → 현대이엔지 자재이관 후 일부 대금 입금 , 5월분 체불임금 지급

09월 09일 지노위 휴업수당 관련 기각

09월 13일 조합원 중식 간담회 현안 공유, 추석 재정사업 선물 지급

09월 26일 사업부문 3개 (사업, 토지, 공장) 나누어 인수의향서 접수 확인

10월 06일 조합원 총회 및 간담회

10월 08일 사업부문 인수 우선 대상자 현대이엔지 대표 면담 (경남 진주)

- 향후 사업운영 현재 고용형태 논의 어렵다는 입장 확인

- 두산 물량, A/S물량 진주공장 생산 입장

- 국책사업관련 울산지역 운영 검토

10월 21일 고용승계 없는 분리매각 반대 농성장 운영 - 지부+지회 중심 우선 결합

10월 23일 농성장 운영에 따른 인수대상 업체 철회입장 확인

10월 25일 인수 철회 공식입장 확인 공문 발송 (사업부문 업체)

11월 03일 조합원 총회 - 현안상황 공유

11월 04일 지역 지회 농성장 결합 진행 석식연대, 릴레이 순환농성 시작

11월 07일 인수 대상업체 공식입장 확인

- 사업부문업체 : 노동조합 반대시 인수거부의사 최종 확인

11월 17일 조합원 총회 - 법원측 자발적 파산 + 직권 파산 입장 확인

12월 01일 조합원 보고대회

- 공익채권 증가분 발생에 따른 법원측 회생폐지 입장

- 현재상황 공유 및 법원제출용 조합원 동의서 작성 [엠에스정밀지회와 (주)현대ENG, (주)엠에스정밀의 (주)엠에스정밀 매각 관련 합의 내용 (채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음) 에 따라 2024년 11월 30일자 퇴직에 동의]

12월 09일 법원측관리인 : 사직 동의서 무의미 11월말 사직서 + 3자간 합의서 제출요구

12월 11일 매각 진행을 위한 사직서 및 법원 제출 3자 합의서 공증 후 법원 제출

3. 평가

- 2022년 회생개시 결정 이후 2년간 채불임금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왔으나 적자구조, 회생절차 불이행, 생산 수주 실패 등 경영악화로 2024년 5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온 만큼 누적된 임금채불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 6월부터 생산 가동율이 20% 운영되며 합의된 채불임금(5월급여)지급 일자가 지나게 되며 생활고를 겪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기 시작되었다. 내부 조직력 결속을 위하여 지부 주관 단합 산행 및 간담회를 진행하며 처진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자 지도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7월 회생절차 불이행에 따라 엠에스정밀 자본의 관리인은 기업M&A 추진등의 상황이 확인되었으며 지부/지회는 TFT를 구성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를 다졌다. 경주지부는 7월12일, 22일 도시락 간담회를 통하여 매각 절차 등 현재 처한 상황들에 대하여 발 빠르게 공유하며 조직력 단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 비상쟁대위를 통하여 7월23일부 휴업에 들어가게 되며 사실상 엠에스 정밀지회의 생존권사수 투쟁이 본격화 되었으며 휴업기간중 격주 단위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상황 공유등 대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 및 소통하였으나 장기화된 임금채불, 생활고로 퇴사하는 조합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며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모아 내는 것엔 한계에 부딪혔다.

- 지노위 휴업수당 조건 미충족(매출 감소요인)에 따른 기각 결정 후 지회는 비상쟁대위를 통해 채불임금, 퇴직금 등 조합원들의 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리매각에 찬성하며 인수 우선 대상자 업체와(현대이엔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현대이엔지 측은 현재 고용형태의 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매각 진행시 고용승계에 중점을 둔 지회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회는 비상쟁대위를 열어 현상황에 대한 논의를 통해 10월 21일 고용승계없는 매각반대 농성장 운영에 돌입하였다.

- 엠에스정밀지회의 고용승계없는 매각 반대에 대한 인수 대상업체는 인수 철회 의사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은 공익채권이 늘어나는 상황과 채권단 변제율 저하의 사유로 파산절차 돌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회생절차에 따른 매각 공고 승인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인해 채불임금, 퇴직금의 저하와 지급시기가 불투명해지며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지회 확대간부들은 회생절차에 따른 매각절차 승인을 위해 채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하에 분리 매각절차 동의 및 사직서 작성에 결의하였으며 조합원 총회를 거쳐 3자간(지회,엠에스정밀,현대이엔지) 합의서를 12월 11일 법원에 제출하여 회생절차에 따른 매각 공고 승인에 총력을 기울였다.

- 경주지부는 엠에스정밀지회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지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지부+지회+지역 중심으로 농성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지회 조합원들의 생계투쟁으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의 투쟁결합력을 올리기에 힘겹고 한계에 부딪히며 주체 중심이 아닌 지부와 지역의 동지들이 결합하여 엠에스정밀 투쟁에 힘을 실어 내며 최선의 투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엠에스정밀은 회생개시결정 사업장으로 일반적인 사업장과의 결이 다른 형태의 상황이었다. 법원의 관리하에 모든 사항을 추진되어 왔으며 투쟁의 대상이 없어지는 상황, 매각후 채권단 변제율 저하, 일괄 매각 불가, 분리매각, 파산절차, 채불임금 및 퇴직금 손실 등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조합원 전체가 결속력있게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인식을 가지며 더욱더 탄탄한 경주지부를 건설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0. 경주시부 13기 1년차 사업 평가

1. 13기 1년차 사업목표와 기초

- 13기 1년차(2024년)는 윤석열정권의 노조 혐오와 탄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회계공시 및 타임오프제도를 내세워 민주노총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 내부 균열을 조장해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 사업기초는 5가지 기초로 수립되었다. 집단교섭력을 강화하되 대각선교섭 사업장까지 집단교섭의 효력확장을 꾀했고, 윤석열 정권에 맞선 노동개악-반노동정책 저지투쟁, 소수노조 사업장의 조직배가 사업을 통한 조직화 사업, 미조직·이주노동자 사업강화로 조직확대 모색, 2024년 총선 정세에 따른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 세부적으로 집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장순회 외에 임원들의 현장 결합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조합원 교육뿐만 아니라 지회 담당임원을 배치해 일상적으로 회의와 간담회 등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 소수노조 조직배가를 위해 지회 조직사업비의 지원과 전략사업장 선정을 통한 사업강화 등 안팎으로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 사업이지만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통해 조직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조합원 건강권 확대와 복지확대를 위한 다양한 업체와의 MOU체결과 안전보건점검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교육위는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화를 모색했다.
- 2024년 교섭은 지부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투쟁 전선 형성하고 사업장 보충 교섭에 지부 힘을 보태고자 했다.
- 지역 연대사업으로 사회공헌기금 대상 단체를 발굴하기로 했고 시민단체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대해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2. 주요 사업 평가

가. 노조-지부.지회 집행력 강화

- 지부 13기 1년 차는 12기 지부.지회 소통력을 강화에 중점을 둔 현장 중심 사업에 이어 노조-지부.지회로 이어지는 집행력 확보에 집중하였다. 조합원 참여사업을 통해 노동조합의 문턱을 낮추고 조직의 유대감을 제고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 우선 사업장별 담당 임원과 집행위를 배치했다. 지부장은 플라스틱옴니엄지회와 발레오만도지회 교섭에 결합했고 수석부지부장은 비투지, 두양정공 지회, 우정식부지부장은 청우지회와 수경산업(다스 사내하청) 교섭에, 이중희부지부장은 리어코리아지회와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사무국장은 현우지회에 결합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책임지고자 했다. 교섭만이 아니라 간부·조합원 간담회, 교육, 수련회 참석 등 필요한 사업을 지회와 함께 진행했다. 지부 임원 5명이 한해동안 진행한 설명회와 사업장 교육은 약 30회 정도이다. 규정 개정과 요구안 설명 등 다소 무거운 의제들에 대해 직접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하반기 비투지지회의 임원 변경 과정과 두양정공지회의 현안문제 논의는 현재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2년차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 현장순회는 3차례로 횟수를 늘려서 진행했다. 안전을 위한 현장순회용 단체복 착용과 선호도 높은 물티슈를 전달하며 조합원들과 눈을 맞추었다. 바쁜 조합원들을 번잡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일부 있지만 조합원들이 지부 간부들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지부에 대한 관심과 조직화 사업으로 상시적 현장 순회는 필요하다. 타 지부의 경우 현장 순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현장순회의 정례화 일상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 회의나 교육을 제외하고 8회의 서울 상경 투쟁을 포함해 약 32회 연 6,200명이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지부 집행위는 금속노조 오펀티칼지회 고용보장 요구 농성과 공공운수노조 수도검침원 대법판결 이행 촉구 일인시위, 엠에스정밀지회 천막농성에 결합했다. 지부 지침에 따라 모두 최선을 대해 투쟁 전선에 복무했다.
- 지부는 선전활동의 강화를 위해 영상제작이 가능한 역량을 추가 선임했다. 올 한해 약 80여편의 영상물이 만들어졌다. 조합원들에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가는 매체가 되고, 지회에서 교육시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해 갈 것이다.

나. 조직배가 사업을 통한 다수 노조 전망 발전 방안 마련

- 조직강화위원회는 조직 발전방안으로 집행 사업 결합, 내부 조직화 방안, 조직 배가 사업을 지원했다.
- 상반기사업은 토론회를 통해 조직화 주체 찾기, 복수노조-다수노조 조직전망 구축을 논의했다. 하반기는 사업장 임원 수련회를 개최하여 마음건강 돌봄과 조직 진단, 지회별 상황 단막극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복수노조, 소수 사업장의 간부로서 당면했던 내부 상황과 느낌이 표현되면서 장시간 노출된 각자의 트라우마를 서로 공감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고 지회별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구체적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조직강화위 소속 사업장은 간부시간이 부족하여 지부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

다. 때문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가야 한다.

- 조강위 내 전략사업장은 조직확대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조직강화위원회 회의는 8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사업이 유실되지 않고 참여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올해 아진카인텍지회와 코레스지회의 조합원 수가 증가했다. 또한 플라스틱옴니엄지회도 조합원 수가 대폭 확대되었고 대표노조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회의 조직활동과 지부 조직강화위원회의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이다.

다. 미조직 · 이주노동자 사업강화

- 리어코리아지회는 3월 12일에 설립하고 노조 규약에 의거 사내하청 지회와 1사 1조직 편제를 하였다. 지회 안정화를 위해 상집 선임, 대의원선거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였고, 임·단협 요구안 마련 등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결과 단체협약은 높은 수준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외투 자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섭 기간에 주요한 의제는 미국과 아시아 본사(중국)를 설득하기 위한 사전·사후 의견조율을 진행했다. 외투자본의 경우 자본 철수와 노조 혐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신규지회를 위태롭게 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하며 대응했다.
- 코리아에프티지회는 11월 7일에 조직 형태 변경으로 지회를 설립했다. 코리아에프티지회는 9년 전 경기지부 안성지회가 설립된 후 경주공장 조직화도 진행되었으나 이해 충돌로 당시에는 지회 설립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지부 안성지회는 금속노조 사수 투쟁을 통해 조직이 안정화되었으나 경주공장은 기업노조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조직 운영과 사측과 결탁한 조합원 탄압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자 초동 모임에서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 후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 전환을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계획 속에 지부 지회 간부 100여명의 지지 속에 총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 영천공단 조직화를 위해 선전전, 영천 도남공단 미조직 커피 트럭, 선전물 및 현수막 게첨 사업을 진행하며 공단 조직화 활동에 매진했다. 중·장기적인 활동 지속으로 영천지역 민주노조 조직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지부주관으로 이주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주-이주 조합원들 사이의 인식 변화와 지회 지도부와 이주조합원 사이의 틈을 좁혀가는 주요한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이주조합원들의 요구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이주-정주 노동자와 가족들이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서로 부대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 조합원 건강권 확보 사업강화 및 교육위 사업 확대

- 2024년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경주·울산지역의 병원 및 장례식장 11개소와 MOU를 체결해 조합원들의 건강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2년차는 체결 업체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추가 진료과목에 대한 MOU 체결을 검토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 분기별 노동안전보건 소식지를 발간했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사업장별 생산품, 노안 담당자들을 소개하는 코너 등을 통해 각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노안 활동 소식지에 대해 월별 발행 요구가 있어 2년차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 노동안전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금속노조 노안 양성학교를 비롯해 총 10차례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을 통해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실용성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별 현장 안전 점검, 위험성 평가, 나아가 13기 2년차에 진행될 근골유해요인조사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 13기 1년차 교육위는 간부교육 및 조합원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강의식 교육보다는 참여형 교육과 시청각 교육, 그리고 관심있는 강의와 강사 선정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연초 신입간부교육, 임단투시기 조합원 의무교육, 교섭위원 교육, 확대간부교육 등이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았다. 작년에 이어 역사순례는 여수순천항쟁으로 이어졌고 하반기 집체교육은 정세와 주4일제 주제의 강의와 문화행사를 배치했다. 2년차에는 2박3일의 지부교육 시간이 확보되었다. 13기 2년차에는 간부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실천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식을 만들 예정이다.

마. 2024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강화 및 지부 집단교섭 확대

1) 2024년 지부 집단교섭 중심 투쟁으로 전선 강화

- 지부 집단교섭은 2024년 4월 18일 더케이호텔에서 상견례를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경주지부 2024년 집단교섭 요구안은 6개 의제 ‘조합활동의 보장’(개정안), ‘조합활동’(개정안), ‘휴직자의 처우’(신설안), ‘건강진단’(개정안),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등’(개정안) ‘협약의 유효기간’(개정안)을 그리고 ‘임금인상(기본급159,800원 인상) 요구안’을 교섭 의제로 진행되었다.
- 7월 18일 엠에스지회(내남)에서 재개된 9차 교섭에서 집단교섭 의제가 의견접근되었다. 이후 10차 교섭에서 명성공업지회의 임금인상 안의 의견접근을 시작으로 9월 11일 24차 집단교섭에서 일진베어링지회가 임금인상 안 의견접근을 함으로 지부집

단교섭 사업장 임금교섭이 마무리되었다. 지부 집단협약 요구안 5개 조항이 원안 합의 되었고 1개 조항은 문구 수정되었다.

[투쟁경과]

4월15일	4월18일	6월20일	7월1일	7월4일~6일	10월31일
요구안 발송	집단 교섭 상건례	교섭 결렬 선언	일괄 조정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85.96% 가결)	조인식

- 7월 말 하계휴가 이후 임금인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지부 쟁대위는 2주간의 사업장별 성실 교섭 기간을 설정하고 8월19일부터 2-2-2-4-4-4-4 과업 돌입을 결정했다. 집단교섭 사업장의 공동과업 전술은 유지하면서 각 사업장 내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회의 교섭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전략적인 기간을 2주간 확보하고 투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자본을 압박하고자 한 것이다. 필요 시 사업장별 선 투쟁 배치도 가능했는데 올해는 발레오만도가 7월 9일부터 과업에 돌입했다.

[지부공동과업 지침]

8/18	8/19	8/20	8/21	8/22	8/23	8/24
→	2HR	2HR	2HR	4HR	4HR	특근거부
8/25	8/26	8/27	8/28	8/29	8/30	8/31
특근거부	4HR	4HR	전면파업	→	→	→

※ 발레오만도지회는 조기 과업 진행

- 발레오만도의 투쟁은 경주지부 2024년 지부집단교섭의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하는 과제였다. 지부와 지회는 5월부터 지회와 발레오 외투자본의 중국산 부품 역수입 대응팀 구성하고 역수입 반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국회, 경주시청, 노동부 기자회견 및 현대차 자본 규탄 결의대회, 경주지부 미타결사업장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양재동 본사 1인시위, 매일 과업보고 대회를 열어 투쟁지침을 전달하며 조합원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부와 함께 사측을 압박하였다. 이에 발레오 자본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집단교섭에서 임금을 제시를 하며 길었던 24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을 통해 경주지부의 투쟁력과 위상을 확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완성사의 역대 최대 이익률과 실질임금 감소라는 정세 속에서 2024년은 높은 수준의 임금 합의가 이루어졌다.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총회 부결 현상이 있었다. 부결이 수차례 반복된 곳도 있었다. 조합원들이 만족할 안이란 것은 매우 유

동적이다. 타 사업장과의 비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기대치, 사측의 태도 등 많은 이유가 있다. 집행부로서는 성실하게 의견일치안을 설명하고 조합원의 판단에 따라 투쟁과 교섭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지부집단교섭에서 임금성을 다루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은 계속 존재한다.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데 매우 필요하고 지회 임금 인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술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단순비교, 일률적인 파업 지침, 사업장의 특성 미반영 등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작년에도 진행되어 지부에서는 올해는 선타결된 사업장의 경우 지부집단교섭에서 노사 모두 제외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운영위에서는 미타결된 사측을 압박해야 함으로 교섭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 바도 있다. 현 경주지부의 투쟁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교섭방식에 대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현재 기본 시급을 제시하는 형태인데 이는 각종 수당과 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고정 OT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통상임금 소송 확대 등으로 임금 체계가 사업장마다 다르다. 때문에 각 사업장 마다 교섭위원들이 보다 입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집단교섭 장소로 지부(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많이 개최되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 교섭 초기 교섭위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복지관 강당을 사용했고, 교섭 중반기에는 발레오만도 교섭이 쟁점이 되면서 발레오만도지회 식당에서 몇차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양해해 준 사용자측 요구에 따라 교섭 후반에 복지관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순회 교섭은 조합원들에게 지부집단교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하는데 더 충실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2024년 전국단위 사업장인 현대모비스물류(경주) 7개지회 공동교섭 대표는 전년에 이어 경주지부가 맡았다. 올해 전임자 축소가 쟁점이었지만 공동파업 투쟁을 통해 전임자를 사수하고 높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단협을 마련했다.

2) 대각선 지회 집단교섭 효력 확대 투쟁 전개 영역

- 지부 내 대각선 교섭사업장(비투지, 두양정공, 현우, 청우)의 지부 집단교섭 효력 확장을 위해 대각선 교섭군 회의를 진행했고 방안과 협약 범주, 타결 방침을 논의하였다. 3차례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대각선교섭 사업장 공통의제 발굴, 시기 집중 의제화 방침을 확정하였다. 2년을 주기로 효력 확대 의제를 설정하기로 하고 올해는 조합활동, 건강권 확대로 확정했다. 타결 방침으로는 지부집단협약 효력 확장 요구안

우선 쟁취, 공동 요구안 합의 없이 사업장 보충 교섭 타결 불가를 확정하였다.

- 24년 임·단협 교섭 결과 대각선 교섭 사업장 전체가 조합활동(확대간부 교육 1박2일), 건강권(40세 이상 조합원, 배우자 건강검진)을 확보(원안 또는 상향 합의)했다. 지부 집단교섭 합의안 효력 확장력을 높이고 공동교섭의 틀을 마련하는 교섭의 상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대각선교섭 사업장(청우,리어코리아,현대성우솔라이트, 비투지, (다스)수경산업, 플라스틱옵니엄, 두양정공, 현우)은 지부의 담당임원과 상집간부를 배치하여 교섭을 관장하여 중앙 타결 방침을 적극 복무하며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 **현우지회**는 전직 간부의 조합탈퇴, 복수노조 움직임을 확인하고 조기 조정신청을 진행하며 지부와 투쟁을 전개하여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하였고,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높은 수준의 임,단협을 쟁취했다. **플라스틱옵니엄지회**는 기업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공동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토요일 유급쟁취’, ‘근무형태변경’에 합의했다. **다스지회**(수경산업)은 사내하청 정규직화 특별요구안을 조합원 총회를 거쳐 확정하고 지회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안을 이끌어 내며 비정규직 투쟁의 금속노조의 모범을 만들어 내었다. **두양정공,비투지 지회**는 생산물량의 감소로 보충교섭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지부의 담당 임원,상집과 함께 지부 차원의 고용대책 후속 대책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바. 지역사회 연대사업을 통한 대중화 사업 배치

- 2023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재정비한 사회공헌기금은 올해 9천만원이 조성되었다. 장학금, 의료지원 과 지역사회 내 진보적 가치를 확대하는 재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보수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올해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되었다. 월 1회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은 시작단계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상반기 최저임금인상 투쟁으로 캠페인과 더불어 ‘경주지역 임금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고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좋은 데이터를 축적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성평등 어우러짐축제’를 경주지역 진보적 단체들이 참여해서 운영되는데 올해 3회차를 실시했다. 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되는데 각 단체들이 준비한 부스와 기념품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며 참여한 시민들의 평가도 좋다. 특히, 지역 맘카페 등에 자발적 홍보로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되었으며 타 지역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정례적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사. 윤석열정권 비상계엄 사태와 지역 투쟁 전개

- 10월부터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함께 매주 목요일 주요 거점에서 윤석열 퇴진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 이 와중에 윤석열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민주노총은 비상 중집 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총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12월 4일 비상 중집회의를 통해 12월 5일, 6일 주·야 2H 파업과 11일 이후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지부는 노조 파업 지침과 내란범 윤석열 퇴진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12월 5일 긴급 운영위회의를 소집하고 집단교섭 사업장 전 조합원 파업, 대각선사업장 확대간부 이상 파업을 힘있게 결정하였다. 지회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석열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파업 지침에 복무하였는데 이틀동안 38개 사업장, 7,600여명이 참석했다.
- ‘12.3 계엄사태’ 발발 후 4일 동대구역 집결 선전전 및 기자회견, 5일 경주시청 기자회견 및 구 경주역 선전전, 6일 내란 정당 국민의 힘 김석기 사무실 앞 확대간부 결의대회. 7일 서울 민중총궐기 대회, 10일 11일 김석기 사무실 앞 선전전, 12일 서울 상경투쟁, 13일 김석기 사무실 앞 선전전, 14일 신라대중 앞 경주시민대회까지 투쟁을 이어갔다. 12월 14일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 속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환호 속에서 일단락되었다.
- 보수로 명명되는 경북지역 내에 파열음을 내기 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성과와 과제

가. 성과

- 2024년 12월 기준 경주지부는 30개 지회, 조합원 수는 4,683명으로 전년 대비 187명의 조합원이 증가했고 리어코리아지회와 코리아에프티지회가 신규로 가입했다.
- 다스지회가 2025년 1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고 신규지회 리어코리아지회는 기존에 금속노조에 소속되었던 비정규직지회와 통합해 1사 1조직이라는 조직적 원칙을 수행했다. 이는 자랑할 만한 큰일이라 하겠다.
- 지부의 일상사업을 조합원들로 확장시키는 것은 모든 지역지부의 바램이다. 경주지부는 올해 “조합원 참여사업”이란 주제로 당구, 이스포츠, 스크린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전체 프로그램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간부 중심의 지부 사업을 조합원들에게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는 그 시범으로 3개 종목으로

시도되었으나 이후 가족들도 참여하는 대중적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되기 전 발레오만도지회의 중국산 부품 역수입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고 임단투 시기에도 발레오를 중심으로 한 전선이 형성되었고 발레오지회의 45일간의 완강한 투쟁과 지역연대투쟁으로 부품역수입을 비롯한 외국투자회사의 횡포에 대해 일정한 반격을 이뤄냈다.
- 2024년 임단협 투쟁의 핵심 목표는 윤석열정권의 노조탄압에 대응하는 것으로 지부 집단교섭의 주요 요구도 이에 맞춰졌다. 조합활동으로 손배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 비전임자의 노조활동을 지켜냈다. 각 사업장은 실질임금인상과 완성차의 역대 최고 이익률 달성에 따른 재분배 요구투쟁을 전개했다. 결과적으로 각 사업장은 역대 최고의 임금인상을 확보했다.
- 대각선 교섭사업장은 지역집단교섭 효력 확장을 방안을 모색하고 시도했다. 현재의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 구조는 효력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효력 확장을 시도한 것과 의미있는 결과를 남긴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아진 카인텍지회와 코레스지회의 조합원 수 확장은 포기하지 않고 지부.지회가 조직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이다.
- 윤석열정권의 노조 탄압, 노조 혐오 정책에 대해 대응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에 반대를 천명했고 이에 따라 경주지부도 이를 결의했다. 또한 전임자 수 축소는 민주노조 활동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했다. 노조 2,3조 거부권을 비롯한 거부권 남발은 하반기 탄핵요구로 이어졌다. 급기야 12.3 비상계엄령 정세속에 윤석열탄핵과 국힘당 해체 요구로 모아졌다. 경주지부는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했고, 김석기 국힘 당사 앞 선전전, 거리 선전전, 지역 시민 촛불집회까지 이어갔다. 긴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상적 조직정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세를 갖추고 강화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과제

-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부 사업 확장을 모색 중이다. 올해 진행된 조합원 참여사업을 더욱 다양화하고 가족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 지난해 과제로 남겼던 경주지부 양적 확장에 따른 대의원 배정 기준을 조정했다. 그 외 각종 규칙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임원 수의 확대 필요성 여부, 묻지마 표결이 되지 않기 위한 방안, 지회 지원 강화 경로, 제기되는 지부집단교섭에서의 임금교섭 방식 변경 등이 있다. 하나씩 토론해서 결정하고 평가해 가야 할 것이다.
- 조합원 중 근 10%에 육박하는 지부, 지회 간부들은 지부 일상 활동의 근간이고 여러 측면에서 사업에 집중해 주었기 때문에 지부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가질 수 있었

다. 간부들은 전체 노동운동의 안팎의 정세에 대한 관심부터 대의원의 현장활동까지 관심과 요구 역시 다양하다. 조합이나 지부, 민주노총까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많은 주제와 방식의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간부들은 역량 강화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훈련을 갈망하고 있다. 조직의 사업과 방침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간부 역량 강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

-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발발한 정세 불안 가중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한국지엠자동차도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경주지부 내에도 희망퇴직, 전환배치, 생산성 향상 등의 사측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발레오만도지회의 생산품 역수입, 엠에스정밀지회의 체불임금에서 시작된 매각, 두양정공과 비투지 지회의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했다. 고용불안 상황이 더 확대될 것인바 이에 대해 대처가 기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의 과정에서 지부와 지회 간에 상황인식과 대응투쟁 판단이 늘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간극을 좁혀내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겠다.
- 탄핵 투쟁 이후 대통령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정치 활동 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우리의 일상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에서 모두가 확인했다. 새로운 정치 공간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세력화는 특정한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와 평등권이 확대되고 제도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역동적인 정세 변화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안건 3. 13기 2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건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경주시부 13기 2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

1. 사업 기초

-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부사업을 확장하고 집행력 강화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한다.
- 집단교섭 투쟁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노동탄압 전면 중단과 노동 의제를 제기한다.
- 미조직, 이주노동자 사업을 통해 조직확대를 도모한다.
-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정치활동을 높여낸다.

2. 사업 목표

- 1) 조합원 참여 사업 확대
- 2) 지부.지회 집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 3) 2025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형성 및 노동탄압 중단, 노동 의제 요구
- 4) 미조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 5) 정치사업 토대 마련 및 사업 전개

3. 사업 계획

- 1) 조합원 참여 사업 확대
 - 지부 사업 확장을 위한 조합원 및 가족 참여 사업 확대
 -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지부 사업 대중화
 - 지부 역사 기행을 통한 노동자 의식 함양 활동 강화
- 2) 지부.지회 집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 지부 담당제 지속을 통한 노조-지부.지회 사업 강화
 - 정례적 현장 순회와 간담회, 교육 지원 상시화
 - 신규 및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

3) 미조직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 미조직위원회 활동 확대 및 대시민 사업 강화
- 지역 공단 집중선전전 및 미조직 조직화 활동 강화
- 이주노동자 조직 및 공동체 프로그램 정례화
- 노조-지부 홍보사업을 통한 대중 활동 실현

4) 2025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형성 및 노동탄압 중단, 노동 의제 요구

- 유동적 정세 속 노동탄압 공세에 대한 조기 투쟁 전선 구축
- 산업전환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방안 의제를 통한 노동조합 역할 강화
- 노동탄압 중단, 노동법(2.3조) 개정 등 대정부 노동 의제 요구
- 통상임금 확대 적용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모색과 후속 사업 전개

5) 정치사업 토대 마련 및 사업 전개

- 정치위원회 및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 토론 확대
- 진보정치 복원 및 2026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논의체 구성
- 1조합원 1진보정당 가입 추진단 구성을 통한 생활정치 실현

4. 부서별 사업 계획

4-1. 조직부 사업

1. 사업목표

- 지부/지회 소통 강화 및 조직력 강화
-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위상 강화 및 조직력 확대
-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사업 강화

2. 사업계획

1) 지부/지회 소통 강화 및 조직력 강화

- 상시적 지회방문을 통해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하여 조직적 체계 강화
- 현장순회 강화,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부/지회간 유대감 강화
- 대각선 사업장 담당임원/상집간부를 배치하여 조직점검 및 소통체계 강화

2) 지부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위상 강화 및 조직력 확대

- 조직담당자 회의를 통한 지회 연대 사업 개발 및 체계 구축
- 조직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선동교육 실시 및 현장 활동 강화
- 지부/지회 조직담당자 조직체계 강화 및 결속력 확대

3)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사업 강화

- 대각선/복수노조 사업장 월례회의 및 간담회 강화
- 복수노조 및 소수노조 사업장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조직력 강화
- 지부차원의 조직배가 사업비 지원 및 다양한 세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서 사업을 강화

3. 사업 추진 일정

사업내용	년 월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직담당자 (조직/쟁의/선봉/문체) 회의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조직담당자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4-2. 조직강화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
- 2)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지원강화
- 3) 조직강화위원회 조직력 복원강화

2. 사업계획

1)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강화 및 조직확대

- ① 복수노조 및 소수노조 사업장의 조직강화 및 확대를 위해 지부임원과 지회임원이 참석하는 “조직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 ② 정기적으로 조직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강화 및 확대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 ③ 투쟁사업장에 대한 조직력 강화를 위해 지부 임원 및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방문 및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2)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지원강화

- ① 조직화를 위한 복수노조 사업장 교류확대 및 지부, 지회 소통강화
- ② 대각선,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지부담당자 간담회 및 정기적인 현장방문 실시
- ③ 복수노조 현장 조직력 강화 및 조직배가 사업진행, 소수 사업장 간담회 진행

3) 조직강화위원회 조직력복원 강화

- ① 장기적인 전략조직화를 계획하여 조직력을 복원한다.
- ② 조직확대 방향에 대한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전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 ③ 통합적 네트워크(밴드 및 텔레그램) 구축으로 조직력 강화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월	20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조직강화위원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2	조직강화위원회 합동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	--	----	--	--	--	--	--	--	--	--	--	--	--	--

4-3. 미조직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미조직.이주노동자 조직 및 지회별 조직사업 확대.강화
- 2) 지역 공단 집중 선전전 및 미조직 조직화 활동 강화
- 3) 노조 - 본부 - 지부 미조직 사업 활동 강화

2. 사업계획

1) 지역내 미조직.이주노동자 조직 및 조직사업 확대

- 노조-지부-지회 이주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지부-지회 소통 강화 사업
- 이주노동자 조직을 위한 조합원의 날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확대
- 신규지회 상시적 결합 체계를 통한 집행력 강화 확대

2) 지역 공단 집중 선전전 및 미조직 조직화 활동 강화

- 지역별 집중 공단조직화 (문산공단, 영천도남공단) 및 공동 실천 사업 확대
- 미조직 노동자 대면사업을 통한 노조가입 및 홍보 사업 확대
- 대시민 활동 강화를 통한 노동조합 이미지 개선 사업 전개

3) 노조-지부 미조직위원회 및 본부 미.비특위사업 확대 결합

- 노조- 지부-지회 공동 사업 확대 및 실천사업 결합
- 본부-노조 상담사례 및 조직화 과정 공유를 통한 역량 사업 확대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월	20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미조직 선전전 사업 (현수막게첨등 홍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2	미조직위원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상담 및 조직화 간담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4	이주노동자사업 (간담회.이주조합원의날등)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5	신규 조합원 간담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4-4. 교육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현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의 통일성을 높임
- 2) 조합원 및 간부교육의 다양화와 내실있는 추진
- 3) 신규, 중소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 교육사업 지원

2. 사업계획

1)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사업 통일성

(1) 교육역량강화

- 교육 관련 교육 및 수련회 참여
- 교육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2) 교육사업 통일성

- 일반교육 교류 및 의무교육실시 집중성 강화
- 교육 담당자-교육위원의 교육사업 역할 분담

2) 조합원 및 간부교육 다양화

(1) 조합원 교육

- 조합 및 지부 의무교육 지부임원 포함 강사단 운영 및 세대별 교육
- 신규/중소/조강위/복수사업장 대상 교육 배치

(2) 간부 교육

- 신임간부 교육을 매년 초에 실시
- 지부교섭위원 의무교육 집단 교섭기간 진행
- 지부 확대간부 및 현안. 기획교육 진행
-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1회 이상 진행

3) 신규. 중소지회 사업장 교육사업 지원

- 신규, 중소지회 사업장 교육지원
- 신규, 중소, 복수노조 사업장별 교육사업 추진

3. 사업 추진 일정

	사업내용	년 월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교육위원회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2	조합원, 지부 의무교육준비 강사단훈련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3	조합원 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4	교육역량강화 및 훈련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5	간부의무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6	교섭위원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7	신임간부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8	노조간부기본과정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4-5. 선전부 사업

1. 사업목표

- 1) 소통의 매개체로서 지부 사업과 활동 신속히 공유
- 2) 지회 선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배치
- 3) 지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 강화로 지부와의 일체성 강화

2. 사업계획

1) 소통의 매개체로서 지부 사업과 활동 신속히 공유

- 정례적 지부 소식지 발행
- 지부 집단교섭 속보 당일 발행
- 필요 시 대자보 등 매체 활용
- 지부 홈페이지 관리

2) 지회 선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배치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개최하는 선전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
- 글쓰기, 사진, SNS활용, 영상제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

3) 지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 강화로 지부와의 일체성 강화

- 선전부 정례 회의를 통해 지회 활동 공유
- 지회의 상황과 고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촬영물을 통한 일상활동 공유 방안 모색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월	20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련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련회)
		집행												
2	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3	소식지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4	지부 교섭 / 투쟁 속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4-6. 총무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 지회 회계 운영 효율성 강화
- 2) 지회별 업무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2. 사업계획

1) 지부, 지회 회계 운영 효율성 강화

- 조합, 지부 의결 사안에 대한 집행강화 모색
- 사무장단회의 정례화를 통한 회계업무 안정화

2) 지회별 업무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지회 간 소통 강화로 지회별 총무 기준 통일성 강화
- 총무·회계 매뉴얼, 감사기준, 단협DB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보
- 신규 지회 회계담당자 회계교육 및 역량강화

3. 사업 추진 일정

사업내용	년 월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부,지회 회계 운영 효율성 강화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지회 업무지원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사무장 및 총무 담당자 회의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사무장 및 총무 담당자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4-7. 노동안전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강화 및 노동안전보건체계구축
- 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 3) 산재 불승인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은 권리 쟁취
- 4)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사업 강화

2. 사업계획

1) 노동안전보건활동 집행강화 및 노동안전보건체계구축

- 정례화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진행
- 지회별 노동안전보건 주요 현안 파악 및 활동지원
- 산보위 미구성, 비활성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법적 대응활동 지원
- 지회별 노동안전보건사업 진행상황 점검
- 월 1회 노안소식지 발행
-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시민 선전전 등 투쟁활동 집중
-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시 급속노조 중대재해 대응지침에 따른 전 조직적 대응지원

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실무 역량강화

- 노안간부 역량강화 교육 배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안전점검방안, 산보위 실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현장 체험 실습 배치
- 지회별 안전 솔루션 구축을 위한 박람회, 안전 우수업체 방문

3) 산재 불승인 대응 및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쟁취

-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시 급속노조 중대재해 대응지침에 따른 전 조직적 대응과 예방대책 마련
- 산재 노동자들 실태 파악 및 산재 처리지연, 불승인시 대응체계 구축 (항의투쟁, 제도개선 투쟁 전개)
- 제도개선, 노동자 건강권 노안 투쟁 적극복무
- 산재 발생 및 처리 지연 관련 각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사업 강화

- 2024년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개선조치 사항 공유
- 위험성평가 실천 지침에 따른 전 사업장 전개 및 이행 점검
- 2025년 위험성평가 주도적 참여 및 위험요소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 지원(노안 담당자 회의에서 지회별 추진현황 점검)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5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노안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2	노동안전보건 집행강화 활동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3	역량강화 교육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4	산재 실태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4-8. 정책 · 법규 · 조사통계부 사업

1. 사업목표

- 1) 지부 정책, 조통, 법규 담당자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역량 강화
- 2) 지부·지회 임·단협 지원 및 지부 집단교섭 중장기 의제 마련
-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 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4)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강화

2. 사업계획

1)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강화

- 정기적 회의를 통해 조합 사업 및 정책업무에 적극 복무한다.
- 노동정세, 법규, 조사통계 관련된 교육을 배치하여 역량을 강화

2) 지부·지회 임, 단협 요구 및 대응 지원 방안 마련

-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마련 및 후속 지원사업
- 지회별 통상임금 적용관련 대책수립 및 후속 지원
- 24년 경주지부 단체협약(지회별) 모음집을 제작하여 사업장별 기초자료 활용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 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노동개약 저지 및 노동법 개정 요구 확산 방안 마련
- 금속노조-민주노총 대국민 여론화 사업에 적극 복무
-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 논의 및 지자체와 방안 마련 및 요구

4)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확보

- 금속노조 (경주) 법률원과 집단 고문 계약 체결을 통해 일상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 조합원 상시적 생활법률 상담 지원 (경주법률원) 강화
- 금속 법률학교 참가 및 지부 차원의 금속경주 법률학교 진행
- 노동법 개정 및 개약 시 내용을 분석하여 조합-지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추진 일정

사업내용	2025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의·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임단협 지원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법률대응	계획	<input type="checkbox"/>											
	집행												

4-9. 여성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여성간부 역량 강화
- 2)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 확대
- 3) 지역 연대 사업 확대

2. 사업계획

1) 여성간부 역량 강화

- 정례적 여성위원 회의 안정화 및 내용 강화
- 여성간부 수련회를 통한 동질감 확대

2) 성폭력 예방 및 평등 문화 확대

- 성폭력 예방 교육 점검
- 평등, 반차별 조직 문화 확대

3) 지역 연대 사업 확대

- 여성의 날 정신계승,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인상 요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 경주지역 임금실태 설문조사
- 지역 여성단체, 여성활동가 간담회 및 활동 공유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2024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위원회 운영 (회의, 수련회)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2	여성 간부 역량 강화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3	성폭력 예방 및 평등문화 확대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4	지역 연대 사업	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집행												

5. 교섭 및 투쟁 방침

1) 교섭방침

- 가. 중앙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한다.
- 나. 집단교섭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지부로 위임 시에 집단교섭에서 진행하며, 집단교섭미참가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대각선교섭에서 한다.
- 다. 사업장교섭은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하되 조합과 지부의 교섭방침에 따른다.
- 라. 중앙 및 지부의 통일(공동)요구안과 지부 집단협약이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협에 반영하여 요구한다.
- 마. 사업장 중 요청이 있는 사업장은 요구안 준비단계부터 조인식까지 지부가 주관한다.

2) 교섭군 편성 방안

구분	해당 사업장	비고
집단교섭	금강지회 다산지회(아산지회) 디에스시지회(광주지회) 명성공업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아산지회) 세진지회 에코플라스틱지회 엠에스지회 엠에스정밀지회 우영산업지회(광주, 천안지회) 일진베어링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요청사업장
대각선교섭	두양정공지회, 비투지지회	수석부지부장
	현우지회, 청우지회	사무국장
	리어코리아지회	이중희 부지부장
	플라스틱옵니엄지회	우정식 부지부장
별도교섭	KBI동국실업지회 (아산지회와 울산 한노총)	충남지부 주관
	현담산업지회 (아산지회)	충남지부 주관
	현대엠시트지회 (아산지회)	충남지부 주관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공동교섭진행)	대구지부 주관
	코리아에프티지회(안산지회)	경기지부 주관

3) 교섭원칙

- ①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지부 집단교섭은 매주 목요일, 사업장 보충교섭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한다.
- ② 지부 집단교섭은 사업장을 순회(가-나-다순, 오후 2시)하면서 진행하며, 사업장 별 개최가 불가할 시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부 집단교섭은 1일 1회, 정회는 노사 각 3회 이내, 시간은 08:00~17:00까지 진행한다.
- ④ 사용자 측 교섭위원은 대표이사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사유서 제출) 위임은 임원까지로 한다. (단, 상견례 및 조인식은 대표이사가 필히 참석한다.)
- ⑤ 지부 집단교섭 사회 진행과 교섭결과 작성은 회차별 노사가 교대로 진행하며, 교섭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간사가 확인 및 서명한다.

4) 교섭위원회 구성과 운영

- ① 중앙 및 지부의 임원과 부서장(실장) 그리고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섭위원 명단을 지부대의원 대회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교섭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부 쟁대위(운영위)로 위임한다.
- ② 지부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매주 집단교섭 장소로 집결하여 현장순회 등 공동투쟁을 실천한다.
- ③ 교섭위원은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교육이수 등의 지침에 반드시 복무한다.
- ④ 교섭위원 및 조합원 실천의 날을 정하여, 조합과 지부의 투쟁 방침에 따라 투쟁을 배치한다.
- ⑤ 교섭 시작 전 사전회의를 통해 교섭전략, 전술을 공유하고 교섭 종료 후에는 전체 교섭위원들이 교섭상황을 공유, 향후 교섭전략을 수립한다.
- ⑥ 매주 1회 이상 지회별로 교섭 보고대회 또는 선전전 등을 진행하여, 중앙교섭·집단교섭·지회교섭 상황을 공유한다.

5)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중앙의 방침에 따라 지부 운영위를 지부 쟁대위(투쟁본부) 체계로 전환 및 해소한다.

6) 투쟁전술

- ① 세부 투쟁 전술은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②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공동투쟁에 철저히 복무한다.
 - 가. 지부 상황실을 통하여 지부 쟁대위 결정사항에 대한 사업장별 집행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차기 쟁대위(운영위)에 보고한다.
 - 나.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지부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다. 중앙 및 지부 투쟁방침에 따라 매주 실천의 날을 진행한다.
 - 라. 공동투쟁의 조직독려를 위해 지부는 지회 쟁대위(확대간부회의)시 적극 결합한다.
 - 마. 공동투쟁이 실천되지 않으면 지부 확대간부를 해당사업장으로 동원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
 - 바.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파업전술은 사업장 보충교섭 의견접근 시까지 유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사전에 지부 쟁대위(운영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사. 지부 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 시에는 파업전술을 유보하고, 전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되었을

- 때는 익일 시업 시부터 지부 파업전술을 수행하면 지부 집단교섭에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 야. 총회 부결 시 투쟁전술 ②의 (사)에 따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임금 외 내용의 요구를 통한 교섭 및 의견접근 사항은 사전에 지부 쟁대위 승인 후 진행한다.
- 자. 교섭원칙 ④에 의거 사업장 대표이사가 상견례와 해당 사업장 집단교섭 두 번 이상 불참 시 해당 사업장은 2시간의 추가 파업을 진행한다.

7) 투쟁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

- 역할 :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진행상황과 쟁대위(운영위) 결정사항 집행점검
- 담당 : 사무국장, 총무부, 정책부

② 조직관리 및 쟁의대책팀

- 역할 : 사업장별 조직력 및 투쟁 점검, 교섭위원단(파업실천단) 운영과 투쟁전략 기획
- 담당 : 부지부장, 조직부, 미조직부, 노안부

③ 선전홍보 및 교육팀

- 역할 : 조합 및 지부의 투쟁방침과 요구안과 교섭경과에 대한 선전홍보(교섭속보 발행) 및 교육
- 담당 :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교육부, 선전부

8) 타결방침

- ① 조합의 타결 방침을 준수하며,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집단교섭 타결 없다.
- ② 지부 집단교섭 타결 없이 사업장 보충교섭 타결 없다.
(단, 대각선교섭 사업장의 타결 시기는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③ 지부 집단교섭 내에 임금(기본급, 시급, 타결금, 일시급, 성과급)관련 사항들을 포함하여 타결한다.
- ④ 보충교섭 의견접근 시 총회개최 2시간 전 운영위에 심의·승인을 요청한다.
- ⑤ 지부 집단교섭 의제 타결 후 사업장 임금이 타결(총회가결) 된 경우 노사 모두 성원에서 제외한다.

6. 13기 2년차 주요 투쟁 흐름

시기	금속노조 투쟁의 흐름	정치 국면	경주지부 사업 투쟁 흐름
1 ~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투쟁의 연장선에서 '내란세력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초기 투쟁전선 구축 • 1월 3~4일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상경투쟁 • 1월 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1주년 • 1월 22일 2025년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 1월 15일~ 2025년 투쟁 및 교섭 방침 현장 토론 전개 • 2월 20일 정기대회, 교섭 및 투쟁방침 확정 후 2025년 투쟁방침 조합원 교육 • 1~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상정, 산별교섭 법제화 법안 발의 추진 • 2월 하순 전 사업장 총회 투쟁 • 2월 이후, 윤석열 조속한 탄핵!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 정치총파업 • 3월 15일 민주노총 "(윤석열탄핵심판 촉구)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실현 범국민대회" • 2월 ILO 의건서 발표 후 노동법 개정 쟁점화 투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 교섭요구 공문발송(창구단일화) -1/20~2/26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 검토 및 토론 -2/17~18 운영위 수련회 /사업장 단위 수련회 -2월 매주 금, 시국대회 및 매일 선전전 -3/4 지부대의원대회
4 ~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초 상견례 등 산별교섭 돌입 • 4~5월경 대선 투쟁의 목표를 공유하는 노조 임원 현장 설명회와 선전전, 전 조합원 교육 •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 • 5월 지회장 결의대회 • 6월 고령노동 사회적 대책 요구 금속노조 기획 투쟁 • 5말6초 확대간부 상경투쟁 • 6월말 최저임금 인상-최임법 개악 저지 투쟁 • 5~6월 경 조기 대선 예상 	조기 대선 시기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집단교섭돌입 (매주 목), 보충교섭 돌입 (매주 화/금) ※ 정세와 투쟁방침 전조합원 의무교육 - 5/17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전노대 및 역사기행 - 조정신청 및 투쟁 계획 구체화 - 5/1 노동절 대회 ※ 5~6월 조합원 참여사업, ※ 경북본부 도보순회 투쟁
7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말 조정신청 및 쟁의권 확보, 쟁대위 구성 • 7월"내란 세력 청산, 노동법 전면개정! 19만 총파업" (※ 교섭/세부투쟁 시기는 해당 시기 쟁대위에서 결정) • 8월말~9월초 미타결 사업장 투쟁 • 9월 초 노동법 개정 쟁취 정기국회 대응 투쟁 • 9월 13일 노동기본권·사회대개혁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9월 노동법 개정 쟁취 2차 현장 순회 • 11월 15일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11월 노조 동시 선거 	신정권 취임 후 / 2025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투쟁 집중 -9월 미타결사업1장 집중투쟁 전개 - 11/8 전태일열사 신계승 전노대 - 12/6 사회대전환 쟁취 민중대회

7. 경주지부 2025년 집단교섭 요구 안

1. 조합 가입 범위 [신설]

회사는 조합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조합 규약 및 지회 규칙에 따른다.

해설> 현재 집단교섭 사업장 중 우영산업지회를 제외하고 조합가입범위를 단체협약에 제한하고 있음.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사무직 조직화가 필요한 상황임. 노동법 상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되는 자를 가입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고 협약적용의 문제만 남음. 다만 모든 지회에 가입을 진행하자는 취지는 아니며 그 유·불리는 지회에서 판단하면 됨.

2. 해외 생산품 반입 금지 [신설]

회사는 해외생산품 국내 반입 시 반드시 조합과 사전 합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해설> 국내투자를 축소하고 해외생산을 늘리면서 부품사도 해외에 진출이 많이 된 상황임. 2024년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에서 확인하였듯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역수입하여 노동조합 탄압 및 국내 고용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임

3. 자기 개발 지원[신설]

회사는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비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단, 퇴직시까지 최대 5종목, 연간한도 40만원, 증빙자료 제출)

해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경제 상황이며. 기존 직장에서 쌓은 경력이나 기술을 인정받아 재취업하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는 어려움이 있음.

회사는 회사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원 개인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 필요.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이란 사설 법인과 단체는 제외하는 것이며, 국비 지원 되지 않는 것은 제외함.

전문성 확보 : 자격증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경제적 안정 :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 및 생활을 유지

4. ESG경영 도입 [신설]

회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ESG경영을 적극 도입하며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환경(Environmental)
회사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축소를 위해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는 회사의 지붕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조례가 재정 될 수 있도록 공동 요구한다.
기존 사회공헌기금 조정을 통하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을 배치한다.

2) 사회(Social)
회사는 인권, 성별평등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 한다.

3) 지배구조(Governance)
회사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과 기후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유럽연합(EU), 미국 등 ESG공시 의무화 강화 추세임. 2026년 이후 국내 상장 기업들 부터 ESG적용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가 ‘국내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함(2024년 4월). 기후 분야부터 ESG공시 의무 추진 결정함.

자산 2조 이상 대기업 242개 중 74%이상이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중, 투자를 받거나 글로벌 진출을 위해 ESG 공시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음.

회사측은 이러한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함.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 투명 경영을 위해 요구하는 것임.

<참고자료>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으로 활로를 엿시다

- 「일자리 합동 조사」 후속 사업 제안서 보충 2024.10.28. 금속노조 정책실

- 국내 ESG 공시 기준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SG 공시 시계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 (초안 공개) 지난 4월 말, 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KSSB) 의결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 (기후 공시 의무화)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기후 외 ESG 요소에 대해서는 자율 공시로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 (국제기준 부분적 수용) 기후 공시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국제 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ISSB) IFRS* S1**, S2*** 기준을 수용했습니다.
 - * 국제회계공시기준(IFRS)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공시기준입니다.
 - **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일반 요건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사업활동이나 비즈니스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공시해야 하고, 자신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 전망 등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 *** S2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건입니다. 이 기준은 기업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의견수렴) 공시 의무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제7회 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24.09.30.)에 의견조회 최종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강하게, 넓게) 그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 70% 이상 동의했고 특히 모든 글로벌 투자자는 공개초안보다 강화된 수준의 기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스코프3(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서도 회계정보 이용자인 국내 투자자 75%, 글로벌 투자자 100%가 반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 공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ESG 공시 기준 초안> (`24.04.30. 공개)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 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한 개념적 기반과 일반 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 공시(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선택) 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 늦어도 5년 안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입을 위해 준비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 (빠르게) 투자자들(국민연금, 공무원/교직원 연금공단, 증권사, 자산운용사, 해외 국부펀드, 해외 연기금 등)은 회계연도 기준 2025년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거래소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국제 규제 대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늦어도 `29년) 기업과 경제단체는 `27년~`29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자문가들은 자율공시 현황*과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27년 또는 `28년 공시가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 * 자산 2조 이상 대기업 242개 기업 중 180여 개 기업이 이미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 중
- ** 처음 준비하는 기업이 공시까지 필요한 기간은 평균 2.6년

- (수출) EU 수출 기업은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28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추었을 때 기업이나 국가 경제가 겪을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수출대상 관할권 기업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국제 기준에 맞춘 항목들		국제 기준에 비해 완화된 항목들	
보고기업	재무제표 보고 기업과 동일	기후 외 선택	기후는 의무 공시, 기후 외 사안은 선택 공시
시나리오 분석	기후 회복력 평가 위해 시나리오 분석 수행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적용 여부 및 방안 결정
가치사슬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공시	배출량 측정 방법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요구하되,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방법론 사용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위험 및 기회가 재무 상태·성과 등에 미치는 예상 영향 공시	가능 산업 기반 지표	산업 기반 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내부 탄소가격	톤당 가격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
		기간 범위 정의	단기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로 정의

●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기준 법제화 속도는 빠릅니다.

- (유럽) EU 의회가 결의하는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별도로 법제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3.01.05. 시행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법제화된 프랑스가 `24.01.01. 시행한 이후 모두 12개국이 법률을 승인하고 지침을 이행하고 있고, 그 외 10개국이 법률을 도입했고, 2개국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11개국은 CSRD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 중입니다.
-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4. 3월에 기후 정보공시 의무화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⁹⁾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약 2,800개의 상장기업이며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상장 대기업들은 2026 회계연도부터, 2억 5천만 달러~7억 달러 미만인 상장기업들은 2028 회계연도부터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 (일본) 일본 금융청(FSA)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실무그룹을 구성해 공시제도 세부사항을 논의 중입니다. 2026년(회계연도)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프라임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전체 프라임 상장기업(`24.7월 기준 약 1,650개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호주) 202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재무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양원을 모두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법은 호주의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시 대상은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상장기업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연례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기업입니다. 호주는 1년의 공시 유예기간 이후 스코프3 배출량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영국) 이미 영국은 2006년부터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여기에 더해 국제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수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2026년 이후 ESG 공시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SEC는 동 방안에 대해 공화당 강세 주(州)를 중심으로 소송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사법적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발표(`24.4.4)

- (중국) 올해 5월 기업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지침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중국 본토 3대 증권거래소(상하이, 선전, 베이징)의 지침에 따라 500개에 달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해야 합니다.
- (수출경쟁력) 우리나라 기후 공시 의무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해외 고객사가 납품을 받는 시점에서 공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는 즉시 수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총괄] 2025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1. 제 00조 【조합 가입 범위 활동의 보장】 신설

회사는 조합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조합 규약 및 지회 규칙에 따른다.

2. 제 00조 【해외 생산품 반입 금지】 신설

회사는 해외생산품 국내 반입 시 반드시 조합과 사전 합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제 00조 【자기 개발 지원】 신설

회사는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비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단, 퇴직시까지 최대 5종목, 연간한도 40만원, 증빙자료 제출)

4. 제 00조 【ESG경영 도입】 신설

회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ESG경영을 적극 도입하며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환경(Environmental)

회사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축소를 위해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는 회사의 지붕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공동 요구한다.

기존 사회공헌기금 조정을 통하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원을 배치한다.

2) 사회(Social)

회사는 인권, 성별평등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한다.

3) 지배구조(Governance)

회사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과 기후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5. 제 106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 수정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0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안건 4. 13기 1년차 경정예산 및 13기 2년차 가예산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건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관련 규정] 회계 규정 제9조 (가예산, 경정예산)

4항) 지부의 가예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정예산의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1. 13기 1년차 경정 예산 (15차 쟁대위 (37차 운영위) 24.10.28 의결)

1. 일반회계 수입

과목			목 번	내역	예산(단위, 원)
관	항	목			
교부 금	교부금	교부금	1	교부금 1인 4,413원 × 4,448명 × 7월 = 137,403,168 교부금 1인 4,547원 × 4,448명 × 5월 = 101,125,280 (조합원 수는 2024년 1월 10일 기준) 8월부터 물가상승 3.1%적용	238,528,448
기타 수입	기타 수입	기타 수입	2	예금이자	20,000
합계					238,548,448

2. 일반회계 지출

과 목			목 번	내역	24년 예산안	경정 예산안	목별 지출 율%
관	항	목					
운 영 비	유 지 비	사무실관리 비	1	정수기 렌탈료 30,000 × 12월 = 360,000	360,000	360,000	0.1%
		신문도서비	2	주간지 1년 225,000 × 2(경향, 한겨레) = 450,000 기타 도서구입비 = 150,000	600,000	600,000	0.2%
		소모품비	3	프린터 토너 등 100,000 × 6회 = 600,000 A4복사용지 22,000 × 10박스 × 12월 = 2,640,000 기타 소모품비 = 500,000	3,740,000	3,740,000	1.6%
		통신비	4	뿌리오(SMS) 100,000 × 12월 = 1,200,000 (748-3223, 773-9481, 773-9270(FAX) 전화 인터넷 요금 100,000 × 12월 = 1,200,000 우편 발송료 10,000 × 12월 = 120,000	2,520,000	2,520,000	1.0%
		인쇄비	5	복사기 임대료 180,000 × 12월 = 2,160,000	2,160,000	2,160,000	0.9%
		기타유지비	6	커피 및 음료 200,000 × 12월 = 2,400,000 문구류 및 각종 비품구입 등 100,000 × 12월 = 1,200,000	3,600,000	3,600,000	1.5%
		방송차	7	유류비 70,000 × 10회 × 12월 = 8,400,000	13,890,000	13,890,000	6.2%

	유지비		엔진오일 200,000 × 6회 = 1,200,000 세금(자동차세, 환경분담금)135,000 × 2대 = 270,000 신차 자동차 세금 = 700,000 보험료 = 700,000 기타유지비 = 3,500,000			
	복리후생비	8	식대 10,000 × 22일 × 14명 × 12월 = 36,960,000 타지역 유류 지원비 300,000(5명) × 12월 = 3,600,000	41,440,000	41,440,000	17.0%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9	지부장 30만 + 수석부지부장 25만 + 부지부장(2명), 사무국장 각20만(115만) × 12월 = 13,800,000 상집부장(150,000 × 11명 = 1,650,000원) × 12월 = 19,800,000	34,318,448	34,318,448
운영비 합계				102,628,448	102,628,448	42.6%

관	과 목		목 번	내역	24년 예산안	경정 예산안	목별 지출율 %			
	항	목								
사 업	여비	출장비	10	신분보장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징계위원회회의 120,000 × 6회 = 720,000 단협위원회 120,000 × 10회 = 1,200,000 조직부회의 120,000 × 12회 = 1,440,000 문화담당자회의 120,000 × 5회 = 600,000 교육위원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선전부회의 120,000 × 6회 = 720,000 노안부회의 120,000 × 12회 = 1,440,000 미조직위원회 120,000 × 12회 = 1,440,000 여성위원회의 120,000 × 6회 = 720,000 감사위원회회의 120,000 × 4회 = 480,000 기타 회의 120,000 × 50회 = 6,000,000	14,760,000 (+2,400,000)	17,160,000	6.2%			
				회의비	대의원대회	11	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기타 = 7,000,000	7,000,000	7,000,000	2.9%
					운영위원회	12	운영위 900,000 × 4회 = 3,600,000	3,600,000	3,600,000	1.5%
					집행위원회	13	집행위 320,000 × 6회 = 1,920,000	1,920,000	1,920,000	0.8%
				수련회 비	간부수련회	16	운영비 10,000 × 5명 × 20일 × 4분기 = 4,000,000 지부 감사위원회의 20,000 × 30명 × 4회 = 2,400,000 감사위원 수련회 60,000 × 30명 = 1,800,000	8,200,000	8,200,000	3.4%
							운영위 10,000 × 5명 × 20일 = 1,000,000 회의 및 투표용지 제작 600,000 × 2회 = 1,200,000	2,200,000	2,200,000	0.9%
							집행위 수련회 60,000 × 16명 × 2회 = 1,920,000 운영위 수련회 60,000 × 45명 × 1회 = 2,700,000 자료집, 장소 대여, 기타 200,000 × 3회	5,220,000	5,220,000	2.2%

비			= 600,000				
	조직사업비	24	조직부 회의(조직 진단 포함) 20,000 × 50명 × 6회 = 6,000,000 조직담당자 수련회 60,000 × 50명 × 2회 = 6,000,000 조직 사업비(간담회, 집회행사, 자료, 장소 대여 등) = 16,000,000 조직담당자 교육(외부강사 초빙) 500,000	23,500,000 (+5,000,000)	28,500,000	9.9%	
	조강위 사업비	25	조강위 회의비 20,000원 × 14명 × 4회 = 1,120,000 조강위 확대임원 수련회 60,000 × 40명 × 1회 = 2,400,000	4,080,000 (-560,000)	3,520,000	1.7%	
	미조직 사업비	19	미조직 회의 20,000 × 20명 × 6회 = 2,400,000 미조직 수련회 60,000 × 20명 × 2회 = 2,400,000 선전물, 현수막, 선전물품 = 1,000,000 조직화 상담 및 간담회 = 500,000 이주노동자사업 (통역사업비) = 1,000,000 이주조합원날 행사 지원 = 2,000,000 신규조직진단 (신규조합원 간담회 및 지회 지원) = 1,500,000	11,300,000 (-500,000)	10,800,000	4.7%	
	부서 사업비	교육사업비	23	교육 위원회 회의 20,000 × 18명 × 6회 = 2,160,000 교육위 수련회 60,000 × 18명 × 2회 = 2,160,000 강사비 300,000 × 2회 = 600,000 강의실, 비품 300,000 × 2회 = 600,000 조합원 교육, 간부교육 20,000 × 20명 × 3회 = 1,200,000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20,000 × 10명 × 3회 = 600,000	8,320,000 (-1,000,000)	7,320,000	3.6%
	선전사업비	20	선전부 회의 20,000 × 15명 × 6회 = 1,800,000 선전부 수련회 60,000 × 15명 × 2회 = 1,800,000 강사료 및 장소대여 = 1,200,000 선전물 제작용 프로그램 (대자보 및 선전홍보물, 선전물 프로그램 구입비) = 500,000 장비 유지 보수비 = 1,000,000	6,800,000 (-500,000)	6,300,000	2.8%	
사업비	총무사업비	18	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 20,000 × 25명 × 6회 = 3,000,000 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수련회 60,000 × 25명 × 2회 = 3,000,000 지회지원, 간담회, 장소대여, 교육 = 1,000,000	9,160,000 (-2,160,000)	7,000,000	3.8%	
	노안사업비	21	노안부 회의 20,000 × 30명 × 6회 = 3,600,000 노안부 수련회 60,000 × 30명 × 2회 = 3,600,000 발암물질 조사사업 회의비 20,000 × 20명 × 2회 = 800,000 노안위 사업비(장소대여, 강사비, 선전홍보비) = 500,000	10,500,000 (-1,000,000)	9,500,000	4.4%	

		정책/조통 사업비	22	정책/조통/법규 회의비 20,000 × 20명 × 6회 = 2,400,000 정책/조통/법규 수련회 60,000 × 25명 × 2회 = 3,000,000 강사비, 회의실 = 600,000 경영분석 (대각선 복수노조사업장 경영분석비용 지원, 각종 사업비) = 2,500,000 미래산업 노사공동위 20,000 × 7명 × 4회 = 560,000	10,060,000 (-1,000,000)	9,060,000	4.3%
		여성사업비	17	여성위원회 회의 20,000 × 13(10)명 × 6회 = 1,200,000 여성위원회 수련회 60,000 × 13명 × 1회 = 780,000 여성간부 수련회 60,000 × 20명 × 1회 = 1,200,000 장소대여, 강사비 = 0 사건상담 및 조사, 간담회, 홍보 = 120,000	5,300,000 (-2,000,000)	3,300,000	2.2%
연대 사업비		대의협력비	26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 금속지부 및 지회 = 4,000,000	4,000,000	4,000,000	1.8%
사업비 합계					135,920,000	127,300,000	53.1%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7	예비비	0	1,320,000	0.3%
합 계					238,548,448	238,548,448	100%

3. 경정예산 변경 사항

- 1) 조직사업비 예산이 23,500,000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다양한 사업 및 발레오만도,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등의 예산 집행에 따른 조직사업비 예산이 부족함.
- 2) 출장비 예산은 부서별 1인 기준으로 조합회의 등의 출장비로 편성되었으나, 부서별 집행위 인원의 증가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쟁 지침 등과 같은 예측되지 않은 출장 횟수가 늘어남에 따른 출장비 예산이 부족함.
- 3) 부서 사업비 중 8,720,000원을 조직사업비와 출장비로 수정하면 조직사업비는 28,500,000원으로 변경, 출장비는 17,160,000원으로 변경됩니다.

2. 13기 2년차 가 예산 (19차 정대위 (41차 운영위) 24.12.2 의결)

- 202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7,0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6,300명입니다.
-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96,300명 \times 27,000원 \times 0.17 = 442,017,000원$ 입니다.
(지부교부금은 18%이나, 공동투쟁사업비 1%를 제외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지부교부금은 월 5,500,000원으로 가편성 합니다.
전체 지부 몫에서 5,500,000원이 지급되면 436,517,000원이 남게 됩니다.
-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4,533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수입은 $최저교부금 +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times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 이 됩니다.
- 최저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부의 월(한달) 수입은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 \times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 입니다.

1. 13기 2년차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가 예산)

구분	2025년 01월~ 2025년 03월 (월수입)
최저교부금 0	최저교부금 + (4,533원 × 지부(납부)조합원 수)
최저교부금 x	4,533원 × 지부(납부) 조합원 수
※ 지부(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2. 경주지부 2025년 01월 ~ 03월 가 예산(안)

1) 수입현황

과목			목 번	내 역	가 예산	비고
관	항	목				
교부 금	교부 금	교부 금	1	교부금 1인 4,533원 × 4,677명 × 3월 = 63,602,523원 (조합원 수는 2024년 11월 25일 기준)	63,602,523원	
기타 수입	기타 수입	기타 수입	2	예금이자	5,000원	
합계					63,607,523	

2) 지출현황

과 목		목 번	내역	1~3월 가예산	목별 지출율 %	
관	항					
운 영 비	유 지 비	사무실관리비	1	식수구입 30,000 × 3월 = 90,000원	90,000	0.1%
		신문도서비	2	주간지 1년 225,000 × 2(경향,한겨레) = 450,000원 기타 도서구입비 = 150,000원	600,000	0.9%
		소모품비	3	프린터 토너 등 100,000 × 2회 = 200,000원 A4복사용지 23,000 × 10박스 × 3월 = 690,000원 기타 소모품비 = 200,000원	1,090,000	1.7%
		통신비	4	뿌리오(SMS) 100,000 × 3월 = 300,000원 (748-3223,773-9481,773-9270(FAX)) 90,000 × 3월 = 270,000원 우편 발송료 10,000 × 3월 = 30,000원	600,000	0.9%
		인쇄비	5	복사기 임대료 180,000 × 3월 = 540,000원	540,000	0.8%
		기타유지비	6	커피 및 음료 200,000 × 3월 = 600,000원 문구류 및 각종 비품구입 등 100,000 × 3월 = 300,000원	900,000	1.4%
		방송차 유지비	7	유류비 70,000 × 10회 × 3월 = 2,100,000원 엔진오일 100,000 × 4회 = 400,000원 보험료 = 1,800,000원 기타유지비 = 1,500,000원	5,800,000	9.1%
		복리후생비	8	식대 10,000 × 22일 × 17명 × 3월 = 11,220,000원	11,220,000	19%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9	지부장 30만 + 수석부지부장 25만 + 부지부장(2명), 사무국장 각20만(115만) × 3월 = 3,450,000원 상집부장(150,000 × 12명 = 1,800,000원) × 3월 = 5,400,000원 타지역 직무수당 50,000원 × 6명 × 3월 = 900,000원	9,750,000	14%
운영비 합계				30,590,000	48%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0	신분보장회의 120,000 × 3회 징계위원회회의 120,000 × 3회 단협위원회의 120,000 × 3회 조직부회의 120,000 × 3회 문화담당자회의 120,000 × 3회 교육위원회의 120,000 × 3회 선전부회의 120,000 × 3회 노안부회의 120,000 × 3회 미조직위원회 120,000 × 3회 여성위원회의 120,000 × 3회 감사위원회회의 120,000 × 1회	4,920,000	7.7%

				기타 회의 120,000 × 10회		
회의비	대의원대회	11	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기타 = 7,000,000원	7,000,000	11%	
	운영위원회	12	운영위 900,000 × 1회 = 900,000원	900,000	1.4%	
	집행위원회	13	집행위 340,000 × 1회 = 340,000원	340,000	0.5%	
	감사위원회	14	운영비 10,000 × 5명 × 20일 × 1분기 = 1,000,000원 지부 감사위원회의 20,000 × 35명 × 1회 = 700,000원	1,700,000	2.7%	
	선관위원회	15	운영비 10,000 × 5명 × 20일 = 1,000,000원	1,000,000	1.6%	
수련회비	간부수련회	16	집행위 수련회 60,000 × 17명 × 1회 = 1,020,000원 운영위 수련회 60,000 × 45명 × 1회 = 2,700,000원 자료집, 장소 대여, 기타 200,000 × 2회 = 400,000원	4,120,000	6.5%	
부서 사업비	여성사업비	17	여성위원회 회의 20,000 × 12명 × 2회 = 480,000원	480,000	0.7%	
	총무사업비	18	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 20,000 × 34명 × 2회 = 1,360,000원	1,360,000	2.1%	
	미조직 사업비	19	미조직 회의 20,000 × 21명 × 2회 = 840,000원 미조직 상담, 간담회, 선전물 = 1,000,000원	1,840,000	2.9%	
	선전사업비	20	선전부 회의 20,000 × 21명 × 2회 = 840,000원	840,000	1.3%	
	노안사업비	21	노안부 회의 20,000 × 35명 × 2회 = 1,400,000원	1,400,000	2.2%	
	정책/조통 사업비	22	정책/조통/법규 회의비 20,000 × 30명 × 2회 = 1,200,000원	1,200,000	1.9%	
	교육사업비	23	교육 위원회 회의 20,000 × 20명 × 2회 = 800,000원	800,000	1.2%	
	조직사업비	24	조직부 회의(조직 진단 포함) 20,000 × 46명 × 2회 = 1,840,000원 조직 사업비(간담회, 집회행사, 자료, 장소 대여 등) = 1,500,000원	3,340,000	5.3%	
연대 사업비	조강위 사업비	25	회의비 20,000원 × 12명 × 2회 = 480,000원	480,000	0.8%	
	대외협력비	26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 금속지부 및 지회 = 300,000원	300,000	0.5%	
사업비 합계				32,020,000	50.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7	예비비	997,523	1.6%
합 계				63,607,523	100%	

3. 금속노조 지역공동사업비 편성 및 산정방식

■ 지역지부에 속한 조합원(조합비)의 경우

- 1) 202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7,0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6,300명입니다.
- 2) 지역지부의 1개월 지역공동사업비는 $96,300\text{명} \times 27,000\text{원} \times 0.01 = 26,001,000\text{원}$ 입니다.
전체 지역·기업지부 몫에서 최저공동 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최저공동교부금은 현재 월 3,000,000원
으로 최저공동교부금은 전체 지역·기업지부 지역공동사업비 금액의 약 6.0% 정도입니다.
6.0%를 제외한 금액인 24,440,940원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54원이 나옵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3)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지부(조합비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납부 조합원 수 중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4. 경주지부 2024년 01월 ~ 03월 지역공동사업비(특별회계) 편성

과목			목 번	내 역	가 예산	비고
관	항	목				
		지역공동사업비	1	교부금 1인 254원 × 4,677명 × 3월 = 3,563,874원	3,563,874원	

안건 5. 13기 2년차 예산(일반·특별회계)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지역지부 교부금 산정방식

- 1) 202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6,500원으로 산정함.
지역지부 전체 조합원은 96,600명임.
- 2)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96,600\text{명} \times 26,500\text{원} \times 0.18 = 460,782,000\text{원}$ 임.
(지부교부금은 19%이나, 지역공동사업비 1%를 제외한 비율로 계산)
- 3)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됨. 4개 지부에 월 7,500,000원이 지원됨.
전체 지부 몫에서 7,500,000원이 지급되면 453,282,000원이 남게 됨.
- 4)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4,693원**이 나옴.
(원단위 미만 올림)
- 5) 같은 방식으로 2025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4,836원**임.
- 6)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수입은 $\text{최저교부금} + (\text{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times \text{지부(납부)조합원수})$ 이 됨.
- 7) 최저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text{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times \text{지부(납부)조합원수}$ 임.
- 8)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 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됨.
- 9) 아래는 최저교부금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임

인원	금액	대상지부
2,000명 이하	2,500,000원	구미, 부산양산
2,500명 이하	1,500,000원	전북
3,000명 이하	1,000,000원	대구

[지부교부금 계산 방법정리]

구분	2025년 1월~2025년 7월 (월 수입)	2025년 8월~2025년 12월 (월 수입)
최저교부금 ○	최저교부금+(4,693원 ×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4,836원 ×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	4,693원 × 지부(납부) 조합비	4,836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 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해야 함		

1.경주지부 13기 2년 예산(안)

1) 일반회계 수입

과목			목 번	내역	예산(단위, 원)
관	항	목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1	교부금 1인 4,693원 × 4,564명 × 7월 = 149,931,964 교부금 1인 4,836원 × 4,564명 × 5월 = 110,357,520 (조합원 수는 2024년 1월 10일 기준) 8월부터 물가상승 3.1%적용	260,289,484
기타 수입	기타 수입	기타 수입	2	예금이자	20,000
합계					260,309,484

2) 일반회계 지출

과 목			목 번	내역	25년 예산안	목별 지출 율 %	24년 예산	24년 집행 율
관	항	목						
운 영 비	유 지 비	사무실관리 비	1	정수기 렌탈료 30,000 × 12월 = 360,000	360,000	0.1%	360,000	100%
		신문도서비	2	주간지 1년 225,000 × 2(경향, 한겨레) = 450,000 기타 도서구입비 = 150,000	600,000	0.2%	600,000	75%
		소모품비	3	프린터 토너 등 100,000 × 6회 = 600,000 A4복사용지 22,000 × 10박스 × 12월 = 2,640,000 기타 소모품비 = 500,000	3,740,000	1.4%	3,740,000	74%
		통신비	4	뿌리오(SMS) 100,000 × 2회 = 200,000 (748-3223, 773-9481, 773-9270(FAX)) 전화 인터넷 요금 100,000 × 12월 = 1,200,000 우편 발송료 10,000 × 12월 = 120,000 엔파스 월 44,000 × 12월 = 528,000	2,048,000	0.8%	2,520,000	38%
		인쇄비	5	복사기 임대료 180,000 × 12월 = 2,160,000	2,160,000	0.8%	2,160,000	100%
		기타유지비	6	커피 및 음료 200,000 × 12월 = 2,400,000 문구류 및 각종 비품구입 등 100,000 × 12월 = 1,200,000	3,600,000	1.4%	3,600,000	87%
		방송차 유지비	7	유류비 100,000 × 4회 × 12월 = 4,800,000	12,100,000	4.6%	13,890,000	62%

				엔진오일 200,000 × 8회 = 1,600,000 세금(자동차세, 환경분담금) 2대 = 700,000 보험료 = 1,500,000 기타유지비 = 3,500,000				
	복리후생비	8		식대 11,000 × 22일 × 15명 × 12월 = 43,560,000	43,560,000	16.7%	41,440,000	99%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9		지부장 30만 + 수석부지부장 25만 + 부지부장(2명), 사무국장 각20만(115만) × 12월 = 13,800,000 상집부장(150,000 × 12명 = 1,800,000원) × 12월 = 21,600,000 타지역 직무활동비 60,000 × 5명 × 12 = 3,600,000	39,000,000	15%	34,318,448	99%
운영비 합계					107,168,000	41.2%	102,628,448	91%

관	과 목		목 번	내역	25년 예산안	목별 지출율	24년 예산	24년 집행율
	항	목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0	신분보장회의 120,000 × 6회 = 720,000 징계위원회회의 120,000 × 8회 = 960,000 단협위원회의 120,000 × 8회 = 960,000 조직부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문화담당자회의 120,000 × 8회 = 960,000 교육위원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선전부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노안부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미조직위원회 120,000 × 10회 = 1,200,000 여성위원회의 120,000 × 8회 = 960,000 감사위원회회의 120,000 × 6회 = 720,000 기타 회의 120,000 × 55회 = 6,600,000	17,880,000	6.9%	17,980,000	92%
	회의비	대의원대회	11	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기타 = 7,000,000	7,000,000	2.7%	7,000,000	86%
		운영위원회	12	운영위 990,000 × 4회 = 3,960,000	3,960,000	1.5%	3,600,000	51%
		집행위원회	13	집행위 374,000 × 6회 = 2,244,000	2,244,000	0.8%	1,920,000	97%
		감사위원회	14	운영비 50,000 × 20일 × 4분기 = 4,000,000 지부 감사위원회의 22,000 × 30명 × 4회 = 2,640,000 감사위원 수련회 66,000 × 30명 = 1,980,000	8,620,000	3.3%	8,200,000	99%
		선관위원회	15	회의 22,000 × 5명 × 20일 = 2,200,000 회의 및 투표용지 제작 600,000 × 2회 = 1,200,000	3,400,000	1.3%	2,200,000	70%
		정치위원회	16	회의 11,000 × 20명 × 5회 = 1,100,000	1,100,000	0.4%		%

사업비	수련회비	간부수련회	17	<p>집행위 수련회 66,000 × 17명 × 2회 = 2,244,000</p> <p>운영위 수련회 66,000 × 45명 × 1회 = 2,970,000</p> <p>자료집, 장소 대여, 기타 200,000 × 3회 = 600,000</p>	5,814,000	2.2%	5,220,000	52%
	부서사업비	여성사업비	18	<p>여성위원회 회의 11,000 × 12명 × 6회 = 792,000</p> <p>여성위원회 회의 22,000 × 12명 × 1회 = 264,000</p> <p>여성위원회 수련회 66,000 × 13명 × 1회 = 858,000</p> <p>여성간부 수련회 66,000 × 30명 × 1회 = 1,980,000</p> <p>장소대여, 강사비 = 1,000,000</p> <p>사건상담 및 조사, 간담회, 홍보 = 300,000</p>	5,244,000	2%	3,300,000	75%
		총무사업비	19	<p>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 11,000 × 25명 × 3회 = 825,000</p> <p>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 22,000 × 25명 × 3회 = 1,650,000</p> <p>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수련회 66,000 × 25명 × 2회 = 3,300,000</p> <p>지회지원, 간담회, 장소대여, 교육 = 654,000</p>	6,429,000	2.5%	7,000,000	69%
		미조직사업비	20	<p>미조직 회의 11,000 × 21명 × 3회 = 693,000</p> <p>미조직 회의 22,000 × 21명 × 3회 = 1,386,000</p> <p>미조직 수련회 66,000 × 21명 × 2회 = 2,772,000</p> <p>강의실, 강사료, 현수막 = 500,000</p> <p>이주노동자사업 (통역사업비) = 1,000,000</p> <p>조직화 상담 및 간담회 = 500,000</p> <p>신규조직진단 (신규조합원 간담회 및 지회지원) = 1,500,000</p>	8,351,000	3.2%	10,800,000	99%
		선전사업비	21	<p>선전부 회의 11,000 × 18명 × 6회 = 1,188,000</p> <p>선전부 수련회 66,000 × 18명 × 2회 = 2,376,000</p> <p>강사료 및 장소대여 = 1,200,000</p> <p>교육 11,000 × 18명 × 3회 = 594,000</p> <p>강사비 400,000 × 2회 = 800,000</p> <p>선전물 제작용 프로그램 (대자보 및 선전홍보물, 선전물 프로그램 구입비) = 2,000,000</p>	8,158,000	3.1%	6,300,000	85%

	노안사업비	22	노안부 회의 11,000 × 35명 × 3회 = 1,155,000 노안부 회의 22,000 × 35명 × 3회 = 2,310,000 노안부 수련회 66,000 × 35명 × 2회 = 4,620,000 노안위사업비(장소대여, 강사비, 선전홍보비 등) = 1,000,000	9,085,000	3.5%	9,500,000	84%	
	정책/조통 사업비	23	정책/조통/법규 회의비 11,000 × 31명 × 3회 = 1,023,000 정책/조통/법규 회의비 22,000 × 31명 × 3회 = 2,046,000 정책/조통/법규 수련회 66,000 × 31명 × 2회 = 4,092,000 강사비, 회의실 = 500,000 경영분석(대각선 복수노조사업장 경영분석비용 지원, 각종 사업비) = 2,000,000	9,661,000	3.7%	9,060,000	79%	
	교육사업비	24	교육 위원회 회의 11,000 × 18명 × 3회 = 594,000 교육 위원회 회의 22,000 × 18명 × 3회 = 1,188,000 교육위 수련회 66,000 × 18명 × 2회 = 2,376,000 강사비 300,000 × 1회 = 300,000 강의실, 비품 300,000 × 2회 = 600,000 조합원 교육, 간부교육 22,000 × 20명 × 4회 = 1,760,000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22,000 × 10명 × 4회 = 880,000	7,698,000	3%	7,320,000	81%	
	조직사업비	25	조직부 회의(조직 진단 포함) 11,000 × 50명 × 3회 = 1,650,000 조직부 회의(조직 진단 포함) 22,000 × 50명 × 3회 = 3,300,000 조직담당자 수련회 66,000 × 50명 × 2회 = 6,600,000 조직 사업비(간담회, 집회행사, 자료, 장소대여 등) = 25,000,000 조직담당자 교육(외부강사 초빙) 500,000	37,050,000	14%	28,900,000	100%	
	조강위 사업비	26	조강위 회의비 22,000원 × 15명 × 2회 = 660,000 조강위 확대임원 수련회 66,000 × 30명 × 1회 = 1,980,000	2,640,000	1%	3,520,000	74%	
연대 사업비	대외협력비	27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 금속지부 및 지회 = 4,000,000	4,000,000	1.5%	4,000,000	76%	
사업비 합계				148,334,000	57%	135,820,000	87%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7	예비비	4,807,484	1.8%	100,000	100%
합 계				260,309,484	100%	238,548,448	89%	

3) 투쟁기금 수입

과목			목번	내역	25년 예산	비고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1년 이월금 60,222,213 13기 1년 일반회계 이월금 34,209,213 13기 1년 사업지원금 이월금 160 13기 1년 복수노조사업비 이월금 2,110	94,433,696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2	예금이자 등 수입	20,000	
합계					94,453,696	

4) 투쟁기금 지출

과목			목번	내역	25년 예산
관	항	목			
집회비	집회비	집회비	1	집회 및 행사의 부대/물품 비용 및 등에 사용	
쟁의비	쟁의비	쟁의비	2	선전홍보, 각종 자료집 등 제작, 조합원 및 간부역량 강화 비용 등 부상자 치료 및 법률구조비 등 필요한 사항에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조직배가 사업장 조직강화 지원 조합원 참여 행사 지원 조합원 단결력 강화 사업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합계					

지역공동사업비 편성 및 산정방식

- 1) 202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6,500원으로 산정함.
지역지부 전체 조합원은 96,600명임.
- 2) 1개월 전체 지역공동사업비는 $96,600\text{명} \times 26,500\text{원} \times 0.01 = 25,599,000\text{원}$ 임.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공동교부금이 지원됨. 최저공동교부금은 전체 지역공동사업비의 6.0% 정도임. 6.0%를 제외한 금액인 24,063,060원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50원**이 나옴. (원단위 미만 올림)
- 3)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 수>이 됨.
- 4) 같은 방식으로 2025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는 **257원**임.(원단위 미만 올림)
- 5) 아래는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임

금액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
50만원 미만	100만 원 지급	구미
150만원 미만	50만 원 지급	경주, 대구, 부산양산, 포항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25년 1월~2025년 7월 (월 수입)	2025년 8월~2025년 12월 (월 수입)
최저공동사업비 ○	최저공동사업비+(250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257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 ×	250원 × 지부(납부) 조합비	257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해야 함.		

5) 지역공동사업비 수입

관	과목		목번	내역	25년 예산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1년 이월금 55,482,760	55,482,760
교부금	교부금	최저교부금	2	최저공동사업비 500,000원 × 12월 = 6,000,000	6,000,000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3	교부금 1인 250원 × 4,564명 × 7월 = 7,987,000 교부금 1인 257원 × 4,564명 × 5월 = 5,864,740	13,851,740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4	예금이자 등 수입	20,000
합계					75,354,500

6) 지역공동사업비 지출 관항목

과목			목번	내역
관	항	목		
공동사업비지출	공동사업비지출	공동사업비지출	1	지역 공동사업, 어울림한마당, 3.8여성의날, 민주노총 경주지부 송년회 등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7) 특수목적기금 수입

과목			목번	내역	25년 예산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1년차 이월금 666,717,143	666,717,143
결의금	결의금	결의금	2	경주지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의 조합원 결의금 1인 7,500원 × 4,158명 × 12월 = 374,220,000	374,22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3	정기적금이자 17,360,738 예금이자 39,262	17,400,000
합계					1,058,337,143
					3

8) 특수목적기금 지출 관항목

과목			목번	내역
관	항	목		
임금	임금	임금	1	지부 특별결의금 세칙에 의거한 임금지급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2	경주지부 간부교육 및 수련회를 위한 비용 결의 후 지출 타지부 소속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육 등 지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9) 미조직지원금 수입

과목			목번	내역	25년 예산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3기 1년차 이월금 6,240,374	6,240,374
조합 지원금	조합 지원금	조합 지원금	2	조합에서 13기 2년 지원금액 확정 후 지급됨	10,000,000
				- 미조직 조직화 사업지원금 -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강화 사업지원 - 미조직 인건비 지원	36,000,000
산별기금 교부금	산별기금 교부금	산별기금 교부금	3	지부 미조직기금 배분 - 산별기금 (3만원 중 1만원)	0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4	예금이자 등 수입	10,000
합계					52,250,374

10) 미조직지원금 지출 관항목

과목			목번	내역
관	항	목		
미조직 사업	미조직 사업	미조직 사업	1	미조직 노동자의 전략적인 조직사업을 하는데 사용 신규사업장의 투쟁 물품 지원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 사용

안건 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경주시부 특별회계 - 투쟁기금 사용 현황

	사용목적	금액	집행일	승인 운영위 차수
1	경주시부 13기 사무식 경비	1,078,500	2024/01/04	12기 73차 운영위 승인
2	컴퓨터 2세트 구입 & 업그레이드 비용	1,650,000	2024/01/09	13기 1차 운영위 승인
3	대의원 선거 투표 용지 제작	760,000	2024/02/02	13기 2차 운영위 승인
4	13기 1년차 신입간부 교육	5,184,720	2024/02/19	13기 2차 운영위 승인
5	경주시부 선전부 영상촬영 및 편집 장비 구입	1,830,000	2024/02/21	13기 6차 운영위 승인
6	경주시부 카니발 구매 비용	46,017,430	2024/03/25	13기 4차 운영위 승인
7	3월31일 여성의 날 기념 여성조합원 단합대회	8,552,420	2024/04/01	13기 6차 운영위 승인
8	조직 배가사업비 지원(플라스틱 옴니엄,코레스,아진카인텍,KBI동국,광명산업,인지컨터롤스,청우)	7,000,000	2024/04/06	13기 12차 운영위 승인
9	교섭위원 템플러 구입	1,598,240	2024/04/22.30	13기 15차 운영위 승인
10	4/4일 구미옵티칼 경북본부 결의대회 버스비용	2,250,000	2024/04/23	13기 15차 운영위 승인
11	노동절 조직화 홍보 물품 제작	1,604,500	2024/04/23	13기 13차 운영위 승인
12	경주시부 교섭위원 교육 강사료 4회	1,500,000	2024/05/02.09. 16.23	13기 10차 운영위 승인
13	조합원 참여사업(스포츠 당구대회 결산)	1,968,040	2024/05/13	13기 8차 운영위 승인
14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9명	1,800,000	2024/05/16	13기 17차 운영위 승인
15	역사기행 여순항쟁	11,508,550	2024/05/27	13기 14차 운영위 승인
16	조합원 참여사업(e스포츠 스타 대회 결산)	1,812,260	2024/06/04	13기 8차 운영위 승인
17	조합원 참여사업(스크린 골프 대회 결산)	3,678,240	2024/06/17	13기 8차 운영위 승인

18	금속노조 1차 총파업 결의대회 경주/포항	7,000,000	2024/07/16	13기 23차 운영위 승인
19	엠에스정밀지회 도시락 간담회 및 총회 지부 중식 간담회, 2회	1,400,000	07/22. 08/14	13기 24차 운영위 승인
20	선임 선전부장 PC구입 비용	1,000,000	2024/09/11	13기 31차 운영위 승인
21	선전부 카메라 구입 비용	1,960,000	2024/09/24	13기 32차 운영위 승인
22	11/09일 전노대 조직 홍보 물품(물티슈)5,000EA	1,765,500	2024/10/08	13기 34차 운영위 승인
23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농성장 설치 비용	800,000	2024/10/22	13기 35차 운영위 승인
24	조함원 참여사업 사회 연대단 봉사 활동	823,200	2024/10/30	13기 12차 운영위 승인
25	엠에스정밀지회 투쟁 농성장 발전기 유류비	608,200	11/05, 12/02	13기 23차 운영위 승인
26	조함원 참여사업 사회 연대단 봉사 활동	248,000	11/25, 12/30	13기 12차 운영위 승인
27	윤석열퇴진 경주지부 결의대회	1,301,000	2024/12/10	13기 43차 운영위 승인
28	윤석열퇴진 경주시민 촛불집회 커피 트럭 비용	700,000	2024/12/30	13기 34차 운영위 승인
29	2025년 시무식	827,000	2024/01/06	13기 44차 운영위 승인
30	옵티칼 투쟁 희망텐트	1,423,400	2024/01/10~11	13기 47차 운영위 승인
31	경주지부 신임간부 교육	6,169,400	2024/02/11~12	13기 45차 운영위 승인

안건 7. 경주지부 2025년 교섭위원 확정 건

의결주문

교섭위원을 확정해
주십시오.

※ 교섭위원 명단은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안건 8.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의결주문

금속노조 13기 2년차
중앙위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1. 조합 규정

[관련규정] 금속노조 규약 제27조 (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 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4.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13기 2년차 조합 중앙위원 배정

지부	조합원수	선출직 중앙위원수	여성 할당	비정규 할당	일반
경기	10,829	5	1	0	4
경남	17,392	8	1	0	7
경주	4,635	2	0	0	2
광주전남	10,801	5	1	0	4
구미	1,443	1	0	0	1
대구	2,995	1	0	0	1
대전충북	5,899	2	0	0	2
부산양산	1,820	1	0	0	1
서울	6,351	3	0	0	3
울산	8,189	4	0	0	4
인천	4,771	2	0	0	2
전북	2,442	1	0	0	1
충남	14,987	7	1	0	6
포항	3,577	1	0	0	1
기아자동차	26,802	13	1	1	11
한국지엠	7,126	3	0	0	3
현대자동차	43,895	21	2	1	18
현대중공업	7,587	3	0	0	3
만도	44	1	0	0	1
쌍용자동차	16	1	0	0	1
미편 제	현대차비정규직	523	0	0	0
	기아차비정규직	482	0	0	0
	신일정밀	75	0	0	0
	삼표	18	0	0	0
합계	182,699	85	7	2	76

- ※ 배정 기준 조합원 수는 2023년 9~11월 조합비 납부 인원 최대값으로 함
- ※ 규정상 할당 비율(여성 10%, 비정규 5%)을 반영한 수치 소수점을 반올림해 배정(기존 관례).
- ※ 당연직 조합 대의원(지부장)은 위 표의 배정 인원내 포함되지 않음

3. 금속노조 중앙위원 경주지부 배정 2명 추천

1) 금속노조 13기 2년차 경주지부 중앙위원으로 명성공업지회 우정완 지회장, 인지컨트롤스지회 최용복 지회장 두 명을 추천함.

※ 지부 13기 1년차 중앙위원 추천

소속	직책	이름
우명산업지회	지회장	박진호
엠에스지회	지회장	박지웅

안건 9.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및 파견 중앙위원 선출 건

의결주문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과
파견 중앙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1.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 기준

단위	인원	비고
중집	39명	
지부 배정(일반)	250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55명	미전환사업장 여성할당 3명 포함
비정규할당	18명	해당위원회 위임
미전환사업장	0명	
합계	362명	

- 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기준은 500명당 1명이며 민주노총 의무금납부 조합원(2024년 1월 12일 ~ 2025년 1월 11일 평균) 180,959명(미전환사업장 포함)으로,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은 총 362명임. 민주노총이 금속노조에 설정하는 여성할당 비율(15%)을 기준으로 여성할당 대의원은 55명. 후보 대의원은 20%인 73명임.
- 2) 이 중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기준으로 미전환사업장 조합원 수는 272명(풍기산업 110 / 수산중공업 80 / 삼미금속 82)이므로 대의원은 배정하지 않음.
- 3) 362명은 지부(직할지회 포함) 조합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
 - ① 여성할당 55명은 지부별 여성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지부별로 여성조합원 수를 특정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55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229)
 - ② 비정규할당 18명(전체 5%이상)은 간접고용 비정규위원회로 위임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 39명을 배정한다.(조합 임원 10명 + 지부장 20명 + 부서장 9명)
 - ④ 나머지 250명은 지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지부별로 조합원 수를 특정 값으로 나눈 뒤 반올림. 특정 값은 결과 값의 총합이 250명이 되도록 맞추는 방식. 특정값=725)
 - ⑤ 후보대의원 73명은 지부별 1인씩 총 20명을 지부 이름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53명은 지부 인원수에 비례해 배정하되 지부 이름 가나다 순서로 돌아가며 순번을 매긴다.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지부별 배정 기준

- 지부별 조합원 수는 13기 2년차 금속노조 대의원 배정 기준 조합원 수(2024.1월)

지부명	조합원수	전체 배정	대의원 구분			
			일반	여성 조합원수	여성 할당	
경기	10,951	21	14	1,550	7	
경남	17,331	27	24	500	3	
경주	4,566	8	6	534	2	
광주전남	10,450	18	15	672	3	
구미	1,493	3	2	334	1	
대구	2,964	7	5	376	2	
대전충북	5,739	10	8	470	2	
부산양산	1,855	4	3	237	1	
서울	6,334	15	8	1,520	7	
울산	8,122	16	11	1,142	5	
인천	5,451	8	7	333	1	
전북	2,426	4	3	205	1	
충남	15,032	23	19	1,020	4	
포항	3,592	5	5	14	0	
기아차	26,853	42	38	874	4	
한국지엠	7,062	11	10	180	1	
현대자동차	39,662	69	60	2,424	9	
현대중공업	7,809	11	10	245	1	
만도	44					
쌍용자동차	21					
미편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573	1	1	35	
	기아차 화성비정규직	736	2	1	246	1
	신일정밀	76				
	삼표	18				
합계	179,160	305	250	12,911	55	

2.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금속노조 선출 기준

※ 2025년 민주노총 중앙위원 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에 따른 조정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함

단위	인원	비고
노조 임원	10명	일반 9명, 여성 1명 배정
지부 배정(일반)	37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9명	지부배정 할당
비정규할당	3명	해당위원회 위임
합계	59명	

○ 지부별 배정

13기 2년차 금속노조 대의원 배정 기준 조합원 수(2024.10월)에 따라 중앙위원 배정

지부	일반	여성할당	총수
경기지부	2	1	3
경남지부	2	1	3
경주지부	1	1	2
구미지부	0	0	0
기아차지부	6	1	7
광주전남지부	2	1	3
대구지부	1	0	1
대전충북지부	1	0	1
부산양산지부	0	0	0
서울지부	1	1	2
울산지부	2	1	3
인천지부	1	0	1
전북지부	0	0	0
충남지부	3	0	3
포항지부	1	0	1
한국지엠지부	2	0	2
현대자동차지부	10	2	12
현대중공업지부	2	0	2
합	37	9	46

3. 경주지부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건

☞ 회의 결과 :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추천함.
(2025년 1월 20일, 4차 투쟁본부(48차 운영위))

13기 2년 차	일반배정(6명)		비고 후보 대의원 이중희 부지부장 우정식 부지부장
	디에스시지회	최강민 지회장	
	리어코리아지회	전동훈 지회장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김영선 지회장	
	플라스틱옵니엄지회	양명덕 지회장	
	에코플라스틱지회	김만조 지회장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환철 지회장	
	여성 할당(2명)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보고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보고	

4. 경주지부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건

☞ 아래 동지를 추천함.

구분	소속	직책	이름
일반 할당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여성 할당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선전부장	조혜정

안건 10. 경주시부 운영 규정 개정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지부임원 동반출마(부지부장1명 포함) 선출 개정(안)

1. 지부 임원 확대 검토 필요성

- 경주지부는 그동안 지부-지회가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단결력과 집행력을 강화해 왔음.
- 지부 규정은 2001년 3월 23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8개지회, 조합원수는 1,600명의 운영을 전제로 제정되었음. 이후 10차례 개정되었으나 임원 정족수에 대한 개정은 논의된 바 없었음.
- 2024년 현재 30개 지회 4,600여명으로 확대된 지부 규모에 따라 지부 임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경주지부는 대각선교섭 사업장 교섭에도 지부 임원이 결합하는 상황으로 임원 역할이 더 가중되고 있음.

2. 집행력 강화를 위한 방식의 선출 필요

- 현재 민주노총 내 모든 선거에서 ‘기호순 당선’의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음. 때문에 노조에서도 혁신안으로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 중임.
- 임원(부지부장) 확대 시 양적 확대에만 귀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는 임원 정족수 확대와 선거제도의 개선, 조합원 임원 선출 선택권 강화를 위함.
- 이에 근거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동반 출마”를 검토해야 함.

<관련 규정> 지부 규정 제29조 (선출) (금속노조 152차 중앙위(2025.2.10.) 개정)

지부 임원 중 지부장-수석 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출마하고,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부지부장 선출 방안(지-수-사와 동반, 지-수-사와 부분동반, 개별 등)은 지부 운영 규칙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지부 규정 개정 안

- 방식 : 부지부장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되 추가 1명은 지-수-부-사 동반 출마

- 개정 안 :

지부 규정 제 32조 (선출)

현행 안	개정 안
<p>제 32 조 (선출)</p> <p>1. 지부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 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p>	<p>제 32 조 (선출)</p> <p>1. 지부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지부장-수석부지부장-<u>부지부장</u>-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u>부지부장 2명</u>은 개별 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p>

안건 11. 결의문 채택 건

의결주문

제출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결 의 문

박정희 유신독재가 청산되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전두환 군부독재가 광주의 민중들을 학살하고 등장했다.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민중들의 투쟁은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졌다. 광주항쟁 45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전국적 비상계엄이 발동되었다. 군인들의 군화발과 독재의 망령에 짓밟힐 수 없다는 국민들은 저항했고 계엄은 해제되었다. 불안한 밤을 보내고 안도하며 아침을 맞았지만 내란세력들은 움켜잡은 권력과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우리도 인간이다”를 외치며 조직을 결성하고 투쟁했다. 민주주의 없이 노동자 계급투쟁을 상상하기 어렵다. 민주노조가 불법 조직이 되고, 노동자의 요구가 무능한 자들의 떼쓰미 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 앞에 만민평등을 내세워 ‘엄벌 대상’이 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임금은 사업주가 주는 대로 받고, 12시간 주야 맞교대와 극심한 노동강도로 모든 관절이 통통 붓고, 다치고 아픈 것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공상 처리되고, 현장의 모든 불합리를 어용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묵인·방조하며 사측과 한패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권력자들의 장기 판 놀이 아니다.

십 수년을 요구했던 “누구나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금지”는 어느 진영이 여당이 되었던 외면받았고, 정권교체기마다 중도층을 끌어안는다는 구실로 노동자들의 요구는 적대시되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종북세력, 폭력세력으로 규정하고 혐오와 적결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희생양으로 삼았다. 노동자 탄압 강도에 따라 저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비극적 상황이 반복되었다.

우리는 투쟁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투쟁만이 살 길 이다.

윤석열 계엄 포고령 1호는 ‘집회, 시위,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계엄과 독재의 칼날이 우리 심장을 겨누는 것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지난 40년간 되찾아 온 권리를 언제든 모두 잃어버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

2025년 우리는 광주에서 항쟁했던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한 선배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강화·발전시킬 것이다. 모든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투쟁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때 보다 비장하게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자본을 비호하는 모든 정치 권력에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대항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의 조직, 나의 조직이 결정한 모든 투쟁에 주저하지 않고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25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13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안전 12. 기타 건

금속노조 회의규정

회의 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0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각 회의의 민주적, 집단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2조(대의 원칙)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 2 장 회의 소집, 절차, 성립

제3조(소집)

- 회의 소집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규약에 따른다.
 -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임시회의의 소집은 위원장과 해당 회의 성원의 1/3 요청, 혹은 하위 회의 단위의 의결에 의한다.
- 정기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중앙위원회 : 2개월마다 1회 <개정 2008.11.24.>
 - 중앙집행위원회 : 1개월마다 2회
 - 상무집행위원회 : 1주일마다 1회

제4조(공지) 회의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공지의 주체는 위원장이 되고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
2. 각 회의에 대한 공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6.>

	공지 수령인	공지 기간	기타
조합대의원대회	지부	30일	조합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시 대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대회일 7일 전에 통보한다.
중앙위원회	해당 회의 구성원	2주일	임시회의 공지는 최소 48시간 전 / 다음의 경우 직접 구두 공지 가능 : 1) 긴급 상황 2) 위원장의 재량으로
중앙집행위원회		1주일	
상무집행위원회		3일	

제5조(정족수) <개정 2001.12.26.>

	회의 성립요건	정족수 미달 시
조합대의원대회	과반수 대의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4주 내 재소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위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2주 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부 관계없이 성원의 과반수 참석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집행위원의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10일 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역분포 관계없이 과반수 정족수
상무집행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위원장이 재소집.

제6조(출석)

1.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조 3항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리 참석해야 할 경우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6.>
 - ① 지부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부 임원까지
 - ② 지회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회 임원까지
2.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해야 할 경우 회의일 1일 전까지 불참 사유와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의의 불참, 대리참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① 해외 출장 시
 - ② 신체 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 ③ 가족의 사망, 부상 등의 사유
 - ④ 기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4. 회의 불참 시 사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회의에서 판단한다. <신설 2010.04.06.>

제 3 장 의장

제7조(의장)

1.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19.10.07.>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모든 회의는 참석자가 인준한 회의 주재 임원이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를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 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회의 결과 통보) 회의 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료실에 게시한다.

제1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4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수정 2008.02.15.>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 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대회 7일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늦어도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대회일 7일 전에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12.26.>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 동의는 회의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회의순서) 모든 회의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08.02.15.]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본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제16조(회순채택)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순을 정한다.

[본조신설 2008.02.15.]

제17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조 순연 2008.02.15.>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8조(발언의 순서) 의장은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02.15.]

1. 신상에 대한 발언
2. 규칙 발언
3. 의사진행 발언

제19조(동의의 종류) 안건 심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08.02.15.]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 동의
3. 변안 동의
4. 우선 동의

제20조(수정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3. 변안 동의, 의사진행 동의, 우선 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21조(의사진행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동의, 재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의사진행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변안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의결이 끝난 뒤 절차상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경우 또는 중대한 내용의 누락으로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회의 폐회 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변안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변안 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우선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우선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우선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회
 - ② 회순변경 동의 : 회순채택 후 회순을 바꾸거나, 회순에 없는 새로운 안건을 바로 상정하고자 할 때
3. 우선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우선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08.02.15.>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조 순연 2008.02.15.>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2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2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조수정 2008.02.15.>

제2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2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부치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는 후에는 누구든지 안전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조 순연 2008.02.15.>

제30조(표결의 순서) <조 순연 2008.02.15.>

1.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 2023.02.16> <조 순연 2008.02.15.>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 투표
6. 전자투표(ARS투표, 모바일투표 포함)

제33조(산회 후의 절차) [본조신설 2019.10.07.]

1.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산회에 따라 재소집하는 회의가 소집, 공지 등 본래의 회의가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서 새로운 회의로서의 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34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단, 번안 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35조(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제36조(참관인의 규율)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의장이 회의 성원의 동의를 얻어 허락한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6.>

제37조(질서유지)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26.>

제 7 장 온라인 회의 <신설 2023.02.16.>

제38조(온라인회의의 개최)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프라인 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온라인회의의 참가 서명) 온라인회의의 서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참가자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화면저장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참가자의 얼굴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2. 거점별 분산회의의 경우, 각 거점별로 일반 서명부를 사용한다.
3. 온라인 · 오프라인 혼합회의의 경우, 일반 서명부와 화면저장파일을 함께 사용한다.
4. 전자(문자)투표로만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전자(문자)투표 시스템의 투표자 기록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5. 의장의 판단에 따라 참가확인(서명)을 위해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참가자확인(서명)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온라인회의의 재석 확인) 필요시 재석인원의 확인을 위해 별도의 재석확인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온라인회의의 표결) 온라인회의의 표결은 전자(문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투표자를 재석 인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절차) 규약과 본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참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및 절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주지부 운영 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운영규정

2001년 03월 23일 제정
2002년 03월 11일 개정
2003년 08월 21일 개정
2007년 01월 17일 개정
2007년 05월 11일 개정
2007년 12월 05일 개정
2011년 12월 19일 개정
2014년 03월 10일 개정
2016년 03월 07일 개정
2020년 11월 30일 개정
2023년 03월 06일 개정
2024년 03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0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 31조와 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제 02 조 (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라 한다.

제 03 조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경주 지역단위 사무소와 사업장단위 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 04 조 (설치)

경주지부는 지역지부로 한다.

제 05 조 (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2023년 3월 06일 개정)

3.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2 장 조직

제 06 조 (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기획된 지역지부와 기업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2.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07 조 (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제 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제 08 조 (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09 조 (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1절 총회

제 10 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007년 12월 5일 개정)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 대회

제 13 조 (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소집공고)

지부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 16 조 (대의원 배정기준)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배정은 아래와 같다. 단수 적용은 아래 배정 기준 1/2 + 1로 한다. 대의원 선거구 획정은 아래 기준을 토대로 전체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회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조합원수	기준 (최소~최대)	대의원수(선거구)
100명 미만	20명	1명
100~400명	20명~30명	1명
401~1000명	30명~40명	1명
1001명 ~	50명	1명

(2024년 3월 11일 개정)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제 17 조 (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2007년 12월 5일 신설)

제 18 조 (대의원대회 기능)

지부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 19 조 (구성)

지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을 위한 최소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제 20 조 (소집)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 21 조 (기능)

지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2007년 12월 5일 개정)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 22 조 (인선 및 구성)

집행위원은 아래 상근자 파견원칙에 따라 지부장이 임면 제청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임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 규정에 의한다. 단, 아래 지부파견 상근 인원은 지부임원을 포함한다. (2003년 8월 21일 개정)

[지부파견 상근 인원]

전임자 3명~5명 : 1명(2003년 8월 21일 개정)

전임자 6명 이상 : 2명

제 23 조 (소집)

정기회의는 월 2회로하며, 임시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 24 조 (기능)

지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7.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25 조 (부서의 설치)

상집부서는 다음과 같이 설치 할 수 있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1. 조직부 2. 미조직부 3. 교육부 4. 선전부 5. 총무부 6. 정책부 7. 노동안전보건부 8. 조사통계부, 9. 여성부 10. 문화체육부 11. 복지후생부 12. 법규부
13. 기타 신설부서

제5절 감사위원회

제 26 조 (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1인은 여성할당으로 배정한다. (단, 여성할당 미등록시 일반 배정한다. 14기 2026년부터 적용) (2024년 3월 11일 개정)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6. 지부 감사는 분기별 평일 기준 21일 이내로 하며, 4/4분기 감사는 1일을 추가한다. 단, 신규사업장이 늘어날 경우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7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절 지부 위원회 규정

제 28 조 (교육위원회)

1. 지부 교육위원회는 지부교육위원장, 지부교육담당자 및 각 지회 교육부장과 지부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교육위원은 지회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0기부터 적용 한다.)
3. 지회에서 지부교육위원의 추천기준은 사업장 규모, 교육, 예산, 조합 활동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하며 지회는 제반 활동비에 한해 지원 한다.(단, 10기부터 적용 한다.)
4. 지부 교육위원회는 지부의 모든 교육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은 직접 관장한다.
 - 1) 조합 의무교육 상, 하반기 각 각 1회
 - 2) 지부 의무교육 상, 하반기 각 각 1회
 - 3) 지부 신입간부 교육
 - 4) 교섭위원 의무교육
 - 5) 지부간부 의무교육
5. 지부 교육위원은 지부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교육에 강사가 되며 최소 년 1회 이상 해당지회 조합원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9 조 (여성위원회)

1. 지부여성위원회는 지부장의 임면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면한다.
 - 1) 지부여성위원장은 지부장이 제청하고 지부운영위 동의를 거친다.
 - 2) 지부, 지회 여성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3) 현장 여성위원은 지부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명한다. (단, 당연직 포함 지회별 3인 이내)
3. 지부 여성위원회의 재정은 지부, 지회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 5 장 임원

제 30 조 (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2명
4. 사무국장

제 31 조 (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 32 조 (선출)

1. 지부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 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지부 임원은 지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33 조 (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 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4. 수석부지부장 유고 시에는 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직선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지부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지부운영위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5.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제 34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5 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2007년 12월 5일 개정)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6 조 (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제 37 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2007년 12월 5일 개정)

제 38 조 (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기타

제 39 조 (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특별결의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특별결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 40 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41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3월 11일 신설)

경주지부 특별결의금 세칙

2011년 12월 19일(7기 1차 정기대대) 제정
2013년 12월 09일(8기 1차 정기대대) 개정
2018년 12월 03일(10기 3차 임시대대) 개정
2024년 03월 11일(13기 1차 정기대대) 개정

제01조 (목적)

경주지부 운영규정 제39조 재정에 의거한 특별결의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경주지부 운영규정 제39조 재정에 의거한 특별결의금이라 함은 경주지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조합원 1인이 매월 납부하는 7,500원을 말한다.

제03조 (의무)

경주지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의 조합원은 제2조에 의거한 특별결의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04조 (회계)

경주지부 특별회계의 특수목적기금으로 회계를 운영하며, 회계연도 및 회계처리.감사는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제05조 (기금의 사용)

1. 금속노조 조합원이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피선 및 피임, 민주노총 경주지부 지부장에 피선 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 사용하며, 기금의 운영 상황에 맞추어 피선 및 피임의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금속노조 경주지부 간부교육 및 간부수련회
3. 금속노조 경주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득한 사업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

제06조 (피선·피임시의 처우)

1.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에서 피선·피임이 될 경우 에는 사업장의 전임자 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외에는 제7조의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에서 임금 또는 임금 보조적인 활동비를 지급 받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해고 및 투쟁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판정, 노사합의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시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환입하여야 한다.

제07조 (임금기준표)

1. 임금기준표 (2024년 3월 11일 개정)

① 연령에 따른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연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령	금속최저지급 9,970원(243H)	월 통상급여
~ 29	2,422,710	2,422,710
30~34	(1년)호봉 30,000원 적용	2,572,710
35~39		2,722,710
40~44		2,872,710
45~49		3,022,710
50~54		3,172,710
55~60		3,322,710

② 임금기준표는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의 평균 기본급 인상분(호봉승급분 포함)을 매년 1월부터 소급적하며, 경주지부 운영위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③ 상여금은 통상급 기준 65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퇴직금

① 개별조합원 및 소속사업장이 없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퇴직금 산정금액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피선 및 피임기간)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일할(1년, 365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피선 및 피임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하며,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다.

3. 경조비

피선, 피임, 채용 전임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소속사업장이 있는 경우 경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결혼 : 본인 50만원, 자녀 50만원

② 칠순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0만원

③ 팔순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0만원

④ 출산 : 자녀 출산 50만원

⑤ 사망 : 본인 300만원 + 근조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50만원 + 근조환
배우자 및 자녀 50만원 + 근조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50만원

⑥ 지부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종합검진을 2년 1회 실시한다. 비용은 40만원 이내로 한다.

제08조 (공제 등) (2024년 3월 11일 개정)

다음 각 항를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며, 4대보험 사용자분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1. 조합비(통상임금 1%) 및 조합.지부 각종 결의금
2. 근로소득세.주민세
3.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료
4. 기타 본인이 승인한 금액

제09조(연·월차 휴가) (2024년 3월 11일 신설)

개별조합원의 연·월차 지급은 금속노조 사무처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 (기타) 본 세칙의 개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하며, 문구해석과 임금기준표 개정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1조 (시행)

본 세칙은 2024년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금속산별협약

금속산별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산별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산별협약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 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6 조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노사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2017년 9월말까지 최종합의 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7 조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 ①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
- ②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제 8 조 【대의원 활동시간】

조합 대의원(중앙.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 9 조 【중앙위원 활동시간】

조합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 1. 조합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 2. 조합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제 10 조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조합전임】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 중앙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제 13 조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 14 조 【전임자의 처우】

-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제 15 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16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17 조 【조합원 사내활동 보장】

회사는 기존 노사합의 또는 관례적으로 보장해온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및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

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 3 장 노동조건, 임금, 퇴직금

제 18 조 【노동시간】

-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150원과 월 통상임금 2,293,9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1 조 【임금 · 노동시간체계 개선】

-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가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⑤ 연간 실노동시간은 1,800시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단축방안은 사업장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⑥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7년 말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22 조 【통상임금】

- 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제 23 조 【임금차별 해소】

-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 24 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

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5 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회사와 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제 4 장 건강권, 노동안전보건

제 26 조 【일터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 28 조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제 29 조 【산업재해 예방】

-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
 -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0 조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① 조합과 사용자협회의회는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 (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 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1 조 【위험성 평가】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 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

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 조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중지 범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
-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
- 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다.
-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 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 ⑦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선정 및 조치 등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 33 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제2급 및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단,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사업장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다.

㉔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하며, 생활안정 방안의 경우 사내하청에 동일 적용되도록 지원·지도한다.

㉕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2.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 임산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㉖ 회사와 노동조합은 확진자, 격리조치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노사공동 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기관 통보

4.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5.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시 산재 인정 등을 위한 조력

단, 정부가 인정한 격리필요 감염병 휴업·휴직 기간은 휴업수당 이상의 유급으로 한다.

㉗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노사공동 매뉴얼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5 장 고 용 안 정

제 34 조 【해외공장】

㉑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㉒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35 조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협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제 36 조 【별도법인】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7 조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 38 조 【적정인원, 배치전환】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제 39 조 【산업공동화 대책】

①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③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

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제 40 조 【고용안정 등】

- ①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원변동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

제 41 조 【신규채용】

- 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 ②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일자리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와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하되, 여성 퇴직 일자리는 여성으로 신규채용한다. 단, 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 ④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2항부터 제3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합의로 한다.

제 42 조 【정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 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6 장 비정규직·이주노동자 관련

제 43 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 ①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 ④ 회사는 본 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 ①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행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 내에 시행한다. 다만,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회사는 생산에 직접종사하는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지회와 ‘노사공동TF’를 2019년 안에 구성하여 협의하며, 그 외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추후 협의한다.

제 45 조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46 조 【임시직의 정규직화】

-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 47 조 【사내하청·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이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

⑤ 회사는 생산공정(직접 및 간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제 48 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제 49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제50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 ①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단, 취업규칙의 경우 번역본 제공 시기와 순서 등은 노사 간 협의한다.
-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제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정주노동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 51 조 【명예감독관 위촉】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제 7 장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

제 52 조 【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

‘성폭력’ 및 폭언·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업무와 관련된 고객 등)에 의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굴욕감을 가져오거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제 53 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 . 폭언. 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제 54 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㉓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각 3인 이내 노사동수,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2인 이상 포함)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의를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㉔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㉕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㉖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 8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 55 조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제 56 조 【우리 쌀 사용】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제 57 조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④ 회사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제 58 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 9 장 산업전환

제 59 조 【산업전환대응】

- ①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 ④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 ⑤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

제 10 장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제 60 조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 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운영한다.

1.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공동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임금체계 개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1 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

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62 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11 장 노동쟁의

제 63 조 【노동쟁의 원칙】

-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다른 일방은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 64 조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중 노동조합의 회사 내 일상적인 각종 시설 이용에 협조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5조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 ①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징계 및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조합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일터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 ① 회사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아닌 자를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 ② 회사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2 조 【불이행 책임】

-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 ②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사 자율의 원칙과 관행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

노사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발굴해 고용 확대에 이어나가도록 하되,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2024년 10월 29일

2024년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2024. 3. 13 기준

지부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지회/분회)	
경기	계양전기, 대원산업(안산,평택), 대한솔루션(인천, 대구, 충남, 광주 포함), 동양피스톤, 우창정기, 신한발브공업, 에스제이엠	7
경남	대원강업(천안 포함), 일진금속, ZF SACHS KOREA, 피케이밸브, 화천기계, STX엔진	6
경주	금강, 다스(충남 포함), 디에스시(광주 포함), 세진, 에코플라스틱, 우영산업(광주, 천안 포함), 일진베어링, 현대IHL, ITW경주(충남 포함), 명성공업, 엠에스 [엠에스오토텍, 명신산업], 발레오만도, 엠에스정밀	14
광주 전남	위니아덤채	1
대구	대동, 대동금속, 델타캐스트, 동원금속, 삼우정밀, 이래에스트라[에스트라, 이래AMS], 케이비아이메탈, 삼성공업, 한국OSG, AVO카본코리아	11
대전 충북	한국JCC, 한온시스템(경기 포함)	2
부산 양산	비엠금속, 이원정공, 태평양밸브, <u>만에너지솔루션</u>	4
서울	TK엘리베이터코리아(서비스, 충남 포함), 필룩스,	2
울산	덕양산업, 한온시스템사내하청(해솔테크), 세종공업, 서연이화, 한국ITW울산(인천 포함), 한국무브박스(구 한국프랜지)	6
인천	KM&I	1
전북	서연인테크, 롯데에너지미터리얼즈, 타타대우상용차, 명신	4
충남	나스테크, 대한칼소닉, 동희, 세영테크, 세정, 유성기업(영동 포함), 케이비오토텍, 케이엠피, 현대엠시트(경주 포함), 현대산업(경주 포함)	10
포항	삼원강재, 클라리언트코리아	2
계	*86개 지회, 70개 사업장	

경주지부 2024년 집단협약

경주시부 2024년 집단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이하“사용자협의회”)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동조합 교섭권의 보장】

-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내에 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에 응해야 한다. 단, 회사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지부집단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 조 【취업규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 ①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 및 집단교섭 합의서 등)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개별적 동의로 개정하지 않는다.

제 5 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 6 조 【조합 활동 보장】

-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②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재해발생 시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④ 회사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는 자가 출입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 내 출입과 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⑤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 조합 활동 시간】

- ① 회사는 경주지부 차원의 총회시간 연 3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2년에 1시간 추가 인정한다. (2019년 부터 실 총회시간 적용)
- ② 회사는 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2년에 총 3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 ③ 회사는 선출직인 경주지부 감사위원, 경주지부 선관위들의 조합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경주지부 교육위원들의 수련회, 역량강화훈련, 지부정기회의, 교육준비 및 진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경주지부 확대간부에 대해 연간 3일의 유급 교육휴가를 인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분할 교육가능하며 인원, 시기, 방식에 대하여 조합은 교육 시작 15일전에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한다.
- ⑥ 조합활동은 지부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 기 합의된 비전임 간부에 대해 단체 교섭 참석, 사전 사후 회의 참석, 교섭 및 회의 준비, 교섭보고 업무 등 교섭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9 조 【조합 추가전임 인정】

- ①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한 2명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 선정은 조합에 일임한다.
- ② 사용자협의회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을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단, 1명에 한함)

제 10 조 【교통편의 제공】

지부 총회 참석을 위한 조합원의 이동 교통편의를 회사가 제공한다.

제 11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12 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 및 각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업무상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 누설·유출하지 않는다. 단, 조합에 제공하던 자료는 예외로 한다.
- ④ 회사는 개인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대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파일 등을 감시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감사 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 13 조 【일터 괴롭힘 금지】

- ①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② 제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

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 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 ① 조합과 회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 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⑥ 회사는 국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며, 해당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5 조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 ① 사용자협의회는 지역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한다.
- ②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기준표	기준 (종업원 수)	금액
	200명미만	200만원
201명~300명	500만원	
301명~400명	600만원	
401명~500명	700만원	
501명 이상	1,100만원	

- ③ 노사공동운영위를 구성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의 세부안을 매년 12월 말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4 장 인사

제 16 조 【인사원칙】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인사를 함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17 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 ①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력자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채용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동등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③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경우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 19 조 【승진 승급】

승진과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20 조 【정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

제 21 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시 해당자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며,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에 한해 2시간 이내에서 유급을 인정한다.
-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통차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 시 적용한다.)

② 주야간 근무 또는 1,2조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간을 근무로 간주하며,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방위 훈련(1시간)후 주간 또는 1조 정상출근 시 훈련시간을 정상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원거리 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가 유급휴가를 준다.

제 22 조 【휴직자의 처우】

① 회사는 휴직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성과금 및 노사합의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3 조 【공직취임 인정】

회사는 선출직 공직(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당선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취임기간 동안은 계속 근로연수로인정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5 장 고용안정

제 24 조 【고용안정】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시, 반드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실시하며, 사업장 노사협의회 및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직무능력 및 성과평가의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제 25 조 【정년퇴직 관련 신규채용】

① 회사는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 퇴직 발생 전 신규채용을 완료한다.
(단, 노사간 합의로 유예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주노동자】

- ① 회사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노사는 이주노동자의 고충 사항이 발생할 시 상담 할 수 있으며, 고충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 27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회피 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 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인건비 이외 비용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의 합리화,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

로의 전환배치나 사외파견, 순환업무,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3항에서 규정한 고용유지 노력만으로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해고회피 노력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 되어서는 아니되며, 노사가 합의 한 해고 회피방안을 성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정하며,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⑥ 경영상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수당(보상금)은 10년 미만자는 3개월분 이상, 10년 이상자는 5개월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⑦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 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

⑧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 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제 28 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회사는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 회피 노력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퇴직자 연차 유급휴가 특례】

①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이 마지막 근무년도에 1년간 8할이상 출근할 경우 그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입사일 기준 사업장 제외)

제 30 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승계의 의무】

① 회사는 매각,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근속

년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 한다.

②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조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1 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

화 하기 위해 적어도 12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사전합의를 얻어야 하며, 감원이 발생할 시,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전직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㉔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 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고, 직원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분 이상을 지급한다.

제 32 조 【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과건 금지】

㉕ 회사는 사내하청을 확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각 사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㉖ 회사는 신규채용 필요 시 동일직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

㉗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㉘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리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㉙ 회사는 사내하청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노동관계법에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㉚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한다.

㉛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지도 감독한다.

㉜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에게 사내하청노동자와 정규직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감독한다.

㉝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에 이를 추진한다.

제 6 장 임금 및 복지

제 33 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사업장은 각사 보충교섭에 따른다.

②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기본급 적용은 기존 사업장 방식에 따른다.

제 34 조 【수당】

① 회사는 조합원 1인당 월 7,5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비통상 수당이며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부로 한다)

제 35 조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저하 금지】

- ① 회사는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기존의 임금 수준을 저하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제 36 조 【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 ①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 ② 원자재, 연료의 수급 부족, 기계 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 ③ 기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 ④ 천재지변은 노사 쌍방 협의 후 결정한다.

제 37 조 【통근편의】

-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통근버스의 증차 및 감축 운영을 요할 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 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 제공한다.

제 38 조 【급식】

- ① 회사는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물가 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 39 조 【근무복 등】

-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을 무상 지급한다.
- ②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은 양질의 제품을 노사협의하여 제공한다.

제 40 조 【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 서클 활동을 지원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 41 조 【노동시간】

-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 ③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간을 말한다.
-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 42 조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주 5일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제 43 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실 노동시간 단축】

- ①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 변경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간연속 2교대제는 총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 적정 노동 강도 유지의 원칙 아래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과 노동시간 제한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다.
- ④ 교대제 변경이 될 경우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월급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시기는 완성차(현대, 기아차 등)시행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만,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행 시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 44 조 【유급휴일】

- ① 노동절, 노조창립일, 회사창립일이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 일요일과 중복될 시 직전 또는 직후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② 조합 창립기념일 2월8일이 설 휴무와 중복될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45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고용에 있어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

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 46 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 기회, 면접, 고용 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 47 조 【임금】

① 회사는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임금 외에 복지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 48 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49 조 【배치】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 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승진, 승급】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승진 승급 시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1 조 【정년·퇴직】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 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 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제 52 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 ①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강사 선정 시 조합 추천인도 포함 적극 검토 후 선정하며,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③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 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3, 4, 5, 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⑧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3 조 【야업 금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 54 조 【단독업무 금지】

- ①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유해, 위험작업 수행 노동자의 단독업무를 금지하고 2인 1조로 근무 한다. (본 항의 적용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 ② 단독업무 금지를 위한 추가인력은 신규채용한다.

제 55 조 【연장노동】

-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 외, 야간, 휴일 노동을 시킬 수 없다.
-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제 56 조 【유사산 보호 휴가】

- ①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의 경우 10일의 유사산 보호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㉔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제 57 조 【배우자 유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사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이면 5일, 16주 이상 28주 미만이면 7일, 28주 이상이면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한다.

제 58 조 【출산휴가】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59 조 【태아정밀조사】

① 해당 조합원이 건강한 출산을 위해 태아정밀조사(양수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시 정액(개인별 10만원)으로 지원하고, 검사를 하기 위한 시간 할애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검사(양수검사)는 임신 시 1회에 한한다.

제 9 장 노동안전보건

제 60 조 【노동안전보건】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 예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 61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를 구성하며, 인원수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 ㉔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㉕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㉖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 ㉗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62 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 ㉑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㉒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㉓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㉔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63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㉑ 회사는 조합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한다.
- ㉒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 ㉓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 ㉔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㉕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 64 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 65 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66 조 【안전보건 교육】

- ①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관련법에 준하여 월 2시간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강사추천 시 분기별 1회 우선 배정한다.
- ②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강사소개서 및 교육 자료는 노사 공유한다.
- ③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 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 ⑤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교육이 관련법에 준하여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 67 조 【안전보호 장구】

- ① 회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
건법 제83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
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 68 조 【작업환경 측정】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25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한다.

제 69 조 【환경측정기구 구입】

① 사용자협의회는 안전보건 점검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부장이 요청할 때 안전보건 점검 및 평가 장비(소음계, 열선풍속계, 조도계, 스모그테스터, 온·습도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조합에서 환경측정기구 사용 시 경주지역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대표회사에 요청하고, 대표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70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29조, 제13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회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명시된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생식독성)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⑤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종합 검진이 여성질환 예방을 위해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 관련 암 검사, 골밀도 조사 등을 추가 항목으로 검진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⑨ 회사는 조합원이 근속 10년 이상 또는 만40세 이상일 경우 2년에 1회 종합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배우자 포함)

⑩회사는 종합검진 시 조합원과 배우자에 대하여 중앙표지자 검사를 추가하여 진행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71 조 【임시건강 진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4.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6. 기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72 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 질병에 이환된 자(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요주의자(C1) 및 유소견자(D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⑧ 회사는 본인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 73 조 【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 배상】

- 회사는 사업장 내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① 발암물질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매 2년마다 (짝수년에) 실시한다.
 - ②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별 1회(1시간) 실시하고,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 ③ 동일 사업장 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한(안전한)제품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 ④ 현재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 등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 ⑤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대책을 강구한다.
- ⑥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74 조 【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한다.

- ①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② 채용 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 ③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 ④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 ⑤ 출퇴근시간에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
- ⑥ 업무상 출장(과견, 국외출장, 외근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교통사고 포함)

제 75 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며, 이 외 보상기준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준한다.)

② 회사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조합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2항에 부합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간병비와 실제 지급된 간병비 차액을 부담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제 76 조 【업무상 재해 시 대체 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4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제 77 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직원이 작업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 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며, 이

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 78 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 ②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 ④ 회사는 산재처리 시 사업주 날인을 포함하여 조력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할 시 ‘사업주의견서’를 공정하게 작성해 제출한다.
- ⑤ 회사는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대표의 날인을 받은 후 노동부에 제출한다.
- ⑥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⑦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 79 조 【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 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 ④ 회사는 중대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 ⑤ 회사는 재해노동자와 합의 및 조합과 협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⑥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 80 조 【동일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 ① 회사는 재해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합으로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 ㉔ 회사는 재해발생 시 조합의 재해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설비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며, 사고의 은폐·허위보고·협조거부 등으로 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관리자를 징계한다.
- ㉕ 회사는 재해발생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 81 조 【작업 중지권】

- ① 직원은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 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제3의 조정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 82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 ①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업데이트)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 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 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개요,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 물질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 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㉔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한다.

제 83 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 ㉕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발생 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9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 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 ㉖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위의 결의로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84 조 【자체검사】

- ㉗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 ㉘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 ㉙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 85 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 ㉚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㉛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 ㉜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㉝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 ㉞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 ㉟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86 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 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병 위험의 요인이 있는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을 변경하여 관리한다.
- ②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보건관리 대행을 통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유소견자를 관리, 지도한다.
- ③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한다.
- ④ ①,②③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87 조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와 부서별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위험요인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의 치료와 산재처리에 관한 사항
 -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위험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③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후 그 결과와 조사 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후 관리를 보장한다.
- ⑤ 노사는 필요 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전문가(의사, 교수,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⑥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1.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 4. 올바른 작업 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 ⑦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위해 담당자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 ⑧ 사용자협의회는 2015년 이후 경주지역 각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담당업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선정한다.

제 88 조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각 사업장 상황에 따른 세부 지진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사업장별 세부 대응 체계, 대응 내용, 점검 및 보수 담당등을 선정하고 추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 마련을 요구한다.)

- ①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에 대응방안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년1회 2시간을 안전 교육시간에 진행한다.
- ② 회사는 사내 전체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노사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제 89 조 【노동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 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협의회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0 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제2급 및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단,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사업장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하며, 생활안정 방안의 경우 사내하청에 동일 적용되도록 지원·지도한다.
- ③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2.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 임산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④ 회사와 노동조합은 확진자, 격리조치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노사공동 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기관 통보
4.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5.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산재 인정 등을 위한 조력

단, 정부가 인정한 격리 필요 감염병 휴업·휴직 기간은 휴업수당 이상의 유급으로 한다.

⑤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노사공동 매뉴얼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2일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91 조 【휴게소 설치】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편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휴게실을 설치한다.

② 사내하청 및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동일 적용한다.

③ 노사는 공동으로 경주 공단 내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지역 지자체에 요구한다.

제 10 장 노사공동위

제 92 조 【비정규직 사용제한】

회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노사공동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93 조 【금속산업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94 조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①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다가 올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

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대응노사공동위원회를 지부 포함 노사 각 6

인에 간사 1명으로 2020년내 구성한다. 단,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를 통해서 결정한다.

② 노사공동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등 노사협의체와 연계 하

여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장 집단교섭

제 95 조 【집단교섭】

집단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제 96 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7 조 【교섭의무】

- ① 사용자협회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6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 98 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조합과 사용자협회 소속 회사의 교섭대표위원은 지부집단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99 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100 조 【자료 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1 조 【합의서 작성】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대표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2 장 노동쟁의

제 102 조 【노동쟁의 원칙】

-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㉔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 103 조 【쟁의 중 신분보장】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 104 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 ㉕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
- ㉖ 회사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제 105 조 【직장폐쇄 남용금지】

회사는 노·사간 자율교섭원칙을 준수하고 직장폐쇄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㉗ 회사는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 ㉘ 직장폐쇄 기간 중 노조사무실, 식당, 휴게실에 대하여는 노조 업무수행을 위한 출입을 허용한다.
- ㉙ 회사는 노조법 제46조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라도 노조가 쟁의행위중단과 노무제공을 위한 현장복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한다.
- ㉚ 노조가 쟁의행위 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했음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통상임금 100%)을 지급한다.
- ㉛ 직장폐쇄와 관련해서 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 106 조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식사를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제 13 장 부칙

제 107 조 【협약의 유효기간】

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0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㉝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108 조 【협약의 적용과 효력】

본 협약에서 체결되는 내용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과 금속노조 산별협약, 사업장 단체협약 중 상회하는 협약에 따른다.)

제 109 조 【협약갱신】

- 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노사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부집단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효력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 시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 110 조 【교섭의무, 불이행 책임】

- 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 ② 회사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하며, 집단교섭에 참여한다.
- ③ 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기 체결된 지부 집단교섭합의서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며, 향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및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024년 10월 31일

**경주지부 2024년
집단교섭 임금인상 합의서**

경주지부 2024년 집단교섭 임금인상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 및 회사는 2024년 집단교섭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강지회와 (주)금강 합의사항

- 시급 : 20원
- 일시금 : 5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경주/아산)와 (주)다스 합의사항

- 시급 : 350원
- 일시금 : 90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디에스지회(경주/광주)와 (주)디에스시 합의사항

- 시급 : 300원
- 성과금 : 720만원 (상품권 50만원 포함)

■ 전국금속노동조합 명성공업지회와 (주)명성공업 합의사항

- 시급 : 100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세진지회와 (주)세진 합의사항

- 시급 : 150원
- 일시금,타결금 : 105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이티더블유경주.아산지회와 (유)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합의사항

- 시급 : 180원
- 일시금 : 10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에코플라스틱지회와 에코플라스틱(주) 합의사항
 - 시급 : 400원
 - 일시급 : 800만원
 - 유급휴일 4일

- 전국금속노동조합 엠에스지회와 (주)엠에스오토시스, 명신산업(주) 합의사항
 - 시급 : 380원
 - 성과급 : 950만원 (보전40HR 유급)

- 전국금속노동조합 우영산업지회(경주/광주/천안)와 우영산업(주) 합의사항
 - 시급 : 150원
 - 일시급 : 22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합의사항
 - 시급 : 400원
 - 성과,타결금 : 80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일진베어링지회와 (주)일진베어링 합의사항
 - 시급 : 400원
 - 타결금 : 1350만원 (상품권20만원)
 - 유급휴일 6일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와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합의사항
 - 시급 : 400원
 - 일시급 : 1320만원 (상품권30만원)

2024년 10월 31일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사용자대표 디에스시(주) 대표이사 조 희 선	경주지부 지부장	정 진 흥
	경주지부 수석부지부장	차 상 호
	경주지부 사무국장	박 진 만
	경주지부 부지부장	우 정 식
	경주지부 부지부장	이 중 회
(주)금강 대표이사 이 주 형	금강 지회장	엄 기 훈
(주)다스 대표이사 조 진 현	다스(경주) 지회장	김 재 흥
	다스(아산) 지회장	김 학 성
(주)디에스시 대표이사 조 희 선	디에스시(경주) 지회장	최 강 민
	디에스시(광주) 지회장	임 도 형
명성공업(주) 대표이사 윤 재 규	명성공업 지회장	우 정 완
(주)세진 대표이사 김 민 규	세진 지회장	안 현 철
(유)ITW오토모티브코리아 대표이사 김 정 훈	아이티더블유(경주) 지회장	김 영 선
	아이티더블유(아산) 지회장	김 성 민
에코플라스틱(주) 대표이사 이 용 철	에코플라스틱 지회장	김 만 조
(주)엠에스오토시스 대표이사	엠에스 지회장	박 지 용
명신산업(주) 대표이사 최 우 철		
우영산업(주) 대표이사 김 유 환	우영산업(경주) 지회장	박 진 호
	우영산업(천안) 지회장	정 광 호
	우영산업(광주) 지회장	장 윤 호
(주)일진베어링 대표이사 하 정 환	일진베어링 지회장	김 희 진
현대아이에이치엘(주) 대표이사 김 상 형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장	이 명 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 대표이사 서 상 해	발레오만도 지회장	신 시 연

**경주지부 13기 2년차
소식지 및 교섭 속보 모음**